국어국문학회

제65회 국어국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모색

- 일시: 2021년 5월 22일(토) 10:00~17:00
-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ZOOM)
- 주최: 국어국문학회

제65회 국어국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모색”

- 일시: 2021년 5월 22일(토) 10:00~17:00
- 장소: 온라인 학술대회(ZOOM)
- 주최: 국어국문학회
- 학술대회 일정표

09:50-10:00	온라인 학회장 등록 및 접수	
10:00-10:10	개회 박일용(국어국문학회 대표이사, 홍익대)	
기조강연		
10:10-10:35	문명의 미래와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방향 발표: 이형대(고려대)	좌장: 황호덕 (성균관대)
10:35-11:00	국어국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트라우마 비유의 재사유 (Beyond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Re-thinking the Trope of Trauma) 발표: 크리스 한스콤(미국 UCLA)	
11:00-11:25	중국 근현대문학의 자발적 타자, 사이노폰 문학 발표: 임춘성(목포대)	
11:25-11:50	국외 연구자가 본 한국어 연구의 미래와 전망 발표: 파베우 키다(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즈대)	
11:50-12:30	종합토론	
12:30-13:30	휴식	
현대문학 분과		
13:30-14:20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의 복원 복권 - 코리아 문화사 연구방법론 발표: 김성수(성균관대) 토론: 유임하(한국체대)	좌장: 노지승 (인천대)
14:20-15:10	포스트디아스포라,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접경:박미하일론 발표: 나소정(단국대) 토론: 오창은(중앙대)	
15:10-16:00	〈기술편집예술〉의 대상과 인식 연구 - 욕망과 아우라의 재매개를 중심으로 발표: 이용욱(전주대) 토론: 이진(한양대)	

고전문학 분과		
13:30-14:20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 연구 방법: 러시아어권을 중심으로 발표: 구리예바 아나스타시아(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토론: 오윤선(한국교원대)	좌장: 조혜란 (이화여대)
14:20-15:10	'글로벌·로컬·디지털'의 융합과 고전문학 연구의 미래 발표: 노경희(울산대) 토론: 차주항(서울대)	
15:10-16:00	세계화시대 한국옛이야기학의 연구방법과 전망 발표: 권혁래(용인대) 토론: 유정월(홍익대)	
국어학 분과		
13:30-14:20	국어 음운론 연구와 언어 유형론 발표: 이진호(서울대) 토론: 이상신(아주대)	좌장: 김현 (서울대)
14:20-15:10	국문법 새로 보기: 정신역학론과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발표: 목정수(서울시립대) 토론: 이정훈(서강대)	
15:10-16:00	국어 형태론 연구와 심리언어학적 실험 발표: 송원용(인천대) 토론: 오규환(동덕여대)	
어문교육 분과		
13:30-14:20	사회 현상으로서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재고와 전망 발표: 강남욱(경인교대) 토론: 오지혜(세명대)	좌장: 옥현진 (이화여대)
14:20-15:10	미래 사회 문학 교육 내용의 통합성과 유연성 증대를 위한 고찰 –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인접 분야' 관련 단원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발표: 민재원(전북대) 토론: 정재림(고려대)	
15:10-16:00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동향에 비춰본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미래 과제 발표: 박성석(춘천교대) 토론: 조진수(전남대)	
16:00-17:00	**총회 및 임원선거 결과 발표**	
폐회		

국어국문학회

제65회 국어국문학회 국제학술대회

【차 례】

▌기조강연

[1] 문명의 미래와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방향

발표: 이형대(고려대) ····· 5

[2] 국어국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트라우마 비유의 재사유
(Beyond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Re-thinking the ㅇ Trope of Trauma)

발표: 크리스 한스콤(미국 UCLA) ····· 15

[3] 중국 근현대문학의 자발적 타자, 사이노폰 문학

발표: 임춘성(목포대) ····· 21

[4] 국외 연구자가 본 한국어 연구의 미래와 전망

발표: 파베우 키다(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즈대) ····· 37

▌현대문학 분과

[1]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의 복원 복권 - 코리아문화사 연구방법론

발표: 김성수(성균관대) ····· 47

토론: 유임하(한국체대) ····· 66

[2] 포스트디아스포라,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접경:박미하일론

발표: 나소정(단국대) ····· 69

토론: 오창은(중앙대) ····· 85

[3] <기술편집예술>의 대상과 인식 연구 - 욕망과 아우라의 재매개를 중심으로

발표: 이용욱(전주대) ····· 87

토론: 이진(한양대) ····· 101

▌고전문학 분과

[1]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 연구 방법: 러시아어권을 중심으로

발표: 구리예바 아나스타시아(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 103

토론: 오윤선(한국교원대) ····· 110

[2] '글로벌 · 로컬 · 디지털'의 융합과 고전문학 연구의 미래

발표: 노경희(울산대) ····· 113

토론: 차주항(서울대) ····· 124

[3] 세계화시대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발표: 권혁래(용인대) ····· 127

토론: 유정월(홍익대) ····· 145

▌국어학 분과

[1] 국어 음운론 연구와 언어 유형론

발표: 이진호(서울대) ····· 147

토론: 이상신(아주대) ····· 152

[2] 국문법 새로 보기: 정신역학론과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발표: 목정수(서울시립대) ····· 153

토론: 이정훈(서강대) ····· 194

[3] 국어 형태론 연구와 심리언어학적 실험

발표: 송원용(인천대) ····· 197

토론: 오규환(동덕여대) ····· 211

▌어문교육 분과

[1] 사회 현상으로서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재고와 전망

발표: 강남욱(경인교대) ····· 213

토론: 오지혜(세명대) ····· 228

[2] 미래 사회 문학 교육 내용의 통합성과 유연성 증대를 위한 고찰
-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인접 분야' 관련 단원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발표: 민재원(전북대) ····· 231

토론: 정재림(고려대) ····· 243

[3]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동향에 비춰본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미래 과제

발표: 박성석(춘천교대) ····· 247

토론: 조진수(전남대) ····· 266

문명의 미래와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방향

이형대(고려대)

1. 하이퍼 사회(Hyper Society)와 불확실한 미래

우리는 이른 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문명의 미래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인가. 격변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인류의 미래 역사를 탐색하고 있는 유발 하라리의 발언에서 그 변화의 정도를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다.

> 만약 누군가가 21세기 중반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린다면 그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누군가가 21세기 중반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거짓이다. 비록 지금으로서는 세부 내용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변한다는 것만큼은 유일하게 확실한 미래의 진실이다.
> 그 변화는 너무나 심대해서 삶의 기본 구조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1)]

21세기 중반이라면 오늘로부터 채 30년도 남지 않았다. 근대과학의 발달과 합리적 이성은 세계에 대한 계산 가능성을 증진시켜 왔고 그에 기반하여 예측 가능성도 높여 왔지만, 이제는 불과 30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추세는 대략 가늠이 되는 바, '초(超, Hyper-)라는 접두어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초가속화(Hyper-Speed), 초지능화(Hyper-Intelligence), 초연결화((Hyper-Connectivity), 초감성화(Hyper-Emotion), 초융합화(Hyper-Fusion), 초고령화(Hyper- Aging)의 추세가 뚜렷하다는 것이다.[2)] 우리의 일상적 감각으로는 따라잡기 어려운 세상이다.

이번 국어국문학회의 기획 주제도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인류역사상 미증유의 기술혁명과 그것이 초래할 불안한 미래를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학적 모색의 일환으로 설정되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적 현실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짚어보는 데서 논의를 출발해 보기로 한다.

첫 번째는 기후 재난, 생태환경의 위기이다. 불과 1주일 전 한국의 몇몇 언론은 아프리카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남부지역 주민 113만 명이 진흙이나 개미를 먹는 등 심각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 때문이라고 한다. 생물다양성이 높고 풍광이 아름다운 천혜의 나라가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먼 나라의 이야기라서 우리에게는 그다지 실감이 나지 않으나 데이비드 웰즈의 기후 재난에 대한 진단과 예측은 섬뜩하게 다가온다. 그에 따르면 지구는 총 다섯 차례의 대멸종 사태를 겪었는데 그 가운데 네 번이 온실가스에 의한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다고 한다. 가장 악명

---

1) 유발 하라리 저, 전병근 역,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김영사, 2018. 393면.
2) 교육학자 김영식은 미래교육을 변화시킬 메가트렌드로 이 여섯 가지를 꼽았다. 김영식 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미래』, 학지사, 2018. 참조.

높은 케이스가 2억 5000만년 전의 대멸종인데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5도 증가시키는 데서 시작되어 메탄 방출의 촉발로 이어지고, 결국 일부 종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죽음에 이르고 나서야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온실가스의 발생을 1차 산업혁명 이후로 소급하지만 실상 대기 중에 배출된 탄소 중 절반 이상은 불과 지난 30년 사이에 방출되었다고 한다. 지구가 자정 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지구환경 시스템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은 결국 우리 세대였던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의 관측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약이 채택된 2016년에 지구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환경학자들이 그어 놓은 한계선, 즉 400ppm을 넘어섰다고 한다. 최근의 한 논문에서는 지구가 2도 뜨거워지는 경우 1.5도 뜨거워졌을 때보다 대기오염으로 사망하는 사람은 약 1억 5000만 명이 늘어난다고 예측한다.[3]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100년에는 4도 정도의 기온 상승이 예상되는 바, 인류의 존속은 장담하기 어렵다. 불과 80년 후의 얘기다.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이주할 만한 또 다른 행성을 찾아낼 수 없다면, 이 심각한 존재론적 위기상황에서 기후 재난의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온 인류가 지혜를 모으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다.

두 번째는 정보기술의 혁명이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 처리 능력의 향상으로 머신 러닝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기술도 최근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인공신경망이나 딥 러닝과 같은 머신 러닝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특화된 인공지능들은 기사 작성, 자율 주행, 법률 서비스나 의학적 진단 등에 동원되면서 이미 우리 생활세계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새로운 물리적 시스템에 활용되면서 로봇 공학 또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활용 영역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는 추세다. 재작년 러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앨리스'라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출마하여 수천 표를 받았으며, 같은 해 도쿄 타마의 시장선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2015년에 도입한 인공지능 '노라'가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경제문제의 전문이론을 습득하여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유권자나 다른 정책입안자와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한다.[4] 국가의 이익보다는 당리당략에, 시민의 권익보다는 자신의 기득권 옹호에 무게를 두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넌더리가 난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어두운 이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은 정보를 학습하고 패턴을 분석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만일 더욱 진화된 고도의 지적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이 출현한다면 인간의 지적 능력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공지능이 자본의 욕망에 포획된다면 대규모의 일자리 상실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부터 핀테크 시장이나 교육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 반복업무나 기술직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유발 하라리가 지적했던 바, 정보기술의 혁명과 더불어 쓸모없는 계급, 즉 무용계급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근래 서비스가 중지된 챗봇 이루다의 사례에서 간취할 수 있듯이 데이터의 불법적 수집과 부정적 반응, 이에 따른 윤리적 문제 등 다양한 숙제를 남겨 놓고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은 '머신 러닝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고 어떻게 의사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5]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은 맥락에 대한 이해

3)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 저, 김재경 역, 『2050 거주 불능의 지구』, 추수밭, 2020. 15-64면.
4) 박영숙·제롬 글렌 저, 『세계미래보고서 2021』, 비즈니스북스, 2020. 222-228면.
5) 클라우스 슈밥 저, 김민주·이엽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메가스터디북스, 2018. 183면.

나 합당한 윤리적 준거, 온전한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아직은 취약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결정 또한 인간 친화적인지는 여전히 검증이 필요하고, 보완해야 할 여지가 많다. 인문학이 개입해야 할 단계인 것이다.

세 번째는 생명공학과 신경기술의 혁명이다. 이 기술들은 인간의 신체적 역량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두뇌-기계 인터페이스의 활용을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과 디지털 지능의 직접적인 결합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제 공상과학소설에서나 꿈꿨던 얘기가 현실에서 실현되고 있으며,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데우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생명공학 기술은 '유전자 배열, 합성, 편집 기법의 발전 덕택에 세포 또는 유기체의 다층적 유전자 변형 기술로 빠르게 발전'하여, 이제는 생명의 설계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다양한 질병이나 노화를 통제할 수 있고, 나아가 생명 연장 또한 가능하게 되었다. 정밀의학은 빅데이터와 결합된 머신 러닝을 활용하여 환자 개인별 맞춤치료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은 농업 분야에서도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식량의 증대는 물론 황금 쌀과 같은 특정한 영양소를 강화한 먹거리도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뇌과학의 발달은 신경기술 혁명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 기술은 뇌 속의 화학 및 전자 신호를 측량, 분석, 독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제어할 뿐만 아니라 뇌의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이 기술은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뇌 활동을 측정할 수 있는 생체 인식 칩이나 나노봇의 투입을 통해 인간이 인체 밖의 광범위한 인터넷망과 접속하여 무한대의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도 있게끔 한다. 2017년초에 사지마비 환자인 로드리고 후브너 멘데스가 자신의 두뇌로 FI 경주를 성공한 첫 번째 드라이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신경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신경 헤드셋 착용과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현실세계의 다양한 대상들을 작동시키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되고 있다.[6)]

이상에서 몇 가지 분야에 한정해서 급격한 기술변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블록체인과 사물인터넷, 3D 컴퓨팅,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격변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4차 산업혁명의 분야들은 적지 않다.

이 기술혁명에 기반한 미래 문명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이 기술혁명에 힘입어 그야말로 모든 인간은 고단한 노동에서 해방되고 세계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인적 존재로 거듭나서 불멸과 행복, 신성을 만끽할 것인가, 아니면 이 기술들을 장악한 소수의 그룹에서 배제되어 자신의 생각과 생체 정보마저 해킹당하며 빅 부라더의 감시체제하에 살아가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것인가. 미래의 문명 또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망하듯이 이 기술혁명의 혜택은 인간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고 미래의 문명은 각자에게 좀더 나은 삶의 실현으로 열려야 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문학의 역할

2018년 10월 독일 튀빙겐대학 인문대학 학장이자 고전라틴어 문학 연구자인 위르겐 레온하르트 교수는 <독일 인문학의 역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고려대에서 초청 강연을 한 바 있

6) 이상의 생명공학과 신경기술의 혁명에 관해서는 클라우스 슈밥 저, 앞의 책 214-235면에서 발췌 인용하였음.

다. 그는 강연에서 독일 인문학의 연구 경향을 소개하면서 그 주요 사례의 하나로 사회과학자와 인문과학자들의 대규모 학제간 연구로서 '위협받는 질서를 연구하고 사회가 위협에 대응' 하는 역사적 선례들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7] 이는 대학의 인문학 연구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현실사회의 위협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역사적 경험을 통한 해결의 전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본다면 기후재난과 기술혁명이 초래할 사회적 위협이나 인간관의 균열은 매우 심대할 수 있는 데 비해 우리의 인문학적 대응은 그다지 기민하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기후 재난으로 인한 제6차 대멸종의 위기 앞에서 인간중심주의적 신념은 얼마나 효력이 있을까. 두뇌-컴퓨터 인터페이스로 사이보그화 된 신인류가 출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주 안의 만물 가운데 인간이 가진 특수성, 또는 인간으로서 주체의 동일성을 어떻게 재규정할 것인가. 다가올 미래 문명 속에서 인간존재의 의미는 무엇이고 인간다운 삶이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정신없이 변해가는 초가속화의 세상에서 인문학의 숙제는 끝없이 쏟아지고 있다. 인간존재만이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가 달라진 상황에서는 새로운 윤리관의 정립도 필요하다. 박이문은 에토스(ethos)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설을 빌어 윤리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는 도덕적 규범이 아니라, 우주 혹은 세계 속에서 인간이 가진 거처 혹은 자리를 뜻'했다고 하면서 윤리적 문제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 문제, 즉 우주 안에서 자기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문제'라고 규정했다.[8] 그렇다면 인간의 지능, 아니 인간보다 더 탁월한 지능을 지니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인공지능에게도 마찬가지의 윤리적 요청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실상 이 발제자는 한국 고전시가 전공자로서 근대 분과학문 체계의 안온한 틀에 안주하며 이러한 문제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런 만큼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할 역량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는 이 지구촌에 발을 얹고 사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사안이기에, 전공 분야를 가로질러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인문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월터 카우프만은 그의 저서『인문학의 미래』에서 인문학의 소임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인문학은 자기 시대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지, 인간에게 무엇이 귀중한 가치인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미래의 대안적인 목적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9] 현재 기술 혁명의 전진 속도로 볼 때, 인류의 미래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압도적으로 높아지고 그 영향력은 실로 파괴적인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초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이 신경기술과 결합하여 자유의지까지 획득하게 된다면, 그리하여 그 인공지능이 인간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른 인공지능이나 기계들과 초연결화 되어 그것들까지 제어할 수 있다면 인간의 정복이나 멸종까지 이를 수 있다는 가설은 공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어떤 의도에서 개발되었건 과학기술을 인간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인간에 달려있었다고 한다. 기술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자들도 인문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인본주의 정신을 잃지 않아야 하며, 인공지능에게도 인간적 가치와 윤리를 발현할 수 있도록 학습시켜

7) 위르겐 레온하르트,「독일 인문학의 역사와 미래」, 고려대 초청강연자료집, 2018, 32면.
8) 박이문,『문명의 미래와 생태학적 세계관』, 당대, 1997. 36면.
9) 월터 카우프만 저, 이은정 역,『인문학의 미래』, 동녘, 2011. 21-22면.

야 한다. 이도흠 교수는 향후 30년 이내의 미래상과 기술의 방향, 지향적 삶의 자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30년이 지나지 않아 인간, 사이보그, 안드로이드가 함께 지구상에 존재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존재가 공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거울신경체계와 의미구성력을 프로그래밍한 것을 AI에 장착하여 AI도 의미를 해석하며 실천하고, 타자, 특히 선하고 약한 인간의 고통에 공감하도록 해야 한다. 인간 또한 안드로이드가 성취할 수 없는 생명성과 인간성, 영성을 성취해야 한다. 인제 인간은 타자와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고통을 내 아픔처럼 공감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실의 모순과 세계의 부조리에 맞서서 저항하면서 무한과 궁극적 실재를 지향하며 동일성에 포섭되지 않는 차이를 생성해야 한다.[10]

우리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지구 위에서 그간 함께 살아왔던 온갖 생명체 이외에도 인간보다 더 지능이 뛰어나고 인간과 유사한 의지와 감정을 가진, 기계라는 존재와 더불어 살게 되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인문학은 이러한 존재들과 평화롭게 상생, 공존을 모색하는 공존의 인문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한국 고전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

이 급변하는 시대와는 거리가 먼, 근대 이전을 살았던 우리 선인들의 사유와 상상력을 담은 한국 고전문학이 병든 지구를 치유하고,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쌍둥이 혁명이 초래할 불안정한 문명의 미래를 좀더 인간다운 삶의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대답은 '그렇다'이거나 '그래야 한다'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는 우선 고전문학 연구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 고전문학연구의 일각에서는 일종의 고고학적 탐색과는 달리 연구 지향이 문제적 현실과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일제 식민치하에서는 (문화)민족주의의 관점에서 고전이 발굴, 재해석되었고, 70년대부터는 내재적 발전론, 근래에는 여성주의 및 소수자, 탈식민주의, 생태주의 등과 연계하여 민족사 전개의 새로운 전망이나 억압적이고 불안한 현실을 넘어서서 더 나은 삶의 공동체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고전연구가 단지 문헌 고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석학적 이해를 수반하기에 가능한 일이다.[11] 고전문학의 해석 작업에서는 작품이 생성된 시대의 컨텍스트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작품에 담긴 당대적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시대의 문제나 고민과의 대화적 소통을 이끌어 내는 것도 긴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전이 지닌 시대적 한계를 인식함과 동시에, 작품에 내재한 보편적 가치, 그리고 우리 시대에 대처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우리의 삶의 양식이 구조적 차원에서 달라질 정도로 격변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전문학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의 고민을 조회하고 시대에 부응하는 해석학적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이제 문명의 미래에 대응하는 한국고전 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기초 자료구축, 텍스트

---

10) 이도흠 저, 『4차 산업혁명과 대안의 사회 1』, 특별한서재, 2020. 366면.
11) 이승환, 「동양의 고전: 동양 고전 이해를 위한 방법론적 서언」, 『고전 강연』, 민음사, 2018. 34-35면.

분석 방법, 해석학적 이해의 방향이라는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기초자료의 구축 부문이다. 고전문학 연구는 문헌 자료를 발굴, 정리, 판독하며, 이본 간의 대조를 통해 계열을 탐색하고 정본을 확정하는 기초자료 연구에서부터 출발한다. 경험이 있는 연구자라면 누구나 수긍할 터이지만,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만만치가 않다. 일례로 1972년에 발간된 심재완 선생의 역저, 『교본 역대시조전서』는 105종의 고시조 수록 문헌을 대상으로 대교본을 만들어 내기까지 꼬박 20년이 걸렸다. 카드를 활용한 수작업의 결과였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12년에 이 책의 증보판이라고 할 수 있는 김흥규 교수 외, 『고시조대전』이 발간되었는데, 316종의 문헌에 수록된 46,431수의 고시조 작품을 대교한 책자이다. 자료를 판독하고 고시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대교본의 생성 자체는 짧은 시일 안에 가능했다. 컴퓨터를 동원한 전자텍스트화와 정보처리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아직은 컴퓨터의 옛글자 처리 문제나 문자인식 기술의 한계로 일정 정도 제약이 있지만, 딥 러닝 기반 문자 인식 알고리즘의 성능이 날로 향상되고 있어 고문헌에 기록된 한자나 옛글자 판독 및 디지털 입력이 자동화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이는 물론 충분한 학습 데이터셋의 확보와 알고리즘의 개선을 전제해야 가능하다. 『고시조 대전』이 발간된 이후로도 100여종에 가까운 고시조 수록 문헌이 새롭게 발굴되었다. 10년쯤 후에 새로운 고시조 대교집이 발간된다면 이는 단시일 내에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패턴을 인식하고 처리하는데 뛰어난 인공지능의 기술은 고전작품의 판독이나 입력을 수월하게 하고 대규모의 양질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기초연구에 투여되어야 할 연구자의 시간과 노력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이본 계열 분석이나 정본화 과정에서 정보처리 기술이 활용된 사례도 이미 보고되고 있다.

고전문학 작품은 고어나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원문의 현대역과 주석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금년초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승정원일기> 번역서비스를 개시했듯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은 번역의 노고를 줄여줄 수 있다. 이전의 통계기반 번역과는 달리 '인공신경망 기계번역에 도입된 딥러닝 기술은 인간의 뇌가 패턴을 인식하는 방식을 모사하여 원문과 번역문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고유 패턴을 찾아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번역 모델을 생성'하기때문에 문맥까지 파악하여 번역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12] 이렇게 산출된 현대역 텍스트가 다시 다국어 자동번역기를 거쳐 인터넷망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열람될 수 있다면, 1827년 괴테가 언급한 세계문학의 시대를 여는 일, 즉 '세계문학을 위한 초국적 운동'은 훨씬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텍스트 분석 방법의 확대 부문이다. 종래의 고전문학 연구가 단일 작품이나 일정한 군집단위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꼼꼼한 읽기'를 통하여 의미를 분석하는데, 집중했다면, 대규모 작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방식은 문학사 변동의 거시적 추이를 드러내는 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 프랑코 모레티가 세계문학의 거대한 지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던 데이터 수집과 정보처리기법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 방식, 즉 '원거리 읽기'는 상당한 논쟁을 야기했다. 그러나 인문학 분야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 인문학 연구에 실증적인 방법론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13] 적용 대상의 범위는 이보다 협소하지만 빅데이터 분석은 한국고

12) 김성문, 「인공지능 시대와 고전문학」, 『문화와 융합』 제40권 6호, 한국문화융합학회, 2018. 143-144면.

전 문학 연구에서도 이미 활용된 바 있다. 고시조 데이터베이스의 통계적, 계량적 분석을 통한 시조사의 지형도를 파악한 연구가 바로 그것이다.[14] 고전문학의 다른 갈래들에 비해 고시조 영역에서는 디지털 텍스트로의 전환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전면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현재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분석기법은 고전문학 연구의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나 적용 대상의 차원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 방면의 선행연구[15]에 힘입어 그 현황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 디지털 언어분석 기술인데, 이는 분석대상 작품들의 언어에 내재한 표상체와 연구자가 기입한 해석체의 출현 빈도 통계나 계통 분석을 컴퓨터 연산에 의해 수행하는 방법으로 판소리 및 고소설의 이본 계열이나 문체론적 고찰에서 적용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이다. 이 기법은 소설 속 등장 인물간의 관계, 작가 시점과 문장 서술 간의 관계, 작품 내 배경 공간 간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소현성록>의 인물간 대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갈등의 비중을 측정하는 연구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한 문학 공간 연구도 고전문학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조선시대 표류노드의 시각망' 연구나 전자문화지도를 활용한 민요 및 산수유기 분포 분석이 대표적이다. 인터넷 기반의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학적 현상을 시각화하는 이 기술은 동 시기 다른 문화적 현상들과 '겹쳐 보기'를 통한 입체적, 융합적 연구를 촉발할 수 있으며, 문학 자원의 문화콘텐츠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소위 디지털 인문학의 영역에 속하는 데이터 정보처리 기술 기반의 고전문학 연구는 아직 시작되는 단계이며, 방법론의 개발과 분석 툴의 확보에 따라 그 활용 영역은 무척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전자텍스트 정보 처리의 결과물은 대개 수치나 그래프로 제시되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미끌어져 나간 맥락이나 의미망은 전통적인 연구방법에 의존하여 보완될 수밖에 없다. 개개의 작품을 의미론적으로 완결된 하나의 소우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못마땅하겠지만 문학 현상의 거시적 추이나 변동을 연구자의 직관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자료의 판독이나 입력, 번역과 주석에 기울여온 공력을 현저하게 줄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정보처리 방법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얻을 수는 없다. 때문에 인문학 연구자와 컴퓨팅 정보처리 공학자들간의 긴밀한 융합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인공지능 정보처리라는 첨단의 과학기술과 문학연구와의 융합적 측면을 지적했다면 종래의 문학연구 방법들 가운데에서도 비중을 늘려야 할 분야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기후 재난이나 기술혁명이 초래할 미래 문명의 부정적 영향은 특정한 집단이나 국가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구라는 우주선에 탑승한 세계시민 모두의 문제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나 민족 이데올로기의 장벽에 갇힌 문학과 문학 연구는 세계를 향해 개방되어야 하며, 인류의 위기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세계문학의 장에서 한국고전에 담긴 선인들의 인간이나 세계 이해의 방식, 미학적 상상력의 특이성은 새롭게 구명되어야 하고, 문제적 현실과 대면하면서 대안의 모색에도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에 참여하면서 각 개별문학들과 함께 차이들의 연대를 통해

13) 김익현, 「뉴미디어 텍스트 읽기에 대한 방법론적 고찰: 프랑코 모레티의 꼼꼼히 읽기와 원거리 읽기 논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0-4, 한국언론학회, 2014. 193-194면.

14) 김흥규・권순회, 『고시조 데이터베이스의 계량적 분석과 시조사의 지형도』, 200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김흥규, 『고시조 내용소의 분포 분석과 시조사적 고찰』, 2006.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5) 김바로・강우규, 「빅데이터와 고전문학 연구방법론」, 『어문론집』 78, 중앙어문학회, 2019, 7-39면.

서 새롭고도 진정한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비교문학적 시야 확대와 방법론적 쇄신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해석학적 이해의 방향 설정이다. 대체로 우리는 좋은 고전작품이라면 오늘의 현실에 응답하고 인류의 미래 문명에 대안적 지혜를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전문학 연구에서 해석학적 이해의 방향은 민족에서 세계로, 찬연한 민족의 자취에서 더 나은 인류의 미래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해석학적 이해의 방향을 인간 삶의 구성요건인 자연, 인간, 사회에 대한 인식이라는 세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첫째, 자연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의 방향이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늘날의 자연 파괴와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근대 과학문명과 전지구적 산업과 과정의 이면에 작동하는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과 인간중심주의의 도구적 자연관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전통의 동양철학에 내재한 생명 중심의 자연관, 생생불식(生生不息)의 유기체적 자연관이 거론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동양사상이 추상적 담론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 환경 윤리 내지는 환경 철학으로 정립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비판이 없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절박한 것은 자연과 인간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것, 자연과 인간의 친화적, 유기적, 호혜적 관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16]

동양의 전통 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한국 고전문학은 이런 점에서 자연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요소가 풍부하다. 일찍이 박희병 교수는 한국의 전통 사유는 '시적(詩的)이자 미학적이며, 협소한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자연, 인간과 만물이 근원적으로 동일한 존재로서 이른바 생생지리(生生之理)에 따라 생명을 율동을 구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고 하였다.[17] 따라서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고전문학의 다양한 문예양식들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 중심의 자연에 대한 인식에서 현재적 의미를 적극 끌어내야 한다. 가능하다면 담론적 수준에서 만이 아니라 작품에 형상화된 감각 체험을 현대인들도 생생하게 추체험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약연비(魚躍鳶飛) 운영천광(雲影天光)'처럼 생명이 약동하는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인간 존재의 기쁨이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감각적으로 인지될 때 우리는 자연의 소중함을 직관적,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인간에 대한 해석학적 이해의 모색이다. 우리 고전문학이 기반하고 있는 유가 사상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천지만물과 한 몸이며 천지만물의 통각 주체'이다. 인간 중심, 자연 중심이 아니라,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교호하는 존재로서의 인간관이다. 뚜웨이밍은 유교의 전통을 자연주의적 영적 휴머니즘으로 재해석하면서 핵심 가치를 인간성에 두었다. 인간성이란 인(仁)에 다름 아니며, 동정이나 공감, 연민, 타자를 나의 일부로 여기는 의식을 뜻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에 기반하여 21세기 인간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먼저 개인은 서로 소통하는 시스템 안에서 개방적이고 다원적이며 변화할 수 있어야 하며, 공동체와는 의미 있는 교류를 하는 한편, 완전한 타인을 우리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류 전체는 자연과 지속 가능한 조화로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18]

---

16) 김세정, 「동양사상, 환경, 생태 담론의 현주소와 미래」, 『오늘의 동양사상』 14, 예문동양사상연구원, 2006. 145-162면.
17) 박희병, 『한국의 생태사상』, 돌배개, 1999. 16면.
18) 뚜웨이밍, 「유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인간학」, 김우창 외 저, 『지속 가능한 미래』, 201세기북스 2017. 115-121면.

이러한 미래지향적 시각은 우리 고전시대의 인간형과 상치되는 측면이 많다. 농업경제에 기반한 우리 고전시대는 사회 변화의 속도가 더딘 신분제 사회였다. 부족한 생산량 속에서 사람들은 인륜을 마음에 품으며 올곧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변적 인간형보다는 항존적 인간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겼을 터이다. 그러나 고전문학의 상상력이 그려낸 인물 형상은 매우 다채롭다. 현실계뿐만 아니라 이계를 넘나들며 인간이 아닌 초인적 존재들과 교감하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 종교적 초월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과감하게 지상의 삶을 중단한 사람도 있으며, 물질적 가치보다는 숭고한 도덕적 표준을 지키며 절제된 삶을 유지하는 인물도 있고, 본능적인 애욕과 성애의 즐거움에 함몰된 인간형도 보인다.

그러나 인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리고 삶의 의미를 인간답게 사는 것에 둔다면, 인(仁)에 내재한 타자에 대한 동정이나 공감, 연민, 포용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삶의 물리적 환경이 달라지는 미래 문명에서도 여전히 옹호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가치 발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이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고전문학 연구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성찰의 초점을 진정한 자아 실현과, 타자와의 공감과 연대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인간성. 공존의 의지를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협력적으로 진화하는 생명성, 근원적인 실재와 궁극적인 지리를 추구하는 영성에 둔다면 우리가 길어 올릴 지혜의 샘물은 아직도 넉넉하다.[19]

마지막으로 사회에 관한 해석학적 이해의 지향이다. 미래 문명의 사회의 모습은 현재와는 무척 달라질 것이다. 2016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한 『2045 미래사회@인터넷』이라는 책에서는 불과 24년 후인 2045년의 대한민국 사회를 그려내고 있는데, 공상소설에 가까운 모습이다. 이 시대가 되면 평균 수명은 120세이며 각종 로봇들과 공생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이 현실세계와 혼재된 세상 속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비약적이고 누적적인 기술이 악용된다면 미래사회는 언제든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수 있다. 때문에 저자들은 행복한 사회로의 안착을 위해 핵심적인 사회적 이슈와 가치로서 창의, 평등, 공유, 안전, 책임이라는 다섯 가지 키워드를 설정하였다.

억압과 굶주림이 상존했기에 전통시대에도 더 나은 사회, 즉 유토피아의 꿈이 있었다. 고전시가나 야담, 민담, 고전소설, 유선시 등에 등에는 다양한 유토피아의 형상이 나타난다. 반드시 이러한 형식의 작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고전문학의 다양한 장르에서 개체적 삶을 억누르는 사회적 억압이나 폭력, 국가권력의 횡포, 제도나 규율 권력의 감시 등을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적 독해의 결과는 더 자유롭고 행복하며, 공정하게 운영되는 미래 사회의 건설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9) 이도흠 교수는 기계가 성취할 수 없는 인간적 특이성으로 인간성, 생명성, 영성을 들었다. 이도흠, 앞의 책, 340면 참조.

국어국문학의 경계를 넘어서: 트라우마 비유의 재사유

Beyond National Language and Literature: Re-thinking the Trope of Trauma

크리스 한스콤 Chris Hanscom
(미국 UCLA)

I. Introduction 서론

오늘 학회의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모색"이라는 의제는 우리가 문학을 사유하는 방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는 언어가 매개하는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이 모두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각의 특정 공동체가 사용하는 특정한 언어들을 통해 성격이 규정된 세계와 국가, 공간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요구되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는 다른 차원에서 언어와 문학의 미래에 대해 성찰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세계 언어와 연결되고, 과거/현재가 한국어와 연계될 때, 시간과 공간의 논리는 정치와 만나며, 또한 정치를 요구하게 됩니다. 정치란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 그럼으로써 누가 말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지에 관해 내려지는 결정을 의미하지요.

오늘 저는 언어, 특히 공동체의 경계를 나타내는 혹은 그 경계를 넘어서는 문학적 비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문학적 비유는 우리의 상식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비유가 명료성의 가장자리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우리가 사물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다스리는 언어 시스템의 한계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리고 언어에서의 그런 한계들이 또 공동체의 한계나 경계를 그려내는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인 가정은 "서술의 가능성보다 우선하는" 일련의 규범들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는 것,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것 역시 "말할 수 있는 것의 영역을 확립시키는 어떤 배제를 통해 그 자체로 미리 규범적으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국가) 공동체와 그것의 문학적 재현은 그러한 방식으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저의 논의는 트라우마란 "말할 수 있는 영역"과 공동체적 합의(누가 소속될 수 있는가) 사이의 교차점을 지시할 수 있는 문학적 비유이라는 가설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예로 삼아서 문학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관점 모두에 공통적인 국가적 트라우마, 국민적 정체성, 그리고 언어의 묶음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II. Trauma and Traumatropism 트라우마와 트라우마트로피즘 (트라우마굴성)

왜 다시, 트라우마 개념으로 문학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Caruth의 정전화된 정의에 따르면 트라우마는 어떤 사건에 대한 압도적인 경험으로서, 그런 반응은 대개의 경우 지연되고, 통제할 수 없는 반복적 재활성화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트라우마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경험되어

서, "단순한 이해에 저항하는", 어떤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트라우마는, 주체가 충분히 알 수 없었던 진실의 증언을 간직한 과거가 보내오는 "불가사의한 목소리" 같은 증상들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창동의 "박하사탕" 또는 최윤의 『저기 소리 없이 한 점 꽃잎이 지고』가 이에 대한 명확한 예를 보여줍니다.)

문학 작품처럼, 트라우마는 해석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돌아옵니다. 동시에 트라우마는, 제가 조금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공동체나 집단 정체성의 경계를 설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학 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소위 비-서양 문학에 대한 연구는 종종 비-서양 문학 텍스트가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상황에 조응하는 트라우마적 사실성에 고착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문학상 심사 과정에서부터 프레드릭 제임슨이 든 유명한 예인 "제3세계 문학"을 국가적 알레고리로 환원해버리는 모든 경우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성과 어떤 사실성이 한 문학 작품에 결부될 때, 그것은 지역성과 사실성의 의미를 미리 구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수용까지도 미리 결정해버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예술 작품은 다큐멘터리로서 검증되어야 할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해석됩니다.

이런 의미/맥락에서 문학사 안에서 비-서양 문학 텍스트를 다루는 것은 도미니크 라카프라 Dominick LaCapra가 말하는 "트라우마트로피즘"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트로피즘"이란 트라우마를 "기원 신화의 정당화"(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xii)와 집단 정체성의 기초로 전환하는 경향을 일컫습니다. 여기에서 트라우마는 계승된 역사적 사실이자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 목표에 연결된 도덕 감각으로서 국가 공동체에 연결되는 구성원 연대의 기초가 됩니다. 트라우마적인 사건은 국가의 물질적, 법률적, 역사적 직물체로 재활성화될 수 있는 범위로까지 추모화, 공-기억화, 그리고 거듭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기억됩니다. 그것은 구성원들에게 "끝없는 우울함과 슬픔"을 통해서 스스로를 재생산 것을 요구합니다.

조금 의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소설에 적용되는 독해법과 트라우마를 국가 정체성의 기초로 삼는 방식 사이의 평행 관계를 사유하고자 합니다. 이 둘은 트라우마적 경험의 표현과 소설적 재현에 있어서의 사실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바로 그것 자체가 바로 수수께끼이자 불가사의인 동시에 명백한 앎의 범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그 둘 모두가 역설적인 비틀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이 사실의 논리 하에서 다뤄지는 대상이 될 때, 혹은 하나의 고정된 정체성을 재현하는 기록물로서 다루어질 때, 문학 예술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나 상식 밖의 "설명할 수 없는 것"(Fehlman과 Laub)과 씨름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당합니다.

III. Kwangju in nationalist and literary discourse 민족주의 담론에서의 광주 그리고 문학 담론에서의 광주

광주항쟁과 학살에 대한 재현의 경우, 어떻게 트라우마가 어떤 한 공동체에서 포함과 통합

의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역사적 현실의 표현으로서 문학 텍스트를 이해하는 해석 양식으로서 기능하는지를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민족주의 담론은 광주를 공유된 희생자 의식에 뿌리를 둔 정체성의 원천으로서 제시합니다. 5·18 기념식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례 공식 연설을 예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광주라고 하는 역사적 현실을 알고 기념하는 일의 중요성과 어떻게 이 앎을 국가의 공통된 "영혼"에 연결시킬 것인지 만을 살피게 됩니다. 광주는 역사적 연구의 대상이고, 법적 결정의 대상이며, 모든 국가 구성원들이 세대에 걸쳐 공유하게 되는 트라우마적 경험으로 제시됨으로써, 국가 역사와 국가적 정체성에 대한 일관된/일련의 서사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Caruth의 고전적 설명에 따르면, 트라우마의 생존자들은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트라우마를 무의식적으로 재현합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담론 안에서는 그러한 의식 밖의 행동이 과거의 트라우마를 분명하게 나타내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알려진 재연과 기억을 위한 의도적 행위로 거듭납니다. 국가적 논리 하에서는 그 어떤 '알 수 없음'도 전적으로 역사적 방법의 부족 때문이거나 광주를 거부하는 자들의 "왜곡과 폄하" 때문으로 규정됩니다. 그런 모델로는 광주가 어떻게 묘사되어야 마땅할지 논의하거나, 광주의 대표성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논리 안에서 광주는 (국가에 의해) 적절하게 또는 (광주를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해) 부적절하게 재현될 뿐입니다. 발화가 불가능한 지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발화의 척도는 완벽하게 [빈틈없이] 설정되어 있고 (발언이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이해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으로서 완전히 제정되기 까지 합니다), 도의적 입장은 규정지어진 가능성의 스펙트럼을 따라 주어진 발화의 예에 첨부됩니다. 좋은 발화도 있고 나쁜 발화도 있지만 결코 발화가 없는 일은 없습니다. 민족주의 담론에서 광주에 대한 모든 발화는 설명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그것이 허용되지 않을 때조차 말입니다. 민족주의 담론하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광주에 대한 모든 표현은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됩니다.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광주에 대한 합의된 말과 감성의 도덕 체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제거되고 마는 것은 말이 불가능해지고 불가능한 말이 나오게 되는 영역입니다.

불가능한 발화의 제거는 언어와 세계 사이의 절대적인 일치를, 전체적 합의와 전체적 언어를 암시합니다. 민족주의적 담론에서 그리고 비-서양 문학 텍스트에 적용되는 독해법에서, 이 전체성은 그 민족 국가와 연결되며 문학은 그 국가의 구체적 현실성을 재현하는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저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문(학)어의 빈곤을 야기하는 일이며, 문학에서 혁명적 잠재성, 달리 말하자면, 즉각적인 이해가능성을 넘어서는 방식을 통해 통념을 넘어서는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는 문학의 그 능력을 박탈하는 일입니다.

IV. Preserving the Enigmatic: Unverifiable Truth in Han Kang's *A Boy is Coming* 수수께끼의 보존: 한강의 소년에게 검증할 수 없는 진실이 다가오고 있다

어떻게 트라우마를 민족주의적인 트라우마트로피즘의 증명적 논리에 굴복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을까요? 이 비-서양 문학 연구도 공유하고 있는 논리는 (제가 주장하고 있듯이) 민족-국가-언어로 이어지는 연결선 상에서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수수께끼같은 형식이자, 정말 그럴싸한 표현인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성"을 요구합니다.

많은 비평가들은 한강의 『소년이 온다』를 한국에서 우익에 의해 광주가 왜곡되고 거부된 것에 반해서 광주에 대한 "진짜 기억"을 표현하기 위한 증언의 한 형태로 이해합니다. 즉, "과거의 진정한 재구성은 개인의 주관적 기억에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See 조성희, "한강의 『소년이 온다』와 홀로코스트 문학"; 이숙, "예술가의 사회적 책무"; 등.] 저는 이 작품을 그와 정반대로 읽습니다. 이 작품은 증언을 요구할 권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어떤 표현된 증거에 대한 설명(혹은 재구성) 또한 거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설은 다음과 같은 문서와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을 기록한 동호의 장부, 그리고 인터뷰, 경찰 보고서, 노트, 증언 수집, 번역, 녹음된 자백, 유서, 연극 대본, 오디오 녹음, 뉴스 기사 등. 아마도 그 실제를 표현하는 증거로 이해되기가 가장 쉬운 형태는 사진일 것입니다.

텍스트 안에서 계속 나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1980년 5월 도청 앞에서 "직선으로 쓰러진, 죽은" 젊은이들이 줄지어 서 있는 사진과 동호의 학교 사진, 이 두 장입니다. 첫 번째 것은 광주 생존자의 자살 유서 옆에서 발견되는데 소설은 이에 대해 설명하기를 확실하게 거부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만 하나요?" 작중 누군가는 묻습니다. "김진수가 어떤 이유로 이 사진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는지, 왜 유서 곁에 이 사진이 놓여 있었는지 내가 이제 추측해야 합니까? 여기 직선으로 쓰러져 죽어 있는 아이들에 대해 선생에게 말해야 합니까? 무슨 권리로 그걸 나에게 요구합니까." (132, 필자 강조)

그 결과, 이 사진은 소설이 역사적 증언에 대한 요구를 거부하고 제시된 증거에 대한 설명을 거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사진은 우리에게 과거에 대한 선명한 유사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동시에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으로서 기능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소년" 동호라는 타이틀이 붙은 학교 사진인데요. 그가 다녔던 초등학교의 학생부 기록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화자는 "너무 평범해 누구와도 혼동될 듯한 얼굴"이라고 씁니다. "눈을 떼는 순간 특징이 무엇이었는지 잊어버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고 씁니다. (202) 사진은 검증될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그 얼굴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203)

이 소설은 "사진은 불변하는 진실을 전한다"고 하는 우리의 감각을 침식시킵니다. 사실성의 영역/경계 밖에서는 사건의 어떠한 면모도 이해하지 않으려는 실증주의적이고 역사주의적 접근법을 거부하는 (Nichanian) 동시에, 목격자의 발화가 어떤 증거로서 취급되기를 요구하는 방식을 거부하면서, 한강의 소설은 트라우마적 사건으로서의 광주의 불가사의한 본질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진들을 이용합니다.

V. 결론 Conclusion

"트라우마"라는 말은 그리스어 "상처"에서 기원하는 것으로서 종종 이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트라우마는 또한 "뚫기"라고 하는 감각 중 하나인 테트레아인에서 유래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한강의 소설에 나오는 트라우마는 과거에 대한 익숙하고 합의된 이미지들, 그것에 대해 말해질 수 있는 것을 이끄는 경계를 뚫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동호에 대한 두 장의 사진이 소설에서 함께 기능하는 방식입니다. 그 순수하고 평범한 학교 사진이 살해된

아이들의 사진 이미지에 의해 뚫려버립니다. 이 두 사진이 하나의 이미지로 읽히고 난 뒤에는 우리의 현재 순간까지도 뚫어버립니다. 이것은 Zbigniew Libera의 "Positives" 시리즈가 작동하는 방식과 매우 비슷합니다. "무해한 장면들이 잔인한 원작의 플래쉬백을 촉발시킨다"(Libera). 여기서 트라우마는 원작 장면이나 그것의 다시 말하기로부터 비롯하지 않고, 그 이미지들의 '사후성'(Nachtraglichkeit)'과 소설에 의해 적극적으로 구축된 두 장면의 연결 논리에 따라 나타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상 학교 사진과 시체의 이미지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현재를 "뚫고서" 과거 관계에 존재했던 트라우마를 '워킹 스루 (관통작업)'시킵니다. 이 "뚫기"는 충분히 지각된 상식의 범주 안으로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흡수 시킴으로써 트라우마가 재출현하는 것에 저항하는 방식인 지속적으로 기념함으로 생성된 "잊음"을 방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뚫기"로서의 트라우마는 단순히 기념적인 반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소설의 핵심이 되는 윤리적 메시지는 광주라고 하는 극단적 폭력에 대한 어떠한 이해(sense)가 만들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침묵과 헛기침과 망설임, 헐겁거나 뻑뻑한 단어들을 덧붙이고 꿰매기"(152)로 만든 수수께끼와 그에 대한 인식불가능성(unintelligibility)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소설가는 이해(사실과 설명의 논리)를 거부하면서, 광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통적으로 합의되는 범주를 벗어나 그 수수께끼와 그것의 인식불가능성에 대해 발화할 수 있습니다. 한강 소설의 "정치학"은 말할 수 있는 것의 경계를, 하여 공동체의 경계를 확장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광주"는 사실 1980년 5월에만 국한되지 않는 잔인한 폭력의 경향을 의미합니다. "제주도에서, 관동과 난징에서, 보스니아에서, 모든 신대륙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전자에 새겨진 듯 동일한 잔인성으로"(135). 결국 "광주"는 트라우마적 사건의 특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감각을 잃습니다. 대신 "고립된 것, 힘으로 짓밟힌 것, 훼손된 것, 훼손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207) 한강의 소설은 트라우마와 그것에 대한 픽션이 각각 그 자체의 구성적 수수께끼를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를 통해, 민족주의와 문학사적 담론이 당연시하는 '증거와 사실성에 대한 요구'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어지럽힙니다.

문학과 문학 연구를 세계적 맥락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은, 문학 번역과 유통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만을 생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문학이 무엇이며, 무엇을 행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와 같은 비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문학적 표현과 공동체를 둘러싼 통념의 교차점에 관해 생각하게 하는지를 사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문학은 기존에 존재하는 국가 공동체들의 경계에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는 전체적 확실성과 문학에 대한 역사-지리적이고 리얼리즘적인 요구에 맞서, 이런 통념을 넘어서면서도 확산시키는 발화의 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중국 근현대문학의 자발적 타자, 사이노폰 문학

임춘성(목포대)*

중화인민공화국은 공식적으로 중국 대륙 내의 문학을 '한어(漢語)문학(Chinese literature)'이라 하고 대륙 밖의 중국어 문학을 '화문(華文)문학(literature in Chinese)'이라 일컬었다. 화문문학이 문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언어에 초점을 맞춰 '화어(華語)문학'이라 하고, 창작 주체에 초점을 맞춰 '화인(華人)[1]문학'이라고도 한다. 한어문학은 대륙에서 다수자 문학이지만, 화문문학/화인문학은 현지(거주국)에서 소수자 문학이다. 스수메이(史書美) 등은 다수자 문학으로서의 '한어문학'과 대립하는,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사이노폰[2] 문학'(sinophone literature)을 차별화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근현대문학의 '자발적 타자'라는 관점에서 '사이노폰 문학'을 고찰하려 한다. 우선 중국 근현대문학사 담론의 타자화와 팽창 경향을 약술한 후 스수메이의 논술을 중심으로 사이노폰 연구와 사이노폰 문학의 개념을 탐토(探討)하고, 주요 쟁점인 '디아스포라 반대'(against diaspora)에 초점을 맞춰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중국 근현대문학사 담론의 타자화와 팽창 경향

중국 근현대문학사[3] 담론의 변천은 타자화(otherization)의 과정이었다. 중국 근현대문학사에서, '신문학사' 담론은 '신문학'의 생존을 위해 '통속문학'(구문학, 전통문학, 특히 전통 백화문학, 본토문학, 봉건문학 등)을 배제했다. 5.4시기 소수자(minority)였던 '신문학'은 당시 주류였던 '구문학'을 비판했으며 간고한 과정을 거쳐 담론 권력을 확보한 후 '구문학'을 배제했다. '셴다이[4]문학사' 담론은 1949년 이후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아 '우파문학'과 '동반자문학'을 억압했다. 구문학 배제와 우파문학 억압은 중국 근현대문학의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배제한 꼴이 되었다. 개혁개방의 '신시기'에 접어들어서야 사상해방을 맞이한 학계는 1985년 '20세기중국문학' 담론을 제창함으로써 '셴다이문학'에 의해 억압되었던 '우파문학'과 '동반자문학'을 해방했다. 그리고 21세기 벽두에 '두 날개 문학' 담론이 제기되면서 '신문학'에 의해

* 林春城. 국립목포대학교 중국언어와문화학과 교수 겸 대학원 문화응용과스토리텔링 협동과정 교수. csyim2938@gmail.com

1) 해외 이주 중국인의 범칭인 '화인'은 다시 화교(華僑. overseas Chinese)-화인(華人. ethnic Chinese)-화예(華裔. Chinese ethnic)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임춘성, 2017,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04쪽 참조.

2) 이 글에서는 원발음을 존중해 '사이노폰'으로 표기한다. 중국어권에서는 '華語語系'로 번역한다.

3) 이 글에서는 '신문학', '셴다이문학', '진셴다이(近現代)100년문학', '20세기문학', '셴당다이(現當代)문학', '두 날개 문학' 등 계속 미끄러져 온 기표를 일단 '근현대문학'으로 고정한다. 여기에서 '근현대'는 '서유럽 모던'에 상응하는 '동아시아 근현대'의 맥락으로 사용한다.

4) 중국 대륙에서 '셴다이(現代)'는 영어의 'modern' 또는 'contemporary'와 무관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1919년부터 1949년까지의 '신민주주의혁명 시기'를 가리키는 특정한 정치 개념이고, '진다이(近代: 구민주주의혁명 시기)'·'당다이(當代: 사회주의 개조 및 건설 시기)'와 함께 중국 '근현대'를 구분하는 삼분법의 하나였다. 임춘성, 2013, 『중국 근현대문학사 담론과 타자화』, 문학동네, 17쪽 참조.

지워진(erased) '구문학'을 복권했다.

21세기 들어 중국 근현대문학사는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이전의 관행이었던 1917년 기점이 부정된 지 오래고 범위도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기점 면에서 첸리췬(錢理群) 등의 '20세기중국문학사'가 1898년을 기점으로 제시했고 판보췬(范伯群 2007)은 1892년으로 앞당겼으며 옌자옌(嚴家炎 2010)은 189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왕더웨이(王德威 2003)에 따르면 1851년 태평천국 시기로 앞당겨진다. 판보췬이 고대문학과 근현대문학의 환승역이라 비유했던 『해상화열전』을 기준으로 본다면 '5·4 기점'보다 사반세기 거슬러 올라간 셈이다.

문학사 범위도 지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삼분법 시기의 셴다이문학사는 좌익문학사였지만, 20세기중국문학사에서 우파문학을 복권했고 두 날개 문학사에서 통속문학을 복원시켰다. 여기까지는 이른바 '국민국가(nation-state)'의 범위라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근현대문학사는 자기 변신을 통해 초국적(trans-national)으로 팽창하고 있다. '중국문학(Chinese Literature)'으로부터 '중어문학(漢語/華語文學. Chinese Literature)'으로 그리고 '중국인 문학(漢人/華人文學. Chinese Literature)'으로 자기 변신하고 팽창하면서 재구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들 담론은 중국 근현대문학사를 고정된 실체로 보기보다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포스트주의(postism)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가능한 모든 범주를 아우르는 통합(integration)의 움직임은 자연스레 가능한 많은 대상을 끌어들이는 경향을 띠기 마련이다. 일찍부터 해외로 이주해 각국에 차이나타운(China town. 唐人街)을 형성한 화인(華人)의 문학이 그 주요 대상이다.

<표> 최근 중국 근현대문학사의 기점과 범위 비교

	范伯群,『中國現代通俗文學史』(2007)	朱壽桐,『漢語新文學通史』(2010)	嚴家炎,『20世紀中國文學史』(2010)
기준	두 날개 문학: 지식인문학과 통속문학	한어문학: 漢語로 쓴 모든 작품	화인문학: 華人이 쓴 모든 작품
기점	1892『해상화열전』	문학개량운동: 1868 황쭌셴, 1898 추팅량	1890『황삼객전기』(프랑스어), 1892『해상화열전』(吳語)
하한	1949	현재까지(개방적)	현재까지(개방적)
범위	통속문학 및 통속문학간행물	대륙, 타이완, 홍콩, 마카오, 화교문학, 외국인의 중국어 작품 등	대륙, 타이완, 홍콩, 마카오, 화인문학(외국어 포함), 방언문학
배제		소수 에스닉 언어 작품, 방언문학, 화인의 외국어 작품	외국인의 중국어 작품

주서우퉁(朱壽桐)의 한어신문학이나 옌자옌(嚴家炎)의 20세기중국문학은 각기 '언어(漢語)'와 '사람(華人)'을 기준으로 내세워 가능한 넓은 범위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최근 중국의 팽창주의와 궤를 같이한다. 여기서 팽창주의는 페이샤오퉁(費孝通)의 「중화 네이션의 다원일체 틀(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1988)에 근거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화 담론'에 기초한다. 페이샤오퉁은 이렇게 논단했다. "중화 네이션이라는 용어는 현재 중국 강역 안에서 네이션 공동체 의식을 갖춘 11억 인민을 지칭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50여 개 에스닉 단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다원'이며, 중화 네이션은 '일체'이다."[5] 국민화 담론은 다원과 일체의 상관관계, 국가와

네이션의 상관관계, 중화 네이션의 역사적 형성 근거를 다루고 있다. 페이샤오퉁의 '다원일체' 론은 통합을 지향하는 중국, 중국인다움(Chineseness), 중국문화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스수메이가 수창(首唱)한 사이노폰 개념[6]은 중국과 중국인다움의 바깥을 자처한다. 통합적인 중국인다움 개념으로는 한족(Han-ethnic)을 제외한 55개 에스닉 문화와 해외 이주민 문화를 포괄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스수메이는 포스트식민 연구와 에스닉 연구 등의 성과에 기반해 '사이노폰 연구'를 새로운 학제적 연구로 제출했다. 아래에서는 우선 스수메이의 사이노폰 연구와 사이노폰 문학에 대해 살펴보고, 사이노폰 연구의 주요 쟁점인 '디아스포라 반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 스수메이의 사이노폰 연구와 사이노폰 문학

1) 연기(緣起)

스수메이가 2007년 영문 저서 『시각성과 정체성: 태평양을 횡단하는 사이노폰 접합』[7]을 출판한 후, 이론 개념이자 연구 방법으로서 '사이노폰'이 체계적인 논술로 출현했고, 국제학계에서 광범하게 유전(流傳)되고 인용되었다.

스수메이는 UCLA 동료인 리오네(Lionett, François)가 1990년대 서양 학계의 포스트식민 사조의 충격 아래 제창한 '프랑코폰 문학(Francophone literature)' 개념으로부터 사이노폰 개념의 중요한 계발을 받았다. '프랑코폰 문학'과 '사이노폰 문학'은 각각 '중국' 또는 '프랑스'의 문화 패권을 비판 대상으로 삼고 이들 문학 전통이 내장하고 있는 '중심 대 주변'의 계서

---

5) 費孝通主編, 1999, 『中華民族的多元一體格局(修訂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참조. 원문에서는 모두 '民族'으로 표기했지만, 이 글에서 다원의 층위는 에스닉(ethnic)으로, 일체의 층위는 네이션(nation)으로 바꿨다. 중국 최초의 인류학자로 일컬어지는 페이샤오퉁이 초기의 다원주의로부터 일통(一統)으로 나아가는 이론적.정치적 맥락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왕더웨이에 따르면, 스수메이가 최초로 제기한 사이노폰 문학은 그 이전에도 대략 두 계열의 담론이 존재했었다. 하나는 내셔널리즘 계열로, 두웨이밍(杜維明)의 '문화중국(文化中國)', 왕겅우(王賡武)의 '로컬적, 실천적 중국성(地方/實踐的中國性)', 리어우판(李歐梵)의 '이동하는 중국성(遊走的中國性)', 왕링즈(王靈智)의 '중국과 거주지의 이중 지배 구조(中國/異國雙重統合性)' 등의 이론이 여기에 속한다. 다른 하나는 포스트식민주의 계열로, 레이 초우(Chow, Rey, 周蕾)의 '반혈통적 중국성(反血緣中國性)', 이언 앙(Ien Ang. 洪恩美)의 '중국어를 못하는 (반)중국성(不能言說中文的(反)中國性)', 하 진(Jin, Ha. 金哈)의 '영어로의 망명(流亡到英語)' 등의 성찰이 여기에 속한다. 전자는 화인의 디아스포라적 상황을 인정하되 그 속에서 실낱처럼 이어지는 문명의 가닥을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후자는 '정체성'의 정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동체를 실천 또는 상상하는 합리성이나 합법성으로서의 '중국'(혈연.언어.글쓰기.주권)을 해체하고자 하는데, 심지어 아예 뿌리 자체를 뽑아버리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왕더웨이, 2018, 『시노폰 담론, 중국문학－현대성의 다양한 목소리』, 김혜준 옮김, 학고방, 200쪽 참조.

7) Shih, Shu-mei, 2007, *Visuality and Identity : Sinophone Articulations across the Pacific*,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 Los Angeles. 중어 번역본은 타이베이에서 출간되었는데, 영문 원서와의 꼼꼼한 대조가 필요하다. 史書美, 2013, 『視覺與認同 : 跨太平洋華語語系表述. 呈現』, 楊華慶飜譯, 蔡建鑫校訂, 聯經, 臺北. 최근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출간되었다. 스수메이, 2021, 『시각과 정체성－태평양을 넘어서는 시노폰 언술』, 고혜림.조영경 옮김, 학고방.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articulation'의 번역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articulation'을 '분절'(들뢰즈·가타리, 『천 개의 고원』, 2001; 레이 초우, 『원시적 열정』, 2005), '절합'(제임스 프록터, 『지금 스튜어트 홀』, 2006) 등으로 번역했고, 최근에는 '접합'으로 번역하는 추세에 있다. 언어학에서는 '조음'(調音)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ethnic, nation, ethnic Chinese, Chinese diaspora, overseas Chinese 등의 번역에 대해서도 변별적 검토가 필요하다.

(階序)를 전복시키려 하며, '주변 문학'의 각도에서 중국 또는 프랑스 '국민문학'의 본위주의와 연구 방법에 도전한다. 물론 '프랑코폰 문학'이 '프랑스문학'과 다르듯이, '사이노폰 문학'도 '중국문학'과 다르다. 하지만 사이노폰 문학은 프랑코폰 문학과 창작 주체 방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프랑코폰 문학이 주로 과거 프랑스 식민지에서 피식민지인이 프랑스어로 창작한 작품을 가리키는 반면, 사이노폰 문학은 중국인이 해외로 이주해 정착한 지역에서 '중국어파(Sinitic)'[8] 언어로 창작한 작품을 주로 가리킨다. 프랑코폰 문학의 창작 주체는 대부분 프랑스인이 아니지만, 사이노폰 문학의 창작 주체는 대부분 해외 이주 중국인(Chinese ethnic abroad/overseas Chinese)이다.

스수메이는 '사이노폰 세계문학'(Sinophone world literature)을 논하기 전, 우선 내셔널리즘(중국식 내셔널리즘이든 타이완 한인의 내셔널리즘이든)을 내려놓기를 권한다.[9] 바꿔 말하면, 스수메이는 사이노폰 연구에서 내셔널리즘을 배제하고 있다. 왜일까? 모두 알다시피, 내셔널리즘은 중국중심주의(sino-centrism)를 조장하는데, 스수메이의 사이노폰은 중국인다움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스수메이는 『시각성과 정체성』에서 리안(李安)의 <와호장룡>으로 사이노폰 논의를 시작한다. 스수메이가 듣기에, 영화 속에서 홍콩인 초우윈팟(Chow, Yun-fat: 周潤發), 말레이시아 화인 미쉘 여(Michelle Yeoh: 楊紫瓊),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장쯔이(Zhang, Zi-yi: 章子怡), 타이완인 장전(Chang, Chen: 張震)의 중국어파 언어의 악센트가 각기 다르지만, 외국인에게는 같은 '중국어(Mandarine/Hanyu)'로 들리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사이노폰(Sinophone)'과 '중국어(Chinese)'의 차이를 지적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각기 다른 지역 출신의 배우들이 모두 하나의 중국인 즉 한족(漢族. Han-ethnic)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문제 삼는다. 이는 지구화(globalization)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지방(local)의 다중적 맥락을 소거하는 지구화의 문제점 말이다. "가장 거대하고 가장 중요한 맥락으로서 지구적인 것은 사이노폰의 지정학적 특정성들 및 그것의 지역-내(intra-area) 동학을 쉽게 소거할 수 있다."[10] 사이노폰의 문제의식은 바로 다양한 중국인과 다중적인 중국 문화가 단일한 한족과 중국인다움으로 통합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 '중국인(Chinese)'이란 에스닉하고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표지로 통하는 내셔널한 표지(marker)인데, 왜냐면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56개 에스니시티가 있고, 또 네이션을 가로질러 아주 다양한 언어들과 방언들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는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해 부과된 표준화된 언어, 즉, 한족의 언어, 한어(漢語: Hanyu)에 다름 아닌 것으로 통용되거나 이해된다. 대체로 우리가 이해하는 한, 중국인은 대개 한족에 국한되고 중국 문화는 대체로 한족 문화를 가리킨다. 중국인(Chinese)이라는 것은, 다른 에스니시티들, 언어들, 문화들을 배제하면서 한족을 가리키는 한에 있어서만 에스니시티의 범주로서 기능한다. '에스닉 중국인(ethnic Chinese)'이란 심각한 부적절한 명칭(misnomer)이다. 왜냐면, 중국인다움이란 하나의 에스니시티가 아니라 많은 에스니시티들이기 때문이다. 에스닉화된 환원주의의 이러

8) 이 용어는 스수메이가 중국어와 변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위키백과에서 '중국어파'라고 번역한 것을 따랐다. '중국어파'는 '티베트버마어파'와 함께 '중국티베트어족'을 구성한다. <위키백과: 중국어파>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A%B5%AD%EC%96%B4%ED%8C%8C) (검색일자 2021.3.11.)

9) 王德威·史書美, 2017, 「'華語語系與台灣'主題論壇」, 『中國現代文學』 32기, 76頁. 스수메이는 박물관 들어가기 전 배낭을 맡기듯이 사이노폰 연구에 진입하기 전 내셔널리즘을 내려놓기를 권한다.

10) Shih, 2007, p.7.

한 과정에 의해, 중국인다움에 대한 한족-중심의 구성 작용은 미국인들을 무조건 백인 앵글로색슨과 그릇되게 등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11)]

사실 우리가 흔히 중국인이라 명명하는 실체는 단일하지 않다. 특히 에스닉의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중국인'은 한족을 포함해 56개로 '식별'된 에스니시티들로 구성되어 있다. 엄밀히 말해 중국 문화는 한족을 포함한 56개 소수 에스닉 문화들로 구성된 셈이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중국인은 대부분 한족과 등치되어 있고, 중국 문화는 대부분 한족 문화를 가리키고 있다. 이는 "중국 내에서 소수자를 억압하는 '한족(Han ethnic)-중화 국족(Chinese nation)-중국(China state)'의 '삼위일체 정체성'"[12)]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인을 한족으로 이해하는 것은 미국인을 앵글로색슨족으로 이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현상은 중국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 이주민에게도 적용된다. 스수메이는 바로 '해외 이주 중국인'과 중국 내 한족 이외의 '소수 에스닉 중국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한다.

2) 사이노폰 연구

'사이노폰 연구'는 우선 중국과 중국인다움의 주변(margin)에 놓인 사이노폰 문화와 사이노폰 공동체에 관한 연구다. 사이노폰 문화는 수 세기에 걸친 이주와 정착의 역사 과정을 통해 지정학적인 '한족땅'(漢地, China proper)의 바깥과 세계 여러 곳에 놓여있다. 사이노폰 연구는 또한 중국 내 비(非)한족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스수메이는 '한족땅' 이외의 사이노폰 공동체 형성과정에 세 종류가 있다고 인식한다. 첫째, 중국의 '대륙 식민주의'(continental colonialism)[13)] 식 통치 아래에 있는 중국 내 소수 에스닉. 둘째, 정착 식민. 중국 이민자들이 중국 국경 밖에서 모인 사이노폰 공동체가 현지 원주민을 식민 통치한다. 사이노폰 이론으로 타이완 원주민 문학을 토론하는 것은 바로 이런 논술의 대표이다. 셋째, 이민의 이주. 화인 이민은 거주국의 소수자 에스닉이 된다. 바꿔 말하면, 스수메이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중국어파 언어의 문화'(Sinitic-language culture)와 중국 내의 '내부 식민지 문화'다. 다시 말해 사이노폰 연구는 중국 밖의 중국어 공동체와 문화뿐만 아니라 만다린(Mandarin)이 채택되거나 부과된 중국 내 소수 에스닉 공동체와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언어 공동체는 주로 대륙 식민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이주의 3가지 상호 연관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은 서로 교차하거나 겹칠 때가 있다.[14)]

스수메이의 세 종류의 사이노폰 공동체는 각각 기존 관념에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청과 이를 계승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륙형 식민지를 경영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화

---

11) Shih, 2007, p.24.

12) 임춘성, 2017, 『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210쪽. 여기에서는 '네이션'을 '국족'으로 번역했었다. 지금은 혼란을 피하고자 '네이션'으로 표기한다.

13) '한족땅'을 넘어선 광대한 지역—몽골, 신장, 티베트—에 대한 청의 군사 정복과 정치적 식민화에 관한 치밀한 연구는 지난 200년 동안 세계사에서 중국의 역할—희생자의 역할로부터 제국의 역할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창출했다. 유럽의 모던 제국 모델은 해양 식민주의지만, 청은 '대륙 식민주의'라는 것이 그 핵심이다. '대륙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스수메이, 2020, 「사이노폰의 개념」, 조영현 옮김, 『중국현대문학』 95호, 449~451쪽 참조.

14) Shih, Shu-mei, 2013a, "Introduction: What Is Sinophone Studies?" in Shu-mei Shih, Chien-hsin Tasai, and Brian Bernards e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p.24.

인민공화국은 반(半)식민지의 경험을 근거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제3세계를 세력화해왔다. 하지만 스수메이의 주장에 따르면, 청 이후 중국은 서양의 해양형 식민주의와는 다른 대륙형 식민주의를 경영해왔다. 이는 반제반봉건의 이중혁명을 완성했다고 자부해온 중국의 해석에 균열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이재현은 '구망의 계몽 압도' 테제에 잠복해있는 '한족 중심주의'를 예리하게 지적해낸다. 그는 '중국 특색의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구망의 계몽 압도' 테제가 구망, 계몽, 근현대성 등을 논의하면서 '내부 식민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것을 은폐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 특색의 제국주의'는 스수메이가 사이노폰 공동체가 형성되는 세 가지 역사적 과정으로 간주한 현상을 이재현이 전유해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이다. 이 가운데 대륙 식민주의에 국한해 보면, 동북 삼성(만저우), 네이멍구(남몽골), 신장(동투르키스탄), 시짱(티벳) 등을 청나라가 병합한 이후, 중화민국을 거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계승되어 오늘날 이른바 중국의 법적, 정치적, 군사적 영토가 되었다.[15] 우리는 반제 구망이 반봉건 계몽을 압도했다는 역사 인식이 상당 부분 한족 중심의 서술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중국 근현대사 인식의 '전환적 창조'를 추구함으로써 그동안 은폐되었던 제국의 역사(imperial history)와 함께 소수 에스닉에 대한 '식민지 연구'(colonial studies)를 확대.심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타이완을 정착 식민지로 설정한 점이다. 스수메이는 한족이 17세기 타이완에 정착해 다수자가 된 상황을, 자신의 이민국, 즉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의지를 가졌다는 점에서, 식민지 미국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현재 타이완의 상황을 프랑코폰 퀘벡(Francophone Quebec)과 비교한다. 퀘벡에서 약 82% 인구가 프랑코폰을 사용하는데 애초 프랑스-캐나다인의 정체성이 '조용한 혁명'(Révolution Tranquille)을 통해 현지화된 현대 퀘벡인의 정치성에 자리를 내주었다. 이와 비슷하게, 타이완에서도 80% 남짓의 인구가 표준 한어인 궈위(國語)를 사용하는데 국민당 체제에서 부여된 획일적인 중국 정체성(uniform Chinese identity)이 점차 '현지화된 신 타이완인 정체성'(a localized New Taiwanese identity)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스수메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이완을 15세기 포르투칼 식민지 카페 베르지(Cape Verde)나 상 토메(São Tomé)와 비교한다. 이 지역은 이른바 루소폰(Lusophone) 사회로, 다양한 이민자와 아프리카인이 '혼혈 코뮤니티'(a mixed-race community)를 형성했던 곳이다.[16] 이상을 종합하면 스수메이는 1662년 정성공(鄭成功)이 타이완의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격파하고 타이완을 점거하면서 한족의 식민 정착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정성공 일가의 반청(反淸)은 식민지 미국의 독립 의지와 비슷했지만 1683년 청에 복속되었다. 1948년 국민당이 공산당에게 패퇴해 타이완으로 물러나면서 명말청초의 역사가 반복되었다. 국민당은 '중국 정체성'을 강요했지만 계엄 해제 후 점차 '현지화된 신 타이완인 정체성'이 주류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주요한 표지는 다언어 사회[17]의 '혼혈 커뮤니티'라 할 수 있다.

셋째, '해외 화인'은 그동안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든든한 전대 역할을 했다. 따라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해외 화인'을 자국민으로 간주해 조국에 대한 충성을 요구해왔는데, 스수메이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거주국에 거주하는 소수 에스닉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을 '디아스포라 중국인'(diasporic Chinese)으로 볼지 아니면 거주국의 소수 에스

15) 이상, 이재현, 2021,「사이노폰 연구와 비판적 중국 연구」(미발표)에서 발췌 요약.
16) 이상 Shi, 2007, p.28-29 요약.
17) 실제로 필자가 2018년 9월부터 6개월간 타이중에 머물 때 고속열차에서 궈위, 민난어, 하카어, 영어로 안내방송을 진행했다. 통일파의 한 원로학자는 필자와의 대담에서 언어의 다양성이 통일에 방해가 된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닉으로 간주할지가 쟁점이 되는 것이다. 앞당겨 말하면, 스수메이는 후자의 입장에 서서 디아스포라를 반대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스수메이는 사이노폰을 '다각도의(multiangulated) 다중규정(overdetermination)'[18]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아리프 딜릭(Dirlik, Arif)이 말했듯이, "다중규정이란,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무한대가 아닌 여러 가지—이 관여한다는 것을, 또 역사적 경험의 이러한 구성요소는—무한대가 아닌—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는다고 기대될 수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19] 그러므로 레이몬드 윌리엄스(Williams, Raymond)는 다중규정을 "다중적 요소에 의한 결정"이라고 간단명료하게 정의했다. 딜릭과 윌리엄스의 정의를 따라 스수메이는 사이노폰 현상을 역사, 정치, 문화, 경제 등의 다중적 범주에 의해 규정되는 현상으로 설정했다. '사이노폰 연구'는 사이노폰 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포스트식민 연구, 초국적 연구, 글로벌 연구, 중국 연구, 에스닉 연구 등 다양한 학문적 담론과 분야의 교차점에 자리 잡고 있다.

스수메이는 사이노폰 개념화의 두 가지 포인트로 '디아스포라 반대(against diaspora. 反離散)'와 '개방적이고 변화하는 언어 공동체'를 든다. 그녀에 따르면, 디아스포라는 그 종점이 있다. 이민이 안돈(安頓)되면 현지화하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2대 또는 3대에 이런 디아스포라 상태의 종결을 선택한다. 이민 전의 이른바 '조국'에 대한 미련은, 자각적이든 비자각적이든, 통상 현재에 융합되는 곤란을 반영한다.[20] 이민 후대가 더는 조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사이노폰 공동체의 구성 부분이 아니게 된다. 사이노폰은 변화하는 공동체이고 과도적 단계에 놓여있으므로 불가피하게 현지와 융합하고 나아가 현지의 구성 부분이 된다. 그러므로 사이노폰 개념은 '디아스포라'에 문제를 제기한다. 디아스포라를 가지고는 사이노폰 문학을 토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이노폰 이론이 해외 이민 문학을 토론할 때, '낙엽이 뿌리로 돌아가는' 디아스포라적 태도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는' 현지 정체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21] 한때 세계인을 사로잡았던 디아스포라 개념은 대개 1세대 또는 2세대에 국한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장기 지속적인 학술 의제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해외 이주 중국인의 디아스포라가 중국 본토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수메이의 사이노폰 개념과는 양립하기 어렵다. 디아스포라가 1세대 또는 2세대에 국한된 단기적 현상이라면, 사이노폰은 해외 이주 현상을 장기 지속적으로 고찰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의 특수한 예로 거론되는 하 진(Ha, Jin)의 '영어로의 망명'은 이민 1세대가 현지 언어인 영어로 창작했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의 필연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된다. 스수메이는 디아스포라를 '역사적인 것'과 '가치적인 것'으로 나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겠다.

또한 사이노폰은 개방적 공동체다. 그것은 발화자의 인종이나 국적에 근거하지 않고, 발화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정의한다. 영어를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영국인이나 미국인이 아닌 것처럼, 사이노폰의 구성원도 국적이 중국인일 필요가 없다. 대다수 공동체는 다언어적이므로 언어로 정의하는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경계의 불확정성 또는 개방성을 가지게 된다.[22]

---

18) overdetermination을 그동안 주로 '과잉결정'으로 번역했다. 한국어 '과잉결정'은 부정적 의미가 강하다. 그와는 달리, '중첩규정'이란 번역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중국어 번역본은 '多元決定'이라 표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史書美의 취지를 존중해서 '다중규정'이라는 번역어를 채택한다. 참고로, 신영복은 overdetermination을 '상호결정'으로 번역하기도 했다. 신영복, 2015, 『담론: 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돌베개, 195쪽.

19) Dirlik, Arif, 1997, *After the Revolution: Waking to Global Capitalism*, Hanover and London: Wesleyan University Press, pp.102~3. 여기에서는 Shih, 2007, p.7에서 재인용.

20) 史書美, 2017, 『反離散：華語語系研究論』, 台北：聯經, 47頁.

21) 史書美, 2017, 35~6頁.

스수메이는 사이노폰 연구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개괄한다. 첫째, 수 세기 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을 떠난 다양한 이민자 연구를 조직하는 개념으로 '디아스포라 중국인'이 틀렸음을 폭로함으로써, '중국' 및 '중국인다움'과 같은 본질주의적 개념과는 다른 조직화 개념을 제안할 수 있다. 다중성, 차이, 크레올화(creolization), 혼종성(hybridity), 이종 교배(métissage) 등과 같은 엄격하게 재접합(rearticulization)된 개념은 역사, 문화 및 문헌에 대한 보다 복잡한 이해를 구현할 수 있다. 에스닉 연구, 프랑코폰 연구 및 앵글로폰 연구와 같은 '폰' 연구, 포스트식민 연구, 초국적 연구 및 추가적인 관련 탐구는 비교 방식으로 사이노폰 연구를 끌어낼 수 있다.[23] 디아스포라에 반대하는 사이노폰 연구의 관점은 '중국' 및 '중국인다움'과 같은 본질주의적 개념을 거부하고, 현지 이민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고 있다.

둘째, 사이노폰 연구는 우리에게 '원(源)'과 '류(流)'(roots and routes)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사고하게 만든다. '근원'이라는 관념은 여기에서 현지적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류'는 가원(家園. home-ness)에 대한 더 융통성 있는 해석으로 이해된다. 유랑 또는 돌아갈 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가원'을 '근원'과 분리하는 것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지정학적 공간에서 하나의 정치 주체로서 현지의 생활 방식을 깊이 있게 동일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가원'을 거주지와 연계시키는 것은 현지 선택의 정치 참여이고 윤리를 중시하는 표현이다. 반면 노스탤지어, 중산계급에 속하는 1세대 이민이 주장하는 귀속감 없음은 그들의 강렬한 보수주의 심지어 인종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다.[24]

셋째, 사이노폰 공동체는 네이션 경계를 넘어 자신들의 원래 국가와 정주국을 대면할 때 양자택일할 필요 없이 비판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중국계 미국인은 동시에 중국과 미국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사이노폰은 하나의 개념으로서 국가주의와 제국주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 비판적 입장에 가능성을 제공하고, 다원협상적이고 다원적 비평에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리하여 사이노폰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이노폰은 시작부터 공동체, 문화, 언어에 관한 역사적이고 경험적인 범주였고, 지금 그것은 또한 일종의 인식론으로 새롭게 밝혀졌다.[25]

그러면 아래에서 그동안 연구가 일정 정도 축적된 사이노폰 문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3) 사이노폰 문학

스수메이의 논술에 따르면 '사이노폰 문학'과 '중국문학'의 관계는 '상호보완'이 아닌 '대항' 관계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이노폰 문학은 중국문학의 중국인다움 관점을 거부하고 사이노폰 문학의 관점에 설 것을 주장한다. 사이노폰 문학의 관점이란 무엇보다도 사이노폰 공동체에 속하는 소수자(minority)의 관점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녀가 정의한 '사이노폰'의 범주는 첫째, 티베트와 같은 '중국 내 내부 식민지', 둘째, 타이완과 같은 '정착 식민지', 셋째, 북미 화예(華裔) 작가의 창작과 같은 '중국에서 각 지역으로 이주하여 형성된 사이노폰 공동체'이다.[26] 스수메이가 제기한 '연구방법이자 인식론으로서의 사이노폰'의 입장에서 보면,

22) Shih, Shu-mei, 2013b, "Against Diaspora: The Sinophone as Places of Cultural Production" in Shu-mei Shih, Chien-hsin Tasai, and Brian Bernards e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pp. 55~6. 史書美, 2017, 48頁.

23) 史書美, 2017, 48~9頁.

24) 史書美, 2017, 49頁.

25) Shih, 2013b, pp. 56~7. 史書美, 2017, 50頁.

'사이노폰'의 핵심 개념은 전통 중문 문학의 학과 구조에서 중국 대륙문학의 독존적 위치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탈 중국중심'(against China-centrism)을 비판 동력으로 삼아, 중국 내외의 사이노폰 공동체 창작에 반영된 중국의 문화 패권을 검토하는 것이다.[27]

스수메이는 다수자 문학으로서의 중국문학과 대립하는,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사이노폰 문학을 차별화할 필요성[28]을 주장하는 동시에, '사이노폰 문학'과 '화문문학'의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사이노폰 문학'은 현지 문화 특색을 반영한 언어의 변이를 가리키고, 그 공동체는 푸퉁화, 광둥화, 푸젠어, 커자어, 차오저우화 등등을 사용하는 '사이노폰' 언어의 공동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화문문학'은 이른바 '표준 중국어(standard Chinese)'를 사용한 창작이다.[29] 스수메이가 보기에, 사이노폰 문학은 기존의 '화문문학' 범주와 어느 정도 중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래 인용문에서 스수메이가 거론하는 사이노폰 문학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자.

> '중국어(Chinese)'라는 단어는, 언어를 국적 및 에스닉 고유성과 동치시키도록 오용되어 왔고, 관변의 단일어주의(official monolingualism)는 언어적 이질성을 무시하고 억압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이노폰의 개념은 소리뿐만 아니라 문자에서도 다언어 사용을 피력한다. 19세기 미국에 이주한 사람들이 사용한 지배적인 중국어파 언어는 광둥어였으며, 그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니라 '당인(唐人)'이라고 칭하고, 그들의 게토(ghetto)도 차이나타운이 아닌 '당인가(唐人街)'라고 칭했다. … 20세기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십육자가(四十六字歌)'와 같은 사이노폰 미국 문학은 광둥어로 발음되고 쓰였다. 홍콩 사이노폰 문학은 고안된 광둥어 문자로 오랜 세월 동안 광둥어와 만다린 사이를 오가며 협상해왔다. 주류 사이노폰 타이완 문학은 혹로어(河洛語, Hoklo)와 만다린 사이의 교섭 현장이다. 사이노폰 말레이시아의 작가와 영화제작자들은 광둥어(廣東話, Cantonese), 푸젠어(福建話, Hokkien), 차오저우어(潮州話, Teochew), 만다린과 기타 다른 문자와 소리 등을 운용했다. … 회족(回族)은 비록 중국에서 가장 많이 동화된 이슬람 소수자 집단으로 간주되지만, 사이노폰 회족 작가들은 종종 아랍어를 사용하거나 환기시킨다. 사이노폰 말레이시아 문학에서 작가들은 중국어파 언어들에 말레이어, 영어, 그리고 때로는 타밀어를 혼용한다. 마찬가지로, 사이노폰 미국 문학은 100년 이상 존속된 문학 전통으로, 항상 암묵적 또는 명시적 대화 상대자로서 대다수의 언어인 영어를 상정하고 있다.[30]

우선 지적할 것은 우리가 중국어(Chinese)라고 알았던 이민자들의 언어는 각종 방언을 포함한 '중국어파 언어'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광둥어부터 시작해 푸젠어, 차오저우어, 커자어 심지어 혹로어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다양한 스펙트럼의 '중국어파 언어'가 미국, 홍콩,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에서 현지어와 교섭해 나타나는 사이노폰 문학의 다양한 양상은 단일어로 통합하기 어려운 상황을 드러낸다. 특히 현지어와의 교섭 과정에 다양한 변이 과정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홍콩 사이노폰 문학에서 광둥어와 만다린 사이에서 고안된 광둥어 문자라든가, 혹로어와 만다린의 교섭 결과인 사이노폰 타이완 문

---

26) 史書美, 2017, 9, 23頁.
27) Shih, 2013b, p. 33.
28) Shih, Shu-mei, 2013a, "Introduction: What Is Sinophone Studies?" in Shu-mei Shih, Chien-hsin Tasai, and Brian Bernards e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k*,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p. 20.
29) 史書美, 2017, 21頁.
30) 스수메이, 2020, 457~458쪽.

학, 나아가 사이노폰 말레이시아 작가들이 광둥어, 푸젠어, 차오저우어, 만다린 등의 중국어파 언어들에 말레이어, 영어, 타밀어를 혼용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들을 단일한 언어로 묶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중국(청-중화민국-중화인민공화국)은 이들을 중국인다움으로 묶고 조국에 대한 충성을 강요해왔다. 또한 중국 내 소수 에스닉인 후이(回)족으로 분류되는 사이노폰 무슬림 작가들의 경우, 중국 공민으로서 그들에게 부과된 표준어 외에도 아랍어나 투르크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노폰 문학은 현지화한/하는 작가들의 다양한 양상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존중하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다.

4. 디아스포라 반대의 문제

사이노폰 연구는 스수메이가 수창하고 왕더웨이[31]가 논의를 확산했지만, 양자의 차이는 분명해 보인다. 두 사람의 핵심 쟁점이 디아스포라와 중국인다움인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실 디아스포라에 대한 판단은 중국인다움에 대한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개괄적으로 보면, 스수메이는 중국인다움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 왕더웨이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새로운 기의를 부여하려고 한다.

스수메이는 디아스포라를 정착형 식민주의와 연계해 고찰한다. 그녀는 정착민을 "고향 제국의 디아스포라적 주체가 아니라 토착민들에 대한 식민지 개척자"[32]로 간주하고 그들 정착민을 디아스포라 주체로 보는 것은 그들의 "식민적 폭력과 그에 수반되는 문화적 대량학살에 대한 치환(displacement)이자 부인"[33]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정착형 식민주의는 "디아스포라의 어두운 밑면"인 셈이다. 스수메이의 견해를 모든 이주민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정착형 식민주의에 있어서는 식민적 폭력을 디아스포라로 포장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스수메이는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와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를 분리해서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스수메이는 타이완의 《중국현대문학(中國現代文學)》에 게재된 왕더웨이와의 대담에서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와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 개념을 다시 제기했는데, 이는 왕더웨이의 디아스포라 이해와 첨예하게 대립한다.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모든 디아스포라 현상을 포함한다.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는 이러한 경험 속에서 추출한 이론 개념이다. 디아스포라가 가치가 되었을 때 이러한 가치관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힐 수 있고, 이러한 디아스포라는 종결의 시간이 필요하다."[34] 일반적으로 역사 현실은 인식의 대상이고 가치는 판단의 대상이다. 그렇다면 스수메이는 디아스포라를 인식 대상과 판단 대상으로 나누고 있는 셈이다. 스수메이는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 현실은 인정하지만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는 "과거 또는 고국에 대한 무한한 함익(陷溺)"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어느 시점에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수메이는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예로, '대륙을 수복'(反攻大陸)하겠다는 국민당의 대륙 심리(心態. mentality)를 든다. 그것은 "현재의 타이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중국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35]이다. 그 주요한 표현이 타이베

31) 왕더웨이의 사이노폰 논의에 대해서는 임춘성, 2018, 「'이중적 타자'의 '통합의 정치학'—왕더웨이의 『시노폰 담론, 중국문학』을 읽고」, 『중국현대문학』 86호 참조.
32) 스수메이, 2020, 452쪽.
33) 스수메이, 2021, 452쪽.
34) 王德威·史書美, 2017, 「'華語語系與台灣'主題論壇」, 『中國現代文學』 32期, 臺北, 83쪽.
35) 王德威·史書美, 2017, 83쪽.

이 교외의 담수하(淡水河) 치수였다. 스수메이에 따르면, 국민당이든 민진당이든, 오염된 담수하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가 종결된 표현'이라는 것이다. 스수메이는 세계 각지의 화인 집단이 거주지에서 외래인으로 배척받는 것도 거주국 정부가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 정책을 실행하기 때문이라 분석한다. 그녀에 따르면,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 집단의 측면에서는 현지에 대한 책임이 모자라고, 다수자 입장에서는 배외적인 가치관이다. 그러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수행하는 특정한 역할과 정체성이다. 그러므로 스수메이의 맥락에서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디아스포라 현실을 과장하는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는 조만간(早晩間) 종결해야 하는 이데올로기인 셈이다.

이에 대해 왕더웨이는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와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디아스포라의 정치적 잠재력과 능동성'이라는 '디아스포라 의식'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그는 홍콩의 도시국가론(城邦論), 말레이시아 화인 사회와 유대인의 이스라엘 건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디아스포라 의식이 말레이시아 화인 사회를 유지하고 이스라엘을 건국해 유대문화를 풍부하고 다원적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으로 간주한다.[36] 그러나 왕더웨이의 사례에 대해 스수메이의 비판은 단호하다. 특히 이스라엘 건설의 본질을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토지를 잔혹하게 점령한 '정착 식민지'(settler colony)로 규정한다. 나아가 세계 각지의 유대인문화의 훌륭한 표현과 성과가 이스라엘 건국이 있어야 했던 것이 아니었다고 분석하고 시온주의(Zionism), 즉 유대복국주의는 문화계 유대인들도 반대하는 것임을 언급하면서 자신도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냈다.[37]

스수메이가 디아스포라를 역사와 가치의 두 가지로 나누고,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인식하되,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의 이데올로기 작용을 비판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그것을 종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한동안 많은 학자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디아스포라 개념인 만큼, 심층 고찰이 필요하다. 많은 학자가 연구해온 디아스포라 관련 성과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려니와 단기간이긴 해도 이민 1세대와 2세대에게 존재하는 현상을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스수메이에 앞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레이 초우(Chow, Rey. 周蕾)의 디아스포라 담론을 참조체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홍콩 출신의 미국인임을 자처하는 레이 초우 또한 '디아스포라의 유혹에 맞서서(Against the Lures of Diaspora)', '디아스포라 상황의 제3세계 지식인'(the "third world" intellectual in diaspora)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38] 그녀는 '중국인다움'이 "가장 깊이 뿌리 박힌 '유대'의 감정에 의해 작용하며, 심지어 사회적 소외를 감수하더라도 디아스포라 지식인(diasporic intellectuals)이 집단적으로 저항해야 하는 폭력의 근원에 있다."라고 쓰고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글쓰기(writing diaspora)'의 부분 목표는 중국과 홍콩 그리고 기타 등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운동을 계속 지지하면서까지 '중국인다움'과 같은 자신의 에스니시티에 대한 굴복을 궁극적인 기의로 간주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 것이다."[39] 즉 혈연에 기초한 유대에 의해 야기된 '중국인다움'이 디아스포라의 존재 기반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보편주의—한번 중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영원히 중국인이다

36) 이상, 王德威·史書美, 2017, 84~5쪽의 왕더웨이 발언 부분 요약.
37) 이상, 王德威·史書美, 2017, 86쪽의 스수메이 발언 부분 요약.
38) 초우, 레이, 2005, 『디아스포라의 지식인—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장수현·김우영 옮김, 이산, 146쪽.
39) 이상 Chow, Rey, 1993, *Writing Diaspora: Tactics of Intervention in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p.25.

ㅡ와 중심주의로 작용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모든 공민은 말할 것도 없고 해외 이주민ㅡ이른바 '화교' 또는 '화인'ㅡ까지도 중국 또는 중국인다움에 충성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다. 그러므로 디아스포라 지식인은 이 모순적인 연대에 개입하고 저항할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상황의 제3세계 지식인'은 서유럽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의 사이에서 표류하고 헤게모니의 유혹을 받는다.

> '제3세계' 지식인들에게 디아스포라의 유혹은 이 가면 쓴 헤게모니에 있다. 내가 중국연구에서 남성주의적 입장이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급투쟁과 젠더투쟁의 담론을 포함한 '소수자 담론'에 대한 제3세계 지식인의 의존은, 서양에서 자신을 '에스닉'과 '소수자'로 계속 정당화하는 반면, 국내에서 '에스닉'에 대한 그들의 부성애를 베일로 가린다. 그들의 손에서, 소수자 담론과 계급투쟁은, 특히 그들이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성, 또는 다른 몸의 이름을 취할 때, 지식인들의 이익을 위한 담론 교환의 주요 기능이 되는 기표(signifiers)로 변한다.(밑줄-인용자)[40]

초우는 중국인다움에 기반한 디아스포라를 보편주의와 중심주의에 충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는 스수메이의 '가치로서의 디아스포라' 비판과 상통한다. 초우의 주장은 현존하는 상황을 다룬다는 면에서 스수메이의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 상황을 문제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녀는 '역사로서의 디아스포라 상황'에 놓인 제3세계 지식인의 이중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다. 알기 쉽게 미국에 이민 간 중국 지식인을 예로 들어보자. 초우는 '디아스포라 상황의 제3세계 지식인'이 미국과 같은 거주지에서는 자신의 소수자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같은 출신지에서는 미국과 같은 거주지의 헤게모니를 내세우는 양면성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면 쓴 헤게모니(masked hegemony)'란, 미국과 같은 문화적 헤게모니 국가에서 "'제3세계' 여성문화를 포함한 '제3세계' 문화에 대한 자기성찰 없는 후원은 국내에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디아스포라 상황의 지식인들의 헤게모니를 은폐하는 가면"[41]이 된다는 맥락이다. '가면 쓴 헤게모니'를 운용하는 '디아스포라 상황의 제3세계 지식인'은 한편으로는 "미국 내 담론지형에서 (소수 에스닉의) 원천(original)을 활용해 주류 담론에 들어가려"[42]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담론의 헤게모니를 등에 업고 출신지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 이는 또한 "중국 장(China field)에서 남성중심주의자의 입장이 서양에게는 여성으로, 중국 여성에게는 아버지로"[43] 임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는 커다란 유혹이 아닐 수 없고, '디아스포라 상황의 제3세계 비판적 지식인'은 담론 권력 강화와 명망 확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유혹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디아스포라는 중국의 팽창적 국가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팽창적 국가주의의 이론적 배경인 페이샤오퉁의 '다원일체론'은 다원적 에스닉을 중화 네이션 일체로 통합하려는 국민화 담론임을 앞에서 확인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쉬쉰(徐迅)의 '대중국'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쉬쉰은 대륙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중국'의 개념이 '정치중국ㅡ경제중국ㅡ문화중국'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정치중국'은 국가주권을 영유하고 영토 경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가리키고, '경제중국'은 세계 각국에 분포해

40) Chow, 1993, p.118.
41) Chow, 1993, p.118.
42) 임춘성, 2018, 356쪽.
43) Chow, 1993, p.107.

있는 화인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경제와 상업을 유대로 연계된 공동체다. '문화중국'은 유가문화 전통의 영향을 받은 지역까지 가리킨다. 경제중국의 범위는 주권 중국을 초월하고 문화중국은 화인이 있는 거의 모든 동남아국가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량의 중국 이민이 있는 미국까지도 포함하게 된다.[44] 바꿔 말하면, '정치중국'은 한족과 중국 강역 내의 소수 에스닉을 가리키며, '경제중국'은 홍콩.마카오.타이완의 해외 장기 거주 화교(華僑)가 포함되는 '협의의 중화 네이션'을 지칭하고, 마지막으로 '문화중국'은 협의의 중화 네이션에 중국의 국적을 포기한 해외 화인(華人)까지도 포괄하는 '광의의 중화 네이션'을 의미한다. 중국의 팽창적 국가주의는 '광의의 중화 네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흐름에 반해, 재미 학자 스수메이가 수창한 사이노폰 개념은 중국과 중국인다움의 '바깥'을 자처함으로써 많은 연구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통합 지향적인 중국인다움 개념으로는 한족 이외의 55개 에스닉 문화와 해외 이주민 문화를 포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민은 이미 현지에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수메이가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중국어파 언어의 문화'와 중국 내의 '내부 식민지 문화'다. 사이노폰 연구는 중국 밖의 중국-언어 공동체와 문화뿐만 아니라 만다린이 채택되거나 부과된 중국 내 소수 에스닉 공동체와 문화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공동체는 주로 대륙 식민주의, 정착민 식민주의, 이주의 3가지 상호 연관된 역사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으며, 이 과정은 서로 교차하거나 겹칠 때가 있다. 스수메이는 포스트식민 연구와 에스닉 연구 그리고 중국연구 등의 성과에 기반해 '사이노폰 연구'를 새로운 학제적 연구로 제출한 것이다.

5. 중국문학의 자발적 타자, 사이노폰 문학

중국근현대문학사는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이전의 관행이었던 5.4기점이 부정된 지 오래고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점 면에서 첸리췬 등의 20세기중국문학사가 1898년을 기점으로 제시했고 판보췬은 1892년으로 앞당겼으며 옌자옌은 189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왕더웨이에 따르면 1851년 태평천국 시기로 앞당겨진다. 『해상화열전』[45]을 기준으로 본다면 5.4에 비해 약 사반세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문학사 범위도 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삼분법 시기의 셴다이문학사는 좌익문학사였지만, 20세기중국문학사에서 우파문학을 복권시켰고 두 날개 문학사에서 통속문학을 복원시켰다. 여기까지는 이른바 '국가' 범위라 할 수 있다. 21세기 들어 중국근현대문학사는 자기 변신을 통해 초국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중국문학(Chinese Literature)'으로부터 '중어문학(漢語文學. Chinese Literature)'으로 그리고 '중국인문학(華人文學. Chinese Literature)'으로 자기 변신하고 팽창하면서 재구성 단계에 들어섰다. 이들 담론은 중국근현대문학사를 고정된 실체로 보기보다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이해함으로써 포스트주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46] 가능한 모든 범주를 아우르는 통합의 움직임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불모이합(不謀而合)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27년 혁명문학논쟁 이후 좌익작가연맹을 거쳐 「옌안 문예 연설」과 '중국전국문학예술공작자대표대회'를 통해 선전선동의 도구와 사회주의 개조 및 검열의 대상[47]으로 길든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

---

44) 徐迅, 1998, 『民族主義』,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53頁.
45) 한방경(한방칭), 2019, 『해상화열전 上下』, 김영옥 옮김, 산지니.
46) 임춘성, 2013, 66쪽.
47) 임춘성, 2021, 「중국공산당 100년과 중국 근현대문학—선전선동의 도구에서 개조와 검열의 대상으

사이노폰 문학의 문제의식은 바로 다양한 중국어파 언어의 다중적인 문학이 단일한 중국문학으로 통합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2천 년이 넘는 중국문학은 사실상 한족 중심의 문학이었다. '한족-중화 네이션-중국 국가'는 '삼위일체 정체성(trinity identity)'을 구성해 중국인다움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것은 중국 내에서 소수 에스닉 등을 억압하는 기제였고 해외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지는 중국인다움을 강화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사이노폰 문학의 문제 제기는 바로 이 지점을 겨누면서, 그동안 한족 문학과 문화가 억압해온 소수 에스닉과 해외 이주민의 문학과 문화를 복원하고자 한다.

중국문학의 자발적 타자를 자처하는 사이노폰 문학이 중국문학의 철옹성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사이노폰 연구가 기존의 '비판적 중국연구'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또한 속단하기 쉽지 않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이노폰 문학과 사이노폰 연구가 단순한 연구 소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중국문학 연구와 중국연구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좌를 제시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스수메이, 2020,「사이노폰의 개념」, 조영현 옮김,『중국현대문학』95호.
왕더웨이, 2014,『현대 중문소설 작가 22인』, 김혜준 옮김, 학고방.
왕더웨이, 2018,『시노폰 담론, 중국문학-현대성의 다양한 목소리』, 김혜준 옮김, 학고방.
이재현, 2021,「사이노폰 연구와 비판적 중국 연구」(미발표)
임춘성, 2013,『중국 근현대문학사 담론과 타자화』, 문학동네.
임춘성, 2017,『포스트사회주의 중국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정치』, 문화과학사.
임춘성, 2018,「'이중적 타자'의 '통합의 정치학'-왕더웨이의『시노폰 담론, 중국문학』을 읽고」,『중국현대문학』86호.
초우, 레이, 2005,『디아스포라의 지식인-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전술』, 장수현·김우영 옮김, 이산.
판보췬, 2015,『중국현대통속문학사 上』, 김봉연.신동순.신홍철.유경철.임춘성.전병석 옮김. 차이나하우스.

范伯群, 2007,『中國現代通俗文學史(插圖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費孝通主編, 1999,『中華民族多元一體格局』, 北京: 中央民族大學出版社.
黃子平.陳平原.錢理群, 1985,「論"二十世紀文學"」,『文學評論』1985-5.
史書美, 2013,『視覺與認同: 跨太平洋華語語系表述.呈現』, 楊華慶飜譯, 蔡建鑫校訂, 聯經, 臺北.
史書美, 2017,『反離散: 華語語系研究論』, 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 新北.
王德威, 2003,「被壓抑的現代性-晚淸小說的重新評價」, 胡曉眞譯, 王曉明主編,『二十世紀中國文學史論(上)』, 上海: 東方出版中心.
王德威·史書美, 2017,「'華語語系與臺灣'主題論壇」,『中國現代文學』第三十二期.
徐迅 1998,『民族主義』, 中國社會科學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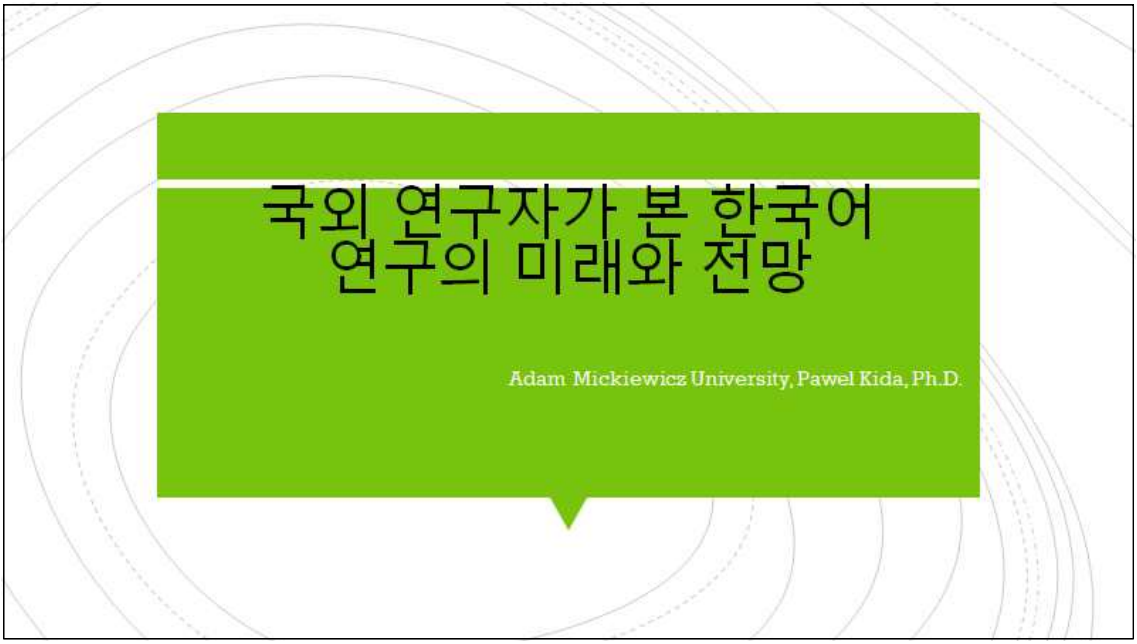
로」,『중국현대문학』제97호. 물론 중국 근현대문학의 역사는 '문학의 힘'을 믿고 선전선동의 요구와 사회주의적 개조에 거리를 두거나 저항해 온 작가들의 성좌(constellation)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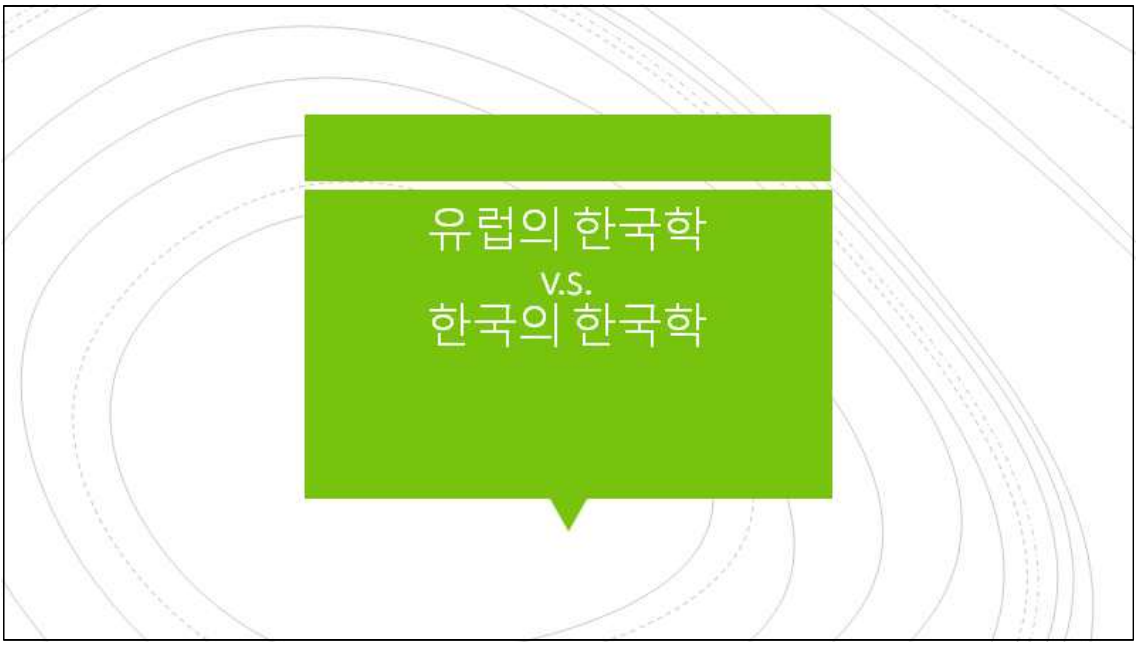
嚴家炎, 2010,『20世紀中國文學史』(上中下), 北京大學出版社.
周蕾, 1995,『寫在家國以外: Alternative Perspectives on Hong Kong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朱壽桐主編, 2010,『漢語新文學通史(上下卷)』, 廣東人民出版社.

Chow, Rey, 1993, *Writing Diaspora: Tactics of Intervention in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Shih, Shu-mei, 2007, *Visuality and Identity: Sinophone Articulations across the Pacific*, University of Calofornia Press, Berkeley & Los Angeles.
Shih, Shu-mei, 2010, "Theory, Asia and the Sinophone", Poscolonial Studies, 13:4, 465-484.
Shih, Shu-mei, 2013a, "Introduction: What Is Sinophone Studies?" in Shu-mei Shih, Chien-hsin Tasai, and Brian Bernards e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Shih, Shu-Mei, 2013b, "Against Diaspora: The Sinophone as Places of Cultural Production", Shu-mei Shih, Chien-hsin Tsai, and Brian Bernards, e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Shu-mei Shih, Chien-hsin Tasai, and Brian Bernards eds., *Sinophone Studies: A Critical R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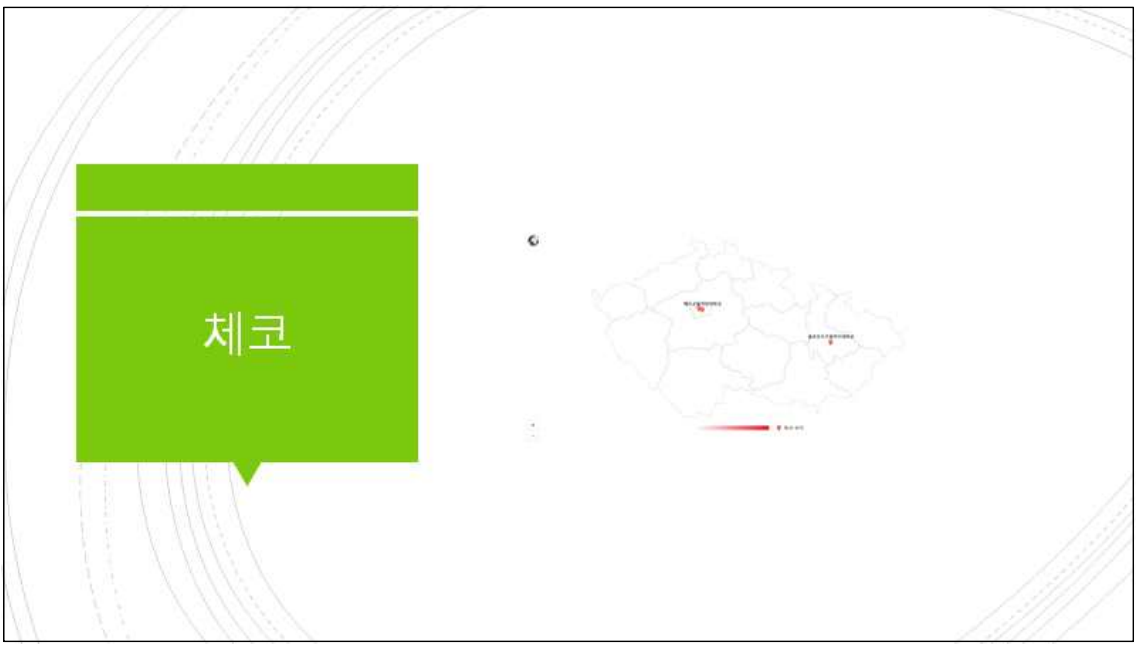
국외 연구자가 본 한국어 연구의 미래와 전망

파베우 키다 Pawel Kida
(폴란드 아담 미츠키에비즈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소역사-체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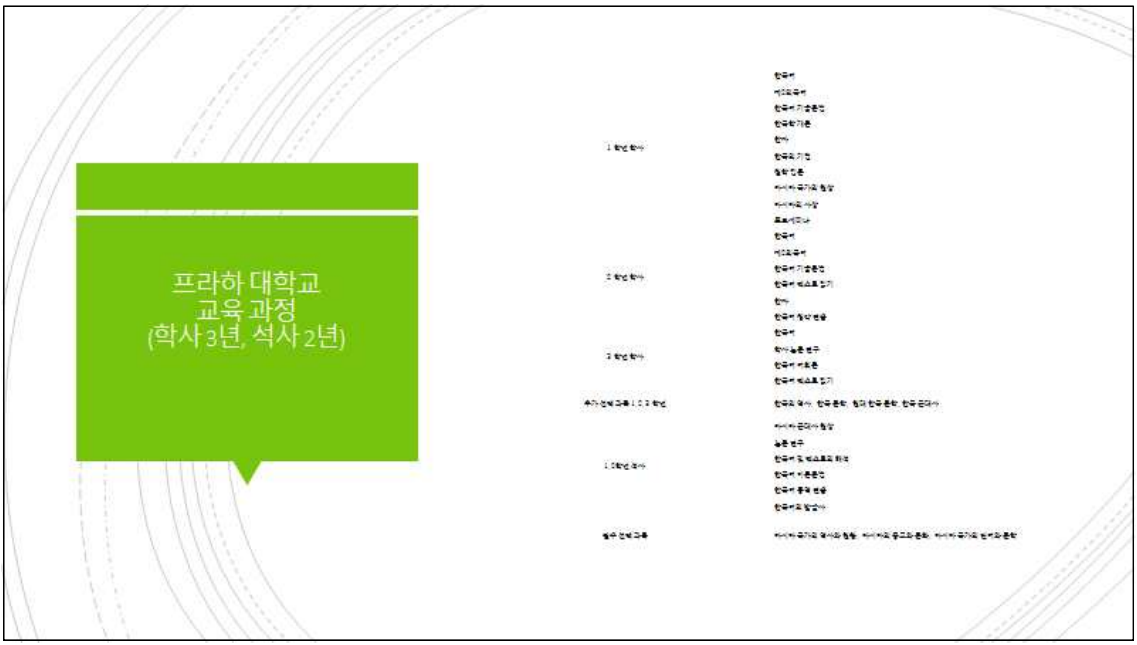
- 유럽 가장 오래된 한국학 – 프라하 대학교 1950년
- Vladimír Puck 교수
- Miriam Löwensteinová 교수
- Marek Zemanek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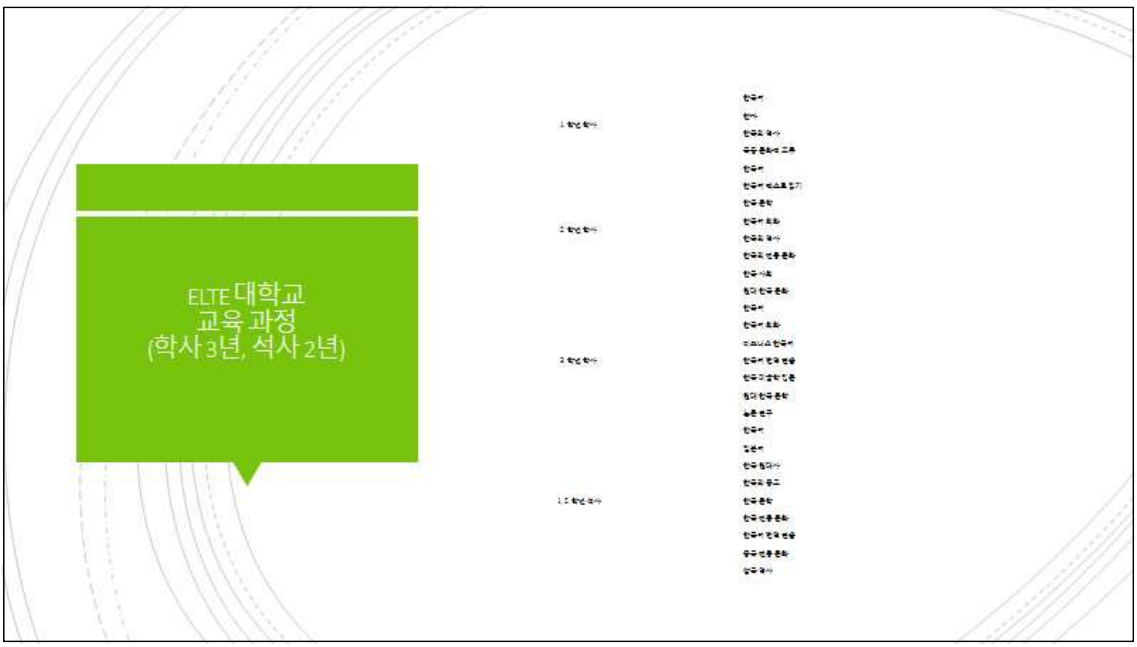
소역사-폴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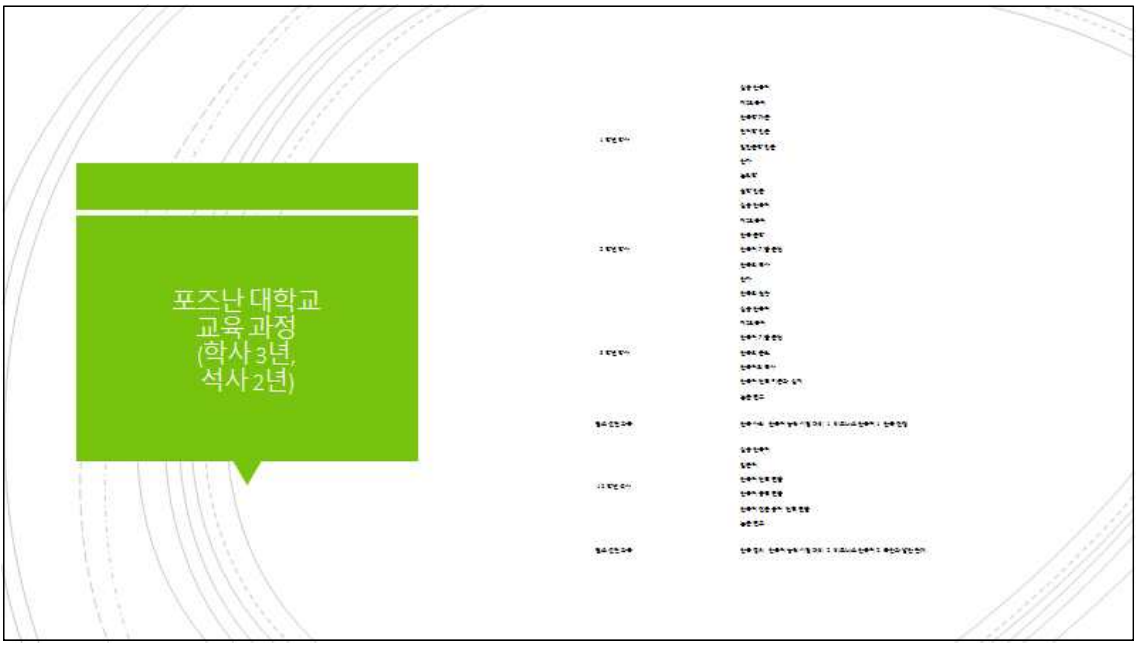
- 바르샤바 대학교
- 아담 미츠키에비즈 대학교
- 야기엘로니안 대학교
- 브로츠와프 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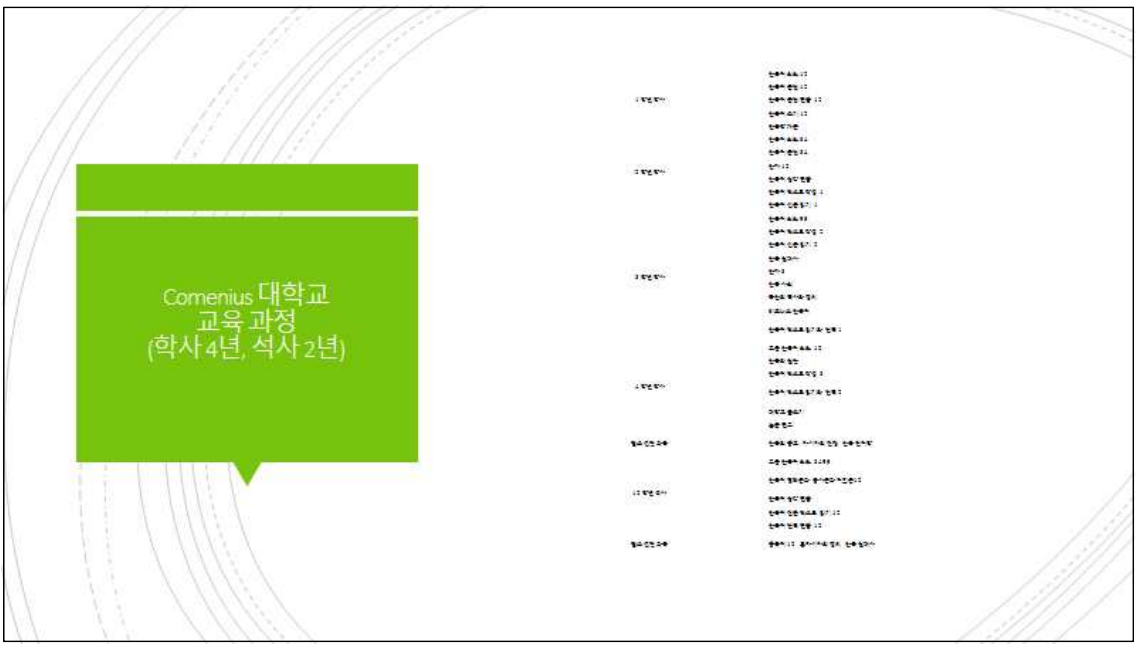
소역사-
헝가리
ELTE 대학교
Mozes Csoma 교수
Beatrix Mecsi교수

소역사-
슬로바키아
Comenius 대학교
Milos Prochazka 교수


프라하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ELTE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포즈난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3년,
석사 2년)


Comenius 대학교
교육 과정
(학사 4년, 석사 2년)

연구와 문제점

- 단행본 출판
- 공동 프로젝트
- 강사와 교수 부족
- 한국인 학자와 협력
- 한국국제교류재단 역할
- 한국학 중앙 연구원 역할
- 자매 대학교 협력

전망

- 유형론 입장에서 기술된 한국어
- 학제적 연구 방법
- 연구 자료 디지털화 및 공유
- 제자 교육
- 한국인 학자의 외국인 논문 심사와 지적
- 단행본 공동 저자: 외국인/한국인

감사합니다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의 복원 복권 - 코리아문화사 연구방법론

김성수(성균관대)

[차례]

1. 문제제기 :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
2. 서만일의 '도식주의 비판'론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풍부화와 수정주의
3. 김창석의 미학적 '수정주의' : 사회주의 보편 미학의 교조적 수용과 주체적 수용
4. 마무리 : '기타 국문학' 북한문학에서 '코리아문화사'로

1. 문제제기 :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

이 글의 문제의식은 국문학 연구 대상이 '한국문학'이라는 명제가 자명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한다. 한반도적 시각으로 이남의 한국문학과 이북의 '조선문학'을 아울러 연구하는 코리아적 시각을 제안하는 모험적 시론이다. 기존 '한국-조선'문학의 자명한 듯 보이는 정전(공식 문학사, 작품전집, 교과서 등)을 해체하고, 남북 공식 정전에서 사라진 월북 작가(이남 시점)와 숙청 작가(이북 시각)의 복권과 그 문학 활동의 복원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북한문학은 분단 이전의 '우리 문학'을 조상으로 공유한다. 하지만 <피바다>, <꽃 파는 처녀> 등 '항일혁명문학예술'을 문학사적 적통으로 신성시하며 최고 지도자인 수령에 대한 충성을 선전하는 총서 『불멸의 력사』, 『불멸의 향도』 같은 '수령형상문학'을 절대시하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이렇듯 국가명부터 일상용어, 언어와 문학을 둘러싼 용어 개념의 분단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호칭	**국가 공식 명칭과 상징**	**외국의 호명**	**남의 호명**	**북의 호명**
남	대한민국 ROK (태극기, 애국가)	사우스코리아 SK	남한	남조선
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DPRK(인공기, 애국가)	노스코리아 NK	북한	북조선, 조선
전체	코리아 (한반도기, 아리랑)	코리아	남북한	북남조선

코리아반도의 근대적 민족국가는 1948년 이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어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코리아가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로 불린다. 이를 문학에 대입해보자.

호칭	**모국어**	**자기 문학 호칭**	**문학 주체**	**문학 조직**	**문학 수용자**

남	한국어 (표준어)	한국문학 (문화예술)	문인 작가	한국문인협회, 펜클럽 한국지부, 한국작가회의	시민(국민)
북	조선어 (문화어)	조선문학 (문학예술)	작가	조선작가동맹	인민(공민) 독자
전체	겨레말, 한글	민족문학 민족문화	문학인	6.15민족문학인협회	독자

그런데 한반도 남북의 작가 개념을 비교할 때 문제가 있다. 남북이 각각 영향 받거나 참조한 근대적 개념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독자적 용어 개념으로서의 작가 또는 문인이 특정 직업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라는 차이 때문에 작가라는 용어나 개념이 복수의 이중적 개념으로 실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1)]

그래서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의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코리아문학, 한(조선)반도'의 소통과 교류, 협력이 진정으로 가능해진다.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의 분단/냉전을 진정성 있게 극복하려면 기존의 자기중심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북이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적대적 인수 합병=흡수 통일'하려 강제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는 기존의 북한문학 수용방식을 지양하고 둘의 차이를 겸허하게 인정하며 '창조적 다양성의 포용' 정도로 통합을 보다 길게 보는, 일종의 '통합프로세스'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한다.

왜 한국문학/북한문학이 아니고 '한국-조선'문학, 코리아문학-코리아문화사인가? 기존의 북한문학 수용(연구)을 지양하자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한국(남조선)에서 이루어진 '북한학'은 북한(조선)에서 이루어진 '조선학'과 다르다. 분단과 통합 또는 재통합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언급하는 한글문학은 한겨레 민족문학인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용어이자 모국어인 한국어/조선어와 한글(표준어와 문화어, 서울말과 평양말)로 쓰여진 '한국-조선'문학인지 불분명하다.

이때 '북한문학'이란 언표는 한국민의 상상 속의 '북조선문학'을 호칭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필자를 비롯한 북한문학 연구자가 관행적으로 저지른 공통적인 잘못도 있다. 북한 당국의 체제적 시각을 담은 문건, 정전만 대상으로 삼는 것도 문제지만, '당黨문학/탈북문학, 공식/비공식문학, 체제/비체제문학' 등으로 나눈 후 타자의 시선에서 보고 싶은 후자만 골라 보곤 한다. 서울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평양의 문학만 골라보는 것이 아닌지 근본적으로 반성하면 기실 '북한문학'은 만들어진 가상일 수도 있다.[2)] 실제로는 '조선문학'인데도 북한문학을 단순화, 유형화시켜 평가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진다. 이 점은 평양에서 남조선을 연구하는 '남조선학' 자들의 편향이 훨씬 심하다. 여기서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의 자기중심적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내린다면, 일종의 이념형이겠지만 '코리아문학, 코리아문화사'란 잠정적 개념이 기능하다.

'코리아문화사' 연구방법론의 실체는 '한국-조선'문학의 기존 정전을 해체한다고 저절로 되

1) 남북한의 문학예술 분야 개념의 분단사를 연구한 공동작업으로, 구갑우, 김성수 외,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전 8권,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2021. 참조. 필자는 「(민족)문학 개념의 분단사」(제2권). 「장르와 사조 개념의 남북 분단사 총론」, 「리얼리즘(사실주의) 문학 사조 개념의 남북 분단사」(제4권); 「독자」(제7권) ; 「작가, 필독서, 전형」,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8』,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21.3., 109-130, 149-171, 221-239면을 집필하였다. 인용한 용어 개념의 남북 비교 표는 제8권, 110-111면 참조.

2) 남원진, 『북한문학은 없다!(북조선대표소설선집)』, 경진출판, 2019.8. 참조

는 일이 아니다. 서울의 우리가 지난 30년 넘게 재월북 작가 예술가를 복권하여 그들의 문학예술을 상당 부분 복원했듯이, 평양의 학자, 평론가들이 숙청 작가를 복권하고 그들이 지워버린 과거사를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북의 정치적 이념적 학문적 현실을 냉혹하게 따져보면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설령 우리 방식의 해금, 복권이 된다 해도 1차 사료를 대하는 학문능력[3] 등 현실적으로도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사료가 망실, 훼손되기 전에 서울의 북한학자가 코리아학이란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접근해서 이들을 복권하고 문학을 복원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당대 기록물인 1차 사료, 즉 작품이 처음 발표된 당대 미디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사후적 검열 왜곡이 아직 되지 않은 판본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필자는 『조선문학』, 『청년문학』, 『문학신문』 『조선예술』 『조선음악』, 『조선미술』, 『조선영화』 등의 문예지와 『로동신문』, 『천리마』, 『조선녀성』, 그리고 재일동포의 『조국』, 재중동포의 『천지』 등 각종 매체의 기사, 문건, 비문자텍스트 등 미디어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로 30년째 정리하고 있다. 이북 체제가 유일사상체계로 결박된 인간들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말글로 소통 가능한 한겨레라고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미디어로 간접적이나마 실감나고 총체적으로 만나보자는 기대 때문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서만일, 김창석의 복권을 위해 문학 활동의 복원 및 재평가를 제안한다. 이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도식주의 비판'론(1956-58) 때 리얼리스트로 각광받았지만, 김일성의 1958년 10월 교시 이후 전개된 '수정주의 비판'론(1958~62)의 전개과정에서 북조선 문예당국과 작가 비평가들의 집중 비판을 받고 정전에서 배제, 숙청되었다. 이들은 이북에서 정치적 자료적 이유로 복권 복원되지 않기에, 우리가 한반도적 시각에서 '코리아 이북문학'의 명분으로 복권 복원할 수 있다. 이는 '코리아문화사' 연구방법의 모험적 시도이기도 하다.[4]

2. 서만일의 '도식주의 비판'론 :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풍부화와 수정주의

우리가 이번에 복권 복원하고자 하는 서만일(1919~?)은 북한문학 70년 역사상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롭게 미학과 창작 논쟁이 벌어졌던 제2차 작가대회 전후의 '도식주의 비판'론(1955-59)을 기획 주도한 작가이다. 먼저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1919년 평양 출생으로 고학으로 도쿄 니혼대학(일본대학) 예술과를 다니다 중퇴하였다. 학생극단인 '형상좌' 활동과 관련하여 검거되어 1년간 옥고를 치른 뒤 귀국하였다. 1946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1947년 평양국립극장에서 일하다[5] 소련 '모스크바 고리끼문학대학'으로 유학하여 1953년 8월 귀국하였다. 1958년 말 숙청될 때까지 문학평론과 번역, 희곡, 시, 동시를 창작했으며, 작가동맹 서기장과

3) 주체사상이 유일화된 1967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진행된 이른바 '도서정리사업' 과정에서 엄청난 사료 훼손과 망실이 북한판 분서갱유 수준으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4) 왜 문학이 아니고 문학예술/문화, 한국/조선'문학' 대신 코리아'문화사'를 말하는가? 학문 지형도에서 문학과 비문학 예술의 분리는 교육제도, 학계의 권력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하기에 그러한 비학문적 관료주의,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필자가 복권 복권하고자 하는 임화(시 평론 연극 영화), 리갑기(미술평론 문학평론 시 소설 사화), 서만일(연극, 로어 통번역, 시, 동시, 희곡, 시나리오, 평론, 번역, 오체르크), 김창석(연극이론, 연출, 문학평론, 미술평론, 미학, 번역) 등을 문학 분야로 한정해서 연구하면 곤란하다.

5) 서만일, 「김구 삽화」, 『8.15해방 1주년 기념 희곡집』, 문화전선사, 1946; 서만일, 「해풍」(희곡), 한태천, 김일룡 공저, 국립예술극단 편, 『인민희곡집』, 문화전선사, 1947.

부위원장을 거쳤고 북한을 대표하는 문예지 『조선문학』의 창간(1953.10)부터 5년간 편집위원을 지내는 등 팔방미인형 활동가였다.[6)]

6.25전쟁이 끝난 후 열린 제1차 조선작가예술가대회(1953.9)의 '반종파투쟁' 결과 임화 김남천 이태준 등 남로당계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던 문예총이 해체되고 작가동맹만 남았다. 문예총 기관지 『문학예술』을 폐간하고 북한문학을 대표하는 문예지로 작가동맹 『조선문학』이 1953년 10월 창간되었다. 서만일은 초대 편집위원으로 1958년 9월호[7)]까지 5년간 최장기 활동하였다. 『조선문학』뿐만 아니라 1956년 3월 창간된 『청년문학』과 1956년 12월 창간된 『문학신문』의 초대 편집위원에도 어김없이 서만일의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전 방위적 미디어 권력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1953년 11월 작가동맹 외국문학분과의 초대 위원장으로, 강필주, 리효운, 변문식, 최봉규, 백석, 배호 등과 소련 동구 등 외국문학 소개 번역 및 연구에 종사하였다. 연극, 극작에도 참여하여 4막극 「가족」을 쓰고 한설야 소설 「승냥이」를 각색하였으며 작가동맹 직속 작가학원을 개설했을 때 송영과 함께 극문학을 가르쳤다.

1954년에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번역과 「레닌이 본 똘스또이」, 「행복의 원천」, 「쓰딸린 대원수의 고향을 찾아서」, 「빠블로 네루다에 대하여」, 「5월의 바다」, 「문학의 쟝르로서의 오체르크와 그 예술성」 등 새로운 문학장르인 '오체르크'(실화문학, 다큐문학)를 개척한 공으로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문예 2등상을 받았다. 1955년에는 시집 『봉선화』로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 문예 2등상을 받았다.

1956년 1월 작가동맹 결정으로 좌경적 전횡을 휘두르던 서기장 홍순철이 해임되고 박팔양이 신임 서기장이 되었으며, 김조규, 민병균 등이 제명된 사건이 있었다.[8)] 서만일은 박팔양의 뒤를 이어 서기장이 되었고 1957년에는 박팔양과 함께 부위원장이 되었다. 문단 대표가 되어 인도 델리를 방문하여 조선인도문화협회 부위원장을 맡고 기행기를 내거나, 평양을 방문한 일본신극대표단, 불가리아 작가 등 외국 작가와의 좌담회와 담화도 하고 각종 기념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9)] 1958년에는 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에 참석하여 참가기를 쓰거나 시를 쓰

---

6) 서만일의 경력은 다음 자료를 참조하였다. 서만일, 「저자 약력」, 『인도기행』, 1957. 고자연, 「냉전기 북한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 서만일 『인도기행』을 중심으로」, 2021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구로아시아포럼(가상), 2021.3.15. 자료를 제공해준 고자연, 한상언 선생님께 감사한다.

7) 다음 호부터 익명의 편집위원회 체제로 바뀌는데, 이는 매체사적 전환뿐만 아니라 문학사적 정치사적 변모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성수, 『미디어로 다시 보는 북한문학 : 『조선문학』(1946~2019)의 문학·문화사』, 역락출판사, 2020, 91면. 참조,

8) 『조선문학』 1956년 2월호의 「평양시당 관하 문학 예술 선전 출판 부문 열성자 회의에서 한 한설야 동지의 보고」(1956.2.15.일부 '로동신문'에서 전재-부기)에서 '림화 도당'과 '기석복 일파'를 비판하고, 고정란인 「'작가동맹에서」에 실린 '제3차 당대회(1956.1.27)와 관련하여 조선작가동맹 제23차 상무위원회 박팔양 서기장의 보고와 결정서'에서 림화·리태준·김남천을 종파분자로 규정 비판하고, 기석복·정률·민병균·김조규를 제명하며, 홍순철 서기장을 해임하고 박팔양으로 교체하며, 리서향·안회남·한진식·김조규 등을 이색분자라 비판한 사건이다.

9) 서만일, 「아세아작가대회…(제2신) 조선 대표단 델리에 도착(12.21.델리 비행장에서)」, 『문학신문』 1956.12.27., 3면 ; 미상, 「아세아작가대회에 참가하였던 작가 서만일 귀국」, 『문학신문』 1957.1.7., 1면 ; 미상, 「조선인도문화협회 창립 대회 진행(조인문화협회 집행위원(19명) 위원장 한설야, 부위원장 서만일 외」, 『문학신문』 1957.5.16., 1면; 미상, 「일본신극대표단들과의 좌담회(작가동맹 한설야 위원장, 대외문화련락협회 안막 부위원장, 작가동맹 박팔양, 서만일 량 부위원장, 인민배우 최승희, 극작가 신고송, 김승구 외,」, 『문학신문』 1957.5.30, 1면 ; 미상, 「볼가리야 작가와의 좌담회_서만일 부위원장과 볼가리야 작가와의 담화, 작가동맹출판사 책임 일'군들과 볼가리야 작가와의 좌담회」, 『문학신문』 1957.7.11., 1면 ; 미상, 「친선의 좌담회 (한설야, 리북명, 서만일, 윤두헌, 조중곤, 김명수 참석)」, 『문학신문』 1957.7.18., 2면 ; 서만일, 『인도기행』, 1957 ; 서만일, 「델리-따슈껜트」, 『문학신문』 1958.10.9., 3면.

고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다.[10)]

서만일은 1946년부터 1958년까지 평양에서 희곡, 시, 동시, 오체르크를 창작하고 비평과 통번역 및 러시아어 극본과 시집도 냈다. 조선작가동맹 서기장과 부위원장, 각종 문예지의 편집위원 등을 두루 지냈다. 그런데 남북 문학 정전 어디에도 그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그가 제2차 조선작가대회를 상징하는 인물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을 호도한 수정주의자이며 부르주아미학사상의 잔재로 몰려 숙청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막은 무엇인가?

제2차 조선작가대회 당시 작가동맹 서기장이었던 서만일이 보기에, 1956년 문예장의 화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에 대한 기왕의 '독단주의와 도식주의, 그리고 그것들의 후과들과의 투쟁'이라고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 다음은 대회 직후 창간된 『문학신문』에 실린 제2차 작가대회의 성과를 총화하는 자기평가 글이다.

> 제2차 조선작가대회는 우리나라 문학 발전에 있어서 새로운 도표를 세워놓았다. 독단주의와 도식주의, 그리고 그것들의 후과들과의 투쟁은 그 자체가 바로 시대의 정신을 표시하는 것이며, 또한 이는 우리나라 문학에서의 한 전환을 명시하는 것이다.(중략)
>
> 우리 작가들은 한번도 문학에 있어서의 당성의 모든 기본적 원칙들에서 리탈한 때라고는 없었다. 실상 우리들의 모든 오유는 무지로 인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맹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기인된 것들이 아니였던가! 바로 이런 까닭으로 하여 우리들은 다 같이, 사회주의 사실주의야말로 유일한 창작방법이라는 리론적 해명과 함께 지난날 우리들이 범한 이러저러한 창작상 오유도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 자체가 내포한 결함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창작방법에 대한 옳지 않은 해석에서 산생되였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회에 이르렀던 것이다.
>
> 대회에 우리 작가들이 단결된 대오로써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또한 대회가 있기 벌써 1년 전에 우리 작가동맹 안에서는 죄악적인 종파분자들의 전적인 패배로 끝난 첨예하고도 원칙적인 투쟁이 종말을 고하였다는 사정으로써도 설명되는 것이다.[11)]

'도식주의 기록주의' 비판을 구호로 내건 작가대회(1956) 전후로 문학사적 대표작이 적잖이 나왔다. 서만일이 복권을 시도했던 당시 문제작들은 대회를 계기로 일시적으로 복권되어 한때 평가받았으나 훗날 부르주아미학사상 잔재와 기회주의적 우경화의 산물로 비판받아 정전에서 탈락한 문제작이다: 안막의 「'서정시 4편' 중 무지개」, 김영철의 「'국방군' 병사에게」, 신동철의 「'전선시초' 중 전사와 황소」, 전초민의 「꽃씨」, 리순영의 「'서정시 3편' 중 노을, 산딸기」, 김영석의 「이 청년을 사랑하라」 등의 서정시편들과 서만일의 시집 『봉선화』, 그리고 전재경의 「나비」, 리순영의 「진달래」, 신동철의 「들」 등 단편소설들이다.[12)]

---

10) 서만일, 「한 마을의 력사-조선로동당 제1차 대표자회에 참가하여」, 『문학신문』 1958.3.13., 1면; 서만일, 「'제1차 당 대표자회 결정 실천을 위하여'_신들메 졸라매자 갈 길은 바쁜데…, 생활을 찬양하리 새 생활을!」(시 2편), 『로동신문』 1958.3.9., 2면 ; 웨. 씌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조선작가들의 투쟁을 지지 - 박팔양 서만일 동지 앞」(공개서한), 『문학신문』 1958.4.17., 3면 ; 서만일, 「인도주의적 교양의 길에서 - 6.1절을 맞으며 아그니야 바르또에게(1958.5.20)」, 『문학신문』 1958.5.29., 4면 ; 서만일 외 작가 일동, 「전쟁의 불씨를 끄자! - 전 세계 작가들에게 보낸 쏘련 작가들의 호소에 대답하여」, 『문학신문』 1958.8.14, 2면.

11) 서만일, 「시대의 정신-제2차 작가대회를 마치고」, 『문학신문』 1956.12.6., 2-3면.

12) 안막, 「서정시 4편 중- 무지개」, 『조선문학』 1955.1.; 김영석, 「이 청년을 사랑하라」, 『조선문학』 1955.2.; 신동철, 「전선시초 - 전사와 황소」, 『조선문학』 1955.2, 109~115면 ; 전초민, 「꽃씨」, 『조선문학』 1955.3. ; 리순영, 「서정시 3편- 노을, 봄, 산딸기」, 『조선문학』 1955.4 ; 전재경 「나비」(단편), 『조선문학』 1956.11; 리순영, 「진달래」(단편), 『조선문학』 1958.10, 5~17면; 신동철, 「들」(단편),

그 중심에 서만일 시집『봉선화』가 있다. 당시엔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의 서정성에 대한 폭넓은 해석으로 상찬 받고 상까지 받은 시집이다.[13] 전쟁과 일상을 병행하는 서정적 정서가 함축된시집 표제작「봉선화」를 다시 보자.

적탄은 앞뒷산을 / 숯처럼 태웠건만 / 제철 찾은 봉선화는 / 울 밑에 피였구나//
하룻일에 지친 몸 / 고되지 않으랴만/ 밤이면 남 몰래 / 손톱마다 붉은 물을 들인다.//
끓는 이마에서 이마로 / 그 손이 옮겨갈 제 / 전사들은 간호원의 손에서 / 고향을 숨쉰다.//
조용한 숨결 속에 / 래일의 힘을 기른다. (1951.3.)

시 구절에서 군민일체의 서정적 이미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다. 종군 간호사로 부상병 치료에 매진하다가 고된 업무 사이의 휴식시간에 손톱에 봉선화 꽃물을 들이는 것이 고답적 당 문학론자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그리도 사치한 부르주아 정서일까. 부상병들이 간호사의 봉선화 꽃물에서 고향이나 누이를 환기하고 조국과 향토, 민간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 당시에도 평론가 김명수는 봉선화를 민족 전통과 관련된 인연 깊은 꽃이며, 처녀들이 봉선화 꽃으로 손톱에 물들이는 풍습을 고상하고 순결 사랑의 마음씨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아름다운 풍경을 포착한 시인의 내부적 체험의 깊이가 놀랍다면서, "간결한 형식 속에 담겨진 그 그윽한 민족적 향취와 향토에 대한 사랑으로 빛을 뿌린다."고 칭찬하고 있다.[14]

이러한 해석은 종래 북한 문예비평에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풍부한 감수성의 발로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소재주의적 한계도 보이지 않으며 형식이나 기교문제를 도외시하던 내용일변도 해석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서정적 대상과 서정적 자아(여기서는 시인 자신)을 구별하고 서정적 자아의 내부 체험에 주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이 작품이 일견 리얼리즘시로 생각되기도 한다.[15]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 비평에서 서정성만 강조하면 정치성과의 긴장관계를 놓치게 될 것이다. 서만일 자신조차 이러한 역편향을 문제 삼았을 정도이다. 산문에서 일부 작가들이 도식주의 비판을 부정적 현실의 일방적 과장에로 몰아가거나 극작에서 갈등을 비극적 종말로 엮어가듯이, 서정시에서 노동 찬가 주제를 사랑 찬가로 대체하는 '본질적' 변화는 역편향이라는 자기비판이다. 사랑이 아무리 항구적인 긍정적 주제라 하여도 그 사랑이 시대의 높은 도덕적 관념, 사람들을 낮은 데로부터 높은 데로 이끌어주는 시대의 요구, 생활의 원천을 이루는 사회적 추진력의 구체적 표현이 못되면 문제라는 반성이다.

도식주의의 경우 작품에서 내용의 시의적절함만을 노려 앙상한 정책 해설로 전락하는 비예술성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도식주의 비판의 미명 하에 주제를 교체하고 영원한 인간성을 그린다면서 그때그때의 시사성을 제거하여 추상적인 공론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독단주의에 사로잡혀 한때는 현실을 수식하여 '완전무결한 긍정적' 즉 '이상적 주인공'을 탐색하여 작품을 도식주의적으로 떨어뜨리게 했다면, 이제 와서는 그와 다른 또 하나의 독단주의에 의해 부정적 인물을 도식적으로 가공해내는 데 급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또 하나의

『조선문학』 1958.11, 84~90면.

13) 김하,「시집『봉선화』」(서적평),『조선문학』 1956.5., 191면 ; 김명수,「시대정신의 날개 - 시문학」,『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16-218면 참조.

14) 김명수,「시대정신의 날개 - 시문학」, 『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216-218면

15) 서만일「봉선화」해석 부분은 필자의 기존 논문을 요약한 것이다.「전후문학의 도식주의 논쟁-1950년대 북한 비평사의 쟁점」, 김철 외,『한국 전후문학의 형성과 전개』(문학과 논리 3호), 태학사, 1993.

독단주의는 올바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길이 아닌 것이다.[16]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미학은 창작과정의 개인적 자유보다 조직적 지도를 중시한다. 때문에 도식주의 비판론이 우경화되면 조직적인 창작 지도에서 벗어나야 오히려 더 나은 창작을 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줄 수 있다.[17] 자유로운 창작 풍토는 한국과 같은 자본제 자유민주체제에서는 미덕이지만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용납되기 어렵다.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적 레짐을 완성했다는 자긍심이 가득했던 1958년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사회경제적 토대로부터 예술의 특수성을 강조하거나 도식주의 비판이 곧바로 개인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여지를 주는 것 자체를 수정주의미학이나 부르주아미학의 소산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만일 최후의 본격 비평인 「작가와 시대정신」에서 문제가 생긴다. 윤세평 외 공저인 『해방후 우리 문학』(1958)은 원래 윤세평 단독 저서인 『해방전 우리 문학』(1958)의 후속 저서로 일종의 문학사를 시도한 공저였다. 그런데 제2차 작가대회의 '도식주의 비판'론에 편승하여 소련의 권위에 기댄 기석복, 정률, 전동혁 등 교조적 당문학론자들을 비롯한 카프 출신원로 한효 안함광을 비판하고 전임 서기장인 홍순철 등 문단권력을 전 방위적으로 비판하는 데 급급하여 반격당할 여지를 너무 많이 드러낸 것이다. 가령 2차 작가대회를 통해 "독단주의와의 투쟁이 비단 문학리론을 그 악명 높은 교조주의로부터 해방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실로 우리들 자신의 질곡이던 교조주의적 사고로부터 해방시"켰다고 주장한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다. 나아가 대회가 개최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독단주의에 대한 독단주의적 인식을 반대하는 인식론적 균형을 기한 점도 높이 살만하다.[18]

그러나 문학사 또는 비평사적 시각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 쟁점은 제2차 작가대회의 의의를 미학적 도식주의와 이념적 독단주의에 반대하고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방법의 '풍부화'를 기한 서만일을 기회주의적 우경화, 심지어 부르주아 미학의 담지자로 몰아 고답적인 당문학 원칙을 고수하려 한 문단 주류 장형준, 김하명, 한설야 등의 반비판이다. 가령 장형준은 제2차 작가대회의 의의가 미학적 도식주의와 이념적 독단주의에 반대한 데 있다는 서만일 주장을 당문학 원칙 강화를 자유주의적 우경화로 잘못 해석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게다가 이미 숙청된 최승희와 그의 무용을 고평[19]한 것조차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심지어 서만일의 자기표절, 타인표절도 학문윤리 위반으로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서만일의 론문 「작가와 시대정신」도 새로 씌여진 것이 아니다. 1-2년 전에 문학신문에 발표된 「시대의 정신」, 「독단주의에 대한 독단주의적 인식을 반대하여」[20] 등을 거의 수정함이 없이 한데 모아서 그대로 내놓은 것이다. 문학을 인민과 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치부의 수단으로, 출세의 도구로 삼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16) 서만일, 「작가와 시대정신」, 윤세평 외, 『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9, 353~397면.

17) 윤두헌,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길에서- 제2차 작가대회 이후의 우리 문학 창작상에 나타난 문제들에 대하여」, 『조선문학』 1957.4.

18) 즉, "대회 연단을 리용하여 우리는 작품의 문제성에 대하여 많이 말하였다. 그것은 작품에서 시사성만을 노려서 앙상한 정책 해설에 떨어지는 비예술성을 경고하는 것과 결부되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것이 변종되여 주제의 교체와 작품에서의 생신한 시사성의 제거로 줄달음치는 경향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서만일, 「작가와 시대정신」, 윤세평 외, 『해방후 우리 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9, 353~397면.

19) 서만일, 「조선을 빛내고저 - 최승희의 예술과 활동」(총 6회 연ㅈ), 『조선예술』, 1957.10~58.3.

20) 서만일, 「시대의 정신-제2차 작가대회를 마치고」, 『문학신문』 1956.12.6., 2-3면 ; 서만일, 「독단주의에 대한 독단주의적 인식을 반대하여(1956.10. 중국 《문예보》에서 초역)」, 『문학신문』 1957.1.14., 1면.

> 그의 비렬한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남의 작품을 표절 모작하여 자기의 창작인 것처럼 뻔뻔스럽게 내놓는 것을 상투적 수법으로 하고 있다. 그의 론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기행문 「인도 기행」도 외국 작가의 글을 표절하며 모작한 것이며, 그의 시편들도 그렇게 '창작' 된 것이 한두 편이 아니다. 그러니 이 비렬한 사기적 행위에 대해서야 더 무슨 론증이 필요하겠는가? 문학의 당성과 문학에 대한 당의 지도를 거세, 또는 외곡하며 자기의 창작으로써 부르죠아 사상을 선전하고 표절의 방법으로 사기적 행동을 감행하며 돈'벌이를 일삼은 서만일과 같은 자는 그 선행자들과 마찬가지로 당'적이며 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우리 문학 대렬에 끼워 있을 자리가 없다. 이것은 사태의 변증법적 발전의 응당한 귀결이다.[21]

그런데 「인도 기행」이 외국 글을 모작했다면, 194,50년대 북한 글의 상당수도 선진국 소련 및 동구의 글을 번역, 출처 불명 소개가 많았던 후진적 풍토가 만연했기에 그리 쉽게 특정 개인의 표절만 딱 떼어내 쉽게 매도할 수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자기 표절은 지금도 변호가 가능하다. 신문 잡지에 실었던 자신의 글을 공저 단행본에 수정 보완해서 다시 실었던 것을 두고 '치부와 출세를 위해' 학문 윤리를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비난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산발적인 도식주의 반비판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1959년도 평론분과 보고문에 나타난 분과위원장 김하명의 비판이다. 그에 의하면 1950년대 북한 비평의 잘못된 행태는 도식주의경향에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당적 원칙에 위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도식주의 비판이란 명분으로 사회주의 문예의 우경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1958년 6~10월경 절정에 이른다. 가령 『조선문학』『문학신문』 지면을 분석하면 주필 박웅걸, 부주필 전재경, 편집위원 김순석, 김승구, 신구현, 조령출 등이 서만일의 주도로 다양한 성향의 작품도 싣고 비평 및 작가연단에서 조직 지도부나 구세대를 비판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1958년 10월의 김일성 교시를 결정적 계기로 해서 일거에 역풍을 맞고 말았다. 추정컨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편집위원 다수가 숙청된 듯하다. 1959년 나온 김하명, 한설야에 의해서 박웅걸·전재경·김순석·서만일 등이 실명 비판[22]되었다. 매체사적으로 추정컨대 1956년 전후의 '도식주의 비판' 론이 초래한 우경화 편향이 당의 역풍을 맞아 결정적 백래시를 당한 시기였다.

김하명에 의하면 제 2차 작가대회 이전에 홍순철의 비호로 한효 등의 '타도식, 곤봉식' 비평이 있었는데 이는 도식주의 편향을 비판한 말이다. 그런데 제2차 작가대회 이후 서만일, 윤두헌, 김명수, 김영철 등이 서로 적당히 조화하면서 잘못을 묵인하고 장점만 나열하는 '만세식' 비평으로 흐르는 역편향이 나타났다. 작품의 결함과 오류를 묵인하고 상호 균형 비판을 한다면서 '눈치평론'을 하는데, 이는 김일성 교시에서 비판된 바 있는 '낡은 사상잔재라 할 보수주의와 보신주의'라고 비판하였다.[23]

조선작가동맹 제4차 전원회의(1959.4.14)에서 '공산주의문학 건설'이 지난 3년 간의 '도식주의 비판'론을 대체할 새로운 안건으로 제기되었다. 한때의 개혁세력이었던 서만일은 안막, 윤두헌 등과 싸잡아 부르주아미학사상에 물들었다고 철직되었다. 상무위에선 평소보다 더 많은 작가 평론가들을 '로동 파견 조치' 했는데, 추정컨대 서만일도 노동체험 명분으로 하방되어 숙청되었다.[24]

---

21) 장형준, 「평론에서의 당성을 옹호하여- 서만일의 론문을 비판함」, 『조선문학』 1959.2., 135면.
22) 한설야, 「공산주의 문학 건설을 위하여」(권두언), 『조선문학』 1959.3, 5면 참조.
23) 김하명, 「평론의 선도성과 전투성에 대하여」,『문학신문』 1959.2.5, 4면. 여기서 말하는 김일성 교시는 1958년 10월 14일자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를 말한다.

(북)조선문학비평사의 논점을 정치사적으로 달리 보면, 도식주의에 대한 반비판과 수정주의 비판이라는 미학 쟁점은, 소련파 연안파를 종파분자로 비판하면서 김일성 중심으로 권력이 더욱 집중되면서 우경투항주의를 배격하는 정치 투쟁의 반영물로 해석 가능하다. 김일성 교시의 '수정주의와 우경투항주의'가 문학에서 도식주의 반비판 담론의 논거가 되었기 때문이다. 창작의 자유주의적 태도는 당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는 무규율적인 태도라고 비판되었다. 한때 자유주의에 유혹되었던 기회주의자들은 공산주의사상으로 재교육하고 강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를 기르며, 작가 예술인들에게 남아있는 자본주의사상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작가 비평가들은 도식주의 비판과 극복의 이름으로 잠깐동안 꽃피웠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풍부화가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서만일의 '도식주의 비판'론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풍부화라는 미학적 성과를 불러왔지만 결국 수정주의와 우경투항주의라는 정치적 타자로 낙인찍혀 버린 셈이다. 미학의 정치 종속의 극명한 예라 하겠다.

3. 김창석의 미학적 '수정주의' : 사회주의 보편 미학의 교조적 수용과 주체적 수용

흥미로운 사실은 동 시기(1956-58) 중국에서도 '도식주의 비판'의 문예노선이 백화제방이란 이름으로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개념화, 공식화 성향 배격'론이 활기차게 전개되었다. 연변 문예지 『연변문예』(1951-56), 『아리랑』(1957-58)의 미디어 콘텐츠 특히 비평담론을 보면 중국공산당의 '백화만발, 백가쟁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미디어 콘텐츠의 다양성,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이른바 '개념화, 공식화' 성향을 비판 배격하였다. '개념화, 공식화'란 같은 시기 북한 문예 미디어장(media-literature field)장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적 토대로부터 예술의 상대적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고답적 도식주의 태도를 비판한 명명이다. 이 시기는 전 세계 사회주의 진영 전체에서 스탈린 사후 독재와 개인숭배가 비판받고 집단지도체제가 대안이 되면서 해빙 무드가 잠깐 드러났던 때였다. 그래서 연변에서도 당 정책 선전에만 치중된 도식적 창작을 '개념화, 공식화'로 비판하고 예술의 독창성을 말살하는 창작 상의 일체 교조주의, 종파주의 및 문학예술에 대한 단순화의 조악한 태도를 배제하는 투쟁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으로선 보기 드물게 충분한 자유토론과 창작 상의 자유경쟁 속에서 『아리랑』 잡지는 연변 문학이 자체적으로 발전하도록 보장하는 활동무대 구실을 하였다. 심지어 소수 혹은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일지라도 작품의 전반적 지향이 인민을 위하고 사회주의를 위한다면 『아리랑』은 이를 "대담히 발표하여 광대한 독자들의 자유 토론에 맡긴"다고 창간사에 명시되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1958년 말부터 역풍을 맞아 잡지 제호가 『연변문학』으로 개제되고 편집노선도 '개념화 공식화 비판' 이전으로 회귀하였다.[25]

1958,9년 북한에 소개된 미학 분야의 도식주의 비판론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역풍을 맞는데, 그것이 '수정주의 비판'론이다. 국제정치와 정치 이념 분야에서 유고연방의 티토주의('찌또이즘')으로 촉발된 수정주의 비판론은 1958년 내내 북한과 동구 등 사회주의 진영 전체를 휩쓸었다. 그러다가 1962년 초에 청진에서 공연된 경희극 <소문 없이 큰일 했네>를 계기로 문예

24) 조선작가동맹 중앙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결정서」, 『문학신문』 1959.4.16.,1면=『조선문학』 1959.5, 26-28면. 참조.

25) 김성수.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 문학' 재구성」, 『국제한인문학연구』 29, 국제한인문학회, 2021.4, 22~23면.

장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문예분야의 수정주의 비판론이 김창석의 미학이론 비판과 경희극 <소문 없이 큰일 했네> 비판으로 1년 넘게 전개되었다.

<소문 없이 큰일 했네>는 평론가이자 미학자인 김창석의 지도 하에 극작가 권준원이 희곡을 쓰고 리수익이 연출하였다. 천리마운동이 한창 성과를 내던 1962년 초, 청진 페놀공장의 자력갱생을 목표로 한 공장 혁신사업을 풍자적 소동극으로 그린 전 4막 5장의 경희극이다. 이는 동 시기에 인기를 끈 리동춘의 경희극 <산울림>(1961.12)의 성공에 편승해서 마침 청진 페놀공장에 현지파견되었던 김창석이 재기[26]할 의도로 공연한 것으로 추정된다.

권준원 작, 리수익 연출 <소문 없이 큰일했네>는, <산울림>과 비슷한 스토리에 고골리의 <검찰관>식 풍자를 덧붙여 풍자적 경희극을 시도한 것이다. 제1막은 청진 페놀공장 지배인이 중앙에서 전문가 김만수가 온다고 악대를 동원하고 청년과 교사들을 환영식에 동원하는 소동으로 시작된다. 제2막에서 지배인이 만수에게 공을 뺏길까 봐 실험실을 빌려주지 않는데, 이는 관료주의 행정 풍자라는 의도가 지나쳐 천리마시대 실상에 대한 희롱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게다가 당 간부까지 이를 제 때 시정하지 않았으니 당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 제3막에서 실험실 폭발사고가 나자 등장인물들이 우왕좌왕하다가 울바자 구멍으로 드나드는 장면이 있다. 이런 풍자는 서구 퇴폐 예술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서구 양풍 일색'으로 비난받게 되었다.[27]

<소문 없이 큰일했네> 논쟁은 1962년 2월 28일 조선작가동맹 극문학분과와 3월 1일 조선연극인동맹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를 계기로 시작되었다.[28] 문학예술계의 주요 작가 예술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 연극이 풍자 경희극을 빙자하여 천리마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대 분위기를 왜곡 비방하고 서구식 극작법으로 사상적 미학적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하였다. 천리마 현실을 왜곡했을 뿐만 아니라 천리마 기수의 형상을 기형적 인간으로 우롱하고 조소하는 등 미학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극 주인공 만수와 공장 지배인, 당 간부 할 것 없이 부정인물 일색이고 갈등 설정도 억지라는 근거이다.

가령 김광현은 이 경희극의 '웃음'은 생활 진실과는 대치되는 날조된 '웃음'이며 부정적 인물들의 소동이 자아낸 '웃음'이 천리마 현실을 중상 비방하고 천리마 기수를 조소하는 데 '사명'을 두었다고 하였다.[29] 토론자들의 일치된 비판에 토론회에 마지못해 참석한 김창석과 극작가 권준원은 자아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창석은 비평을 겸허히 접수하면서 현실 왜곡이 나오게 된 데는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고 하였다. 당 정책을 대할 때 자기의 그릇된 사상 체계로 그릇 판단함으로써 엄중한 사상-미학적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이를 교훈 삼아 당적 사상으로 자신을 튼튼히 무장하겠다고 결의하였다. 권준원도 자신이 평소 당이 인도하는 대로 창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고 천리마 기수를 희롱한 작품을 창작했다고 반성하고 앞으로는 당 정책에 따라 당적인 안목으로 창작하겠다고 하였다. 토론회를 주재한 동맹 부위원장 최영화 시인은 이 연극이 사상-미학적 오류를 범한 것은 『미학개론』을 비롯한 김창석의 과거 평론에서 사회 계급적 전형과 예술적 전형을 분리시키고 초계급적인, '전 인류적인 것'을

26) 김창석, 「경희극에서의 성격 창조 문제- 경희극 <산울림>을 중심으로」, 『문학신문』 1961.10.24., 2면.

27) 장형준, 「수정주의적 미학 견해를 반대하여- 청진연극극장의 경희극 <소문 없이 큰일했네>에 대하여」, 『문학신문』 1962.3.6., 2면 참조하여 내용 재구성.

28) 김정식(기자), 「수정주의적 사상-미학적 견해와 무자비하게 투쟁하자- 경희극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문학신문』 1962.3.6, 2면.

29) 김광현, 「우리의 당적 문학의 순결성을 고수하자- 김창석의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대한 평가 비판」, 『청년문학』 1962.4.

주장한 수정주의적 미학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30]

<소문 없이 큰일했네> 토론회는 다음날인 3월 1일, 이번에는 조선연극인동맹 중앙위원회 주최로 모란봉극장에서 계속되었다.[31] 연극인동맹의 주도 하에 리정식이 발제하고 공훈배우 리서향, 리단, 연출가 안영일, 전암, 배우 리재현, 신동철, 김홍제 등이 참석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철두철미 반사실주의적이며 수정주의적인 이 작품을 무대에까지 올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수정주의의 미학관을 가진 김창석의 잘못이며 이를 무조건 따른 청진연극극장 구성원의 불건전한 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번에도 청진연극극장의 리수익 연출가 등이 자아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수정주의 비판론은 김창석 미학에 대한 원론적 비판[32]과 풍자 경희극 <소문 없이 큰일했네>에 대한 공연평[33]으로 십수 차례 집요하게 전개되었다. 윤세평, 김하명, 장형준 등은 풍자 경희극의 장르적 특성인 갈등 설정과 풍자 고유의 공격적 웃음의 본질을 불인정하고 천리마운동의 대의 앞에 그 어떤 체제 비판도 허용하지 않았다.[34]

김창석 미학론을 수정주의로 규정하여 비판한 평론 중 김하명의 평문을 보자.

>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문학예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반대하여 나서면서 우선 그의 계급성과 당성을 말살해 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로 하여금 프로레타리아로의 혁명 위업에 복무하지 못하게 하며, 계급투쟁의 무기로, 공산주의 교양의 교과서로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태도 교조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 밑에, 때로는 예술의 특성을 타산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부르죠아의 이러저러한 류파의 반동리론을 끌어들이며, 혹은 공공연히, 혹은 보다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재생시켜 보려고 광분하고 있다.
>
> 김창석의 『미학개론』에도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사상적 지향과 관점들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발로되여 있다. 종전에도 정당하게 비판된 바와 같이 『미학개론』에는 '비극적인 것', 창작방법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관한 문제들에서 맑스-레닌주의 미학 리론과 우리 문학의 력사적 사실을 란폭하게 외곡한 점이 적지 않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김창석의 수정주의적 견해가 가장 집중적으

---

30) 김정식(기자), 「수정주의적 사상-미학적 견해와 무자비하게 투쟁하자- 경희극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문학신문』 1962.3.6, 2면.

31) 차균호(기자), 「수정주의의 사상미학적 관점을 철저하게 분쇄하자!- 경희극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대한 연구토론회에서」, 『문학신문』 1962.3.13, 3면.

32) 장형준, 「수정주의적 미학 견해를 반대하여- 청진연극극장의 경희극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대하여」, 『문학신문』 1962.3.6.; 윤세평, 「수정주의적 미학리론을 반대하여- 김창석의 『미학개론』을 중심으로」, 『문학신문』 1962.3.13.; 안함광, 「예술적 전형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를 철저히 배격한다」, 『문학신문』 1962.3.16. ; 리상태, 「'전 인류적인것'에 대한 수정주의적 견해를 배격한다」, 『문학신문』 1962.3.20. ; 강성만, 「수정주의적 희극 리론을 반대하여」, 『문학신문』 1962.3.20. ; 연장렬, 창작방법과 세계관 문제에 대한 수정주의적 외곡을 반대하여」, 『문학신문』 1962.3.23.; 박종식, 「민족적 특성에 대한 수정주의적 외곡을 반대하여」, 『문학신문』 1962.3.27.; 김하명, 「『미학개론』과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발로된 그릇된 견해를 반대하여」, 『조선문학』 1962.4.

33) 한경수, 「웃음의 사회계급성을 옹호하여- 연극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대하여」, 『문학신문』 1962.3.9.; 최일룡, 「희극 쟌르에서 당성과 계급성을 철저히 구현하자!」, 『문학신문』 1962.3.13. ; 권택무, 「당 정책과 시대정신을 외곡한 수정주의적 작품-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대하여」, 『문학신문』 1962.3.16. ; 강능수, 「생활의 외곡과 형식주의적 희극 수법」, 『문학신문』 1962.3.27.; 리운룡, 「형식주의적 연극 체계를 반대한다 - 경희극 <소문없이 큰일했네>의 무대 형상과 관련하여」, 『문학신문』 1962.3.30.; 김광현, 「우리의 당적 문학의 순결성을 고수하자- 김창석의 「소문없이 큰일했네」에 대한 평가 비판」, 『청년문학』 1962.4.

34) 사설, 「우리 문학예술의 당성, 전투성을 가일층 제고하자!」, 『문학신문』 1962.3.13. 김일성의 1960년 11월 27일 교시와 제4차 당 대회 결정의 문예분야 내용이다. 이 부분까지 한 쪽 분량의 비평 논쟁 소개는 「1960년대 초 북한 문학비평의 수정주의 비판론 - 김창석 『미학개론』과 연극 「소문없이 큰일했네」 논쟁」, 『반교어문연구』 57, 반교어문학회, 2021.4., 요약이다.

로 가장 로골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제 3부 '현실 반영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예술' 특히 전형적인 것에 관한 서술이다.

『미학개론』의 저자가 이 부분의 제 1장에서 우리 문학예술에 마치도 어떤 '심중한 결합'이 있기나 한 것처럼 서두를 때면서 도식주의에 관한 장황한 해설로부터 시작한 것은 우연치 않다.

(중략) 그는 '전형적인 것을 일정한 사회적 력량의 본질로서 규정하는 견해는 자기의 일정한 타당성을 가진다'(『미학개론』 152페지)고 좀 린색스러운 표현이기는 하나 일단 전형적인 것이 사회적 력량의 본질의 반영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뒤'이어서 '우리들은 전형적인 것을 사회적 력량의 본질에 상응하는 것으로만 리해해서는 안 되며', '이런 정의는 문학예술의 제 현상들을 구체적 력사적 발전에서 고찰할 것을 요구하는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정신에 대치되는 것'(『미학개론』 153 페지)이라고 자기의 전제를 부정하여 나섰다.

'세계 예술사상의 우수한 작품들을 심오하게 분석하였을 때, 우리들은 예술적 전형은 인간의 사회 계급적 본질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성격의 다양성도 또한 재현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미학개론』 153 페지)고 그는 썼다.

여기서는 인간의 사회 계급적 본질이 따로 있고 인간 성격의 다양성이 이에 대치되여 있다. 이 책에서는 사회 계급적 본질과 관계없는 다양한 '인간 성격'의 창조에로 작가들을 부르면서 '인간적인 것, 륜리적인 것'을 사회 계급적인 것 밖에다 놓았으며 예술적 전형과 계급적 전형을 대치시키였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예술적 전형은 전 인류적인 것, 전 민족적인 것, 사회-계급적인 것, 개성적인 것의 변증법적 통일체인 것이다.' (『미학개론』 159 페지 방점은 인용자) 그는 전형적인 것을 이렇게 정식화하였다. 이 얼마나 황당한 궤변인가. (하략)

김하명은 김창석 미학의 '전 인류적인' 사랑, 인륜 등의 용인과 전형 개념의 확산을 비판하였다. 세상 어디에도 사회 계급적인 것의 밖에 따로 인간이 있지 않으며, 계급적인 것을 사상해버린 인류란 구체적으로 존재한 일이 없다. 생활을 반영하는 예술 형상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김창석 같은 수정주의자들은 사회현상의 계급적 성격을 보지 않고 인민 대중의 계급투쟁에 겁먹어 그것을 어떻게나 약화시키려는 반동계급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사회 계급적 본질과 관계가 없는 이른바 '전형'을 고안해내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도대체 김창석은 누구이고 『미학개론』이 어떤 책이길래 이리도 많은 사람들이 집요하게 조리돌림을 했을까?

그는 소련 유학파 예술비평가이자 미학자이다.[35] 북한 당국이 보기엔 사회주의 선진국의 미학이론에 해박하다고 해서 호가호위한 소련 담론의 교조적 수용자이자 사대주의자이며 미학적 수정주의였다. 그는 귀국 후 소비에트미학이론을 번역 소개하고 연극 비평으로 출발하여 미술비평과 전시 기획, 미학 이론서와 연극 공연, 그리고 문학평론까지 다방면으로 활동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등단 초기부터 문단권력에 맞서 전 방위적 비평의 칼날을 휘두르다 역풍을 맞은 점이다. 즉 비평활동을 시작한 1955년 당시 최고 문단권력이었던 작가동맹 위원장 한설야와 서기장 및 부위원장이었던 서만일의 극작을 비판했던 것이다. 8.15해방 10주년 연극 축전에 오른 공연이나 서만일의 4막 희곡 「가족」, 한설야의 반미 단편소설로 유명한 「승냥이」를 4막극으로 각색한 서만일 류기홍 각색, 「승냥이(전 4막)」 등의 극작술이나 전형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했다고 비판하였다.[36] 반면 당시로선 신인급이었던 리동춘의 희곡 「새 길」이

35) 개인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 미술계 자료를 제공해주신 홍지석, 한상언 선생님께 감사한다.

36) 김창석, 「연극 축전에서 나타난 몇가지 결함들」, 문종상 외 공저, 『예술에 있어서의 진실성』, 국립출판사, 1955.2.; 김창석, 「최근 드라마뚜르기야 상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박림 외 공저, 『문학예술과 계급성』, 국립출판사, 1955.

훌륭한 희곡이라면서, 「승냥이」를 칭찬하고 「새 길」을 비판한 김승구, 김명수, 박태영 등의 평론을 싸잡아 맹비난하였다. 그가 근거로 삼은 평가 기준은 스탈린 사후 개인숭배 배격과 집단지도체제로 바뀐 소비에트미학의 탈교조적 해빙무드에 나온 반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전형론이었다.[37]

한때 즈다노비즘으로 불렸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교조성을 비판 극복한 새로운 전형론은 김창석의 본업인 미술비평과 미학이론에 잘 드러났다. 가령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기준에서 부르주아 퇴폐미로 매도되었던 인상파 미술에 대한 긍정적 수용도 가능하다는 새로운 해석[38]이 한 예라 하겠다. 그에 따르면 최근(1957년) 제1차 소비에트미술가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논쟁 과정에서 인상파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형성됐고 이에 의하면 "인상파는 사실주의 조류이며 따라서 그 전통을 응당 계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9]

김창석의 미학이론비평[40]과 미술평론[41], 문학비평[42]에서 반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탈 교조적 풍부화는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특히 대표 평론인 「전형론」의 다음 구절이 바로 미적 형상론이 도식주의와 비속사회학적 편향에 빠지는 편향을 날카롭게 비판한 예일 것이다.

> 전형적인 것에 대한 번쇄철학적 공식이 예술 실천 사업과 평론 사업에 끼친 해독은 심대하다. 예술가의 사명은 일정한 그루빠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품성들을 명료하고 개성화된 성격에 집중시키는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다한 문학예술 작품들은 이 요구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비반복적인 개성을 가진 산 인물들 대신에 생산과정 속에 파묻힌 회색적 인간-도식들이 네 활개를 펴들고 행동하고 있다. 이 인물들은 직업적 표징으로만이 로동자, 농민으로 구별되지 산 인간으로서 볼 때에는 서로 비슷비슷해서 김가를 리가라고 고쳐도 무방할 지경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평론에도 큰 책임이 있는바 적지 않은 비평과 론설들은 아직 속학적 도식주의의 구렁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형상의 사회적 본질만을 추궁하는 론문들에서는 예술적 형상에 대한 일반적 공론적 판단이 진정한 평론적 분석을 대신하고 있다.[43]

김창석의 비평활동과 미술, 연극, 문학을 넘나드는 다방면 활동의 근거는 소련에서 공부한 탈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이론이었다. 하지만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풍자 경희극 <소문 없이 큰일했네> 공연(1962.1)을 계기로 수정주의자로 집중 비판받고 숙청된 것이다. 그 중심에 있는 『미학개론』(1959)을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미학적 수정주의 편향이나 정치

---

37) 서만일,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기치 밑에- 제2차 전련맹 쏘베트 작가대회와 우리의 문학」, 『로동신문』 1955. 1.25., 2면~3면.

38) 김창석, 「인상파를 둘러싸고」. 『조선미술』 1957. 2호(4.23), 39면.

39) 홍지석, 「1950~1960년대 '인상주의' 개념의 분단」,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4』,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21.3. 231-234면.

40) 김창석, 「전형론」. 『미술』 1957년 3호(4.30); 김창석, 「다시 한번 예술적 전형에 대하여」(지상토론), 『문학신문』 1957.8.1.; 김창석, 「문학예술의 민족적 특성에 대하여」, 『조선문학』 1959.4 ; 김창석, 「공산주의자의 전형 창조에서 제기되는 리론적 문제」, 『조선문학』 1959.12 ; 김창석, 『미학 개론』, 국립미술출판사, 1959.12.

41) 김창석, 「찬란한 미술 창건 도상에서」, 『조선미술』, 1957.5호(10.30, 10월호?)

42) 김창석, 「시의 정론성과 '정론시'」, 『문학신문』 1958.2.20.; 김창석, 「들끓는 생활, 불꽃 튀는 시가 - 『조선문학』 1,2,3호에 실린 시편들을 중심으로 」, 『문학신문』 1958.4.24., 2면. 김창석, 「김소월과 그의 시'적 쓰찔 - 서거 25주년에 제하여-」, 『문학신문』 1959.12.25., 4면. 김창석, 「실존주의 문학의 반동적 본질」,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여(4)』,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43) 김창석, 「전형론」. 『미술』 1957년 3호(4.30), 3~12면.

적 우경화보다 소비에트미학의 축자적 기계적 수용과 북한 현실의 부차화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모스크바에서 배운 선진이론을 고집하다 그것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오랜 검열을 뚫고 어정쩡하게 타협한 미학적 수정주의자의 착잡한 심정이 서문만 읽어도 쉽게 확인되기 때문이다.

> 저는 지난 수년간 작가학원을 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 대학에서 맑스 레닌주의 미학을 강의하여 오면서 체계적으로 그것을 한 번 서술하여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었습니다. 그리하여 짬짬이 써 오던 자료들을 묶어 이제 세상에 내여놓게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교과서로도 심오한 과학적 저술로도 될 수 없으며 다만 미학을 공부하는 초학도들을 위한 입문서 참고자료에 불과한 변변치 못한 책입니다. (중략)
> 제딴으로는 많이 생각하여 과거의 쓴 것들도 다시 시정 보충하느라고 정성껏 노력하였건만 아직도 허다한 부족점들과 결함들이 감촉됩니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미학 유산들이 충분히 정리를 리용되지 못하였으며 특히는 해방 후 십여 년 동안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찬란히 개화 발전되어온 예술적 성과들을 원만히 이론적으로 일반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점은 이 책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자인하면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이 방향에서 전심전력을 기우려 배우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 여기에 설정된 거의 모든 문제들은 아직도 토론 중에 있어 학교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서술상에서 론쟁적인 성격이 뚜렷이 강조되고 된 것은 불가피적인 결과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옳다고 느껴지는 견해들을 좇아 그것을 주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반박하였습니다. 이 점 독자 여러분이 량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략)
> 1958년 4월 15일 저자[44]

머리말을 보면 평소 김창석의 선진 사회주의 미학이론에 대한 자부심과 해박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자신감 넘친 기존의 평문과 문체가 전혀 다르다. 하도 검열과 첨삭에 시달려 현실과 타협한 결과 자괴감으로 매사 조심하는 반성문 같다. 가령 '초학도들을 위한 입문서 참고자료에 불과한 변변치 못한 책' '허다한 부족점들과 결함' '우리나라의 미학 유산의 정리 리용, 특히 당 문예정책과 예술적 성과를 이론적으로 일반화하여 반영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을 자인하고 있다. 이러한 반성문에 가까운 서문은 북한 이론서에선 전례가 거의 없다.

반면 끝까지 자기주장을 전면 철회하지 않았기에 미학적 쟁점들이 '토론중 논쟁중'이라 하였다. 자기가 옳다고 느껴지는 견해는 주장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반박하느라 논쟁적 서술이 많은 것을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문제는 당에서 자기 견해를 맑스-레닌주의의 수정주의 교조주의적 편향으로 비판한 데 동의하지 않은 데 있다. 자기는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한 당의 교시에 충실했다고 고집했다는 점이다.

반성문에 가까운 서문과는 달리 이론서 본문은 김창석 특유의 사변적인 미학 논리가 정교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 이론적 바탕은 진보적 세계문학과 러시아 문학예술의 전통을 근거로 한 소연방아카데미의 미학론으로 추정되며 거기에 조선문학의 역대 문학예술 작가 작품의 예를

---

44) 김창석, 『미학개론』, 조선미술사, 1959.3.25. 1958년 4월에 서문을 쓰고, 12월 25일에 인쇄한 책의 발행일이 이듬해 3월이다. 11개월 격차는 이례적이라 수차례 검열의 간접 증거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한상언 선생님은 로동당출판사, 국립출판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같은 권력기관과 격이 달리 힘없는 조선미술사의 출판사 능력치로는 서문-송고-인쇄-발행일 사이의 수개월 격차는 흔한 일로 추정한다.

부차적으로 끼워 넣고 있다. 여기에 김창석(과 그의 미학론)의 비극이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문학예술은 언제나 전형적 상황에서의 전형적 캐릭터를 세부 묘사의 진실성 하에 그려왔다.[45] 즈다노비즘 하에서 예술가들에게 개인숭배와 정치적 편의에 따른 고답적 당문학론이 교조적 기계적으로 적용되었을 뿐 진정한 리얼리스트라면 현실 생활을 기계적으로 모사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생활 현상을 미적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계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을 공부한 필자에게는 적어도 김창석의 견해가 1958년 당시로선 온당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문제는 탈스탈린시대의 간빙기에 나온 수정주의적 소비에트미학을 축자적 교조적으로 수용하고 선진국의 권위에 기대 북한 현실을 정교하고 창조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미학의 '조선화'[46] 과정에서 창조적 수용을 미학적 다양화로 해석한 노선이 좌절된 셈이다.

김창석 미학은 보편성과 개별성의 통일로서의 전형이라는 상투적인 전형론이나 이상적인 투사형 인간형상을 전형으로 설정하는 북한의 도식적인 당 문학론과 정치 편의주의적인 전형론에 비하면 보편 미학에 가깝다. 물론 그의 전형론이 소련 이론을 축자적으로 번역하다시피 소개한 사대적 교조적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당 정책과 수령의 지시에 따라 한 개인을 집단적으로 단죄하는 문단 예술계 풍토도 그리 달가울 수 없다.

이 시기 최대의 문제적 이데올로그 김창석의 부침은 사회주의 진영의 선진국이었던 소련 발 사회주의 리얼리즘 보편 미학의 조선적 수용과정을 상징한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연대란 명분으로 보편 미학을 축자적 번역과 기계적 수용으로 압박했던 1957~62년 문예장의 역동성이 사라져버렸다. 직전까지만 해도 소련 출신 기석복, 정률, 김창석, 변월룡 등의 소련 발 리얼리즘 담론을 선진 미학으로 높이 평가, 수용하였다. 가령 1957년 전국미술전람회 전체 소감과 개별 작품에 대한 김창석의 평가가 지닌 무게감이 한 예이다. 그러나 당 문예노선이 1958년의 김일성 교시 이후 '수정주의 미학 비판'이란 명분으로 이들을 비판하면서 한때 기세등등했던 이들이 반종파투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거의 악마화되었다.[47]

다만 이러한 일련의 논의가 모아지면 195,60년대 북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비평사의 복원과 함께, 평론가이자 미학자인 김창석의 복권 및 그의 미학이론 복원을 통한 한반도적 시각의 디아스포라 문학예술사 재구성까지 기할 수 있다. 주체문예론으로 일원화된 현금의 북한 정전에서 존재가 아예 지워진 김창석 미학과 <소문 없이 큰일 했네>를 복원, 복권하여 코리아 문화사로 재구성할 것을 기대한다.[48]

4. 마무리 : '기타 국문학' 북한문학에서 '코리아문화사'로

이 글의 문제의식은 국문학 연구 대상이 '한국문학'이라는 명제가 자명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출발하였다. 기존 '한국-조선'문학의 자명한 듯 보이는 정전(공식 문학사, 작품전집,

45) F. 엥겔스의 리얼리즘에 대한 정의이다. 카. 맑스, 에프. 엥겔스, 김필환 편역, 『문학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참조.

46) 김태경, 「제2차 조선작가대회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의 시작」, 『문화와정치』 4-1, 한양대 평화연구소, 2017.12. 참조.

47) 김성수, 「195,60년대 북한 문예매체 지형과 사회주의 문화정치」, 『대동문화연구』 108집, 대동문화연구원, 2019.12, 80면.

48) 김성수, 「1960년대 초 북한 문학비평의 수정주의 비판론 - 김창석 『미학개론』과 연극 「소문없이 큰일했네」 논쟁」, 171~172면.

교과서 등)을 해체하고, 남북 공식 정전에서 사라진 월북 작가(이남 시점)와 숙청 작가(이북 시각)의 복권과 그들 창작의 복원/재평가를 시도한다. 가령 북조선문학사에서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 정전에서 배제된 非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리얼리스트였지만 수령론(개인숭배)과 주체문예론에 동참/포섭되지 못한 非주사 사회주의 작가, 그리고 그들의 1945~60년대 문학을 실사구시로 복원하면 가칭 '코리아문학사'의 주요 구성 내용이 될 것을 기대한다. 이미 기존 연구가 수준에 오른 이태준, 백석, 이용악, 임화,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등 월북 작가의 재북 시기 문학의 '전면적' 복원이 시급하다. 이에 더하여 정률, 김창석, 서만일, 리효운, 전재경, 신동철, 홍순철, 윤두헌 등 이북에서 등단한 후 주체문예 유일화(1967)과정에서 배제, 숙청된 작가까지 제대로 연구하는 포용적 태도가 필요하다.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와 대안 모색이라는 큰 틀과 관련된 필자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단 이전 식민지시대(1905-48) 문학의 실상이 '파편적 사실'들로 있었다.

둘째, 분단 이후 강고한 냉전체제의 산물인 남북 분단 문학사로 재편된 후 정전화가 이루어졌다. 1948년 이후의 사후적 정전이 1945년 분단 이전의 문학적 실상을 선택, 배제하고 그 가치를 결정하였다. '뺄셈의 문학사'와 그에 근거한 전집들이 나오고 문학교육 교과서를 통해 정전이 무비판적으로 재생산되었다.

남'한국'문학의 정전은 카프 등 계급문학 작가, 재월북작가 등을 배제한 문단과 학문 권력이었던 '문협 정통파'의 순수주의, 자유주의 문학사가 뼈대를 이루었다. 심지어 이념적 월북자가 아닌 생계형 재북자[49], 납북자 일부(정지용 등)도 배제, 삭제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지운 대안으로 '청문협 출신 중심의 문단사'가 문학사로 행세하고 그들에 의해 문학전집과 교과서가 만들어졌다. 가령 1930년대 시단을 주름 잡던 정지용 김기림 오장환의 자취를 지우고 대안으로 김영랑 김광균 이상 청록파 생명파 등이 때로는 과대평가된 채 신인 때부터 마치 문단 주류이자 문학사의 주역처럼 서술되었다. 역시 소설계에서는 홍명희 이태준 박태원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강경애 등의 대안으로 김유정 이상 김동리 황순원 등이 과대평가되었다. 비평사에선 임화 김남천 안함광 한효 등의 대안으로 최재서 김문집 등 해외문학파가 과대평가되었다.

북'조선'문학의 정전은 부르주아 미학과 이색사상을 지닌 작가를 반동, 종파로 몰아 숙청한 '작가동맹-문예총'의 주체 문학사가 유일체계화되었다. 자연주의, 낭만주의, 탐미주의 등 부르주아미학사상의 잔재와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이색사상, 우연분자'들이 배제, 숙청되었다. 대신 문학예술사의 빈자리를 채울 대체재로 '항일혁명문학예술'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문예' 유일체계(수령론, 주체사상, 문학예술혁명)가 차지하였다. 가령 임화, 이태준, 김남천, 이원조 등 조선문학가동맹(남로당계) 출신 월북 작가와 백석, 리용악, 최명익 등 재북 작가들이 사라졌다. 반면 정전에 편입된 재월북 작가도 적잖이 있는데, 홍명희, 이기영, 한설야(재복권), 박세영, 송영(송무현), 이북명, 박태원 등이다.

다른 한편 기석복, 정률(정상진), 서만일 리효운, 김창석 김민혁 등 북한판 '해외문학파'라 할 소련파 작가를 숙청, 배제하고 그 대안으로 항일혁명문학, 수령형상문학이 만들어져 과대평가 수준을 넘어서서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절대시되었다. 심지어 북한 정전의 대표 작가인 민병균, 변희근, 천세봉조차도 '현지파견, 노동체험' 같은 하방을 통한 주체문학의 유일화가

49) 1945년 10월 평양에서 결성된 평양예술문화협회(최명익 유항림 김조규 전재경 오영진 한태천 황순원 남궁만 등, 오영진 황순원 김동진은 월남) 구성원이 바로 재북 작가의 실체이다. 그들조차 자진 해산 후 평남지구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위원장 김사량)과 함쳐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흡수, 통합되었다.

이루어졌다. 오늘날 북한문학의 정전인 '주체문학'의 실체를 타자의 시선에서 보면, 1960년대 말부터 김정일과 4.15문학창작단 주도의 '문학예술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전통'이자 '개인숭배문학, 선전문학'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시기에 유일체계화된 주체문학의 절대적 존재감을 위해 이른바 '도서정리사업'을 통한 해방 전 근대부터 해방 후 현대까지 문학사의 전면 재편이 조판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 통합 문학사 또는 코리아 디아스포라문학의 일부인 북조선문학을 상정할 수 있다.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 정전의 자기중심적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이념형에 불과한 '코리아문학, 코리아문화사'의 실체를 채울 수 있다. '코리아문학, 코리아문화사'란 개념이 유의미하려면 '(남)한국문학+(북)조선문학'식의 단순 병합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한국-조선'문학의 공식 문학사[50]와 작품전집, 교과서 등 정전을 해체해야 비로소 거기서 배제, 탈락한 작가와 작품, 문학 활동을 온전하게 복원하여 재평가할 수 있을 터이다. 정전은 대체로 후대의 선택과 재배열 결과물이기에 작가와 작품이 나온 당대의 기록이 삭제, 변형, 왜곡, 포폄되기 일쑤이다. 원래 하나였다가 분단 분열된 둘을 다시 합쳤을 때 플러스 알파를 더해 콘텐츠의 질적 변화를 기하려면, 분단 때문에 배제한 '뺄셈의 문학사'부터 복원해야 할 터이다. 가령 북조선문학사에서 정치적 숙청으로 인해 정전에서 배제된 非사회주의자와, 사회주의 리얼리스트였지만 수령론(개인숭배)과 주체문예론에 동참/포섭되지 못한 非주사 사회주의 작가, 그리고 그들의 1945~60년대 문학을 실사구시로 복원하면 가칭 '코리아문학문화사'의 새로운 콘텐츠가 될 것을 기대한다.

이미 기존 연구가 수준에 오른 이태준, 백석, 이용악, 임화, 김남천, 이기영, 한설야 등 월북작가의 월북 전 활동의 복원, 복권이 정전 수준으로 상당히 복원, 복권되었다. 이 작업은 '납월북작가의 해금'이 이루어진 1988년 이후 지난 30년 넘게 현대문학 전공자들의 선구적인 노력으로 각종 주체별 선집이나 작가별 전집, 연구논저로 일정한 수준에 올라 있으며, 앞으로도 후학들의 집단지성으로 얼마든지 성과를 더 거둘 수 있는 영역이다. 다만 이들 작가들의 월북 이후 재북 시기 문학의 '전면적' 복원과, 이들의 문학이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는 전면 복권은 아직 요원한 만큼 우리 사회의 포용력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정률, 서만일, 김창석, 리효운, 전재경, 신동철, 홍순철 등 이북에서 등단한 후 주체문예 유일화(1967)과정에서 배제, 숙청된 작가까지 제대로 연구하는 대승적 자세가 필요하다. 북에서 자연주의 등 부르주아미학사상의 잔재, 이색사상, 우연분자,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교조주의적 좌편향과 수정주의적 우편향으로 비판 받아 정전에서 탈락한 숙청 작가를 복권하고 그들의 문예활동을 복원하자는 것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김창석, 서만일의 복권과 그들 문학활동의 복원 및 재평가를 제안하였다. 북한의 숙청 작가 중 수정주의자로 몰린 보편 미학 담지자의 복권 복원으로 연구 영역을 확산하는 일환이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문학예술의 '도식주의 비판'론(1955-58) 때 리얼리스트로 각광받았지만, 김일성의 1958년 10월 교시 이후 전개된 '수정주의 비판'론(1958~62)의 전개과정에서 문예당국과 작가 비평가들의 집중 비판을 받고 정전에서 배제, 숙청되었다. 이들은 이북에서 정치적 자료적 이유로 복권 복원하지 않기에, 우리가 한반도적 시각에서 '코리아문학사 이북편'의 명분으로 복권 복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코리아문화사' 연구방법론의 모험적 시도의 일환이기도 하다.

---

50) 남북의 문학사를 비교한 대표적 논의는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북한의 우리문학사 인식』(창작과비평사, 1991), 민족문학사연구소 북한문학사연구반, 『북한의 우리문학사 재인식』(소명출판사, 2014) 등이 있다.

[참고문헌]

고자연, 「냉전기 북한 지식인의 아시아 인식: 서만일 『인도기행』을 중심으로」, 2021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구로아시아포럼(가상), 2021.3.15.

고자연, 김성수, 「예술의 특수성과 당(黨)문학 원칙 - 1950년대 북한문학을 다시 읽다」, 『민족문학사연구』 65호, 민족문학사학회, 2017.12. 249~290면.

고정웅, 「현대수정주의의 침습과 전횡을 반대 배격한 조선로동당의 투쟁경험」, 『조선로동당의 반수정주의 투쟁경험』, 사회과학출판사, 1995. 70~79면.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공산주의 교양과 우리 문학』, 과학원출판사, 1959.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창조된 혁명적 문학예술』, 과학원출판사, 1960.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편, 『조선문학통사』(하), 과학원출판사, 1959.

구갑우, 김성경 외,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전 8권,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2021.

김명수, 『문학리론의 기초(문학예술총서)』, 국립출판사, 1955.

김상후, 『우리나라에서의 문화혁명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창조적 구현』,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김성수, 「전후문학의 도식주의 논쟁- 1950년대 북한 문예비평사의 쟁점」, 『문학과 논리』 3호, 태학사, 1993.6.

김성수, 「사실주의 비평논쟁사 개관- 북한 비평사의 전개와 '문학신문'」, 김성수 편저, 『북한 '문학신문' 기사 목록- 사실주의 비평사 자료집』,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김성수, 「'코리아문학'의 통일·통합 (불)가능성 : 남북 문학 교류의 역사와 과제」, 『통일과평화』 10집 2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8.12.

김성수, 「재·월북 작가 '해금'조치(1988)의 연구사·문화사적 의미」, 『상허학보』 55집, 상허학회, 2019.2.

김성수, 「195,60년대 북한 문예매체 지형과 사회주의 문화정치」, 『대동문화연구』 108집, 대동문화연구원, 2019.12.

김성수, 「북한문학 연구에서 코리아문화 연구로- 평화체제로의 도정과 북한문학 연구의 과제」, 『민족문학사연구』 74, 민족문학사학회,연구소, 2020.12.

김성수, 「1960년대 초 북한 문학비평의 수정주의 비판론 - 김창석 『미학개론』과 연극 「소문없이 큰일했네」 논쟁」, 『반교어문연구』 57, 반교어문학회, 2021.4.

김성수,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문학 재구성」, 『국제한인문학연구』 29, 국제한인문학회, 2021.4.

김일성, 「작가 예술인들 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1958년 10월 14일), 『김일성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1958년 11월 20일), 『김일성선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김창석, 『미학 개론』, 국립미술출판사. 1959.12.

김태경, 「제2차 조선작가대회와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조선화(Koreanization)"의 시작」, 『문화와정치』 4-1, 한양대 평화연구소, 2017.12.

김하명 외, 『전진하는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
므.(막심) 고리끼, 역자 미상, 『문학론』(1~4권), 국립출판사, 1956.
므. 크. 도브릐닌, 『문학의 사회적 의의』,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5.
박림 서만일 외, 『문학예술과 계급성, 국립출판사, 1955.
뻬. 에쓰. 뜨로피모브, 「과학으로서의 맑스-레닌주의 미학」 외, 역자 미상, 『맑스-레닌주의 미학 제문제(1)』(조쏘문고12), 조쏘출판사, 1957.
신형기·오성호, 『북한문학사』, 평민사, 2000.
안함광, 서만일 외, 『문학의 지향』,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엠. 흐라쁘첸꼬 외, 김영찬 역, 「세계관과 창작」, 「문학에서의 성격」, 엠. 꾸즈네쪼브, 박영근 역, 「장편소설의 특성에 대하여」, 『문학리론 제문제』, 국립문학예술서적출판사, 1959.9.
오태호, 「1950~60년대 북한문학의 지배 담론과 텍스트 평가의 균열 양상 고찰- 전후 복구기(1953)부터 유일사상체계 형성기(1967)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61호, 민족문학사학회, 2016.8.
웨. 이. 레닌, 김필환 편역, 『문학에 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58.
윤세평 외, 『해방후 우리문학』,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편, 『제2차 조선작가대회 문헌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12.
카. 맑스, 에프. 엥겔스, 김필환 편역, 『문학예술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한설야 외, 『문예전선에 있어서의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반대하여 (자료집 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3)권, 1958, (4)권, 1960.
홍지석, 「1950~1960년대 '인상주의' 개념의 분단」, 『한(조선)반도 개념의 분단사: 문학예술편 4』,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21.3.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와 숙청 작가의 복원 복권 - 코리아문화사 연구방법론"에 대한 토론문

유임하(한국체대)

북한문학과 근대문학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김성수 선생님의 북한문학과 문화연구가 최전선에서 놓인 의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존경을 표합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북한의 문학과 문화장에서 배제, 누락시킨 서만일과 김창석이라는 두 문학인의 발굴과 복원을 지향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경우입니다. 발표문은 지금까지 남한중심주의 입장에서 접근해온 북한문학 연구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면서 냉전구조와 남북이라는 근대국가 시스템을 넘어 코리아문학와 그에 따른 탈정전화를을 전제로 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발표문에 담긴 선생님의 노고와 성과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대목을 짚어보면서 질의토론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1.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거론하신 논쟁적인 의제입니다. 이 제는 첫째 근대국가라는 체제 안에 안착해온 남북문학의 위상과, 둘째 공식 정전에서 부재처리된 것들의 문학사적 복원이라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명제를 던져 놓고 있습니다. 한국문학과 '조선문학'을 아우르는 명칭과 개념으로 제안하신 '코리아적 시각'이라는 것의 실체와 그에 대한 보완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북의 국가중심주의, 곧 서울말과 평양말로 점유되는 지역과 언어, 그것이 구축하는 범주와 위상학적 개념의 탈구축의 진전된 개념으로 '코리아'문학은 사실 남북에만 한정되지 않고 역외의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전재한다는 점에서 그러합니다. 이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논점은 향후 남북한문학의 탈맥락화를 통한 코리아문학의 중심개념이라는 점에서 개념과 범주, 위상 등에 관해 중요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또하나 중요한 의제 설정 하나는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당대 1차 사료와 사후적 검열에 왜곡되지 않은 원전 자료의 확보 노력의 문제입니다. 발굴과 복원이 동시적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북한문학'과 '근대문학' 연구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남원진 선생의 개작과 판본연구는 개인 연구에서 문학에 한정된 문헌연구에 매진하는 경우지만, 『조선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신문잡지 미디어의 데이터베이스는 유일사상체계에 갇힌 북한사회의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1차 자료들의 원전 확보와 자료의 후속 검열과 왜곡을 넘어선 연구가 문자 및 광고, 그림, 음악, 영화 등 비문자텍스트까지 포함해야 한 문화연구로 확장돼야 한다는 급진적인(?) 견해의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 분단을 넘어선 통일, 통일의 진정한 과정인 통합과 재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선생님의 '한국-조선'문학의 탈정전화가 첫번째로 포석한 지점이 서만일과 김창석이라는 생소한 두 인물의 문학적 복원은 이들을 넘어선 문학사적 비평사적 함의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남로당계와 다른, 북한문학의 역동성이 문학사에서 삭제되고 망각된 지점들은 이들이 제기한 비평적 가치와

미학적 논점이 가진 다양성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1958년 10월, 김일성의 교시가 초래한 문학장에서의 비판과 숙청은 이후 절대유일체제하에서 횡행한 '문학적 문화적 형해화'와 정치판의 속류 경향을 미리 보여주는 전사(前史)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들 두 사람의 복원을 위해 산재한 원전 자료들의 확보와 맥락 복원을 통해 정치공세에 가까운 비판과는 확연히 다른 차원에서 문학적 문화사적 가치를 변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소련유학파 출신 김창석의 연극, 미술, 기획 등의 비평활동과 그의 저작 『미학개론』에서 산견되는 반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리얼리즘 역시 '미학적 수정주의'로 매도되고 자아비판한 경과와 문학적 복원을 시도해서 놀랍습니다. 저는 서만일과 김창석이라는 북한문단의 탈도식주의적 입장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문학예술론의 유연성이 세계사적 추세를 자기식으로 전유하는 북한체제의 흐름과 맞물려 유연성을 잃고 적대적 타자와 악마화하며 '문학과 미학의 정치종속화'로 이행해가는 현실에 매몰된 '문학사적 문화적 단절'의 중요한 고리라고 판단됩니다.

4. 월북, 숙청 작가의 복권과 창작 복원 및 재평가, 재북작가의 전면적 복원의 시급성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라는 명제의 자명성 해체와 북한(조선)문학의 복원이 맞물리는 지점이 코리아문학이라면, 정률, 김창석, 서만일, 리효운, 전재경, 신동철, 홍순철, 윤두헌 등, 유일체제 이행과 함께 배제된 문학사적 복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남북통합문학사, 코리아디아스포라문학의 일부인 북조선문학의 복원이 아닌가요? 배제된 뺄셈의 문학사부터 복원하는 덧셈의 문학사가 아닌, '코리아문학문화사'의 필요조건을 넘어 그 충분조건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스스템의 안팎을 아우르는 겹눈의 문학문화사라는 시각'도 가능할까요. 선생님의 보충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포스트디아스포라,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접경:박미하일론

나소정(단국대)

1. 코리언 디아스포라와 민족정체성

한국문학계에서 거론되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논의는 주로 모국에 대한 집합적인 기억의 공유, 고유한 민족문화의 정체성 유지와 그 노력을 강조하며, 역사적 이산과 관련된 양상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한인문학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접합시키는 접근방식은 동족에 대한 연대감을 강조하고 민족문학의 자장 안에서의 유대를 확인하며 종국에 이를 기반으로 하는 초국적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문화요소의 집합적 특질로서의 독자적인 변별성을 가진 한민족의 정체성과 민족 고유의 문화적 특성은 세계 여러 문화권 내에서 가속화되는 재외 한인사회의 다면적인 분화에 따라 다양한 이형성과 접맥되며 병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문화적 다양성의 진폭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민족의 종족 정체성 개념과 거주국 내에서의 문화적응의 양태가 다원화됨에 따라 민족이라는 동질적 혈연의식에 기반한 통합적 정체성과 문화적 고유성의 질적 측면은 현저한 차이를 갖게 되었으며, 더욱이 해외한인사회와 거주국이 가지고 있는 구성요인 및 상황요인에 따라 그 내용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까닭에 매우 다면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재외한인사회와 그 문화의 제 양상에 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두 방향의 접근을 허용한다. 하나는 단일의 모국과 종족성을 상정한 종족공동체로 바라보는 관점, 다른 하나는 특정한 정신문화적 공분모를 전제로 이질적인 맥락과 지점들을 포용하는 문화공동체로서 이해하는 관점이 그것이다. 해외한인사회와 그 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경향은 전자에서 후자로 그 무게중심이 이동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 동포사회가 다원화되면서 기존의 종족성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화현상들이 관찰되고 누적되고 있는 까닭이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한인문학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의 주된 경향은 아직까지 종족공동체의 관점이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그 논의의 출발에 있어서 우리가 동일한 혈통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해외한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국적, 그에 따른 문화적 특수성을 초월하는 이러한 관점은 최종적으로 이들의 독자적인 문학전통을 한국문학사의 일부분으로 편입시키고 그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목표와 연결된다. 해외 한인들의 문학을 '디아스포라'의 개념과 접합시키고 나아가 '민족문학'의 하위범주로 다루고자 하는 접근방식은 이러한 연구배경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역사적 전통을 공유하는 문화적 집단으로서의 민족 개념은 특정 국가 안에서 이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주는 동시에 명백한 유대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 그런데 한민족의 해외 이주와 정착이 1세기를 넘어가면서 세대적층으로 인한 세대 간 민

1)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출판부, 2004, 215-233.
2) 이순형, 「민족정체감의 개념화와 측정에 대한 고찰」, 『한국청소년연구』 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991, 139-152.

족정체감의 불일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민족으로서 동일 체험이 전혀 없는 젊은 세대들은 문화적 다원주의에 빠르게 동화되어 가고 있다. 해외 한인사회 내부의 올드커머와 뉴커머 간의 간극도 이전보다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여러 문화권 내에서 한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은 공통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더 이상 민족이라는 동질적 혈연의식에 기반한 통합적 정체성을 가지기 어렵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해외 한인사회가 형성해 온 역사문화적 특성을 모국과 함께 이들이 속한 거주국의 특수한 조건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정 문화권 또는 지역적 조건과의 길항에 주목해 해외한인사회와 그 문화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이들이 갖고 있는 군거성의 특질을 보다 적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해외한인들이 가진 문화적 특성과 그 맥락을 개개의 합 이상의 총체로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기존의 디아스포라의 관점으로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잉여지점으로 주목한 것은 민족 또는 국가의 개념에 종속되지 않는 문화공동체의 생성과 변천이다. 프레드릭 바스에 의하면, 민족정체성은 하나의 사회적 구성체로서 자신들과 타인들에 의해 구성되고 유지되는 민족경계(ethnic boundary)와 같은 개념이다[3].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민족정체성은 특정한 사회적 맥락과 구조 속에서 야기되고 표현되며, 따라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어떠한 형태와 내용의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다인종, 다민족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있어서 민족정체성은 고정된 상수라기보다는 가변적인 변수로, 민족정체성의 정도는 모든 한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사회환경에 의해서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그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도 해당 민족집단의 전통문화, 관습, 역사적 경험 등에 의해서 선험적으로 주어지기보다는 그 집단이 처한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 민족문화의 여러 요소들 가운데서 특정의 것들이 선택적으로 강조되거나 재구성, 재해석되어 나타나게 된다[4].

해외한인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동포사회의 형성은 거주국의 호스트문화와의 영향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거주국의 주류집단 또는 다수집단(majority group)과 소수집단(minority group)간의 역학관계에서 이주민으로서의 해외한인은 많은 경우 비주류집단에 가해지는 배제를 경험하고 한편으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응의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문화적 갈등과 충돌은 해외한인들의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외한인사회는 해당 거주국의 문화적 특수성 내에서 종족공동체인 동시에 문화공동체로서, 독자적인 개별성의 접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집단정체성의 분화와 재범주화를 요구받는 것이다. 해외한민족의 문화적응 전략은 통합과 분리, 동화와 주변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전통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거주국 문화권의 지역양식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동화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이다[5].

2. 고려인의 이주와 고려인 문학

코리안 디아스포라 가운데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고려인이라고

3) Frederik Barth, *Ethic Groups and Boundaries: The Socisl Organization of Culture Differences,* Boston: Little. 1969.
4) 윤인진, 앞의 책, 25-28.
5) J.W. Berry, "Conceptual approaches to acculturation", In K.M. Chun, P.B. Organista, & G. marin(Eds.), *Advances in Theory, Measurement, and Applied Reasearch*, Washington, D.C.: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할 수 있다. 고려인의 이주 역사는 1863년 조선으로부터 원동(연해주) 지역으로의 이주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의 지속적인 집단 이주, 1937년 스탈린 정권에 의한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1991년 구소련의 해체와 CIS 지역 독립국가들의 민족주의 정책으로 인한 러시아로의 재이주를 거쳐 2000년대 이후로 크게 늘어난 한국으로의 역이주에 이르기까지 이산의 규모와 범위가 매우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코리언 디아스포라들의 이주 초기를 농업이민과 망명이민, 노동이민 등의 성격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이가운데 연해주로 이주한 이들은 조선말의 큰 기근과 수탈을 피해 국경을 넘은 농업이민에 해당된다. 중국 조선족 역시 농업이민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으나 일제강점기를 지나며 망명이민이 더해졌고 이들은 중국내 소수민족으로 자치구를 형성하고 한글교육과 민족교육을 토대로 조선사람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인민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고려인은 연해주에서의 정착 단계에서 스탈린 정권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한 이후 CIS 지역으로 분산 거주하게 되었고, 생존을 위해 유례없이 빠르고 강하게 거주국의 문화와 언어에 동화되었다. CIS 지역의 고려인들은 집단농장(꼴호즈)을 중심으로 생활하였지만 구소련의 연방체제에서의 공용언어인 러시아어 교육을 받으며 세대간 언어소통이 어려워질 정도로 급속하게 한글과 한국어사용이 줄어들게 된다[6]. 여기에 더하여 1990년대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로 CIS 지역 독립 국가들은 자민족 우대 정책을 펼치고 러시아어 대신 자국어 사용을 강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차별과 배제를 겪으며 또다시 러시아로 대거 이주하게 된다.

고려인이라는 명칭은 CIS 지역에 정착한 한인들과 러시아에 정착한 한인들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이들의 여권에 종족과 인종을 기재하는 표지이자 이들이 거주국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리우는 이름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점들이 고려인들로 하여금 민족적 연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7]. 다인종, 다민족 국가였던 구소련에서의 이주경험과 1990년대 이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로의 재이주 과정에서 고려인들은 러시아의 다문화적 성격에 상당하게 동화되며 세대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확연히 다른 것이 특징이고, 민족정체성의 구성적 성격과 문화적응의 양상에 있어서도 다른 지역의 해외한인사회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질들을 보여준다.

---

6) 정성호가 1997년 해외 한인들을 대상으로 거주 지역별로 주로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표본조사한 결과를 참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성호,「해외 한인의 지역별 특성」,『한국인구학』21-1, 한국인구학회, 1998, 121.

(단위:%)

	중국	일본	미국	중앙아시아
한글	81.2	10.3	94.2	15.4
현지어	17.2	89.7	5.8	56.1
기타 언어	1.6	0	0	28.6

7) "고려인이 언어, 문화적으로 현지사회에 동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소수민족으로 구별되고 다르게 대우받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 신체적으로 러시아인, 토착민과 구별되는 고려인에게 동화는 본인의 의사와 의망 여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구소련 체재와 현재의 독립국가연합 체제에서는 개인의 민족성을 여권 및 각종 공문서에 기재하였고, 교육, 직업, 이동의 자유 등 개인의 생활기회를 제약해 왔다. 이렇듯 고려인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민족 성원들에 의해서 고려인으로 구별되고 인식된다. (중략) 다인종, 다민족 사회에서 타민족들에 의해서 고려인이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특정 소수집단의 성원으로서 구별되고 인식되는 과정과 그 결과가 고려인의 민족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이민 3세와 4세들이 비록 현지 주류사회에 언어적, 문화적, 구조적으로 동화하였다 하더라도 고려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과 애착의 수준은 강하게 유지된다." 윤인진,「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재외한인연구』12, 재외한인학회, 2002, 8-9.

고려인들은 1986년 이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의 개혁개방기까지 100여 년의 세월동안 한국과 단절되어 있었다. 고려인에 관한 국내 학계의 연구는 1990년 한러수교를 전후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고려인문학에 관한 연구도 같은 시기에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8]. 한국과의 교류와 방문이 열리면서 CIS 지역과 러시아에 흩어져 거주하는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들이 국내에 소개되고 있지만, 기존의 해외한인문학 연구가 한국어로 창작된 작품에 집중되어 있는 까닭에 러시아로 창작하는 현역 고려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연구물은 미진한 실정이다.

고려인문학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인문학을 아우르는 것이지만, 역사의 격변기를 지나오면서 현재의 고려인문학은 한글 창작보다 러시아어 창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대적으로 집단정체성을 유지하며 한글창작이 활발하게 이어지는 조선족문학과는 크게 구별된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고려인 작가들은 CIS 지역 출신국의 현지어와 한국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모국으로서의 한국과 조국으로서의 러시아, 고향으로서의 원동 또는 CIS 지역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문화적 혼종성과 경계인으로서의 자각을 전경화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쿠르트 레빈에 의하면 집단생활의 장에 가해지는 장력들 사이에서 원래의 집단이 가져왔던 특질들과 새로운 집단의 양식들이 혼재된 상태에 놓인 '경계인(marginal man)'[9]은 복수의 이질적 집단에 동시에 속하거나 어떤 집단에도 명확하게 속하지 못하는 '사이'의 존재이다. 이중정체성 혹은 다중정체성 문제는 해외한인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질이지만 고려인문학은 그 성격이 매우 다중적이고 다층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현역 고려인 작가 가운데 이 글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오고 있는 박미하일의 작품세계를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첫째 박미하일의 선조들은 일찍이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 첫 세대이자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의 이주와 러시아로의 이주, 그리고 한국으로의 역이주를 경험하고 이러한 자전적 요소와 이주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재현해 왔다는 점, 둘째 예술가소설로 계열화되는 일련의 작품들에서 줄기차게 고려인의 형상에 천착해 온 점, 셋째 그의 작품에 나타난 구소련-중앙아시아-러시아-한국으로 이어지는 여러 다문화적 요소와 민족경계의 양상은 고려인문학의 전형과 변모를 가늠하는 한편으로 변화하는 해외한인문학의 과도적 성격의 한 사례로서 유용한 참조점을 제공한다는 점, 넷째 러시아 중앙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최근 한국에 거주하며 작품세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내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미하일의 작품세계에 대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제출된 바 없다는 점[10]을 들 수 있다.

---

8) 이명재 편, 『소련 지역의 한글문학』, 국학자료원, 2002.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이명재 외 6인 공저, 『억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구소련권 고려인 문학』, 한국문화사, 2004.
장사선, 우정권,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연구』, 월인, 2005.
김종회, 『디아스포라를 넘어서:경계에 선 문학의 운명』, 민음사, 2007.
김종회 편,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 국학자료원, 2010.
이승하, 『집 떠난 이들의 노래-재외동포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13.

9) Kurt Lewin, 박재호 역, 『사회과학에서의 장 이론』, 민음사, 1987.

10) 박미하일에 주어진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작가의 주제의식과 정체성 탐색에 주목한 작품론에 집중되어 있다. 공통되게 지적되는 것은 떠남 모티프, 방랑자 의식, 유랑하는 이방인, 유목하는 주체, 고려인으로서의 자의식 등으로 요약된다.
권기배, 「디아스포라와 망각을 넘어 기억의 복원으로: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인 망명문학 연구(2)-미하일박의 문학세계 연구」, 『외국학연구』 20,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2, 133-149.
김종회, 「구소련지역 고려인문학의 형성과 작품세계: 아나톨리 김과 박 미하일의 작품을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9, 동북아시아문화연구학회, 2005, 133-156.

3. 누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그것을 쓰는가

박미하일(Пак Михаил)[11]은 고려인 5세대이면서 고려인 작가 3세대[12]에 속하는 작가로,

마기영, 「재러 작가 박미하일 소설 연구-『헬렌의 시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8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9, 65-83.
박안토니나(우즈베키스탄), 「미하일박의 소설 연구-「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주제 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회, 2011, 347-371.
박안토니나, 「박미하일 소설의 인물 연구」,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99-119.
박치완, 「문학 공간과 에스닉 정체성의 문제-박미하일의 『헬렌의 시간』을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62, 세계문학비교학회, 2018, 151-174.
박치완, 「박미하일의 『헬렌의 시간』과 다문화 수용 논제」, 『프랑스학연구』 84, 프랑스학회, 2018. 167-194.
방민호, 「구원으로 가는 마지막 '상상구'」(해설), 『밤은 태양이다』, 상상, 2019, 234-254.
신상범, 「러시아의 작가, 미하일 박」, 『수필시대』 8, 문예운동사, 2013, 228-230.
여하나,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의 소설에 나타난 예술의 문제」, 『국제한인문학연구』 25, 국제한인문학회, 2019, 7-33.
윤후명, 「박미하일의 예술세계」(해설),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새터, 1995.
이내관, 「CIS 고려인 박미하일의 단편소설 「해바라기」 연구」, 『한국시베리아연구』 24(4),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147-175.
이상갑·정덕준, 「1990년대 이후 CIS지역 고려인 문학 연구-박 미하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139-160.
이승하, 「재러시아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 소설 연구」,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2011, 125-150.
이정숙, 「박미하일 작품에 나타난 고려인 문학의 특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3, 국제한인문학회, 2014, 203-224.
정덕준·김게르만, 「박미하일 소설 연구」, 『한국언어문학』 94, 한국언어문학회, 2015, 349-371.
정수연·박양하·김영미, 「박미하일 소설 삽입시의 의미와 효과」, 『한국문예비평연구』 6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249-274.

11) 박미하일(Пак Михаил)은 여러 국적과 거주국을 지나오면서 러시아어로 창작을 이어온 현역 작가이자 화가로서의 활동도 병행해 오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 미국 등지에서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러시아 중앙문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국내에 가장 많은 작품이 번역 소개된 고려인 소설가이기도 하다. 박미하일의 소설은 구소련의 개혁개방기 이후를 기점으로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하며 고려인의 삶과 정체성을 그려내는 데 집중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물에서 박미하일의 발표작들에 관한 서지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발표연대에 오류가 많아 작가의 주요 행보와 문학적 연대기를 정리하는 것은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 러시아로 이주하여 재출간하거나 국내 번역 출판 과정에서 박미하일은 기발표작을 꾸준히 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제목을 새롭게 번역한 경우가 더러 있어 원제를 병기한다.
1949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출생
1959년 타지키스탄으로 이주
1970년 타지키스탄 두샨베 미술대학 졸업, 화가로 데뷔
1976년 구소련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단편 「사울렌」을 발표하며 문학활동 시작
1986년 소설「Пристань ангелов(천사들의 기슭)」, 카자흐스탄 문예지 『Простор(프로스토르)』발표
1990년 단편소설 「За порогом ночей(밤샐 무렵)」, 모스크바 고려인 작가 공동작품선집 『Страницы лунного календаря(음력의 장들)』,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주스(Жазушы) 출판사
1990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글을 수학
1994년 소설집『Смеющийся человечек Хондо(웃는 남자 혼도)』, 러시아 모스크바 스베티고르(Святигор) 출판사
1995년 소설집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Смеющийся человечек Хондо)』, 국내 첫 번역 출판(전성희 역, 새터)
1996년 소설 『Ночь-это тоже солнце(밤, 그 또 다른 태양)』, 카자흐스탄 문예지 『Простор(프로스토르)』발표
1998년 자전소설 『Пристань ангелов(천사들의 기슭)』,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주스(Жазушы) 출판사
1998년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주
1999년 해외동포문학상 수상 (미국 로스엔젤레스, 단편소설 「기다림」)
2000년 중편소설 「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발가벗은 사진작가)」발표
2001년 재외한국인재단 및 펜클럽 문학상 수상 (단편소설 「해바라기」)
2001년 러시아 발렌찐 까따예프 문학상 수상(중편소설 「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발가벗은 사진작가)」)
2002년 소설집 『Танец белой курицы(흰 닭의 춤)』, 러시아 모스크바 스베티고르(Святигор) 출판사
2004년 『Смеющийся человечек Хондо(웃는 남자 혼도)』, 러시아 모스크바 스베티고르(Святигор) 출판사
2004년 단편소설 「해바라기」, 국내 문예지 『문학사상』 2월호에 게재

그동안 박미하일은 한국에서는 재러 한인작가로,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작가로 불리웠다. 한글 창작의 명맥이 거의 끊긴 고려인문학의 계보에서 박미하일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 전에 작가의 생애와 이주의 편력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의 작품세계는 고려인으로서 유랑한 작가의 자전적 생애와 이주의 경험들이 주요한 골조를 이루고 있고, 그것은 고려인의 약사라 해도 무방할 만큼 고려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2004년 이문열 『사람의 아들』번역, 러시아 모스크바 리테라뚜라(литература) 출판사
2005년 중편소설『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사과가 있는 풍경)』, 러시아 모스크바 스베티고르(Святигор) 출판사
2006년 에세이집 『Сеульские каникулы(서울 휴가)』, 러시아 모스크바 일리가르(Илигар) 출판사
2007년 장편소설 『Лег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еке(예올리, 강으로의 짧은 여행)』 1부,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주스(Жазушы) 출판사
2007년 러시아 커터예프 문학상 수상(장편소설 『Лег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еке(예올리, 강으로의 짧은 여행)』)
2007년『발가벗은 사진 작가(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 국내 번역 출판(전성희 역, 수산), KBS 예술문학상 수상
2008년 러시아 톨스토이 야스야나 뽈랴나 문학상 수상
2009년 시「추억」,「신기루」, 국내 문예계간지 『시작』 가을호에 게재
2010년 소설집 『Облака на юге(남쪽에 구름)』, 러시아 모스크바 일리가르(Илигар) 출판사
2010년 러시아 쿠프린 문학상 수상(단편소설집 『Облака на юге(남쪽에 구름)』)
2010년 윤후명 『둔황의 사랑』 번역, 러시아 모스크바 일리가르(Илигар) 출판사
2012년 『밤, 그 또 다른 태양(Ночь - это тоже солнце)』, 국내 번역 출판(전성희 역, 북치는마을)
2012년 재외동포문학상 수상(단편소설「해바라기」)
2013년 장편소설 『Мандарины для Хелен(헬렌을 위한 만다린)』, 러시아 모스크바 유노스티(Юность) 출판사
2015년 장편소설 『Лег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еке(예올리, 강으로의 짧은 여행)』 1,2부, 러시아 모스크바 포드비크(Подвиг)출판사
2015년 장편소설 『개미 도시(Муравьиный город)』, 국내 번역 출판(전성희 역, 맵씨터)
2016년 박경리 『토지』 1권 번역, 러시아 모스크바 노비크로노그래프(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출판사
2017년 『헬렌의 시간(Мандарины для Хелен)』, 국내 번역 출판(유형원 역, 상상)
2018년 『사과가 있는 풍경(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 국내 번역 출판(전성희 역, 상상)
2019년 『밤은 태양이다(Ночь - это тоже солнце)』, 국내 번역 출판(전성희 역, 상상)
2019년 박경리 『토지』 2권 번역, 러시아 모스크바 노비크로노그래프(Новый хронограф) 출판사
2020년 장편소설 『Белые озёра(하얀 호수)』, 러시아 모스크바 포드비크(Подвиг)출판사
2020년 장편소설 『예올리(Лег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еке)』, 국내 번역 출판(전성희 역, 상상)
*그림 전시회
프랑스 파리(1995, 2006), 카자흐스탄 알마티(1997, 2005), 러시아 모스크바(1998. 1999, 2001), 한국 서울(1993, 1995,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2020, 2021)

12) 고려인문학사의 시기와 세대 구분은 논자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고려인의 집단이주 역사 및 구소련 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시대별로 획정되는 것이 일반이며, 연해주에서의 고려인 문단 초기에 활동한 작가들을 1세대 작가군, 중앙아시아에서 활동을 이어받은 작가들은 2세대 작가군, 그 이후 세대를 3세대 작가군으로 나누고 있다.

김필영	정덕준	김종회	권기배	오창은	이정선
제1기(1923-1953): 수난기	제1기: 민족의식과 항일의지를 전경화한 연해주 시기	제1기(1923-1953): 태동기/암흑기	제1시기/1세대(1925-1937): 망명문학의 태동기	제1유형: 연해주 세대 문인 제1세대	제1기(1923-1937): 태동기
제2기(1954-1969): 발전기	제2기: 생존을 위한 고투를 보여주는 강제이주기	제2기(1954-1985): 형성기	제2시기/2세대(1938-1954): 망명문학의 정체기	제2유형: 중앙아시아 이주문인 제2세대	제2기(1938-1953): 암흑기
제3기(1970-1984): 혼란기	제3기: 기억의 복원과 하나되기로 요약되는 스탈린 사후 적응기	제3기(1986-1990): 문화적 해빙기/혼란기	제3시기/3세대(1954-1990): 망명문학의 성장기(러시아어로 작품활동을 한 1세대)	제3유형: 소련 망명문인	제3기(1954-1964): 성장기 제4기(1964-1990): 분화기
제4기(1985-1991): 변혁기	제4기: 민족정체성의 재정립을 특징으로 하는 개혁개방기	제4기(1991-): 과도기	(1991-현재) : 망명문학의 과도기(러시아어로 작품활동을 한 2세대)	제4유형: 러시아어 창작의 제3세대	제5기(1991-): 과도기

그리는 데에 바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중앙아시아 3국과 러시아, 한국 등 5개국이 등장한다. 박미하일의 고조부는 1863년 연해주로 건너간 '조선인'이었다. 그곳에서 증조부는 러시아 여인과 결혼하였고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그의 선친들은 '고려인'이 되었다. 고려인작가 박미하일이 태어난 곳은 우즈베키스탄, 성장한 곳은 타지키스탄, 본격적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한 곳은 카자흐스탄이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는 구 소련작가동맹 고려인분과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고려인 문단의 중심 무대였다. 박미하일은 여기서 『고려일보』[13] 신문사 활동, 고려인문단과 고려인협회의 수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작가는 러시아 모스크바로 이주하여 한국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작가가 거주하고 있는 곳은 한국이다.

19세기로부터 21세기에 이르는, 무려 5대에 걸친 여정은 '조선'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전작들은 이러한 그와 그의 가문의 내력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구소련 시절, 그가 아직 CIS지역에 머물던 당시 발표한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휘날리다」는 연해주로 건너간 조선인-초기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자전소설 「천사들의 기슭」에는 젊은 화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현지 주류사회에 동화되지 못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성장해야 했던 고려인 청년세대의 문제가 그려진다. 줄곧 고려인의 삶과 현실을 주요한 중심 소재로 다루어왔던 그의 작품세계는 러시아 이주를 전후로 새로운 변화와 모색이 나타나는데, 구소련 해체 이후의 러시아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국과 한국인, 한국어에 대한 모티프를 전경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밤은 태양이다』의 주인공 비껜찌 전은 고려인으로 러시아어로 시를 쓰면서 한국어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며, 러시아인 아버지와 고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 드미뜨리 리-마로프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사과가 있는 풍경』은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구별되는 재러 한인의 삶과 현실을 두드러지게 그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 파주에 머물며 출간한 『헬렌의 시간』에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국인 강소월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박미하일의 작품세계와 작가의 행보가 보여주는바, 그의 소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찾기의 실존적 물음과 밀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미하일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인물들은 구소련의 개혁개방기 이후 러시아와 CIS 지역의 재편과정에서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고려인 청춘들의 초상이라 할 수 있는데, 그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근작 『헬렌의 시간』에는 한국인과 러시아인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지만 정작 고려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김종회,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의 형성과 작품 성격」, 『동북아문화연구』 1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105-127.
김필영, 『소비에트 중앙아시아 고려인 문학사(1937-1991)』, 강남대학교출판부, 2004.
권기배, 「디아스포라와 망각을 넘어 기억의 복원으로-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한인 망명문학 연구(2)-미하일 박 문학세계 연구」, 『외국학연구』 20,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2, 133-149.
오창은, 「고려인 문학에 나타난 정체성의 정치-양원식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57, 2011, 207-237.
이정선, 「구소련지역 고려인문학의 형성과 시문학 양상」, 김종회 편, 『미국·일본·중국·러시아의 해외동포문학-한민족문화권의 문학』, 국학자료원, 2003, 495-540.
정덕준, 「재외 한인문학과 한국문학-연구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2,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6, 13-31.

13) 『고려일보』는 연해주에서 1923년 창간된 『선봉』, 강제 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발행된 『레닌기치』를 이어받은 고려인의 중심적인 매체였다. 이주 초기의 고려인들은 이 신문의 문예면을 중심으로 한글문학 창작을 이어왔고,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로 한글교육이 중단된 이후로 고려인 한글문학의 명맥을 보존한 매체이기도 하다. 스탈린 사후 1954년 『레닌기치』는 카자흐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지위가 승격되어 구소련 전역에 배포되었다. 1962년 조직된 구소련작가동맹 고려인분과 가운데 카자흐스탄 고려인작가 분과는 가장 중심적인 활동을 펼치며 고려인문학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박미하일은 고려인문학의 전성기가 쇠퇴할 무렵 러시아어로 등단하여 작품활동을 이어가는 3세대 작가군에 속한다.

박미하일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빈번히 지적되는 바를 먼저 언급하자면, 그의 초기작들은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고려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우지만, 서사구조의 극적 전개나 미적 수월성에 미진한 점이 있고 사회적 모순과 암울한 현실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 구체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론이다. 실제 그의 작품에는 우연한 만남의 연속과 정처없는 방랑, 이방인이라는 자의식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결말부에 이르면 먼 미래의 희망과 평화를 기원하는 일종의 정신적 고양과 추상적 보편으로의 귀결이 관찰된다. 이는 소설가이자 화가이기도 한 작가의 회화적 상상력과 문체,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소수민족 작가로서 생존하기 위해 견지해 나가야 했던 중립적 정치 감각, 그리고 원동이나 CIS 지역으로의 강제이주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3세대 작가가 본 고려인의 현실인식과 정체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의 소설 전반의 스펙트럼을 펼쳐 볼 때 박미하일의 작품세계 전반에 걸쳐 이러한 지점들은 점진적으로 유의미한 방향과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박미하일이 작가로 활동하기 시작한 1970년대 후반은 고려인 문단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한편으로 독자층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다. 1957년 7월, 소련 최고회의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한인들의 특별거주지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집단농장(콜호즈)을 중심으로 농업기반의 정착생활을 해왔던 고려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고 이에 비례해 현지사회의 적응과 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박미하일이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은 소비에트연방의 개혁개방기를 지나 구소련의 해체라는 변혁기이자 사회적 혼란기였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과 맞물려 고려인 문단은 새로운 상황에 마주했는데, 민족적 정서와 정체감에 대한 표현이 이전 시기보다 한층 자유로워진 반면, CIS 지역 독립 국가들이 자국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러시아어로 창작하는 고려인 3세대 작가들은 발표매체와 언어, 소비에트인민으로서의 국적을 한꺼번에 잃게 된 것이 그것이다. 구소련 해체 이후 박미하일은 러시아로 이주하여 작품활동을 이어나가는데, 그의 소설들은 바로 이러한 고려인들의 언어, 국적, 민족정체감의 상실과 회복 과정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있다. 여기서는 작품의 발표연대 순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천사들의 기슭(Пристань ангелов)」(1986)[14]은 박미하일의 자전적 소설[15]로 가난한 고려인 화가 아르까지 임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는 15년째 그림을 그려오고 있지만 전시회를 한 번도 갖지 못한 불운한 인물이다. 아르까지는 정신적 방황과 물리적 궁핍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이 조선인의 외모를 가진 러시아인이라는 점에서 정체성의 갈등을 겪는 인물로 그려진다. 관념적이고 수동적인 아르까지와 달리 그의 아내 넬리는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첫 개인전을 성사시키지만 바로 전날밤 그림이 모두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 소설은 그림들이 모두 소실된 이후 회고의 시점으로 기술되어 있다. 아래의 장면은 이 소설에서 작중인물과 작가가 포개지는 주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14) 1986년 카자흐스탄 문예지 『Простор(프라스토르)』에 발표. 1995년 국내에 소개된 첫 작품집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전성희 역, 새터)에 수록되었다. 1998년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사주스(Жазушы)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15) 이승하는 주인공 아르까지 임과 박미하일이 겹쳐지는 부분으로 "자신이 조선인(고려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살아가면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순수예술을 지향하는 화가"라는 점을 들고, 이 작품의 비극적 결말은 고려인의 불행한 운명을 암시하는 장치로 분석하며 이 작품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살고 있는 고려인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소설"이라고 고평하였다. 이승하, 「재러시아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 소설 연구」,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2011, 138.

> 나는 조선을 주제로 한 그림을 아직 한 점도 그려보지 못했다. 나는 조선인이고 내가 이 사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 생각해왔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정신이 퍼뜩 틀 때가 있다. 유럽인이기도 하고, 조선인 얼굴을 한 러시아인이기도 하고, 종이에다 그 알 수 없는 문자로 내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인간이기도 하고, 조금 실수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적에 아우깐의 노인들한테서 물려받은 언어로 말은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인간이기도 하다. 조선에서 그 말이 제대로 통할 수 있을까? 내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는 찾지 못했다[16].

그가 조선적인 것을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이유가 후술되는데, 그것은 "양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아픔이 부끄러움처럼 가슴 깊은 곳에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르까지는 고려인 노인들의 마을, 아우깐에 드리운 "무언의 아픔"이 양친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끄러움으로 남아있음을 고백한다.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Смеющийся человечек Хон До)」(1994)[17]는 국내에 번역 소개된 박미하일의 첫 소설집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의 표제작으로, 이 소설의 서두에는 러시아로 향하는 두 척의 배에 올라탄 조선인들이 등장한다. 전작에서 고려인 마을 아우깐에 남아있던 침묵의 노인들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연해주에 정착한 초기 이주민들의 신산한 삶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조선조 말의 흉년과 기근으로 피폐해진 조선을 떠나 연해주로 이주한 과정과 초기 고려인공동체의 개척기, 정착 과정에서의 고난과 시련들, 그리고 고려인 2세 최월국이 화가가 되기 위해 모스크바로 이주하는 과정[18]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선조들에 의해 구전되었던 고조부의 이야기를 그렸다고 쓰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초기 이주민을 대했던 러시아인들과의 관계가 매우 우호적이고 그 연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상당부분은 고려인들과 연대한 러시아인들의 선의와 호의를 묘사하는 데 할애되는데, 이는 작가가 고려인의 삶과 현실에 있어서 러시아의 영향과 그 접점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인 동시에 고려인의 당면한 문제성이 개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임을 자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해바라기(подсолнечник)」(2001)[19]에는 체첸의 그로즈니 지뢰 폭발사고로 다리를 잃은 고아 이반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현실에서 취한 소재와 함께 이 소설에는 이반이 마주하는 두 개의 현실이 병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반은 삼촌이 얻어준 원룸에서 독립된 생활을 하지만 그가 이 원룸 밖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소일거리 삼아 만드는 인형극 동화가 유일하다. 이반은 매일 단지 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휠체어 위에 만든 작은 극장에서 <아기 해바라기 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소설 속의 액자식으로 삽입된 이 인형극 이야기들은 "한때 세계여행을 꿈꾸었던" 이반의 이야기[20]이기도 하다. 인형극 속에서 엄마 해바라기는

16) 박미하일,「천사들의 기슭」,『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새터, 1995, 149-150.

17) 1994년 러시아 모스크바의 스베티고르(Святигор) 출판사에서 간행한 소설집『Смеющийся человечек Хондо(웃는 남자 혼도)』에 수록되고, 이듬해 1995년 국내 번역된 소설집 『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Смеющийся человечек Хондо)』의 표제작이기도 하다.

18) 주인공의 이름이 '월국'이라는 점 자체가 상징적이기도 하지만, 이 소설이 연해주의 이주로 그치지 않고, 모스크바로 다시 떠나는 고려인 2세를 기입하고 있다는 점이 새롭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 「해바라기(подсолнечник)」는 2001년 재외한국인재단 및 펜클럽 문학상, 2012년 재외동포문학상 수상작으로, 국내에는 2004년 문예지 『문학사상』 (2월호)에 게재되었고 2018년 상상에서 출판된 『사과가 있는 풍경(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에 수록되어 있다.

20) 이내관은 인형극의 주인공인 '렘'이 다리를 잃은 이반의 대리인으로, 그를 대신하여 세계 여러 나라

아기 해바라기 렘을 "작은 태양"이라고 부르면서 "들판만 보지 말고, 좀 더 멀리 가서 세상을 보"라고 외치고 렘의 모험은 아프리카와 북극과 말레이시아, 캐나다를 거쳐 언젠가는 한국에 닿을 것이라고 예고된다. 이 동화같은 이야기에 산문적 현실이 개입하는 것은 이웃 리리야의 별장 초대이다.

> "존경하는 관객 여러분!"
> 이반이 차분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장비 뒤에 있는 그의 얼굴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 앞에서 공연할 때는 흥분됐었지만, 잔뜩 먹고 마셔서 풀어져 있는, 자신감에 넘치면서도 따분해하는 이런 어른들 사이에 있는 지금은 마음이 차분했다. 저들에게 동화 따위가 필요하기는 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중략)
> 다들 손뼉을 쳤고, 리리야는 뭔가 놀란 듯한 눈빛으로 이반을 보았다.
> "맞아! 우리 다들 어렸을 때는 뭔가 특별하고 동화 같은 것을 좋아했고, 마법적인 것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어느덧 삶이 우리를 삼켜버렸어……." (중략)
> "이건 동화니까요. 애들은 자라면서 동화는 잊게 되겠죠. 그래도 난 바깥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이 가느다란 실을 잡고 있을 테죠."[21]

이반은 별장에 모인 취객들이 동정과 연민으로 건넨 사례금을 거절하고 돌아오면서 리리야와 자신이 "서로 다른 세상"에 속해 있으며 "서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느낀다. 직업도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불구자, 장애인", 인형극이라는 상상적 매개와 어린 관객의 제한된 조건 속에서만 세계와 소통하는 그의 현실은 이후에 발표되는 작품들에서 보다 다양하게 변주된다.

「사과가 있는 풍경(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2001)[22]에는 러시아인 아버지와 고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고려인 드미트리 리-마로프가 등장한다. 그 역시 예술가로 한 번도 생계수단으로 삼은 적은 없지만 사진을 찍는 작가이다. "사과가 있는 풍경"은 그의 졸업앨범을 촬영했던 사진사이자 연인이었던 그러나 지금은 자유의 나라 미국으로 훌쩍 떠난 에밀리야의 작품명이다. 친구가 빌려준 별장에 임시로 거주중인 드미트리는 일거리를 찾아 도시를 쏘다니는 것이 주된 일과이다. 모스크바 주류사회에서 밀려나 거리를 방황하는 이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 그는 분주하게 지나가는 잡다한 인파를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신을 한번 찾아보았다. 말 그대로 드미트리 리-마로프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닮았을지 모르는 사람을 말이다. 쌍둥이라든가 분신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외형적인 닮은꼴은 찾을 수 없겠지만,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닮은꼴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23]

작중 모스크바의 거리에는 프라하의 봄에 체코 민중들과 하나가 되었던 전력의 노숙자가 구

를 여행하는 이야기를 통해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갈망하는 작가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작가와 이반, 렘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내관, 앞의 글, 160.

21) 박미하일, 「해바라기(подсолнечник)」, 『사과가 있는 풍경(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 상상, 2018, 153-154.164.

22) 「사과가 있는 풍경(Натюрморт с яблоками)」은 2001년 러시아 까따예프 문학상 수상작으로, 2005년 러시아 모스크바 스베티고르(Святигор)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국내에는 2007년 수산출판사에서 『발가벗은 사진 작가』로 소개되었으나, 2018년 『사과가 있는 풍경』으로 개제되어 재출간되었다.

23) 박미하일, 『사과가 있는 풍경』, 상상, 2018, 15-16.

걸을 하고, 각종 증명서와 졸업논문 따위를 파는 장사치가 성행한다[24]. 드미트리는 변화하는 거리의 혼란 속에 쇼윈도에 전시된 마네킹을 자신의 닮은꼴로 오인하고 경비원들에 붙들려 "뜨내기에 빈털터리", "부랑자", "불량배"로 몰린다. 실제 구소련 해체 이후로 러시아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하향 직업 이동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락하고 상대적 빈곤과 차별에 마주해야 했다. 작중에서 러시아인 아버지의 직업이 벽돌 공장 기술자인 반면 고려인 어머니의 직업은 학교 물리선생이었다는 설정 역시 이러한 불평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작가가 보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부분은 이 혼혈의 정체성이 무엇을 지시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그런데 당신은 완전한 러시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별 뜻은 없어요. 제 경우만 해도 여러 가지 피가 섞여 있거든요……. 우리 집안에는 러시아인도 있고, 폴란드인, 우크라이나인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스페인 분이셨구요. 단순 기술자셨죠."
> "당신 말이 맞아요. 난 혼혈이에요. 아버지는 러시아인이고 어머니는 고려인이죠."
> "어머니 쪽으로는 검은 머리색만 물려받았나 봐요. 나머지는 유럽 사람 같은데."
> 알리나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 "가족 중에 동양과 서양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문화, 관습, 언어. 한국말 할 줄 알아요?"
> "일상적인 인사 정도만."
>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한국말 어려워요?"
> "글쎄요……. 어렸을 때 외할머니께서 가르쳐줬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점차 잊어버렸죠."
> 드미트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외할머니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았다. 무척이나 절제하면서 살았던 엄격한 그 분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동양적이면서도 묘한 과묵함을 지니고 계시던 분이었다. 그의 모친은 닮기는 했지만 할머니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 모친은 그와 한국어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마 개인적으로 힘겨웠던 운명 때문이리라. 1937년, 연해주에 있던 한국인들을 정부가 중앙아시아로 이주시켰을 당시 모친은 겨우 열 살이었다. 이런 얘기를 드미트리는 부친에게서 들었다. 모친은 늘 자신의 국적을 감추는 듯 했고, 드미트리가 태어났을 때 그가 외형적으로는 그녀를 전혀 닮지 않은 것을 보고는 드러내 놓고 좋아했다고 한다. 그녀는 억압과 공포의 흔적들을 안으로 눌러 담고 살았으며, 자기 아들이 열등감에 시달리는 일이 없기만을 바라고 있었다.[25]

실제 작가의 증조모가 러시아인이기도 하였지만, 이 작품에 이르러 고려인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한층 심도있게 분화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어머니의 자기 부정과 할머니의 기억, 잃어버린 모국어에 대한 중층적인 시선을 통해 언어적, 문화적 동화에도 높은 수준의 민족적 동일시와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또 한 가지 부기해 둘 것은, 위 대화에 등장하는 알리나의 존재이다. 알리나는 러시아 여성으로 드미트리의 사진을 미국인 사업가에게 소개해 처음으로 그 가치를 화폐로 환산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사진에는 기억과 시간이 담겨 있어서 그것을 판다는 것은 "일종의 시간 거래"로, 드미트리는 사진과 교환한 달러를 들고 축제와 같은 밤을 보낸다. 박미하일 소설 전반에 걸쳐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남성 고려인 주인공과 능동적인 러시안 여성이 대조[26]되고, 이 여성인물

24) 박안토니나는 이 작품에서 박미하일이 구소련의 붕괴 이후 러시아에서 산업화와 시장경제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기를 소수민족의 시선에서 포착해 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안토니나(우즈베키스탄), 「미하일박의 소설 연구-「해바라기 꽃잎 바람에 날리다」 주제 의식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회, 2011, 361-362.

25) 박미하일, 『사과가 있는 풍경』, 상상, 2018, 62-62.

26) 박안토니나는 미하일 소설의 인물을 운명 순응형, 유랑형, 적극형 인물로 유형화한 바 있다.(박안토

들은 주인공의 환금성 없는 예술을 세상에 중개하기 위해 한결같이 조력자 또는 구원자로 형상화된다는 점은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밤은 태양이다(Ночь – это тоже солнце)』(1996, 2019 개작)[27]는 고려인 시인 비켄티 전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를 거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다양한 인물군상의 역학관계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레라와 모스크바의 골목을 쏘다니던 비켄티 전은 러시아 경찰의 불심검문에 잡혀 경찰서로 연행된다.

> "증명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 그는 차분하면서도 준엄한 어조로 명령했다.
> 나는 그에게 여권을 보여주었다. 놀란 레라는 자기도 가방을 열어 보여야 하는 건지 몰라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경사는 그녀를 한번 훑어보기만 할 뿐 내 여권을 펴보지도 않았다. (중략)
> "전 씨, 카자흐스탄에서 언제 왔소?"(중략)
> "모스크바에 친척이나 친구가 있소?"
> "아니요, 아무도 없는데요."
> "모스크바에서 뭘 하려는 거요?"
>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길입니다."
> "거기에는 누가 있소?"
> "아무도 없는데요."
> "그럼 무슨 일로 가는 거요?"
>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한 일주일 정도 페테르부르크에 머물고 싶을 뿐입니다."
> "일주일 동안 뭘 할 건데요?"
> "구경도 하고, 여기조기 다녀도 보고."
> "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전부란 말이오?"
> "그렇습니다."
> "이해가 안 되는군."
> "카자흐스탄공화국과 러시아 간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협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권리도 없다는 말입니까?"
> 경위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뭔가를 쓰고 있을 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 "하지만 당신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뭘 할 생각인지 답변을 해야만 합니다."

니나, 「박미하일 소설의 인물 연구」,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4, 99-119.)

이와 더불어 눈여겨 볼 것은 성별에 따라 주어지는 이 낙차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드미트리가 축제의 밤을 보내고 홀로 전철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등장하는 한 남자의 장광설이다.

> 대도시에서 길고 긴 노동 시간을 마친 사람들이 장바구니나 서류 가방, 신문, 책 등을 들고서, 이런저런 좋고 나쁜 소식들을 안고서 자신들의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파는 잡상인들이 끊임없이 전철 안을 돌아다녔을 시간이었다. 그들은 실, 바늘, 단추, 슬리퍼, 고기 다지는 칼, 그릇, 전기스탠드, 건전지, 본드, 신발 깔창, 아동도서, 바퀴벌레 잡는 덫, 사탕, 약초 등등 온갖 것들을 다 팔고 다녔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도 다녔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없다. 면도도 하지 않은 키 큰 어떤 남자만 눈에 띄었다. 모자도 쓰지 않고, 다 해진 윗도리를 입은 그 남자는 천장으로 손을 뻗치면서 객차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 "존경하는 신사 숙녀 여러분! 경애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신년벽두에 우리 힘겨운 러시아의 여성들을 찬미하고자 합니다! 아, 여성들이여! 그대들의 연약한 어깨에 새로운 시련의 무게가 다시금 얹어지는구나! 하지만 나는 아노니, 그대들은 과거의 괴로운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견디어낼지니! 그대들은 온 몸을 쭉 펴고, 아름다움이 철철 넘쳐흐르는 위대하고 근사한 존재가 되리니! 여성들이여,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며 러시아는 부활할 것이다. 러시아는 동이 클 것이다! 여성들이여, 조국은 그대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그대의 발치에 엎드려 이 세상의 모든 꽃들을 바칠 것이로다!"(박미하일, 『사과가 있는 풍경』, 상상, 2018, 117-118.)

27) 이 소설은 1996년 동명의 단편으로 카자흐스탄 문예지 『Простор(프로스토르)』에 발표되었다가 2012년 『밤은 또 다른 태양(Ночь – это тоже солнце)』으로 번역되었고(전성희 역, 북치는마을), 개작을 거쳐 2019년 『밤은 태양이다(Ночь – это тоже солнце)』(전성희 역, 상상)로 개제하여 재출간되었다.

경사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시를 쓸 겁니다."
나는 애서 눌러 참으며 대답했다.
"시?"(중략)
"카자흐스탄에서 온 시인 한 명이 어째서 러시아 시민에게 위험한 존재인지 모르겠군요."
"그럼 당신이 시인이란 말이오?"
경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떤 언어로 시를 쓰고 있죠?"
"러시아어로요."
"한국어가 아닌 러시아어가 당신 모국어요?"
"한국어도 제 모국어지만, 이제는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죠. 젊은이한테는 별 필요가 없고, 나이든 사람들은 세상을 뜨고 있으니까요."
"한국에 친척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조상은 19세기에 러시아로 왔습니다. 고향과의 관계는 단절됐죠. 고조부께서는 어부셨고, 표트르 벨리키 만에 있는 고려인 이주자들 어민조합원이셨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알렉산드르 2세 시절에는 정부가 고려인들을 존중해줘서 여러모로 도움을 주기도 했죠."
"책에 나올 법한 재밌는 역사군."
경사가 말했다.
"저는 언젠가는 이런 역사를 서사시로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28)]

다소 길지만, 이 부분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을 가지고 러시아어로 문학을 하는 작가의 초상이 정면으로 부조되어 있기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여곡절 끝에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비겐티 전은 화물선에 기거하면서 낮에는 거리를 쏘다니고 밤이면 닻도 없이 얼어붙은 네바강에 정박해 있는 낡은 화물선의 경비원이 된다. 이 소설에는 10여 편의 삽입시[29)]와 물고기 우화[30)]가 들어 있는데, 비겐티 전의 서사와 시편들이 직조되면서 차가운 석조도시 페테르부르크의 풍경과 젊은 시인의 내면 풍경이 겹쳐 공명을 빚어낸다. 시민의 자유와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도시를 배회하는 비겐티 전에게 다채로운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도 이 소설의 새로운 점이다. 개혁개방기로부터 혼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자신의 예술정신을 수호하려는 러시안 조각가 보리스와 부유하고 친절한 한국에서 온 한의사 권은필, 그리고 화물선에 남겨졌던 그의 시뭉치들을 남몰래 출판[31)]하여 비겐티 전에게 선물하는 거리의 여자 예르나가 그들이다. 이 작품에서 고려인 비겐티 전은 러시안과 코리언을 만나고 박미하일은 비로소 조국과 국가, 민족과 고향[32)]을 바라보는 시선에 거리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 위의 인용에서 비켄티 전이

28) 박미하일, 『밤은 태양이다』, 상상, 2019, 54-58.
29) 정수연·박양하·김영미는 소련 해체 이후의 사회적 혼란을 마주한 고려인의 삶과 불안 심리를 작중에 삽입된 시편들에 주목하여 분석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주인공 비켄티 전에게 '떠남'의 여정이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의 불안정한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하는 고려인의 정체성 탐색 과정을 반영한다면, '시 쓰기'는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중에서 주인공이 당신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경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려인의 디아스포라, 사회적 위치가 내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정수연·박양하·김영미, 「박미하일 소설 삽입시의 의미와 효과」, 『한국문예비평연구』 64,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9, 250.
30) 무리를 떠나 사라진 물고기 한 쌍과 남은 무리들의 이야기로,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은유한다.
31) 예르나가 작중에서 이 시집에 붙인 이름이 이 작품의 제호이다. 전작들에서와 같이 세계와 주인공을 매개하고 연결하는 위치에 여성인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32) 이상갑과 정덕준이 공동연구에서 예리하게 지적한바, 박미하일의 초기 소설에 등장하는 고려인들은 "러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방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상실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러시아

미구에 고려인의 이주 역사를 서사시로 남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이러한 인물구도의 변화와 긴밀한 상관이 있다. 이 소설의 결말부에는 "거대한 나라가 무너지고 이제는 각자 자기 굴 속에 박혀"버린 시대, 모두가 홀로 외롭게 출발지는 있으나 목적지나 도착지가 없는 운명을 짊어지고 길을 떠나야 하는 상황, "제 자리"를 못 찾고 "허우적대면서, 그런데도 출구는 없"는 상태에 놓인 비겐티 전에게 언제든 자신의 집으로 와서 머물기를 청하며 언제까지나 기다릴 것을 약속하는 예르나(레라)가 선명하게 음각된다. 그러나 비겐티 전은 자신의 시집 몇 권만을 가지고 다시 길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백 년이 지난 후에는 돌 껍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력이 생기"리라 위안하면서 "새로운 '나'의 탄생"을 소망하며 또다시 세상을 편력하고 주유하기로 하는 것이다.

『헬렌의 시간(Мандарины для Хелен)』(2013)[33]은 긴 밤이 지나고 떠오른 또 다른 태양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 박미하일은 전작들에서 벼려왔던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국가와 민족, 문화적 차이를 아우르는 윤리적 공동체에 관한 질문이 그것이다. 한국인 강소월과 유럽식 이름을 가진 에티오피아 여성 헬렌이 등장하는 이 작품에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문화와 종교가 다르지만 품위 있고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다른 대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는 유랑하는 이방인, 주류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주변인으로서의 고려인의 삶과 현실을 그려내었던 그의 전작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다민족국가였던 구소련에서의 경험을 바탕한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의 심화요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헬렌의 시간』은 그의 작품세계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모국 또는 거주국의 '우리/들'로부터 유리되어 '나'를 구성하여야 했던 자기정체성의 문제는 이제 모국이자 거주국이 된 한국에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에티오피아에서의 체류를 마치고 귀국한 엔지니어 강소월이 제주도의 감귤농장의 일꾼으로 들어가 농장의 운영자로 정착하기까지의 이야기[34]를 담아내고 있는데, 주체의 형성과정에서 그 경계가 다양하고 다변적이며 세계 각국을 편력한 등장인물들의 관계가 매우 수평적이고 대등하게 연결되어 유동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소설에 이르면 주류와 비주류의 경계가 없으며, 때문에 이분법적인 패러다임을 넘어서게 되고, 타자성은 n개로 분화된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소설의 결말부는 박미하일 소설 전반에서 관찰되는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강소월이 제주도 감귤농장에 정착하기 위해서 그에게는 에티오피아의 헬렌이 필요한 것이다. 헬렌이 없고서는 이

인도 한국인도 아니기 때문에 좁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에 견인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러나 한러수교 이후 발표된 작품들에서는 거주국과 남북한에 대한 시각, 그리고 국가관, 민족관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고려인의 문제를 적실하게 재현해내며 그 예로 한국인을 등장인물로 내세우거나 고려인 주인공의 '한국말',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빈번히 표현한다는 점을 지목하고, 러시아의 고려인 작가에게 '언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근원에서 규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갑·정덕준, 「1990년대 이후 CIS지역 고려인 문학 연구-박 미하일의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비평』 59,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140, 153.

33) 이 작품은 2013년 『Мандарины для Хелен(헬렌을 위한 만다린)』 의 제목으로 러시아 모스크바 유노스티(Юность)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2017년 『헬렌의 시간(Мандарины для Хелен)』(유형원 역, 상상)으로 국내에 소개되었다.

34) 앞서 고려인의 집단거주 양태가 꼴호즈(집단농장)을 중심으로 하였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러한 설정은 작품의 배경과 인물, 사건이 모두 한국에 초점화되어 있지만 제주는 실재하는 모국이기보다 새로운 기원이 될 상상된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고려인들이 꼴호즈를 중심으로 고본질이라 불리우는 계절임차농을 하며 CIS 지역에 자신들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작가는 주인공 강소월에 러시아를 지워지지 않게 기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정은 완성되지가 않는 것이다.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남자를 구원하는 여성인물로 지구 반대편의 헬렌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전연 새로운 이주의 시작이면서 식민지의 이름으로 불리우던 여성과 이제 막 이름을 되찾은 남성의 낯선 혼종이며, 이 조합의 배치는 그런 점에서 정신성으로 귀결되는 일종의 봉합이라고 보여진다.

이 작품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작품을 더 이상 기존의 디아스포라 문학의 범주에서 충분히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박미하일은 한국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한글로도 창작을 병행하고 있고, 작가가 서문에서 밝혔듯이[35] 이 작품은 한국인 독자를 염두하고 집필한 것으로, 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사회를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낯선 물음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은 한국문학의 다문화소설과도 뚜렷이 구별되는 목소리이다. 해외한인문학이 한 세기를 넘어가며 현지화되어가는 과도기에 출현한 이 새로운 작품사례를 우리는 종래의 방식으로 소환할 수 없다. 해외한인문학에서 나타났던, 혹은 그러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모국 지향의 정체성과 거주국 지향의 정체성이 이 경우 반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거주국으로서의 한국과 모국으로서의 러시아, 이 새로운 인식과 패러다임이 보여줄 다음 페이지에는 무엇이 쓰일 것인가. 그것은 분명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접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가가 들려줄 다음 이야기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결론을 대신하여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민족 문화권의 영역과 경계는 다양한 분기를 이루면서 한층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문화요소의 집합적 특질로서의 독자적인 변별성을 가진 한민족의 성격과 정체성은 한반도의 분단과 고착, 한국 근현대사의 한민족 해외 이주와 디아스포라의 세대적층, 그리고 글로벌 시대 지구촌의 국경없는 세계시민으로서의 한민족의 진출 등으로 다기한 결절지점을 갖게 되었다. 거주국의 특정한 지역양식과 결합하여 변형되거나 자생적인 공동체 문화를 새롭게 형성해가고 있는 해외 한인사회나, 남과 북의 이질적인 문화감각과 문화적 삶의 내력들은 개별적인 특수성에 기반한 상호 간의 동질성과 공동체의식을 복수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민 집단들(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새터민 및 조선족, 그리고 고려인 등)이 증가하면서 한민족의 집단정체성은 이질적인 접촉면을 아울러 지니게 되었다. 한민족 고유의 문화적 특성은 다양한 이형성과 접맥되며 병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문화적 다양성의 진폭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민족 공동체의 외연과 경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층적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해외한인공동체의 집단적 관계를 분석하는 틀로 포스트디아스포라 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문화공동체로서 해외한인사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민족의 동질성이 얼마나 유지되어 왔는가와 대등하게 어떤 방식으로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함께 다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모국을 중심에 놓고 해외 한인문학을 분석하는 기존의 구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거주국 내에서 문화공동체이자 종족공동체로서 고려인문학의 변모양상과 그 유기적 영향관

35) "이 소설은 내가 한국을 배경으로, 한국을 소재로, 그리고 한국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서술한 첫 번째 작품이다. 오랜 세월 러시아 권에서 생활해야 했던 나는 많은 한국 분들의 도움으로 나 자신의 역사적 고향, 한국의 문화에 관한 새로운 지평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다. (중략) 나는 과연 이것이 한국의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힐 것인지에 대해 떨림과 흥분을 감출 길이 없다." 박미하일, 『헬렌의 시간』(작가의 말), 상상, 2017, 293-294.

계를 원심적 시각에서 평가하고 분석하고자 했다. 기존의 연구관행에서 연구대상으로서 민족을 중심에 놓는 문화통합의 관점이 우세했다면 본 연구는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집합체로서의 문화공동체를 전제하고 민족 고유의 문화라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반대항 사이에 존재하는 실재적인 혼종화의 제 양상과 동시적 작용, 그리고 그 문화가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구해보고자 한 것이다.

최근 들어 한민족문화공동체의 개념은 남북문제와 이민사회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세계화, 다민족,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조명되고 있다. 특히 해외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 공동체문화에 관한 연구는 민족정체성 문제와 관련하여 민족 개념의 확장과 공간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아우르며 기존의 한민족 디아스포라 연구의 연장선에서 다양하게 심화, 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로 확장된 한민족의 문화권역에 관한 연구는 이주와 정착과정의 이민사에 주목한 기존의 디아스포라 담론과는 상이한 전개를 보이는 바, 국경과 지역을 넘어서 권역별로 형성된 이민사회의 독자적인 특질들을 규명하고 이를 문화와 문화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포스트디아스포라 담론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려인문학이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보인 집단정체성의 구성적 성격은 20세기 이후 다양한 분기를 이루면서 한층 복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민족 문화권의 영역과 그 경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일성의 확인을 근간으로 하는 일원화의 욕망에서 탈주하여 이질적 다양성의 실천적 병존의 장으로 해외한인문학을 바라볼 때 한민족 공동체문화의 다양한 변이태들과 그 수평적 분포를 조망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에서야 한민족문화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유대, 혹은 분절의 양상이 종합적으로 규명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포스트디아스포라, 한국어문학의 새로운 접경:박미하일론"에 대한 토론문

한국문학과 재외한인문학, 그리고 근대체제 속 세계문학

오창은(중앙대, 문학평론가)

나소정 선생님의 글은 한국에서 이뤄지는 재외한인문학 연구에 대한 현재적 고민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간 재외한인문학연구는 민족문학, 이주문학, 디아스포라문학, 세계문학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한국 문학연구의 민족문학 중심성이 점차 '특수성과 보평성'의 문제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난의 민족사에 입각한 재일조선인문학, 재중 조선족문학, 구 소연방의 고려인 문학 조사 발굴과 연구에서, 점차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학의 존재 양태 연구'로 변화하는 양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문학이 민족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세계문학과의 소통 과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동일시 욕망으로 끌어들이려 하지도 않고, 또 과도하게 타자화하지도 않는 중층지대의 발견을 향한 연구이기도 하고요.

재외한인문학연구가 지금은 전환의 한 지점에 와 있는 듯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세계문학의 특수한 양태이자, 한국문학의 이형으로서 재외한인문학을 연구하려 합니다. 이 특별한 지위의 문학이 '근대문화과 세계문학'의 중첩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근대세계가 이주를 통한 문화적 삼투를 특징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가장 하층부에서 이뤄지는 문화적 쟁투 양상이 재외한인문학에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한국문학적 관점에서 재외한인문학을 연구했다면, 앞으로는 근대체제 세계문학의 관점에서 이주와 디아스포라 문학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소정 선생님의 박미하일문학 연구는 설득적 타당성을 회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 이주 경로 2) 예술가 소설의 계열화 3) 다문화적 요소와 과도적 성격 4) 러시아 중앙문단 활동과 한국 활동 5)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려인 5세대이면서, 고려인 작가 3세대인 박미하일의 특별한 문학적 위상은 각별해 보입니다. 선생님의 연구가 의미있는 학문적 결실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가지 학문적 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소정 선생님께서도 이미 박미하일의 소설이 예술가 소설의 계열을 형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여하나도 「고려인 작가 박미하일의 소설에 나타난 예술의 문제」에서도 박미하일과 예술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하일의 소설에 화가, 인형극 동화작가, 사진작가, 시인 등이 등장합니다. 정체성을 묻는 것은 존재의 문제이고, 이는 예술의 질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술과 종족성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박미하일 문학의 특이성이 발현되는 지점은 없을까요? 예술은 현실의 모순에 대한 치열한 대결일 수도 있고, 보편을 향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는 피신처이기도 하며, 종족성을 초월하는 존재증명의 거처일 수도 있습니다. 박미하일 소설에서 예술은 어떻게 의미화가 이뤄지는지, 그것이 문학으로 구현되는 실체성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박미하일 작가는 러시아 중앙문단에서 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활동이 두드러졌고, 최근에는 한국에 거주하며 작품활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혹은 포스트디아스포라가 이주의 경험에 기반한 의미 규정이라고 했을 때, 러시아에서 바라본 세계와 한국에서 바라본 세계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추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공간의 이주는 시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박미하일 문학이 어떤 공간에서 누구에게 발화하는가에 따라 문화정치적 해석의 지평이 확연히 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박미하일이 추구하는 예술가 계열의 문학이 종족성과 체제성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디아스포라 혹은 포스트디아스포라 문학으로서 의미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공간성과 장소성의 문제가 해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미하일 문학의 서사가 펼쳐지는 시공간에 따라, 혹은 한국과 러시아에서 어떤 독자와 소통하고자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서사적 차이가 발견되는 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셋째, 한국에서 이뤄지는 재외한인문학연구에서, 연구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미하일 문학을 포함해 재외한인문학을 연구할 때, 한국에 있는 연구자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질문에 끊임없이 직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 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의 정체성은, 한국밖에서 이주성과 토착성이 겹쳐지는 지점에서 문화적 소통을 하며 생산되는 '문학의 특이성'을 포착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학은 한국 연구자나 독자를 전혀 상정하지 않고 생산되었을 수 있고, 어떤 문학은 강렬한 민족주의적 열정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뤄지는 재외한인문학연구가 바라보는 자의 관점에서 있기에, 창조하는 자 혹은 생산(수용)하는 자의 관점을 획득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자의 연구와 발화하는 자의 창조물이 만나는 지점은 어디가 될까요? 나소정 선생님께서 "한민족문화공동체 간의 상호작용과 유대, 혹은 분절의 양상이 종합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계시기에, 함께 이야기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드립니다.

나소정 선생님의 연구가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내딛어지기를 응원드립니다.

〈기술편집예술〉의 대상과 인식 연구 - 욕망과 아우라의 재매개를 중심으로

이용욱(전주대 한국어문학과)

1. 서론

<기술편집예술Techedit Art>은 포스트휴먼시대에 예술가와 기술의 협업을 통해 창산(創産, created and produced)되고 공유되는 버추얼 텍스트로, 기술이 인간의 상상력과 교감하며 아우라가 재매개되는 새로운 예술 양식이다. 인공자연의 예술 생태계 안에서 (비)인간-주체와 네트워크-공간, 디지털-도구가 항상성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성되는 협업(協業)과 추인(推引)의 역학관계가 예술 의지로 현시되고, 영감과 상상력이 기술로 확장되면서 실천되는 디지털 전위 예술이다.

본 연구자는 「기술편집시대 아우라 연구의 방향성」(『국어국문학』 제188호, 2019)에서 처음으로 '기술편집시대'와 '기술편집예술'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고, 후속연구를 통해 매체미학적 관점에서 주체와 모방의 문제, 주체의 투명화, 네트워크-공간의 신뢰화, 예술관념의 재매개, 인공자연의 탄생과 몰입의 투명도를 이론화하고 논증하였다. 이 논문은 기왕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편집예술의 대상과 인식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모든 예술 관념은 범주 안에 포함되는 '대상'과 대상에 대한 미적 '인식'에 기초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정된 개념처럼 보이는 '예술'이 사실은 다양한 역사적 인식들과 실천들 속에서 구성된 것이며, 지금까지 견지해온 예술 개념이 현재와 같은 기술 환경에서 더 이상 예술을 설명하는 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예술의 대상과 인식이 변했기 때문이다. 기술편집예술의 모방과 재현의 대상은 인공자연이다. 인공자연은 가상적 기술을 통해 물리적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인간-주체와 네트워크-공간, 디지털-도구라는 비물질적 토대 위에서 성립된다. 포스트휴먼시대에는 생명의 근본을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는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적 기반이 아니라 생명의 진화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되었고, 디지털 기술이 그 진화 과정을 '생성'하기 시작했으며, <인공자연>을 통해 현현되고 있다.[1] 기존에 통용되던 가상공간과 다른 점은 가상공간이 현실 공간의 대타적 개념으로 성립된 것이라면, 인공자연은 현실공간과 가상공간이 중첩되면서 몰입감이 증강되고 두 공간 사이의 거리가 투명화된 것이다.

현실공간 예술 텍스트의 단순한 코드변환 수준에 머물던 기술편집예술은 인공자연이라는 재현 대상이 등장하고 특히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디지털 기술이 예술 창산과 향유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특이점에 도달한다. 예술은 대상을 그대로 복사하는 재현(reappearance)이 아니라 주관에 의해 다시 구성하는 표현(expression)[2]의 산물인데 '주관'

1) '생성'이라는 용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장소 운동, 증감, 성질 변화와 아울러 실체의 범주에 관한 변화라고 정의하였다. 비존재가 존재로 되는 과정을 말한다. 생성이란 의미적으로 존재의 나타남을 지시한다. 생각 혹은 이미지가 가시성을 드러낼 때 물리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공자연에서 말하는 생성은 가상적 생성으로 한정된다.(윤재은, 「디지털공간이 현실공간의 생성(becoming)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16(5), 2007, 127쪽)

을 갖추고 있지 않은 기술이 예술 의지의 추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전통적인 예술 패러다임에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편집예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인간-주체가 예술 활동의 행위자로 참여하여 비인간-도구의 편집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AI 같은 비인간-주체가 머신러닝이나 딥 러닝의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 직접 예술 활동의 행위자 되는 것이다.[3] 인간-주체가 디지털기술(HW, SW)을 활용하거나 비인간-주체가 인간과 인간이 제공한 DB를 모방하여 예술창작을 하는 것 모두 기존의 예술 관념으로는 낯설고 불온하다. 창작의 전 과정이 인공자연에서 비물질적 상상력과 기술교감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패러다임의 균열은 위기이지만, 예술의 대상과 미적 인식의 변화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진리의 균열을 메우기 위해 기존의 이론 틀을 가져와 새로운 형식으로 개조하는 이론의 재매개(remediation)[4]를 시도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예술의 대상과 인식에 대한 기존 미학 이론을 재매개해보고, 3장에서는 현재 기술편집예술의 가장 선도적인 대상인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회화를 욕망의 삼각형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해 보겠다. 4장에서는 인간-주체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비인간-주체와 네트워크-공간이 어우러진 인공자연이 조성되는 새로운 분위기를 '아르투라(Artura)'로 명명하고 인식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다.

2. 대상과 인식의 존재론

예술을 기술과 분리하고, 예술가와 장인을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순수예술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1747년 샤를로 바뜨(Charles Batteux)는 자신의 논저에서 '미술(beaux arts, fine arts)'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내었다. 순수예술 전체의 공통된 특징은 현실의 '모방'이라는 점이다. 고대(보다 정확히 말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예술은 독창적인 것과 모방적인 것 둘로 양분되었는데, 모방 또는 미메시스는 2천 년 이상 거론되어 오는 동안 회화, 조각, 시에 국한되어 검토되었을 뿐 건축과 음악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바뜨는 순수예술 전체 부분을 모방적인 성격의 것으로 취급하고, 순수예술의 전반적인 이론을 모방을 토대로 정초시킨 최초의 인물이었다.[5] 래니 샤이너는 『The Invention of Art: A Cultural History』(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3년)에서 '순수예술'은 발명됐다고 말한다. "계급과 성의 이해관계로 얼룩진 최근의 편협한 구성물"이며, 예술은 역사적으로 '발명'된 관념이라는 것이다. 순수예술에 포함된 시, 회화, 조각, 음악, 건축은 예전부터 존재해온 예술 양식이지만, 모방을 미적 가치로 내세운 순수예술의 대상이 되는 순간 전혀 새로운 예술로 전환된다. '순수예술'의 개념은 '예술'에서 '공예'를 분리하고 영감, 상상력, 자유, 천재성과 같은 속성을 예술가에게 부여함으로써, 그 전 시대의 예술과는 명백하게 다른 미적 인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6] 순수예술이 발명됨으로써 예술의 즐거움 또한 달라졌다. 특별하고 정제된

2) 조요한, 『예술절학』, 예술문화사, 40-41쪽.
3) 이용욱, 「기술편집예술의 매체미학 시론」, 『국어국문학』 제193호, 국어국문학회, 2020, 127쪽.
4) 이론의 재매개는 폴 레빈슨(Paul Levinson)의 재매개(remediation) 이론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폴 레빈슨은 미디어의 역사를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앞선 테크놀로지를 개선하거나 수정하는 "인간성향적anthropotropic" 과정이라 정의하면서, '재매개'를 새로운 미디어가 앞선 미디어 형식들을 개조하는 형식 논리라 규정하였다. 이론의 재매개는 "새로운 이론은 기존 이론의 이어쓰기와 고쳐쓰기의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확장과 전이의 형식 논리를 획득"함을 의미한다.
5) W. 타타르키비츠 저, 김채 역, 『예술개념의 역사』, 열화당, 1993, 42쪽.
6) 유럽에서 시작된 순수예술론은 근대 산업혁명 이후 서구 중심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속성을 교묘

즐거움과 실용적이고 오락적인 즐거움으로 나눠진 것이다. 일상에서 협업을 통해 창안되던 본래의 예술이 종교의식이나 정치적 행사, 사회적 오락에서 체험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순수예술은 기능적 맥락을 탈각하고 연주회장이나 미술관, 극장 등에서 조용하고 경건하게 주목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여긴다. 예술은 이제 보통사람의 손을 떠나 고상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돼버렸다.[7]

예술창작에서 모방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였다. 제롬 스톨니쯔는 인류 예술사에서 전개되어 온 모방론을 단순 모방, 본질의 모방, 이념적인 것의 모방으로 구분한다. 단순 모방은 "일상 경험의 대상이나 사건의 충실하고 문자 그대로의 복제"로 정의된다. 이것은 서구 사상 속에서 예술의 본성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논의로서 고대 희랍의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 제시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시학』에서 삶을 모방하는 방식인 연극(비극)을 분석하면서 비극을 "연민과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사건에 대한 … 진지하고 완전하며 일정한 중요성을 지닌 행위의 모방"이라고 정의한다. 그는 시(즉 문학)를 역사와 비교한 유명한 구절에서 단순모방 이론을 논박한다.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시인의 기능은 아니"며 "시는 역사보다 더 철학적이고 고상한 것이다. 왜냐하면 역사는 개별자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해 시는 보편자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예술의 모방방식은 (1) 사물의 과거나 현재의 상태, 또는 (2) 사물이 그렇게 이야기되고 생각되는 상태, 그리고 (3) 사물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명시함으로써 그의 모방설은 같은 것의 생산이 아니라 "사물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창조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이 본질의 모방이다. 본질의 모방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술에 대한 사유에서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개념이 되어 왔다. 특히 그것은 이른바 신고전주의시대(대략 1550년부터 1750년까지)의 미학적 사유와 비평을 지배했다. 18세기 후반 영문학을 주도했던 시인이자 평론가였던 새뮤얼 존슨(Samuel Johnson, 1709-1784)은 "자연을 모방한다는 것은 곧 예술의 가장 큰 우월성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자연의 어느 부분이 모방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올바른 주제란 존슨에게 있어서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칭송할 만하며 건전한 것이다. 작가나 화가는 그 자체가 칭송할 가치가 있는 사건들을 묘사하든지 아니면 실제 삶의 대상을 그 대상의 도덕적 불완전성을 제거함으로써 '이념화'해야 한다. 단순모방과 본질의 모방이 예술이라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념적인 것의 모방은 예술은 무엇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498년 아리스토텔레스의『시학』이 희랍어부터 번역돼 전 유럽의 사상계에 진입했다. 바뜨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 이론을 미학적으로 전개하면서 "아름다운 것이 예술이다"라는 순수예술의 모토를 완성하였고, 동시대인이었던 존슨은 근대예술이 지향해야 할 모방의 방향성을 "도덕적 이념의 모방"으로 특징지웠다.

예술의 삶과의 유대를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술을 실물 같음(단순모방), 보편성(본질론), 혹은 도덕성(이념론)을 통해 판단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적했던 대로 예술작품은 그 자신의 삶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술의 고유한 의미를 제대로 올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그 자체에 내재한 통일성, 생생함 및 힘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 모든 모방 이론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삶과 예술 간의 긴장이

하게 내재화한다.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은 유색인이 섬세한 감수성이 부족해 예술적 취미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판단했다. 가난한 노동자, 무식한 시골지주, 여성, 예술과 사치를 혼동하는 유한계급도 마찬가지 취급을 받았다. 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이들은 따로 있다고 본 것이다.

7) 래리 샤이너 저, 조쥬연 역,『순수예술의 발명』, 인간의기쁨, 2015, 124쪽.

다.[8)]

근대예술의 대상과 인식의 문제를 철학의 수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헤겔(1770-1831)이다. 헤겔은 예술이 그 자체로 충분한 만족을 주었던 시대보다 지금 시대는 예술학이 더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헤겔에 의하면 자연미가 존재하지만 미는 엄밀히 말해 예술적인 것이며, 예술미는 정신적인 것의 감각적 표현이다. 예술가는 자연의 실재성을 변형하며, 자연에서 물질성을 벗겨내고 그것을 정신화한다. 예술은 근본적으로 자연의 변형이기 때문에 자연의 모방일 수 없다. 예술은 정신의 내용을 담은 감각적 현현이며, 정신적인 것의 감각화이자 또한 자연의 가상들의 변형, 즉 감각적인 것의 정신화다. 헤겔은 오랫동안 서구미학의 핵심을 구성해온 모방론에서 벗어나 예술은 자연의 가상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분리되고 자연의 가상의 본성을 변형시키고 자연의 경험적 자연적 내용을 비우면서 구성되는 것이라 보았다. 재현의 영역에서 인간이 고안한 창작으로서 모든 예술작품은 이상주의적이며 정신적이다. 예술가는 자연적 소여를 가상의 세계로 옮기기 위해 실재에서 떼내어 그가 선택한 형식을 부여하므로 예술가는 그것을 정화하며 완전히 다른 의미를 주는 것이다. 예술은 이 세계의 일시적인 가상들에게 그들이 순간적으로만 가졌을 현실성, 지속성, 생명력을 준다. 회화는 감각적 가상들을 복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이상화하고 정신화함으로써 일시성인 것에 승리를 거두며, 실재에 대한 철학적 반성과 우리의 시간성에 대한 자각을 가져다 준다.[9)] 특히 헤겔은 17세기 네덜란드의 장르화에 주목하였다. 그 이전의 초상화가 인물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물이 시간의 흐름에서 괴리되어 있다면, 장르화는 인물이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인물이 시간의 흐름 안에 들어와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종교나 그리스 신화 또는 역사적 인물의 영웅적 일대기가 아니라 이름 없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이 회화의 중심 테마이자 구성 원칙이 되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자본주의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곳이었고, 미술이 귀족이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 사고 팔리던 시대였다. 이 시기에 네덜란드 화가들의 숫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당시 예술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를 말해준다. 대부분의 가정에 최소한 그림이 두 점 이상이 있었고, 화가들은 초상화 하나를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다.[10)] 이탈리아처럼 고객의 주문을 받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에 의해 미리 완성된 작품이 고객에게 팔리는 예술품의 시장경제가 형성되면서 이제 예술가들은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헤겔은 "네덜란드 회화 속에 재현된 것처럼 평범하고 범속해 보이는 대상들을 주제로 한 예술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네덜란드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라면 생각도 못 했을 일이다."라고 표현하였는데, 17세기 독특한 네덜란드의 장르화는 근대도시국가의 발전이라는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함께 탄생한 것이다.

바뜨와 존슨, 그리고 헤겔까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서구지성사에서 진행된 미학 논의는 근대가 예술의 대상과 인식을 새롭게 갱신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시대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새로운 예술 관념을 창출해 낸다. 이제 21세기이다. 탈근대, 혹은 현대라 명명할 수 있는 지금, 예술의 대상과 인식은 또다시 갱신(Renewal)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바뜨가 주장하였던 예술의 창조성과 천재성은 이미 20세기에 기술복제와 영화 예술의 등장으로 시효를 상실하였다. 기술복제는 기술편집으로 한층 발전하였고, 영화 자리에 컴퓨터 게임이 등장하였다. 기술편집시대, 기술편집예술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

8) 제롬 스톨니쯔 저, 오병남 역,『미학과 비평철학』, 이론과실천, 1991,148쪽.
9) 시릴 모라나, 에딕 우댕 저, 한의정 역,『예술철학』, 미술문화, 2019, 150-167쪽.
10) 김효진,「JAN VERMEER」,『방송과기술』제174호, 2010, 98쪽.

예술의 창작 메커니즘은 모방에서 편집, 그다음 창조의 단계를 거치는데 기술편집예술 역시 그러하다. 다른 점은 모방과 편집, 창조의 과정에 비인간-주체의 조력과 협업이 필요충분조건 값이라는 것이다. 예술 행위를 함에 있어 비인간-주체는 망설이지 않는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의 '망설임' 대신에 가장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찾아내 인간과 DB에 대한 모방을 끝마친다. 망설임과 퇴고는 인간만이 가능하다. 비인간-주체의 행위는 인간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기에 모방을 통한 미적 가상은 가능하지만 미적 유희는 불가능하다. 유희는 어떤 목적도 추구하지 않기에 미적 상태에서 인간은 특정 능력만 계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능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총체적 인간성을 경험한다. 바로 여기서 기술편집예술에서 인간-주체와 비인간-주체의 역할과 협업의 가능성이 현현한다. 인간은 지식과 경험으로 체화된 예술적 영감을 비인간-주체를 통해 미적 가상으로 구체화하고 그 과정에서 미적 유희를 경험한다. 인간은 '영감'과 '결과'의 주체가 되고, 도구는 '실행'과 '과정'의 주체가 된다. 인간-주체와 비인간-주체의 상호 교감에서 미적 상상은 유기적이며 역동적으로 형성된다.[11)]

모방이 인간 본성이라면 편집은 기술의 본성이다. 기술복제시대가 사진기와 영사기의 발명에서 시작되었다면 기술편집시대는 컴퓨터와 인터넷 같은 디지털-도구의 발명이 그 시작이다. 복제가 전시대의 수공적 복제에서 기술적 복제로 발전한 것처럼, 편집도 전시대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아날로그 시대의 편집은 신문, 잡지, 책, 영화 등의 완성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기존의 정보를 잘라내고 붙이고 다듬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지만, 디지털시대의 편집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개입해 들어가는 "대상의 정보구조를 해독하고 그것을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생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지향성이다. 편집은 "필요에 의해 검색한 정보들을 의도와 맥락을 가지고 해체, 접합, 변형, 추가하여(이 과정은 물리적 확장이 아니라 화학적 반응을 연쇄하여야 한다) 새롭게 재구성하는 유기적 활동"이며, 이렇게 해서 작성된 정보가 "다른 누군가에게 재해석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예술 행위에 한정해 기술편집을 정의하면, "(비)인간-주체가 네트워크-공간에 DB로 공유된 버추얼 텍스트를 기술교감을[12)] 통해 다시 고쳐 쓰고 새롭게 공유하는 예술적 행위"이다. 기술편집의 핵심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make a new one)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것(renewal)이다. 기술편집시대, 누구나 자유롭게 복제된 예술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예술텍스트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원본과 편집본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신몰입을 요구하는 무수한 버추얼 텍스트가 네트워크-공간에 존재하게 되었다.[13)] 그러나 이 수준으로는 예술이라고 명명하기 어렵다. 모방과 편집을 넘어서는 창조의 과정이 기술편집예술에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더구나 무한복제라는 디지털 기술의 특징은 원본성이 상실됨으로 전통적인 예술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3장에서는 현재 가장 활발한 기술편집예술의 대상인 '디지털 회화'가 어떻게 무한복제라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어떻게 스스로 예술의 자리에 올라섰는지를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11) 이용욱, 「기술편집시대 매체미학의 제문제(1)-투명화, 신뢰화, 재매개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제116호, 한국언어문학회, 2021, 219-220쪽.

12) 기술교감이란 본 연구자가 새롭게 제안하는 개념으로, 인간이 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진화한다는 입장에서 인공자연에서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주체가 받은 영감과 그것을 수행하는 비인간-주체의 행위를 맥락화한 것이다. 기술교환에서 기술교류, 그리고 기술교감으로 인간-주체와 비인간-주체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발전해왔다.

13) 이용욱. 「기술편집시대 매체미학의 제문제(2) - 인공자연의 탄생과 몰입의 투명도」, 『인문콘텐츠』 제60호, 인문콘텐츠학회, 2021, 153-154쪽.

3. 디지털 회화와 욕망의 삼각형

현재 기술편집예술에서 가장 활발한 성과를 내고 있는 영역은 시각 예술이다. 여기서 성과란 작품 창작의 활발함 만이 아니라 예술작품으로 인정되고 화폐로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근대 이후 예술과 기술이 분리되고, 순수예술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역설적이게도 예술이 본격적인 상업화의 길로 접어든 것과 무관하지 않다. 장인과 예술가가 결정적으로 분리되는 18세기는 여러모로 흥미로운 시기다. 근대 자본주의는 모든 것을 시장 논리로 환원시켜 버렸다. 예술관광객이 등장하고, 미술시장과 개인 콜렉션 문화가 자리 잡았다. 미술경매, 미술전시회, 미술관 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18세기 초 런던에만 15-25개의 경매소가 있었다. 특히 귀족 엘리트 계급에 한정되었던 미술품 소비가 중산층 부르조아 계급으로 확대되면서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 서유럽의 대도시마다 경매시장은 활황을 맞았다.

물론 예술의 상업적 성격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대표작 '암굴의 성모'는 상업적 거래를 기반으로 한 작품이었다. 다 빈치는 1483년 4월25일 밀라노의 성모마리아잉태회가 "산과 바위를 배경으로 하며 마리아는 중앙에, 긴 겉옷은 군청색, 금란으로 처리한 제단화를 12월8일(성모마리아의 날)까지 인도한다.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수선한다."고 작성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14]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의 거래가 예술가(기능공)와 의뢰인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근대 이후의 예술품 거래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작품과 구매자 사이의 거래이며, 자본주의적 욕망을 내재한다.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에 걸쳐 영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벌어진 네 차례의 전쟁은 영국의 승리를 끝나면서 서유럽의 패권은 급속하게 영국으로 집중되었다. 예술, 특히 미술품 경매의 중심도 암스테르담에서 런던으로 이동하였고, 영국 미술시장은 유럽회화순환과정의 목적지가 되고 유럽미술시장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 배경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술과 상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경매의 생활화이다. 새로운 미술품 구매방식으로서의 경매가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경매를 통한 시장의 확대가 가능했으며 경매는 일종의 예술적 언어였다. 둘째, 18세기 영국미술시장 활황의 근본적인 동인으로 경제혁명에 의한 사회변화로서 새로이 등장한 계급 부르지아지의 적극적 시장참여가 있었다. 페인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사회 엘리트들의 17세기말 사회현상으로 런던의 엘리트들에게는 소유에 제한이 없었고 부의 상징이 되었다. 셋째, 르네상스 이후 대륙에서 불어온 문예사상의 확대는 계몽사상의 확산을 말한다. 교육적인 의지, 개인간 교환이라는 행위를 통해 예술을 이해한다는 공적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비평이 탄생했던 것이다. 또한 상업화과정에서 여행이 증가하면서 문화예술은 가치가 있으며 보호되어야한다 라는 의식이 대중으로 확산된 것이다. 일종의 휴매니티 현상이 나타났던 것이다.[15] 중세 후기에 융성하였던 상업과 산업이 당시에는 쇠퇴하였으며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형태의 자본투자도 불확실한 것으로 판명나자, 예술품은 다른 것들보다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지는 않은 투자대상으로 취급되기 시작하였다.[16]

예술품이 화폐 교환가치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오리지널리티(originality)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근대를 추동한 인쇄기술은 복제기술이었다. 천천히 손으로 써

14) 레리 쉬너 저, 김정란 역,『예술의 탄생』, 들녘, 2007, 56쪽.
15) 조명계, 「18세기 영국 미술시장의 발달과정 고찰」,『기초조형학연구』 15권1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4, 672쪽.
16) W. 타타르키비츠 저, 김채 역,『예술개념의 역사』, 열화당, 1993, 31쪽.

내려가던 복제가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15배나 빨라졌다. 인쇄공 한 명이 1분마다 10장의 책을 복제해냈다. 덕분에 수많은 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었고 지식은 더욱 민주화되었다. 그러나 복제 혁명이 모든 이들에게 달가운 소식은 아니었다. 오리지널의 소유자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고, 본인들의 오리지널리티를 인식하고 그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1474년 특허권 제정에 이어 1517년 베네치아에서 최초의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 복제가 오리지널리티를 만든 셈이다. 그러나 기술의 오리지널리티와 달리 표현의 오리지널리티가 베네치아 밖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1710년 영국에서도 저작권법이 제정되었지만, 세계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한 시기는 1886년 베른협약이 체결되고 나서부터다. 그리고 이는 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도리어 18세기 이전의 예술가들은 이전 시대의 예술가들을 모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17] 예술의 저작권이 확립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의 화가 윌리엄 호가스(William Hogarth, 1697-1764)가 있다. 호가스는 18세기의 영국 화단을 대표하는 국민 화가이다. 그는 유명한 동판화가였으며, 중요한 미학 논문인 「미에 대한 분석」의 저자이기도 하다. 호가스는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유쾌한 초상화가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제를 창안해내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근대의 도덕적 주제', 즉 사회풍자였다. 그는 교훈적 목적과 명랑하지만 통렬한 선동적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부패한 귀족들의 세계와 상류사회에 진입하고자 하는 꼴사나운 부르주아 출세주의자, 탐욕스런 성직자, 게으른 군인, 가난한 하류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회계급의 관습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호가스 때문에 영국 미술시장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판화의 유통과 출판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윌리엄 호가스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그는 회화를 쉽게 작업하여 중산층에게 널리 미술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가 그린 교훈적인 연작물들의 인기가 높아 지나치게 많이 표절되자 이러한 표절로부터 자신의 작품들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보호법률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결국 '호가스 법령(Hogarth Act)'이라는 별칭이 붙은 '판화가의 저작권 법령'(1735)이 통과되었다.[18]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진행된 오리지널리티를 보호하려는 일련의 노력은 예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동시에 예술의 가치는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는 것에 있음을 증명하였다. 최초의 기계적 자동적 복제기술인 인쇄로부터 사진과 영화를 거쳐, 이제 디지털 복제에 이르기까지 매번 발전된 복제기술이 등장하면 그것으로부터 오리지널리티를 보호하는 새로운 규범이나 기술이 창안되었다.

디지털 복제는 기존의 복제기술과 달리 원본과 복제본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고, 무한 복제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편집 가능한 형태로 복제된다는 점에서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기 불가능해 보였다. 실제로 1990년에서 2000년 중반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 텍스트가 '웹아트', '하이퍼픽션', '디지털아트'라는 이름으로 실험되고 도전되었지만 예술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이때문이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3일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인 혹은 그룹에 의해 비트코인이라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최초의 암호화폐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복제를 통제하고 그 이력을 투명화함으로써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제안되었다.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토큰)의 등장은 디지털 기술을 예술의 수단으로 삼는데 주저했던 예술가들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디지털 예술작품을 시장에 내놓고 싶었던 거래중개상들을 움직였다. 온라인 예술 경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

17) 장준, 「오리지널리티에 대하여」, 2017년 11월 15일자 포스팅(https://blog.naver.com/jod2977).
18) 조명계, 같은 논문, 662쪽.

NFT는 본질적으로 암호 화폐의 한 형태로 대체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을 나타내는 용어다. 여기에서 디지털 자산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화폐가 아니라 예술 작품·티켓·음악·사진·비디오 클립 같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다른 유형의 물리적 자산처럼 사고 팔 수 있고 그 가치는 시장과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NFT란 특정한 자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인증하는 디지털 인증서와 같다. NFT 예술의 세계에서는 각각의 토큰(NFT)이 진품 예술작품의 소유권에 해당된다. 이러한 토크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존재하며 작품을 누가 만들었고 언제 누구에게 판매됐는지 등의 세부정보를 담고 있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해당 작품의 이미지를 볼 수 있지만 오직 해당 작품의 NFT를 구입한 사람만이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토큰을 되팔아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 작품의 원작자는 해당 NFT와 연결된 작품의 지적재산권을 유지하며 토큰이 되팔릴 때마다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NFT의 등장 이후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회화 경매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예술품 데이터 분석 플랫폼 <크립토아트>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021년 3월초까지 NFT 기반으로 예술작품 총 10만여 점이 거래됐다. 거래 총액은 약 2220억원에 달한다. 디지털 예술가 비플은 최근 블록체인으로 소유권을 인증받는 기법인 NFT로 작품을 6900만달러(약 780억원)에 팔아 디지털 예술작품 판매가 세계 기록을 세웠다. 광풍이라 할만한 이 현상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튤립 파동'을 연상시킨다. 튤립 파동은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투기로 인한 거품이었다. 예술적 가치로만 접근하면 디지털 회화는 기술을 이용한 단순 모방에 불과하다. 그러나 구매자들은 미적 가치보다는 투자 가치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은 예술의 가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을 사고 파는 디지털 플랫폼의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해야 한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미술계에서 블록체인의 잠재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며, 미술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술계에서 블록체인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문은 작품 소유주 증명(provenance)으로, 분산 원장으로서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활용하여 미술계의 오래된 골칫거리인 위작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미술작품의 소유권에 대한 증명은 종이 문서로 작성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작품 거래 시 증명서 위조, 위작 시비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19] 이민하는 NFT 기반의 디지털 회화가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해체하고, 기존 미술계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중앙에서 과도하게 편취하던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수익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민주적인 모델을 추구한다고 주장했지만, 네 가지 모두 결국 본질은 비즈니스이고 욕망이다.

사실 예술, 특히 시각예술의 경우 복제본을 읽고 나면 경제적 가치가 삭감되거나 상실되는 문학이나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제기술이 더 선호되는 음악과 달리 세속적 욕망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소유와 투자 가치를 가지면서 예술적 심미안도 과시하고자 하는 자본가 계급이 선호하는 예술이다. 20세기에 시청각 촬영과 편집기술이 '비디오아트'라는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냈는데 세계적인 비디오아티스트인 백남준은 "예술은 사기다. 예술은 사기 중의 사기이고 그것도 아주 고등 사기다."라고 선언했다. 그의 진술에는 사기꾼으로서의 예술가의 고뇌가 담겨있다기 보다는 예술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욕망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은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당신이다.

19) 이민하, 「문화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기반 미술 플랫폼」,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Vol 20, No 3, 디지털콘텐츠학회, 2019, 676쪽.

… 예술가는 사람들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존재다. … 글쎄,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돈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거다. … 사업을 잘 하는 것은 가장 매혹적인 예술이다. 돈을 버는 것이 예술이며, 일을 하는 것도 예술이다, 그리고 훌륭한 사업은 최고의 예술이다."라고 말했다. 가질 필요가 없는데도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바로 자본주의적 욕망이다.

근대 이후부터 '예술'과 '기술'과 '자본'은 인간의 '미적 경험'과 '미적 태도'에 대한 욕망의 삼각형을 형성해 왔다. 욕망의 삼각형을 처음 이론화한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결코 자연발생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은 항상 제 3자와의 관계로 해석되어야 한다. 즉 대상을 직접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자의 중개'를 통해 욕망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욕망 주체와 욕망 대상 사이에는 욕망의 중개자가 존재한다. 가상화폐는 화폐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고 디지털 상거래 플랫폼은 그 점을 노려 가상화폐를 교환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가상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을 차용하여 디지털 회화의 오리지널리티 문제를 해결하였다. 창작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를 경제적으로 보상받았고, 구매자는 세속적인 욕망을 예술적인 가치 투자로 돌려 받았다. 모두가 다 만족해 하고 있기에 온라인 아트시장은 앞으로 더욱 더 활황을 누릴 것이다.

18세기에 장인과 예술가가 분리되었다면 21세기에 장인(프로그래머)과 예술가는 다시 결합된다. 순수예술의 시대는 저물고 기술편집예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순수예술의 대상이었던 문학, 회화, 조각, 음악, 건축은 인공자연 안에서 종합예술의 형태로 구현될 것이며,[20] 천재성과 상상력, 즐거움, 취미 같은 미적 태도와 미적 경험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와 숙련도, 알고리즘(algorithm)과 로직(logic)으로 대체될 것이다.

기술편집예술의 대상은 그동안 예술을 구분해 온 모든 경계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중심으로 구분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반 예술, 메타버스 기반 예술, VR기반 예술 등으로 구분될 때 미적 경험과 태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이 제공하는 사용자환경과 사용자경험이다. 4장에서는 기술편집시대의 새로운 자연인 인공자연의 미적 인식을 아우라를 재매개한 아스투라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인공자연과 아르투라(Artura)

아우라는 벤야민에 의해 제출된 매체미학의 핵심 개념이다. 독특한 거리감을 지닌 사물에서만 경험 가능한 아우라는 복제품이나 대량생산된 상품에서는 경험될 수 없다. 아우라가 생성되기 위한 객관적 특성으로서 대상이 유일무이한 원본이어야 하고, 원본의 희소성이 필요한데, 기술복제는 대량복제를 필요로 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원본의 이미지(복제된 원본)와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신비감이 벗겨져 거리감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과 주체(관찰자) 간에 독특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복제물이 원본의 아우라를 벗겨내기 때문에 아우라가 상실된다. 그러므로 기술복제는 아우라의 상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라 벤야민은 주장한다.

벤야민이 예전부터 있었던 복제기술을 새삼 문제 삼은 것은, 1900년을 전후하여 그것이

20) 메타버스를 떠올려 보자.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초월(meta)과 세계·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세계를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형·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메타버스 안에는 문학, 회화, 조각, 음악, 건축을 모두 포함한 사용자 환경(UI)과 사용자경험(UX)이 구현돼 있다.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 시점에 즈음하여 기술복제는 그저 예술을 베끼는 수준을 넘어 거꾸로 "예술에 깊은 변화"를 끼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 깊은 변화가 바로 아우라의 상실인 것이다. 벤야민은 "대상을, 그것을 감싸고 있는 껍질로부터 떼어내는 일, 다시 말해 아우라를 파괴하는 일"을 현대적 지각의 고유한 특징으로 보았다. 기술복제는 "전승된 것의 동요, 전통의 동요"를 초래하며, 파괴적이며 카타르시스적 측면에서 "전통적 가치의 절멸"은 복제예술의 긍정적인 성취가 된다.[21]

벤야민의 테제들은 기본적으로 기술혁명이란 사회의 역사적 기본추세와 맞물린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즉 아우라 붕괴는 표면적으로는 복제기술로 인한 변화이지만, 아우라 상실로 표현된 인간의 지각방식의 변화에는 전 사회적 변혁이 반영되고 있다. 현대인들에게는 사물의 유일무이성보다는 동질성에 대한 지각이, 사물을 먼 곳에서 관조하기보다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려는 욕망이 발달한다. 현대 대중사회의 개인들은 벤야민에 따르면 "사물을 […] 자신에게 '가까이 끌어오려고' 하는" 욕구와 "모든 주어진 것의 일회성을 그것의 복제를 수용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는다. 이것이 아우라 상실의 사회적 조건이다. 아우라 상실의 기술적 조건은 복제기술의 발달이다. 이러한 관찰에서 출발하여 벤야민은 (일회적이고 원본적인) 상과 (그것의 복제로서의) 모사의 차이를, 상이 "일회성과 지속성"을 특징으로 갖는다면 모사는 "일시성과 반복성"을 특징으로 갖는다고 정리했다.[22]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술혁명으로 촉발된 (대중사회의 개인으로 표현된) 인간-주체의 욕망이 사물과 존재를 연결하는 방식이다. 복제기술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초기 '기술의 불행한 수용' 단계에 머물렀던 사진과 영화는 자체적인 예술 미학을 생산해내면서 '기술의 행복한 수용'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생산력의 발전을 통한 아우라의 상실은 그에 따라 불가피한 현상이다. 벤야민은 아우라가 기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진부한 것이 되었다고 말한다. 기술적으로 아우라는 "집광도가 높은 렌즈들을 통해 음영이 추방되면서 영상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사회현실로부터 아우라는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가 점점 더 타락해감으로써" 밀려나게 되었다. 이 부르주아지는 개인들의 일회성에 점점 덜 가치를 두게 된다.[23] 기술의 발전이 예술을 향유하는 인간-주체의 미적 태도를 '어떤 대상(원본)과의 거리감, 조응, 상호교감'의 유일무이한 현존이 주는 공간 가치를 중시하는 것에서 '언제 어디서든 반복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시간 가치에 흥미를 갖는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기술이 초래한 지각방식의 변화는 기술편집시대 디지털기술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스트휴먼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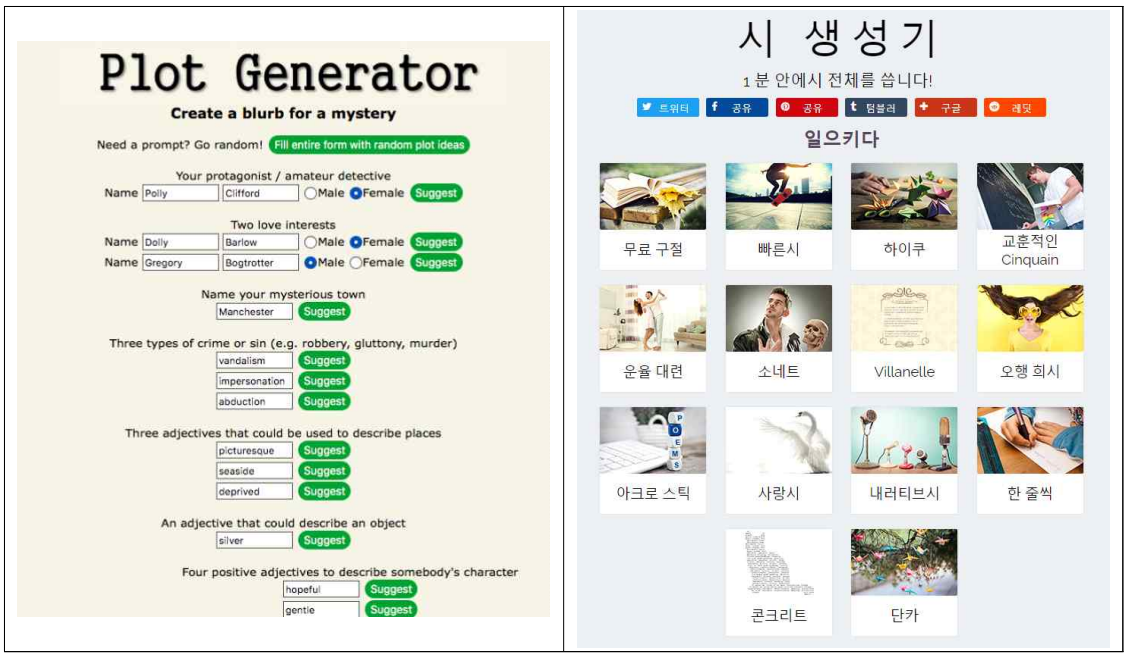
포스트휴먼시대의 인간-주체는 창작 도구를 소유하고 창작된 작품을 공유하며, 공유된 텍스트를 편집하는 예술의 전과정에 직접 개입하게 된 최초의 세대이다. 사진기나 영사기가 특정한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창작 기계였다면 컴퓨터와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상 도구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투브 등 네트워크-공간에 공유하고 있다. 그것이 다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사진을 찍고 영상을 만드는 일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창작 활동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다.

비인간-주체(소프트웨어와 DB, 알고리즘이 결합된)를 사용하여 창작을 하는 예술 활동의 일상성은 예술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미적 수준도 저하됐지만 사물을 자신의 DB 안으로

21) 진중권, 『진중권의 현대미학강의』, 아트북스, 2004, 42-44쪽.(요약 발췌)
22) 최성만, 「기술과 예술의 열린 변증법」, 『뷔히너와 현대문학』 제32호, 한국뷔히너학회, 2009, 187쪽.
23) 최성만 위의 논문, 188쪽.

'기꺼이 가져오려고' 하는 욕구와 모든 주어진 것의 일시성을 그것을 편집 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는 충동을 불러왔다. 이제 자동으로 소설의 플롯을 생성하고 시 한 편을 완성해보는 일은 게시판에 글을 쓰는 일만큼이나 쉬워졌다.

<Plot Generator>의 목표는 홈페이지 소개글을 참조해보면 스스로 완성된 작품을 생산하기보다는 글을 쓰려는 사람들에게 영감(靈感)을 주는 것이다.[24] 실제로 구글의 <딥드림프로젝트>나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진행한 <넥스트램브란트 프로젝트> 역시 인공지능이 기존 화가들의 화풍을 모방해 새로운 작품을 생성해 냈지만 그것이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그 결과물을 보면서 누구나 한번쯤 유희삼아 도구를 사용해보고 거기서 예술적 영감을 얻을 수는 있을 것이다. 코넬대학의 Leon A. Gatys, Alexander S. Ecker, Matthias Bethge는 컨볼루션 신경망을 사용하여 한 이미지의 내용과 다른 이미지의 스타일을 결합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A Neural Algorithm of Artistic Style」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하였다.[25] 이 논문은 지식공동체를 통해 순식간에 공유됐으며 이후 많은 사람이 논문에 공개된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품을 만들고 공유했다.



제3 기술은 유희적 기술이다.[26]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 프로그램은 자동화된 창조성을 지향한다.[27] 사실 자동화와 창조성이라는 말은 모순되는 개념이지만, 자동생성

24) <Plot Generator> 홈페이지(https://www.plot-generator.org.uk/)의 첫 화면의 첫 구절에 "Inspiration for your next novel, filmor short story"(소설, 영화 또는 단편 소설에 대한 영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어서 "우리의 목표는 공통의 장르와 주제를 사용하여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쓰도록 영감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장면을 설정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묘사하고, 이름을 짓고, 그들이 어떻게 어울릴지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당신이 시작하도록 설득력 있는 헛소리의 초안을 작성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25) 논문 원문은 https://arxiv.org/abs/1508.06576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26) 벤야민이 제2 기술을 놀이적 기술로 개념화했는데, 제3 기술의 '유희'는 예술가가 아니라 일반인이 예술과 함께 즐겁게 논다는 의미로 기술의 대상과 존재가 다르다.

27) 로버트 페페렐 저, 이선주 옮김, 『포스트 휴먼의 조건』, 아카넷, 2017, 219쪽.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작품을 생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역설적 의미를 지닌다. 인공지능이 비록 자동화된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지만, 자기 학습을 통해 인간이 명령하지 않은 것까지 실행하기 때문에 창의성까지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다.[28] 이제 남은 문제는 기술편집예술에서 아우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2015년을 전후하여 기술편집예술은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다. 인공지능의 엄청난 위력과 발전 가능성을 순식간에 전 세계에 알린 <알파고>와 <딥드림제너레이터>의 등장으로 기술편집은 그저 유희 삼아 예술을 편집하는 수준을 넘어 거꾸로 "예술에 깊은 변화"를 끼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제 (일회적이고 원본적인) 상(像)과 (그것의 복제로서의) 모사(摹寫)는 (DB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영감(靈感)을 얻는, 기술과 환경의 사용자가 스스로 미적 환기를 경험하는 수준에 도달하였다. 기술편집예술의 "일상성과 참여성"은 그것이 원본이던 복제본이던 간에 수용자의 입장에서 "그저 바라만 보는 예술"에서 (수용자이며 동시에 생산자인) 인간-주체가 직접 텍스트에 개입하고 창작 활동에 나서는 "실행하는 예술"로 전환시켰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상이 주체(관찰자)에게 숨결처럼 살며시 다가오는 듯한 느낌, 감정이입의 상태로 이끄는 어떤 것을 뜻하는 아우라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인간-주체와 비인간-주체, 그리고 예술 작품 사이를 중개한다. 본 연구자는 인간-주체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는 비인간-주체와 네트워크-공간이 어우러진 인공자연이 조성되는 새로운 분위기를 '아르투라(Artura)'로 명명코자 한다. 아우라가 재매개된 것으로, 인공이라는 의미의 'Artificiality'와 'Aura'를 합성한 것이다.

아르투라는 흥미와 관심을 통해 재미, 유희, 놀이의 감각적 체험을 즐기면서 자신만의 미적 경험을 토대로 대상(인공자연)에 대해 파악하고 해석하면서 정서의 고양과 미적 환기를 느끼는 것이다. 아르투라는 영감을 주는 도구적 체험이며, 기술이 인간-주체를 감싸는 사용자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 제공하는 설렘이며 분위기이다. 사용자 경험의 핵심은 "느낌, 태도, 행동"이다. UI가 인터페이스, 즉 정보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화면 등 사람과 접하는 면을 말한다면 UX는 그 환경을 통해 사용자가 획득하는 경험이다. UI에서는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아름답고 유용한 소프트웨어, 즉 보편성을 지향했다면, UX는 기능의 제거나 제약에 따른 개성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 특정한 사람만 만족시키는 주관성을 지향한다. UI에서 U가 보편적 인간을 모델로 한 분석 대상이었다면, UX에서 U는 주관적 인간을 모델로 한 공감 대상이기 때문이다. '느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개성(personality 혹은 character 혹은 concept)을 의미한다. 특유의 느낌이 일관되게 있는 인공자연의 사용자 환경은 인간-주체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29] 이렇게 특정 사용자의 상황과 목표에 총체적으로 공감하여 설계하고 그것을 제품의 모든 인터페이스에서 일관되게 구현하면, 자연스럽게 인공자연에는 특유의 개성이 생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인간-주체로서 느낀다.[30]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는 총체적 인간의 감정"을 기술과 도구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경험이 제공해 줌으로써 인간-주체와 인공자연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며, 바로 그 순간 아르투라가 발생한다.

벤야민의 주장에 따르면 아우라는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원본 대상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복제를 전제로 하는 현대의 어떤 표상과도 아우라는 결합할 수 없다. 그러나 벤야민은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에서 아우라를 원본이나 특정대상에서만 감지되는 객관적 현상으로 소개하고 있지만, 아우라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는 환각담 체험담에서는 관찰주체에 따라 아주

28) 이형권, 「인공지능 문학, 예술인가? 기술인가?」, 제61회 한국언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020, 222쪽.

29) 구글과 네이버가 인간-주체에게 주는 사용자 경험이 다르고, 디씨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의 분위기가 다르다.

30) 이재용, 「UX란? 그리고 UI와 UX의 차이」, pxd story, 2012년 8월 29일자 포스트(https://story.pxd.co.kr/567)

사소한 대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하면서 아우라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그러므로 아우라는 객관적 대상에 귀속되는 현상일 수도 있고, 주체 즉 경험자의 주관적 조건에 기인하는 경험 현상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벤야민 자신은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석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을 뿐인데, 아우라는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모습을 적절하게 바꾸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우라는 객관적 특성과 주관적 경험요소의 두 가지 의미의 큰 축을 지니고 있다.[31]

아르투라의 탄생은 인간-주체와 인공자연이 함께 만들어낸 기술편집시대의 새로운 이상현상이다. 기술복제시대의 아우라의 상실이 인공자연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표상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정상과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지식인사회에 주어진 책무이며 인간-주체가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여전히 예술과 예술창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아르투라는 결코 비인간-주체는 느끼지 못하 것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아우라가 예술에 대한 심미안에서 출발한다면, 아르투라는 네트워크-공간에 대한 신뢰, 기술에 대한 이해와 도구의 숙련도에 영향을 받으며, 예술적 감상이 아니라 기술적 감상이 미적 태도와 미적 경험의 중심이 된다. 기술복제가 아우라의 상실을 초래해 예술의 대중화를 촉진하고 사진과 영화라는 독창적인 예술 형식을 만들어냈듯이 아르투라의 탄생 역시 기술편집예술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인식 지표가 될 것이다.

5. 결론

예술이 사회(기술의 발전을 포함하는)의 발전과 연동하여 대상과 인식의 문제를 끊임없이 갱신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형식과 내용이 제안되고 실험되고 수용됨으로써 예술 역시 발전할 수 있었다. 근대가 시작되면서 가장 큰 수혜는 문학이 입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예술사조의 변화에 집중됐던 여타 예술과 달리 문학은 소설(novel)이라는 문자 중심의 서사 양식을 창조하고, 이야기 예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근대국가와 인쇄술, 부르주아의 탄생이 아니었다면 문학은 여전히 운문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소설, 수필, 평론 같은 산문문학의 등장은 근대가 확실하게 문자중심시대였고, 특히 자유시민을 표방한 도시 중산층계급인 부르주아의 욕망에 충실한 예술임을 입증한다.[32]

따라서 멀티미디어 기반의 기술편집시대는 문학에 닥친 거대한 위기이다. 무엇보다 소설이라는 가장 중요한 장르가 그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근대국가, 인쇄술, 부르주아는 이제 진부한 기호가 되었고 그 자리에 포스트휴먼, 인공지능, 다중 같은 낯선 기호들이 들어섰다. 문자는 다시 말의 보조수단으로 격하됐고, 이야기예술은 소설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식을 찾았다.

기술편집시대에 문자예술인 문학의 운명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위기이며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시각예술은 기술적으로 오리지널리티를 확보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욕망을 읽어내고 충족시켜주면서 무난히 기술편집시대에 안착하였

31) 김규철, 「대상과 주체의 개념변화를 기반으로 한 복제아우라 연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9쪽.

32) 근대를 대표하는 문자매체인 신문과 부르주아, 산문문학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18세기 시민계급의 대두와 함께 귀족과 부르주아간의 갈등이 사회의 표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신문은 점차적으로 궁정의 관보적인 기능에서 계급 갈등을 표출하는 정치적인 논의를 위한 것으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르주아의 당파성과 욕망,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산문문학이 신문의 지면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 그렇다면 문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주어진 여건은 문학에 불리하다. 문자 중심의 사용자 환경과 사용자경험은 이제 낡은 시대의 유물이 되고 말았다. 인쇄라는 복제기술의 발명에 힘입어 탄생한 소설은 생래적으로 오리지널리티와 무관하다. 소설은 처음부터 시각예술과 정반대의 길을 개척했다. 시각예술이 오리지널리티에 집착하면서 상품 가치를 높일 때, 소설의 상품가치는 판매 부수, 즉 얼마나 많이 복제되느냐가 더 중요했다. 그 덕분에 소유와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대중화를 통해 근대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서사예술로 자리 잡았다. 시간의 일시성은 극복하였지만 여전히 정적인 그림이 아니라, 유한계급의 사치품이자 소유물인 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회화보다는, 살아 움직이는 인간군상들의 욕망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소설이 근대에는 맞았고 옳았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영화와 컴퓨터게임의 등장은 살아 움직이는 인간 군상의 욕망을 재현하는 서사예술로서 소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인공자연은 문자중심의 문학과는 처음부터 어울리지 않는 예술생태계이다. 결국, 독자의 욕망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욕망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기술편집시대에 문학에 부여됐다.[33]

예술을 다른 것과 차이나게 하는 예술 자체의 특징은 형식의 창조라는 점이다. 예술은 사물을 형태 지우는 것이거나 달리 말해서 조성해내는 것이다. 예술은 물질과 정신에 형식을 부여한다. 예술이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 활동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더구나 예술은 우연의 반영이나 소산이 아니라 '의도적인(conscious)' 활동이다.[34] 예술의 존재는 결국 당대 예술과 기술과 자본을 관통하고 연결하는 욕망의 문제이다. 문학이 기술편집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갱신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새로운 형식의 창조에 망설인다면 기술편집예술에 문학의 자리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메타버스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디지털 음유시인의 모습이 문학의 미래가 될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33) 소설은 이미 그 영향력을 잃었고 결국 남은 건 시이다. 시각예술처럼 정적이지도, 음악이나 무용처럼 추상적이지도 않은, 은유와 상징으로 인간의 감정을 드러내고 어루만지고 감싸줄 수 있는 예술은 오로지 시뿐이다. 다만 춤에서 시작해 노래로 불리워졌던 시가 문자로 기록되었듯이 시가 다시 노래로 춤으로 종합예술의 형태로 진화할지도 모른다. 원래 문학은 말이고 노래였다

34) W. 타타르키비츠 저, 김채 역,『예술개념의 역사』, 열화당, 1993, 69쪽.

"〈기술편집예술〉의 대상과 인식 연구 - 욕망과 아우라의 재매개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이진(한양대)

본 발표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편집예술'의 개념은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주체와 대상, 예술과 산업의 역동적인 변화를 아우르는 유의미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창작과 공유의 장으로서 가상세계의 등장과 수용자에서 사용자로의 변화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이식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면(물론 이 또한 오리지널리티의 개념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다양한 미디어와 콘텐츠가 웹이라는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인식 또한 아날로그 공간을 디지털 공간에 기계적으로 재현한 것에 가까웠다면, 디지털 기술의 수용과 진화의 과정을 거쳐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발표문에서 제시한 '인공자연'의 개념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자께서는 기존의 가상세계와 인공자연을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가상세계가 현실 공간의 대타적 개념, 부차적 개념에 가까웠다면, 인공 자연은 현실과 가상이 중첩되고 두 공간의 경계가 투명화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사용자는 미디어의 이용에 있어 단순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경험을 지향하며 네트워크를 유영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범주는 온라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과 가상을 아우릅니다. 트랜스미디어(transmedia)와 멀티 페르소나의 보편화, 메타버스(metaverse)의 재부상은 가상과 현실의 융합이 추상적인 구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가진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표지가 아닐까 합니다. 벤냐민의 기술복제와 아우라 개념은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거시적으로 나아가 통시적으로 살펴보는데 있어 통찰을 제공합니다. 연구자께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편집예술과 아루트라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기술편집예술의 텍스트 연구를 통해 제시해 주실 연구결과물이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토론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1. 기술편집예술의 개념은 미디어 아트와 같은 본격 예술의 영역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틱톡, 브런치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향유되는 콘텐츠들을 논의하는데도 유의미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도 '그것이 다 예술작품이 될 수는 없겠지만, 창작 활동의 의미가 달라졌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예술 개념의 변화 또한 논의하고 있지만,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SNS의 게시글이나 챌린지 캠페인과 같은 것들까지 콘텐츠의 범주로 포괄해서 살피고 있습니다만, 예술의 관점에서 이러한 사용자의 일상적인 창작 활동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2. 결론에서 기술편집시대는 문학에 닥친 거대한 위기이자 기회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

근에는 종이책 중심의 창작과 향유를 벗어나 플랫폼 연재,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과 향유 방식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코로나 이후 비대면 국면이 일상화되면서 어떤 것들은 변화를 가속화하고, 어떤 것들은 변화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기술편집시대의 방향과 변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연구 분야가 다르다보니 질문이 다소 거칠고 성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 연구 방법: 러시아어권을 중심으로

구리예바 아나스타시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 부교수)

개론

세계문학에 대한 논의에는 민족문학의 보급화와 유통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어떤 문학의 가치를 귀중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문학이 세계문학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증상이다. 요새 한국현대문학이 적극적으로 번역되어 보급화되는 것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등장하는 과정이다. 현대문학이 많은 나라의 서점에 드는 오늘까지 한국고전문학의 주요작품들이 이미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문학이20세기 중엽부터 번역해 왔으나 주로 넓은 독자들보다 한국학 전문가 중에서 알려져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대다수로 출판되고 (예컨대, 20세기 러시아에는 35000-50000 부로 출판됨) 어떤 나라에서는 소수로 (몇천 부를 부과하는 수) 출판된 것이다.

이런 출판물도 일반 독자들을 끌 수 있는 것인가도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고전소설을 동화로만 소개하면, 독자들도 동화로서 받아들이는 편이다. 한시나 시가를 번역할 때 뜻만 옮기고 운율을 포함한 예술적인 면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로서 읽혀지지도 않을 것이다. 현대문학도 작가의 독특한 문어체를 무시하고 뜻만 집중한 번역들은 한국문화, 역사나 사회에 대한 정보를 알리면서도 문학으로서 주목을 받기 어렵다. 또한, 작품을 소개하는 글을 독자들의 관심을 돋구지 못한 식으로 쓴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작품의 심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자의 역할이 부각된다. 작품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면 넓은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독자들의 수준 맞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본 발표는 한국문학을 세계문화로서 접근하는 연구방식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론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으로 보는 이 발표에서는 애로사항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몇 특성을 나열한 다음, 민족문학의 특성을 접근해야 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사례 몇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애로사항

위와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일부분이 되는데에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양상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이는 주로 러시아 사고방식을 포함한 서양문화에 속하는 독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것들이 다음과 같다.

-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지명, 인명이 많기 때문에 따로 제공한 해설이 있어야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지면 하단부분에서나 책 뒷부분에서 나열한 해설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서 읽어야 하는 과정은 작품을 즐기는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

- 역사적인 배경, 종교적인 요소 등이 작품의 깊은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국 현대독자들도 그런데 특히 외국 독자들이 작품을 파악하기 어렵다;
- 번역의 수준이 미흡한 경우에 번역문을 통해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알 수 없다.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한 부분으로 원문의 의미 왜곡, 원문의 문어체 미전달, 외국어를 사용하는 수준이 낮기에 번역문의 문학적 성격이 떨어짐 등이 원문을 과소평가를 할 요인이 될 수 있다;
- 한국문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만날 기회가 많지 않다. 한류, K-pop에 대한 관심이 있더라도 문학을 직접 접할 방법이 아니다[1]. 한국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더욱더 한국문학에 이에 주목을 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 한국문학 번역문에 대한 홍보나 소개하는 정보가 부족한 것은 현실이다.

연구방법

위 사항들을 몰두에 두고 한국문학을 세계문학으로 접근하며 연구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족문학의 보편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 민족문학의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는 견해 등의 세계문학의 여러 컨셉 중에 발표자가 지지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민족문학을 세계문학으로 만들고자 하면 본 문학의 민족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길이라고 입각한다. 독자들은 자기 나라 문학와 다른 나라의 문학간의 공통점이나 유사한 점이 있는 것보다 특별한 점, 새로워 느껴지는 점에 주목하는 편이다. 또, 민족 문학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세계문학의 각양각색의 성격을 발견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문학의 특성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자기문화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적 문맥에서 접근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최우선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언어나 문학사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다.

한국고전문학의 경우에는 동양문화의 일부분으로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통해 한문학의 많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문학이 다른 문화나 문학간의 관계나 영향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다른 문화 중심적 시선을 가져서는 안된다. 즉, 중국문화권의 영향에 의한 한국고전문학에서의 요소를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 한국작품들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된다. 이와 동시에 한국문학을 중국문학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문학은 더욱도 그렇다. 서양문학의 사조들의 영향을 받은 한국 근현대문학에서 그 사조와 대비될 만한 요소를 부각시켜 서양의 작품이나 작가들과의 비교해 나가는 것이 흔한 접근인데 얼핏하면 서양문학을 모범으로 여겨 한국문학을 이를 따라가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결과로 한문학을 과소평가할 위협이 있다. 연구자의 접근에는 이런 견해가 갈려 있을 수록 외국독자들에게 한국문학이 이차적인 것으로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발표자가 주장하기를 외국독자들이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려면, 이의 특별한 문화를 소개할 필요가 있다. 한문학이 다른 문학과 차별되는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한문학을 성공적으로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문학을 다른 문학과 비교함으로써 한국문학의 특성을 찾아내고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K-pop 노래 등의 콘텐츠에는 한문학의 요소들이 있으나 이를 통해 문학에 대한 관심을 얻기 쉽지 않다.

방해로서의 이국성(exotics)

위와 동시에 서로 상당히 차이가 나는 문화 경우에 문화차이와 사고방식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요소의 차이, 명칭 차이, 작품 텍스트의 "낯설음"이 오히려 독자의 관심을 깨울 만한 것이 아닌가? 글이 새롭게 느껴진다는 것이 장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감상을 만들기 위해 글을 장식화하거나 문체를 일부러 바꾸는 것이 그릇된 방법이다.

저자가 중국학 학자 겸 번역가인 바실리 알렉세예프의 논거를 빌리겠다. 20세기 초부터 중국고대문학을 연구하고 러시아 독자들한테 대다수로 소개하며 번역의 이론에 대한 글도 남긴 알렉세예프는 중국 문학 중심으로 번역의 이국성을 반대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 중에 하나였다. 예컨대, 알렉세예프는 다음과 같이 썼다.

«유럽 독자가 중국문학에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악화될 수 있는 이유는 '이국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독자들이 흔하게 걸리는 "병"이다. <…>. 이국성이란 자연스럽지 못하고 화려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들을 새로운 것으로 여겨지니 우습다.

이국성에 대한 열정이 우선 왜곡된 번역으로부터 비롯된다. 번역가가 번역을 정확히 해야 한다는 위무를 무시해 독자를 매입하기 위해 새로운 성격을 만들고 독자들에게 올리면 잘못이 여간 크지 않다».[2] 알렉세예프는 번역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나아가서 연구분야에도 적용할 만한 말이다.

연구자가 문학의 특성을 발견하면서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학술의 동력은 본래 '무엇', '언제', '어디에서' 등의 질문 보다 '왜', '이유가 무엇인가'란 질문이기에 문학을 포함한 어떤 현상을 이해하는데에 핵심이 되는 질문이다. 이와 같이 문학을 소개할 때 차이가 나고 새롭게 느껴지는 점을 설명하면 관심을 보전하면서도 독자와 작품간의 거리를 감소화하는데에 도움이 된다. 설명이 부족한 경우 이국성이 두드러지게 된다.

이국적으로 느껴지는 텍스트는 독자의 관심을 어느 정도로 돋굴 수 있으나 주로 아예 모르는 문화 경우에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문화자체가 이국적으로 느껴질 수록 작품의 이국적인 요소들이 낯선 분위기를 만듬으로써 독자를 끌어드릴 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텍스트에 원래 없는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문학을 통해서 한국 자체를 낯선 나라로서 소개할 단계를 지난 것이다. 문학을 도구로써 현재까지 현성된 서로 나라에 대한 변견을 벗어나고 나름대로의 아름다움과 특별함을 보여줘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텍스트의 특색을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의 목적이다. 이국적인 것이란 보통 틀에 박힌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문에 없는 이국적인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시키면 결과가 상통적인 법이라 결국 반대의 효과를 초래한다.

번역자가 번역할 작품을 선택하고 있는 단계에서부터 인간적으로 보편한 가치관,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다루면서 원문이 속하는 문화의 아름다움과 특별한 모습, 새롭게 느껴질 수 있는 요소들도 가진 문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성격을 전달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이에도 연구자의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움과 특별함이 원문에 내재해야 소개되는 작품이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거니와 연구자로 하여금 새롭고 특별한 점이 제대로 파악되며 충분히 소개되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 또한, 설명하면서 이런 특별한 점들이 문화속에

2) 알렉세예포, 중국문학. 모스크바. 1978. 86쪽. (Алексеев В.М. Китай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осква. 1978. С.86)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문화 문맥에서 이 특별한 점으로써 문학이 어떻게 풍부해지는 것인가를 보여주면 문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 러시아어권 중심으로

아래에서는 러시아 한국문학 학자에 의한 연구의 몇가지 사례를 통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접근한 연구방식과 연구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시대에서 대표적인 문학적 현상을 검토하는 연구 하나씩 연대적으로 언급하겠다.

학자로는 1952년에 레닌그라드 (현 -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의 한국어문학부를 졸업하여 러시아 학술원의 박사과정을 입학한 때부타한국문학 연구와 한국문학 교육에 종사한 마이안나 니키티나 (Marianna I. Nikitina)와 아델라이다 트로체비치(Adelaida F. Trotsevich)의 연구와 그의 제자인 라리사 즈다조바 (Larisa V. Zhdanova)의 연구 중심으로 하겠다[3].

1. 한국의 건국신화에 대한 연구

A.F. 트로체비치가 한국의 건국신화를 검토한 바 있다.건국신화를 검토한 연구로 추모에 대한 언급이 있는 광개토왕릉비의 텍스트도 다룬 바 있다[4]. 신화를 설명한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 신화에서부터 조선후기 소설까지에 나타난 한민족의 세계관을 찾아냈다. 한국의 건국신화와 인도유럽 신화 (Indoeuropean mythology) 의 구조와 비교해 감으로써 한국문화의 특징으로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묘사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트로체비치는 두 문화의 신화의 중요한 공통점으로 태양과 관련된 주인공 (solar character)과 지하와 관련된 주인공 (chthonic character)간이 나오는 내용인 있다. 그러나 인도유럽 신화의 경우에 두 형식의 주인공간의 사이는 대립적인 것인데 태양적 주인공이 지하적 주인공을 승리하여 죽이는 반면 한국신화에서는 주인공간 사이는 대립이 아니라 대조인데 결국 죽이는 것 대신 조화로운 결합으로 통해 새로운 인생이 생긴다. 문화 두개 다 신화적 요소로 갈등과 승리를 이용하나 결정적 요소로는 서로 반대인 죽음/생명이 나오는 것이다[5]. 이를 분석하면서 한국의 음양설에 따른 사고방식을 찾아내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또 하나의 특점으로는 다른 문학에서도 확인되는 조화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보는 사회의 성격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 차원에서는 이런 특성이 한국사람들이 갈등을 접근하는 영역에서 볼 수 있다. 어떤 갈등에서는 실패자와 승리자가 있는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고 갈등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갈등을 최소화하거나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인 대책이다.

이런 예를 통해 비교를 수단으로 적용한 결과로 발견한 문학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이런 차이점이 다른 문학작품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유사한 신화의 특징은 심도로 분석하면 본격적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세계문학에는 쉽게 볼 것이 없다. 표면적으로는 공통점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국 핵심이 다른 점으로서 드러날 수 있다.

---

3) 러시아 한국문학학자들의 연구를 구리예바 2017 (민속원)에서 소개한 바 있다.
4) 광개토왕릉비는 역사 측면에서 연구한 학자는 한국 역사 연구자인 로자 자를가시노바 (Rosa Sh. Dzharylgasinova)이다. 그런데 문학사 문맥에서 이를 다룬 글은 1969년에 발간된 '14세기 이전의 한국문학'이란 저서에 실린 건국신화에 대한 트로체비치의 연구이다.
5) 트로체비치, 2004.

2. 텍스트의 역할에 대한 연구

M.I. 니키티나는 향가문학에서부터[6] 조선시대의 시가문학과 한시를 연구한 기반으로 한국문학에서의 텍스트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역할을 다룬 바 있다[7].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로서의 텍스트 (특히 시 텍스트)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여 많은 사례로 삽화한 니키티나의 연구들은 한국현대문화에서 시의 텍스트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잘 설명한다[8]. 다양한 현상들 중에 시민들의 불만, 정치적 비판 문맥에서 사용되는 시와 다른 포맛의 텍스트의 적용이 한국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로 부각된다[9].

이 경우는 문화에서의 시 텍스트의 다양한 역할, 문학의 영역을 벗어나가는 역할까지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례로 세계문학 문맥에서 문학의 미학적인 면과 함께 분석해야 할 면을 발견해 주는 것이다.

3. 한시와 이문화에서 받아드린 요소에 대한 연구 (『최치원의 작품세계』, 1998)[10]

L.V. 즈다노바는 최치원의 시를 중심으로 연구했으나 최치원이 지은 시에서 나타난 형상체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중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중국 시집에 이름이 들어간 최치원과 같은 시인라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보전하여 독특한 형상을 사용하고 중국시에서 볼 수 없는 문맥을 조작하며 한국적인 특성으로 풍부한 작품을 쓴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이다. 받아들인 요소를 통해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마음을 표하는 포멋이 세계문학무대에서 고대부터 존재했다고도 배울 수 있다.

4. 한국고전소설에 대한 연구

A.F. 트로체비치는 한국 고전 소설에서 나타난 주인공 양상과 서양 문학(세익스피어(Shakespeare)나 실러(von Schiller) 등의 작품)에서 나타난 주인공 양상부터 주 갈등까지 비교하며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가진 사회관의 특징을 드러냈다. 예컨대, 사회의 갈등을 보이는 홍길동과 실러의 Moore의 일물과 갈등의 성격을 대비한 결과는 개인주의 서양문학에서는 개인이 자기자신을 사회에 대립시키는 방식이 가능한가 하면 한국문학에는 처음에 갈등이 있던 주인공이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조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차이점을 강조했다[11]. 허균이 중국의 법가의 개념을 이용해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는 주목할 만한 점도 있다. 비슷한 연구방식으로, 또한, 춘향전과 'Romeo and Juliette'의 배경도 비교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세계에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상황이나 문제가 주요 내용이 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의 특성에 따라 개요가 달라지는 한 예가 된다. 이 작품은 동화가 아니라 당대의 사회관을 요약한 어떤 사상이 부여된 것들이다. 이런 사례로서 볼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말한 것들뿐만 아니라 특징을 설명함으로써 작품의 성격과 수준까지 다른게 소개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

---

6) 니키티나의 향가에 대한 연구는 구리예바, 2018에서 소개한 바 있다.
7) 니키티나, 1972, 1982.
8) 니키티나, 1972, 1982.
9) 구리예바, 2017.
10) 즈다노바, 1998.
11) 트로체비치, 1986, 2004.

5. 문학작품 행간에서 발견되는 모델에 대한 연구

M.I. 니키티나는 섬세한 구조적 분석을 기반으로 시조문학을 비롯한 한국시가문학에서 나타난 모델 (시공간을 포함한)을 규명한 바 있다. 동북아의 보편적 천지인이나 천지합일 뿐만 아니라 각 장르에 있어 특별한 모델과 형상체계의 특징을 발견했다.

이런 연구를 덕분에 한국현대시에도 나타난 모델을 발견해 나가며 시작품들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오행설이나 천지인은 물론, 공간이나 시제에 대한 고전문학에서 찾아낸 인식들은 많은 현대시에서도 확인된다[12].

예를 들자면, '명월청풍'과 같은 경우에 빛 (시적인 형상)과 소리 (청적인 형상)이 만나면 조화로운 우주를 묘사하는 모델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고전시에는 두 개의 형상으로써 우주의 구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이다. 서양 시의 사례를 빌리면 우주적 시인으로서 유명한 Walt Whitman과 비교가 된다. 두가지 자연의 형상만으로 간결하게 우주의 모델을 말하는 시조와 달리, 간결하게 Whitman은 우주를 그릴 때 많은 다양한 현상을 길게 목록화하는 것이다 (고체, 기체, 액체 등).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근대시에는 이런 특징이 작가의 특징에 따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박목월의 '불국사'에서 시인이 전통적을 수단을 빌려 '달안개, 물소리' 등의 두가지 단어로써 조화로운 우주를 그려낸다. 이와 동시에 박목월보다 좀더 일찍 태어난 이육사 (이원록)의 '황혼'을 보면 우주의 대규보를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여러 지명과 인간의 여러 모습을 언급한다.

한국고전문학을 세부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근현대문학의 특성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고전문학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은 가교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현대문학을 더 잘 이해하는데 상당히 기여하고 외국독자들에게 흥미롭게 소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다. 세계적인 문맥에서 보면 고전문학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한 사계도 된다.

결론

위에서 애로사항부터 시작했으나 결론으로는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나타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 몇가지 나열하겠다. 이는 곧 세계문학으로 주목받을 것들이다.

- 한국고전문학이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의 요소를 받아드리는 과정에서 독특화하는 점을 통해 타문화의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것;
- 옛날 텍스트를 통해 사고방식의 기반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예컨대, 건국신화);
- 한편, 문학을 통해 세계관의 모델 (공간관, 시제 포함)과 행위방식들을 배울 수 있는 것 (예컨대, 시조에서 나타난 특성);
- 인간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갈등, 문제나 상황 등이 독특한 예술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
- 한문학의 연대순이나 주인공의특성, 장르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한문학의 케이스를 통해 전체적 (세계적) 문학이론의 새로운 점을 규명할 수 있는 것;
- 고전문학에서 형성된 특성을 통해 현대문학의 특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

등이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에 기여한 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본 발표에서 다룬 주요 몇가지 점들에 불과하는 목록인데 연구자가 접하고자 하는 각 작품마다 이 목록에 새로운 사항으로 나타날 특점을 발견할 전망이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앞서 말한 연구접근들을 고려하는

12) 구리예바, 2017.

것이 중요하다고 입각한다. 그럼으로써 세계적인 현상으로서의 문학의 지평선이 넓어지고 문학의 심도를 발굴하고자 하는 인간의 잠재력도 발전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구리예바 아나스타시아. 러시아에서의 향가문학 연구(M.I.니키티나의 연구 중심으로) // 한국시가문학. 서울, 2018

러시아의 한국문학 연구방법에 관한 재고: 19세기 후반 - 현대까지// 백년의 매혹. 한국의 지성 러시아에 끌리다. 서울: 민속원, 2017. 17-51쪽.

니키티나 마리안나. 제례와 신화와 관련하여 본 한국 고대시가문학, 1982. М. И. Никитина, *Древняя корейская поэзия в связи с ритуалом и мифом* (Москва: "Наука", 1982), 327 с.

니키티나 마리안나. 16-19세기의 한국시가문학인 시조 (장르의 의미론적 구조. 형상. 공간. 시제), 1994. М. И. Никитина, *Корейская поэзия XVI-XIX вв. в жанре сичжо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труктура жанра. Образ. Пространство. Время)*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1994), 312 с.

니키티나 마리안나. 한국문화에서의 시М.И. Никитина. "Поэтическое слово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Индии, Китая, Кореи, Вьетнама, Японии*. (Москва, 1972), с. 387-402.

니키티나 마리안나, 트로체비치 아델라이다. 14세기 이전의 한국문학. 1969. М. И. Никитина, А.Ф. Троцевич,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до XIV века* (Москва: "Наука", 1969), 239 с.

즈다노바 라리사. 최치원의 작품세계. 1998. Л. В. Жданова,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Чхве Чхивон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Петербургское востоковедение", 1998), 304 с.

트로체비치 아델라이다. 한국고전문학사 (20세기이전까지). 2004 А. Ф. Троцевич,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литературы (до XX века)*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2004), 323 с.

트로체비치 아델라이다. 한국고전소설. 김만중의 구운몽. 1986. А.Ф. Троцевич, *Корейский средневековый роман. «Облачный сон девяти» Ким Манчжуна,* (Москва: "Наука", 1986), 198 с.

Guryeva Anastasia. The role of traditional models in understanding contemporary Korean literature works (based on "Heaven-Earth-Human" and "Light+Sound" // Proceedings of the Center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Issue 17. (Вестник Центра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и культуры. Вып. 17.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pp. 177-189. 2015

구리예바 아나스타시아. 한국 현대문화에서의 텍스트에 대한 인식의 양상(К вопросу о восприятии роли текста в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 Корея перед новыми вызовами. Москва: Институт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 2017. pp. 383-395.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 연구 방법: 러시아어권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오윤선(한국교원대)

평소 세계 어문학의 일부로서 한국고전문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온 토론자에게 구리예바 선생님의 여러 제안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국 밖에서의 독자들이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했으며, 선생님의 논의에 적극 공감하고 별 이견이 없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1.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애로사항'은 현재 한국 독자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서,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 상세한 해설이 곁들여진 <한중록> 영문판을 읽다 보면 한글원문보다 한국학생들이 더 쉽게 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작품의 역사적인 배경, 단어의 해설, 인칭대명사가 가리키는 인물의 풀이가 없으면 현대 한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해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설이 없이 쉽게 풀어 쓰면, 한국적인 맛을 읽기 어렵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2쪽 2행의 '러시아 사고방식을 포함한 서양문화에 속하는 독자들'은 일반 독자뿐 아니라 러시아에서 한국어나 한국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포함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만약 일반독자에게는 해설을 보지 않고 읽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 번역을 하고, 학문적인 목적으로 읽는 독자에게는 해설을 확인해가며 읽도록 따로 번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 경우 러시아에서는 일반독자와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독자를 대상으로 다르게 번역을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독자층이 두터운지요?** 즉 그 정도로 출판시장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요?

2. 3쪽에서 제안하신 것처럼 '한국고전문학의 경우 동양문학의 일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 하다는 것, '중국문화권의 영향에 의한 한국고전문학에서의 요소를 찾아내어 설명하는 것이 한국작품들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만, '한국문학을 중국문학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고전문학의 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비교 기준점이 **중국문학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상대방이 중국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미세한 차이에 흥미를 가지거나 가치를 두게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3. 3쪽에서 '이국성에 대한 열정이 우선 왜곡된 번역으로부터 비롯된다.'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19세기 초 외국인 번역자들이 한국의 고전을 번역할 때 이국적인 것 강조하느라 그런 요소들을 부각시켜 번역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번역만으로도 '이국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며 단어를 그대로 살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문학을 통해서 한국을 낯선 나라로 소개할 시대는 아닌 것입니다.

이때 번역자가 번역할 작품을 선택해서 이러한 성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 연구자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지의 사정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영문번역의 경우에 한정되었지만 영문으로 번역할 한국고전 리스트를 선정하는 작업을 할 때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때 **러시아의 경우 번역 소개되면 좋을 만한 한국고전문학작품이 있는지요?**

4. 발표자께서 소개 검토해 주신 러시아 한국문학 학자들의 연구성과들은 한국 밖에서의 한국문학작품에 대한 연구성과로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외국독자에게 뿐 아니라, 한국의 연구자 또는 한국독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결론 부분의 제안점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 제안점들을 통해 외국인들의 한국문학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안점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조금 다른 성격인 것 같습니다. '한국고전문학이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이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독특화하는 점을 통해 타문화의 것들을 접목할 수 있는 방식을 배우는 것'은 현대 작가들이 현대문학 또는 현대 대중문화의 창작에 반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했는지요?**

실제로 한국의 드라마 중에 인기를 얻었던 작품들이 한국고전을 바탕으로 했던 것들이 많았다는 발표를 접했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내용처럼 한국고전 바탕의 K-POP이나 한국 드라마들이 유행하는 시기에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고전에 대한 해설을 한국학 연구자가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의 연구자들이 일부 나라를 제외하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한국 드라마가 유행하는 현재에 **한국 현대문학이나 한국고전문학의 번역서에 대한 접근 가능한 정도를 러시아를 예로 들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 로컬 · 디지털'의 융합과 고전문학 연구의 미래

노경희(울산대 국어국문학부 교수)

<목차>

1. 들어가며
2. '글로벌(Global)' 단위의 자료 수집과 학술 교류
3. '로컬(Local)' 자료의 발굴과 세계와의 소통
4. 고전문학에서의 '디지털 연구' 영역 확장
5. 글로벌과 로컬 / 디지털과 원본의 관계

1. 들어가며

"가장 '지역적인(local)' 것이 가장 '세계적(global)'이다"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실감나는 오늘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고민하던 한국어문학 연구에서도 세계어문학의 일원으로 자리 잡기 위한 모색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지역'과 '세계'의 접속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디지털' 기술의 역할이 핵심적이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고민은 '지역'과 '세계'의 접속과 그 도구로서의 '디지털' 매체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고전문학 연구는 그동안 가장 지역적인 정체성을 지니면서 가장 디지털 매체와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러한 지역적 정체성과 원본지향적 성격이야말로 미래 시대의 창조적 연구의 바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본 발표에서는 고전문학 연구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가장 원본에 충실한 것이 디지털 기술로 새롭게 변형되는 모습에 주목하여 새로운 시대의 고전문학 연구 자료와 방법론을 고민하고자 한다.

2. '글로벌(Global)' 단위의 자료 수집과 학술 교류

고전문학 연구에서 '글로벌' 시대를 가장 느낄 수 있는 일 중 하나는 '자료 수집 범위의 확장'을 들 수 있다. 고전 연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료'에 있다. 그간 고전 자료들 중 일부는 일본과 미국 등 전 세계 각지 도서관에 흩어져 있어 국내 연구자들이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전통시대 우리나라의 국제 교류는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안에서 폐쇄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19세기말 개항과 20세기 초 식민지 상황에서 우리 고문헌 자료는 외국인들의 수집 혹은 수탈의 대상이 되어 무방비 상태로 해외에 유출되었다. 이 책들은 조선이 본격적으로 개방되면서 외국인 외교관、정부 관리、학자 등의 손에 넘어갔다. 그리고 그들의 이동과 함께 조선을 떠나 100여 년 간 이국땅을 떠돌면서 그 존재가 잊혀졌다.

1945년 해방과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고전문학 연구는 폐허 속에서 눈앞의 국내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민간의 국제 교류 또한 제한된 상황이라 해외

유출 자료에까지는 관심을 쏟을 여력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해외 소장 한국고문헌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개별 연구자들의 해외 학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소장 자료가 국내 연구자들의 시야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1] 이에 고전 연구에도 이들 자료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검토하는 연구가 중요한 사안으로 다가왔다.

1990년대부터 2020년까지의 고전문학 연구에서 해외 소장 자료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편입되었다. 초기에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도서관을 방문하여 원본을 실물 열람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원본 자료들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연구자들이 직접 소장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앉은 자리에서 클릭 한번으로 해외 소장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다.

해외 소장 자료들의 연구 환경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

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원본 열람
② 원본+마이크로 필름 / 복사물 / 사진 촬영
③ 디지털 자료 등장(저해상도 디지털 자료의 한계)
④ 텍스트 파일로 가능한 연구(디지털인문학 발달)

그러나 고전 원본 자료의 디지털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창기 자료들은 해상도가 떨어져 실제 원본과의 격차가 있어, 오히려 자료 해석의 오독을 가져올 가능성도 적지 않았다.[3] 이에 원본 자료 검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기도 하였다. 또한 디지털화 비용의 문제로 인해 소장 자료 전체를 디지털화하지 못하고 귀중본과 유일본 자료 중심으로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연구자들의 자료 이용이 디지털 자료에 집중되면서 연구 목적이나 실상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자료의 디지털화 유무에 따라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또한 문학사 전체 구도에서 실상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이렇게 디지털 자료의 등장은 고전 연구에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국제적 차원의 연구가 진행되면서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이를 통해 한국학 연구 또한 국내 학자들만의 연구 관점과 방법론이 아닌, 해외 학자들의 시각과 연구방법론 또한 중요한 참고 대상이 되었다. 한중일 삼국 간의 국제 학술대회는 물론, 북미 대륙의 대표적인 아시아 연구 학회인 AAS(Association for Asian Studies)와 유럽의 한국학 학회인 AKSE(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등과 같은 서구 동아시아·한국학 학회에 참여하면서,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학계와의 교류도 활성화되었다. 이에 이제는 한국 관련 주제라고 하더라도 한국 학계의 시각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학계, 더 나아가 서구와 제3세계 학계의 맥락을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펼쳐졌다. 한국학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조선통신사 주제 연구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의 관점과 시각이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노경희, 「상트 페테르부르크·도쿄·버클리의 조선 고서들-19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풍경」(『문헌과해석』 86, 2020) 참조.
2) 고전 자료의 아날로그 방식 조사부터 디지털화 작업의 과정에 대해서는 노경희의 「동아시아 고전 연구의 자료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원본과 디지털 자료의 교섭」(『진단학보』 132, 진단학회, 2019, 347~350면)에서 버클리대 한국고문헌 수집과 조사, 연구 경위를 시대순으로 정리한 바 있어 참조할 수 있다.
3) 노경희, 「동아시아 고전 연구의 자료와 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이해-원본과 디지털 자료의 교섭」, 351~3면; 정광훈, 「뉴노멀 시대, '디지털 사본학'의 의미와 연구방법론-돈황 디지털 자료를 중심으로」(『중국연구』 84, 2020) 참조.

다르며, '사행'이라는 측면에서 중국 학계 또한 중국만의 관심사에 따라 또 따른 입장을 보인다. 서구 학계의 경우 동아시아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전혀 다른 관점과 해석을 보여준다. 한국학이 세계 학계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보다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파악하고 한국 내부의 관점을 객관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조율할 필요가 있다.[4)]

여기에, 해외 학자와의 교류 또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물리적인 거리가 줄고 있다. 특히 2020년 이후 진행된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제까지 해외 학자들과의 교류는 국제 학술대회나 해외 연수 등 연구자가 공적, 또는 사적인 공간에서 '직접' 만나 교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다. 당연히 국제학술대회도 현장에 직접 참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었다.

그러나 펜데믹 상황에서 ZOOM이나 Webex, Google-meet 등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는 디지털 공간에서의 만남이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인프라와 사람들의 접근 가능성이 확장되면서 이제는 국제적인 만남조차도 자기 책상 앞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제 고전 연구에서 중요한 두 축인 '자료'와 '교류'는 과거처럼 '물리적인 거리'가 절대적인 장벽이 아니다. 이를 넘어설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연구자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생각보다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글로벌 연구는 극히 제한된 연구자들만이 가능했던 일종의 '특권'이었다. 글로벌 차원에서 해외 자료를 열람하고 해외 학자들과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연구자들에게 커다란 학문적 혜택이었다. 그러나 '물리적 공간과 거리'를 무화시키는 디지털 환경 덕분으로 이제 글로벌 자료와 인맥은 모든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었다.

한편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만남은 직접적인 교류를 불가능하게 하여 우연적이며 사적인 차원의 교류가 차단되고 있다. 이에 새로운 만남 보다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지닌 이들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능적인 교류가 더 강화되고 있다. 이로써 기존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지닌 이들 중심으로 한쪽에 치우친 제한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문제점이 될 수 있다.

3. '로컬(Local)' 자료의 발굴과 세계와의 소통

'로컬(local)'은 'provincial / regional / confined' 등의 의미로, 한국어로 표현하면 '지방의 / 지역적 / 제한된'이라 번역된다. 중심과 떨어진 지방(시골), 제한된 구역, 특정한 지역을 가리키는 뜻이다. 이 말은 상대어는 '중심(capital)'이 될 것이며, 본 발표문에서 다루는 '글로벌' 또한 그 반대 지점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숙고해 보면 '로컬'과 '글로벌'은 전혀 다른 층위의 단어이기도 하다. 모든 '글로벌'한 것들은 결국 그 문화권 안에서 '로컬'일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의 개념을 '세계적 차원으로 통용되는 것'이라 정의한다면, '로컬'은 외부와 소통되지 못하고 한 지역에 '국한된' 것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심과 주변'으로 양분하여 문학사를 인식하는 것은 중세 문학사를 이해하는 한 구도이기

4)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17-8세기 한일 고문사파 연구에 대한 21세기 한국과 일본 학계의 관점과 해석을 국제적 학술 교류의 장을 통해 해외 연구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연구 성과를 비교하고 그 의미를 분석한 바 있다. 노경희, 「21세기 한일 의고문학과 고문사문학 연구자의 만남」, 『문헌과해석』 80, 2017.

도 하다.[5] 중세는 서구의 라틴문명권, 동양의 한자문명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문명권, 이슬람 세계의 이슬람문명권으로 구획되고, 각각의 문명권 안에는 각 문명권의 중심이 되는 언어와 지역이 있다. 주변부는 중심어 문학과 자국어 문학으로 구분되는 이중언어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심부 문학과 주변부 문학이 서로 대립하거나 소통하면서 공존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자문명권에 속하며, 중국이라는 문명권의 중심지 바로 인접한 국가로서 오랜 기간 한문학과 국문문학이 공존해왔다.

중세의 다원적인 '문명권' 단위와 비교할 때 '글로벌'은 '전지구적/세계적'으로 일원화 된 차원의 용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론적으로 모든 로컬들은 글로벌하게 될 수 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외부와 소통되고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소통'과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까지는 '힘'이고 '권력'이었다. 오늘날 '글로벌'한 문화는 결국 가장 많은 파워를 가진 문화권의 문화이다. 현재 가장 큰 파워를 가진 국가는 미국이고, 그래서 "세계적=미국중심적"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미국의 '지역(local)' 행사에 불과한 '아카데미 영화제'가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영화제가 되었고, 거기서 수상한 것이 암묵적으로 '세계적 영향력'을 갖는 상황에서도 알 수 있다.

'로컬'은 '지역、시골、지방、주변부、제한' 등의 의미들을 내포한다. '주변'은 곧 소외되고 고립된 것이다. 중심과 소통되지 못한 것들이다. 이제까지 관심 받지 못한, 외면 받고 무시 받은 것들이다. 그것은 외면되었기에 역사 속에 제대로 된 기록이 없는 경우도 많다. 전설과 민담 같이 설화로 구비 전승되어 그 흔적만을 간신히 남기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고전문학이 진정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외면되고 소외된 '로컬'의 문학일 수 있다. 언젠가 그것이 세계와 소통할 방법을 찾는다면, 바로 그 로컬이 글로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로컬의 글로벌화,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글로컬(Glocal)'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여 로컬과 글로벌을 연결 짓는 논의들이 활발하다.[6] '글로컬'은 간단히 정의하면 "국제(global)와 현지(local)의 합성어로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자칫 이것이 지역문화의 가치를 세계적 영향력으로 평가하는 '강화된 세계화', '거대화된 세계화'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하며,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로컬기반(중심)의 세계화'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은[7] 경청할 필요가 있다.

결국 로컬 연구에서 가장 집중할 작업은 그동안 제대로 조망받지 못하고 숨겨져 있던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다. 특히 이들 자료들은 중앙의 무관심 속에서 제대로 기록되지 못하고 설화로 전하거나, 파편화、개별화되어 그 전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구전 설화나 문화 유적들이 그 한 형태들이다. 이들 자료를 찾아내어 사료로 정리하고, 그 자료만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의미를 밝히는 동시에 중심과의 관계 속에서 지니는 의미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요구된다.[8] 지역의 자료가 중심과 연결된 의미망에서

---

5) 중세를 문명권 단위로 이해하는 것은 조동일의 논의가 대표적이다(『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지식산업사, 1999). 최근의 연구로는 류정민이 「한자 문화권과 양층 언어의 문제」(『어문연구』 47권 2호, 2019)에서 한자문화권의 양층 언어 문제를 다룬 바 있다.

6) 최근 학계의 각 분야별 '로컬리티' 연구에 대한 논의들은 『로컬리티인문학』 17호(2017)에 수록된 '문화연구와 로컬리티 연구' 좌담회(문재원、구모룡、박치완、임경규、정주아、조명기 참가) 기록에서 그 대체적인 경향을 살필 수 있다. 여기서 '글로컬' 담론도 다루고 있다.

7) 박치완, 「로컬 중심의 대안적 세계화 기획-'세계→지역화'에서 '지역→세계화'로」, 『인문콘텐츠』 58, 2020.

8)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 단위로 서술된 역사 기록이 아닌, 기존의 역사 서술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과 사건들, 수많은 경계의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과 이질적인 문화가 섞이면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역사화하는 작업으로 육지와 바다의 경계 지역인 '동해포구'의 역사를 엮은 허영란 편, 『동해포구사』(경

해석되지 못하면 그 자료는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자료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간 조명 받지 못하고 외면된 지역 문화 사료를 기록화한 작업의 한 사례를 소개한다. 발표자는 최근 발표자의 지역인 울산의 지방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을 인터뷰하고 그들의 '구술'을 바탕으로 그 삶과 기예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전승자들의 기예 습득 과정은 물론, 출생과 결혼 등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포함한 생애 전반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경험을 통해 그 인생뿐만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면모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이들이 기예를 배우고 활동하던 시절의 역사적·사회적 상황, 또한 스승 및 가족과 친구들, 거기에 각각의 기예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더하여 이들을 둘러싼 모든 것을 함께 살피려 하였다. 이는 '구술의 기록화' 작업으로 자칫 동시대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고 시간이 흘러 사라져버릴 수 있는, 한 인간의 삶과 지역 문화의 전통을 기록으로 남겨 하나의 사료로 만들고자 한 작업이다.

▣ 울산시 전통공예 무형문화재 구술 채록과 구술생애사 서술 작업
(노경희, 『울산의 쟁이들-장도·붓·벼루 무형문화재 구술생애사』, 울산발전연구원, 2019)

이 작업에서 본고와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은 '구술의 기록화' 작업과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역사' 문제이다. 구술을 기록하는 것은 허공에 뜬 말들을 문자로 정착시키는 작업으로서 자칫 사라져버릴 수 있는 역사의 한 장면을 사료로 남기는 작업이다. 그러나 '구술' 작업이기에 기억의 오류와 착오의 가능성이 있어, 사료로서의 정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사실과 기억의 경계가 분명치 않은 관계로 실제 사건과 경험자의 기억 간의 괴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역사 기록이 이러한 위험 속에서 문자화되고 시간의 힘을 입어 오늘날의 권위를 획득하였다고 한다면, 이 자료 또한 하나의 사료로 보기에 충분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역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삶에 반영된 그 시대의 모습과 공동체의 체험 속에 나타난 개별적인 체험들은 역사적 사건의 개별적 형상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결국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인간의 삶의 총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4. 고전문학에서의 '디지털 연구' 영역 확장

2000년대 들어와 본격적으로 고전 문헌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상(이미지) 파일로, 다른 하나는 원본의 내용을 문자로 입력하는 텍스트 파일로 제작된 것이다. 이들 두 가지 형태의 자료는 각기 원본의 실물(형태)과 내용 확인이라는 역할을 지니면서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연구에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극복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텍스트 파일은 원문 내용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코드)로 바꾼 것이다. 디지털인문학에서 텍스트 파일 자료의 가장 큰 특성은 이 자료들을 통해 '컴퓨터(기계)'와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는 디지털인문학 방법론의 경우 텍스트 파일로 전환된 데이터가 없으면 그 연구가 불가능하다.

상북도, 2021) 작업도 주목할 수 있다.

원전 자료들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대량의 데이터(빅데이터)가 축적이 되면서, 이 자료들을 활용한 디지털인문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디지털인문학'은 거칠게 정리하면 '대용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재료로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인문학 연구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와 방법론에서 '기계의 힘'을 빌리는 작업인 것이다. 현재 디지털인문학의 연구방법론으로 주로 언급되는 것은 데이터마이닝, 텍스트마이닝, 코퍼스 분석, 지리정보시스템(GIS), 시각화 서술, 토픽 모델링, 맵핑(mapping), 비주얼라이제이션(Visualization), 의미망(Semantic Web), 네트워크 분석, 디지털 편집 등이 있다.

디지털인문학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도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큰 폭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고전학 방면은 온톨로지 기반의 네트워크(관계망) 분석이나 전자문화지도를 통한 문화연구에 집중되고 있는데 반해, 외국의 문학 연구나 한국의 근현대문학 쪽에서는 사회학 기반의 소셜네트워크 분석이나 언어통계에 근거한 텍스트 마이닝을 적용한 텍스트 분석에 더 집중한다고 한다. 다만, 최근 들어 한문고전자료를 대상으로 코퍼스 언어학과 텍스트 마인닝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고전 자료들의 판본 비교, 이본 대조 작업, AI 번역 등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전문학 연구방법론은 크게 언어분석방법론, 사회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공간 분석 방법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9] 언어분석방법은 표상체(Sign)에 대한 초고속 처리, 방대한 텍스트에 출현하는 각 표상체를 표상체 식별 체계(형태소 사전, 띄어쓰기, 문장 부호 등)을 통하여 식별하고, 그 출현 빈도를 정확하게 헤아려 대상 텍스트의 전체적인 모습을 탐색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네트워크에 내재된 관계를 분석하여 네트워크의 형태와 특징을 연구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에서는 등장인물 간의 네트워크가 사회 네트워크 분석의 핵심 대상이 된다. 공간 분석 방법은 공간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지리공간에 대한 연구이다.

해외에서는 인문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분석 툴, 즉 분석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툴들이 특정한 데이터 형식을 요구하거나, 분석 방식을 특정하게 제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자 개인의 독창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이공계 연구자와의 협업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김바로는 빅데이터와 고전문학(더 나아가 인문학) 영역의 접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데이터의 공유"와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지적하였다. 데이터 우열의 핵심은 '기계가독성(Machine Readable)'에 있다. 즉 데이터는 컴퓨터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고전문학 아카이브에서 자주 활용되는 웹뷰어나 PDF 혹은 Image는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데이터라고 한 바 있다.[10]

정리하면 이제까지 우리나라 고전학 분야에서 주로 이루어진 디지털인문학 연구 방법은 텍스트 파일로 전환된 빅데이터 자료를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개인 연구자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작업을 수행하여 그 거시적 결과를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 방법론에서는 '기계가독성'이 중시되면서 텍스트 파일이 필수적이고, 이에 서지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은 그 설 자리가 없다.

그러나 고전문학 연구의 경우 원전 자료를 중시하는 특성상, 텍스트 파일 이상으로 실물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 파일이 중요시된다. 여기서는 그 극단적 성향을 보여주는 '형태서지

9) 김바로 · 강우규, 「빅데이터와 고전문학연구방법론」, 어문논집78, 2019, 10~31면 참조.
10) 김바로, 앞의 논문.

학' 연구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연구의 새로운 영역을 모색하기로 한다.

'형태서지학'은 책의 내용이 아닌 그 형태에 집중하여 책이 만들어진 시대의 흔적을 찾는 연구로서 책의 '물질성'이 중요한 재료가 된다. 책을 이루는 종이、먹(잉크)、장황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책의 디지털화 작업에서 '텍스트 파일' 방식으로 저장할 경우 디지털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원본의 형태를 '화상(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경우에서야 그 형태를 '일부'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때의 이미지 파일 역시 원본이 아닌 원본에 가깝게 만들어진 '복사본(copy)' 자료일 뿐이다. 3차원에 존재하는 물건을 2차원의 평면에 옮긴 것이기에 원래 자료가 지니고 있는 '물질'로서의 성질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 표지의 색깔、종이질감、먹색깔、장황과 인쇄의 상태 등 책의 실물을 직접 대함으로써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없다.

여기서 기존의 디지털인문학 방법론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론이 요구된다. 그간의 방법론의 경우 자료의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자료의 '실물'을 보다 실제와 가깝게 재현하는 기술을 찾아 그를 통해 자료의 분석과 연구를 시도하는 방식이다. 책의 내용보다 책의 외형을 더 중시하기에 그 물질성을 보다 실물에 가깝게 데이터화 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는 기존의 디지털인문학 방법론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것을 과연 디지털인문학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화 된 문헌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삼는다는 점과 최신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내용' 중심 디지털인문학 연구에 '형태' 중심으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다. 물질을 데이터화 하는 것은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기술이 인문학 안에서도 가장 고루하고 아날로그적으로 평가되는 형태서지학 연구에 적용된다는 것은,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만남이라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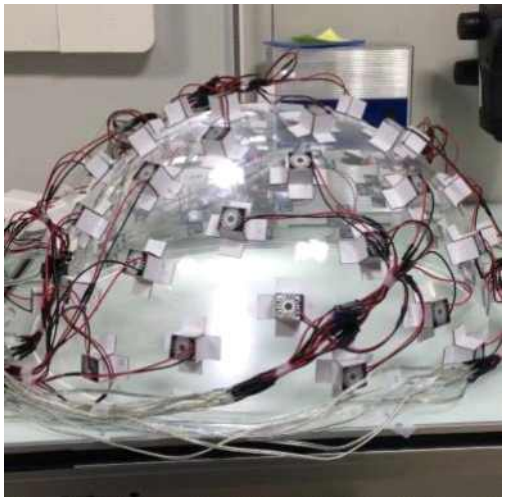
실제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문헌 자료의 '물질성'을 재현하는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가능성이 확장되고 있다. 자료의 '실물'을 보다 실제와 가깝게 재현하여 원본과 디지털 자료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미 서책과 목간、비석、종이、먹 등을 재현하고 분석하기 위한 과학기술들이 적용되고 있다. 초고해상도 디지털 자료는 원본의 물질적 감각마저 화면에서 느낄 수 있게 한다. 여기에 더해 도서관에 실제로 가지 않아도 컴퓨터 클릭 한번으로 고문헌 자료를 직접 펼쳐 꺼내보는 현장감을 재현하는 가능성도 상상할 수 있다. 인문학 연구에 '3D 프린트 기술'이나 '증강 현실' 기술 등이 촉감이나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 동원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여기서 고문헌 자료의 '물질성'을 재현하거나 분석하는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한 연구 사례를 몇 가지 들기로 한다. 다음은 종이 재질과 먹을 분석하는데 사용될 만한 최근의 기술들이다.

▣ 종이의 지질 분석 기술

반사율변환영상(RTI: 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촬영 기술: 광원의 방향과 위치를 달리하여 촬영한 여러 개의 사진을 이용하여 문화유산 표면 형상을 가시화하는 방법이다. 주로 두께가 얇은 물질을 관찰할 때 다양한 각도의 광선으로 생긴 음영을 합성하여 입체적 관찰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지질(紙質)을 관찰할 때 보다 과학적 분석이 가능하다.

http://culturalheritageimaging.org/Technologies/RTI/



<PTM 장비: 조명을 서로 다른 위치에서 비춰주면서 위에서 사진을 찍는 장비로, 이 촬영 사진들을 합성해서 입체적인 모습으로 재구성>

▣ 먹 성분 분석 기술

종이의 경우 고대의 종이를 입수하여 후대에 필사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먹을 분석하는 것이 고대 문헌 자료의 시대와 지역을 확인하는데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근래 한중일의 먹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 이는 크게 원소분석기(Elemental analyzer)와 적외선분광기(FT-Infrared Spectrophotometer) 등을 사용하여 먹과 아교의 원소를 분석하고,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E-SEM: 5,000-80,000배까지 확대 관찰)을 사용하여 먹 그을음의 분포 상태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11)]

5. 글로벌과 로컬 / 디지털과 원본의 관계

로컬은 그 자체만으로는 '주류'에서 배제되고 소외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디지털' 기술과 만나면 공간적 거리감을 극복하고 주류와 소통될 수 있는 접점을 마련할 수 있다. 로컬 자료들에 있어 디지털 기술은 더 넓은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로서 역할하고 있다. 오늘날 K-Pop을 비롯한 영화, 드라마 등 'K-Culture'가 세계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디지털 세계와의 접속을 통해 가능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디지털 세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디지털화(digitalized)'되어야 한다. 데이터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디지털 세계 안에서 검색되지 않고 존재하지 못한다. 한편으로 일단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모든 데이터의 가치가 동일하다. 그저 같은 비중과 가치를 지닌 하나의 데이터로 존재할 뿐이다. 여기서 디지털 세계의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발견한다.

* 디지털화 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 디지털 세계에서는 모든 존재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11) 김강재、엄태진, 「동양 전통 먹(墨)의 이화학적 성상 비교 분석」, Journal of Korea TAPPI, Vol. 40. No. 4, 2008; 송우용 외, 「원소분석과 전자현미경 이미지 분석에 의한 먹의 특성 탐구」, 펄프종이기술온49(2),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17.

우선 디지털 세계 안에서 '데이터'는 모두가 같은 지위에 있기에 적어도 그 세계 안에서는 기존 세계에서 지녔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학의 예를 들자면 문학사의 '주류'라고 하는 작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세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쥴리엣은이나 제3세계 시골 무명 작가의 처음 듣는 작품도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갖고 분석될 뿐이다. 그동안 문학사를 해석하는 주요 키워드였던 '정전(canon)'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다. 문학사 안의 주류가 인정되지 않는 세계에서는 기존 문학사의 가치와 평가가 모두 무화되고, 연구자들은 각각의 기준을 갖고 그간 외면 받은 작품들에서 새로운 가치를 처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기존 연구에서 간과된 의미를 발견한다는 점은 디지털 세계의 연구가 지니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 안에서 연구되기 위해서는 이 자료들이 '데이터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전하는 세계의 수많은 물질로 존재하는 자료들을 모두 디지털화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리한 일이다.(앞으로의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른다.) 여기서 데이터화 된 자료와 데이터화 되지 못한 자료 간에 '격차'가 발생한다. 디지털화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과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들은 디지털 세계 안에서 연구되지 못하고, 이는 결국 또 다른 소외를 가져온다.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고 소외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디지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큰 배제와 탈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디지털 세계 속의 파워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전통적인 고전 연구에 있어서는 희귀본이나 유일본을 소유하거나, 그 소장처와 지인을 아는 이들이 파워를 가졌다. 디지털 데이터들은 무한 복제가 가능한 자료로서 이제 더 이상 '유일성'이 지닌 가치는 없다. 자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양(Bigdata)'이 더욱 중요하다. 이에 디지털 세계 안에서는 더 많은 디지털 데이터를 갖는 이, 더 많은 데이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파워를 갖는다. 그리고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파워를 갖는다. 이는 기존 연구 방식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다.

고전문학 연구에서 오늘날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접하는 자료들은 원본 그 자체가 아닌 '디지털화' 된 자료이다. 여기에서 이제 '진짜'와 '가짜(대체품)'의 구분이 생긴다.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점차 '가짜'가 더 이상 가짜가 아닌 진짜에 버금가는 형태를 갖게 되면서, 과연 진짜와 가짜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원본과 디지털 자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공간이 점차 진짜 세상에 버금가는 세상이 되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에 대한 구분들이 무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가상공간이 실제 세계를 대신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 메타버스(Metaverse)

: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유니버스)'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메타)'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한다. 메타버스에는 가상세계 이용자가 만들어내는 UGC(User Generated Content)가 상품으로서, 가상통화를 매개로 유통되는 특징이 있다. 메타버스 세계는 그 동안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는데, 현재는 진보된 개념의 용어로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다. 이 용어는 원래 닐 스티븐슨의 1992년 소설 '스노 크래시(Snow Crash)'로부터 온 것이다. 요즘은 완전히 몰입되는 3차원 가상공간에서 현실 업무 뒤에 놓인 비전을 기술하는 데 널리 쓰인다. 가상공간의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은 사회적이든 경제적이든 소프트웨어의 대리자들(아바타로서)과 인간적 교류를 하고 현실세계의 은유를 사용

하지만 물리적으로 제한은 없다.

고전문학 연구는 원본 자료에 집착을 한다. 원본 자료가 왜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원본 자료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원본 자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 것일까.

진짜를 접하는 이들이 소수이면, 오히려 가짜가 다수의 지지를 얻게 된다. 오히려 '진짜'라고 하는 것이 외면 받을 수도 있다. 진짜 자료를 보지 못한 이들이 다수가 되어 그들의 주장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한 사건은 중국 경학사 연구의 오랜 주제인 '고문/금문' 논쟁에서 이미 나타난 바 있다. 진시황의 분서갱유 이후 사라진 경전들을 새롭게 재구성하였고, 그렇게 나온 금문 경서로 연구를 한 세월이 오래되어 그것을 지지하는 이들이 다수가 되면서 이제 그 경전 또한 하나의 역사적 진실로 인정받게 되었다. 뒤늦게 그 이전의 경전이 나왔지만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유일한 경전이 아니게 되었다.

▣ 한(漢)나라의 금고문(今古文) 논쟁

진나라의 분서갱유로 마시경온 마서경온등 유가 경전 대부분이 파괴되고 소실되었다. 한나라 건국 초기부터 끊어진 학문을 회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유학 경전의 정리가 시작되었다. 주로 진나라 때 살아남은 박사와 유학자들의 암송을 글로 정리했는데, 당시의 글씨인 예서체로 써서 책으로 묶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문경(今文經)'이라 불렀다.

고문경(古文經)은 서한 말년에 나타났다. 고문 경학에서 근거로 삼은 경전은 진나라 이전의 글씨인 고문으로 쓴 것이기에 '고문경'이라 불렀다. 고문경전은 세 가지 종류이다. 하나는 한무제 때 노공왕(魯恭王) 유여(劉余)가 공자의 옛집을 허물 때 얻은 『일례(逸禮)』, 『고문상서(古文尙書)』이고, 두 번째는 한성제(漢成帝) 때 궁중의 비밀 장서를 정리하면서 발견한 『좌씨춘추』이며, 세 번째는 민간에서 얻은 것으로 노(魯)나라의 환공(桓公), 조(趙)나라의 관공(貫公), 교동(膠東)의 용생(庸生)이 소장한 고문경전이다. 새로 발견된 고문경전은 글자가 금문경과 달랐을 뿐만 아니라 문자가 더 많거나 달랐으며 어떤 경서의 편장은 금문보다 더 많았고, 어떤 경전은 금문본에 없는 것이었다.

금고문 학파는 경전을 연구하는 방법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금문경 학자들은 유가 경전을 자기들의 정치 견해를 발표하고, 옛 것에 의해 제도를 개변시키는 도구로 삼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전의 진위에 대한 고증과 경전 본의에 대한 탐구를 중시하지 않았고 통치계급의 수요에 적응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들은 경전을 해석할 때 음양、명가、법가의 사상을 모두 흡수하여 그것을 경전의 뜻에 가져다 맞추었고 옛 사람들의 '미묘한 언어와 원대한 뜻(微言大義)'을 설명하는 데 신경을 썼으며 자의적으로 경전을 해석하였다.

고문경 학자들은 이와 반대였다. 그들은 유가 경전을 역사적 자료로 삼았기에 경전을 엄격히 지켰다. 경전의 뜻이 명확해야 성인의 도(道)가 명확해질 수 있다고 인정하였기에 명물 훈고에 착안점을 두고 경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 고문경 학자들은 고대 문헌에 대한 정리 연구를 통해 후세에 믿을 만한 문화 전적을 보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새로운 학술 연구 풍조를 개척했다.

여기에 이르러선 그 '진정성'을 추구하는 태도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구시대적 사고방식이라 폄하될 수도 있다. 한편에선 더더욱 신기술을 외면하고 전통 그대로의 복원을 추구하며 고립을 선택하는 연구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게 전통적 연구 방식의 순수함을 유지하려는 노

력 또한 충분한 의미가 있다. 그들을 구닥다리라고 폄하하는 것도 인문학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가상 세계가 현실 세계를 대체하면서 '진짜'는 오히려 소수자만을 위한 특권이 되고 있다. 많은 것들이 디지털 자료로 대체되면서 원본 자료에 대한 접근은 더 어려워지고 이제 원본은 극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원본을 접하는 것 자체가 큰 특권이 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대체품만을 보며 연구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디지털 자료를 만들기 위한 최첨단 기술들이 과연 인문학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까. 그동안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대상을 연구 주제로 놓을 것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 시대에 여전히 아날로그적 방법을 고수하며 인문학의 본령을 강조하는 연구 또한 분명 그 자리와 가치가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컴퓨터로 원고를 작성하지 않는 인문학자의 비율 정도에 그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다수의 인문학자들은 컴퓨터를 배웠듯이 컴퓨터 프로그램과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을 적어도 이해할 수는 있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에 대해 인문학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새로운 디지털 기술은 인문학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인문학을 재료로 디지털 프로그램을 방법론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인문학은 필연적으로 인문학과 공학 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 가장 소통이 없던 두 집단 간의 소통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으로의 과제 중 하나는 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 두 집단이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의 문제이다.

"'글로벌 · 로컬 · 디지털'의 융합과 고전문학 연구의 미래"에 대한 토론문

차주항(서울대)

흥미로운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소개하시는 주요 개념들의 정의를 내리며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이 글로벌이고 무엇이 로컬, 그리고 두 개념의 합성어인 글로컬에 대해서 노경희 선생님은 한국의 고전문학 관련 자료들이 전산화 되면서 국내 여러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해외로 유출된 자료들을 스캔본이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2000년대 이전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형 디지털 뉴딜을 강조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김대중 정권의 1997년 정보화근로사업 이래로 한국학은 고전자료의 전산화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수천억원의 예산이 20년 넘게 투입되며 엄청난 분량의 한국학 관련 자료들이 전산화 되었습니다. 해외 한국학 기관들도 소장하고 있는 고서들을 전산화 하여 연구자들이 간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석사논문을 준비할때만 해도 UBC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한국문집총간을 한권씩 ILL을 통해서 자료를 접하거나 시애틀까지 4시간 정도 국경을 건너는 출장을 가서야만 자료를 한권씩 천천히 볼 수 있었는데 그 해에 한국문집총간의 온라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연구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노경희 선생님도 비슷한 경험을 소개해 주셨고 참석해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이 없이는 코로나19 시대에 거의 모든 연구활동이 중단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디지털이 무엇이고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는 고전문학 연구가 무엇인지 잠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는 인문학 연구의 전통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주로 방법론 위주로 소개됩니다. 그 기원을 파해쳐보면 영문학에서는 1940년대에 버클리 대학에서 여교수로는 처음으로 테뉴어를 받으신 Josephine Miles 교수님을 중시합니다. Miles 교수님은 여성으로 구성된 대학원생 연구팀을 동원해서 아일랜드 시인들의 작품을 punch card 기술을 이용해 전산화 하여 통계분석을 이용한 문학 연구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엄밀히 말해 디지털 방법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computational literary studies라고 자리잡고 있는 디지털 인문학의 한 갈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역사학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디지털 매체의 특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고전 자료를 전산화 하여 제공하는 플랫폼과 서비스를 강조해 왔습니다. George Mason 대학의 Center for History and New Media가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분과학문을 주도해 왔고 한국에서도 한국학중앙연구원을 중심으로 고전자료의 시맨틱 정보를 추출하고 온톨로지 설계를 중시하며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도 해외의 이런 흐름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이러한 갈래는 노경희 선생님의 발표문에서도 강조하신 점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갈래를 추가로 소개하고자 하는데 노경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고전문학'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古典이 한국 말 그대로 옛날인 전근대 작품을 지칭하는 용어인지 영어의 canon의 번역어인지에 따라서 고전문학의 범위가 달라지겠습니다. 디지털인문학은 20세기 이전의 자료들을 디지털이라는 신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전산 방법론인 텍스트 분석, GIS, 네트워크 분석, 머신러닝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언급하지 않는 두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지털 자료로 구성된 21세기 문화의 연구입니다. 고전의 범위가 21세기 현대사회까지 포괄적으로 정의된다면 노경희 선생님이 소개하신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하는 자료의 신빙성 연구, 자료의 물성 연구,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과 현실의 구분에 관한 연구가 중요해집니다.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글로벌하게 진행하는 디지털인문학 연구가 활발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하신 PTM, infrared spectrophotometer 등의 융합연구가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주요 디지털인문학 프로젝트들, 미국 Shoah Foundation의 360도 자료 수집 방식 등이 국내 연구자들에 소개되면 좋겠습니다.

링크
Josephine Miles: https://en.wikipedia.org/wiki/Josephine_Miles
UCL Digital Humanities: https://www.ucl.ac.uk/digital-humanities/projects
UCL Deep Imaging of Egyptian Mummies:
https://www.ucl.ac.uk/digital-humanities/projects/deepimaging
Mobile forensics: https://en.wikipedia.org/wiki/Mobile_device_forensics
USC Shoah Foundation: https://sfi.usc.edu/dit
Paul Vierthaler's PCA of Ming-Qing corpora: https://www.pvierth.com/pca
Paul Vierthaler's survey of DH and East Asian Studies:
https://onlinelibrary.wiley.com/doi/full/10.1111/hic3.12628
Suspected Han Feizi chapter in Zhan'guo ce:
https://tsangchungshu.medium.com/someone-spoke-to-the-king-in-zheng-using-high-tech-methods-to-solve-an-ancient-chinese-mystery-93cc433aeb6c

세계화시대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

권혁래(용인대)

<목차>

1. 왜 옛이야기를 연구하는가?
2. 선행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
3.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방법론
   3.1. 한국옛이야기의 형성과정과 장르적 정체성
   3.2. 한국옛이야기집의 편찬사와 편찬시각
   3.3. 한국옛이야기의 문화담론과 세계화시대의 연구전망
4. 맺음말

1. 왜 옛이야기를 연구하는가?

옛이야기는 오랫동안 구전되어온 민담 및 문헌설화 중에서 개인 작가가 일부 작품을 선택하여 당대 독자의 취향과 수준에 맞게 가공・재화(再話)하여 출판한 근대서사 장르다. "어린이를 위하여 설화를 가다듬어 쓴 글"이나[12], 민담을 저본으로 한 아동문학, 설화의 일부인 전래동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옛이야기의 문학적 정체성은 무엇일까? 민담의 일부인가, 아동문학의 동화 장르인가, 이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장르인가, 아니면 민담의 원 텍스트를 자의적으로 풀어쓴 상업적 출판물인가? 이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하기란 쉽지 않다. 옛이야기는 앞에서 거론한 여러 문학 갈래의 속성이 중첩되어 있고, 근대라는 출현시기와 연관되어 문학적 성격 및 기능이 파악되기 때문이다.

전래동화[13]는 용어는 다르지만, 옛이야기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근대 초기에는 '동화'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했다.[14] 현재에도 민담과 전래동화, 옛이야기는 혼용되기도 한다. 옛이야기와 전래동화, 동화, 민담 등의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에는 '옛이야기'가 대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세계화시대에 이에 대칭되는 영문 용어로는 Folktales, Fairy tales, Old tales, Old stories, Yet-iyagy(Ancient story), Yet-iyagi 등이 쓰이고 있는데, 어떤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옛이야기는 활용 및 기능 면에서 근대 이전까지 민중들 사이에서 구전된 설화 또는 민담 장르와 구별된다. 옛이야기는 전 근대의 수많은 민담 중에서 의미 있다고 여긴 특정 주제나 소수의 작품이 근대 시기에 특정인의 채록·편집·출판을 통해 서승(書承)되면서 유통되는 점이 특징이다. 전 근대 및 근대시기까지 구비설화, 민간설화라는 이름으로 구전된 '민담'과 달리,

12) 이지호는 옛이야기를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되, 어린이를 독자로 상정하여, 개인 작가가 글로 쓴 서사물'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선 다음의 논저를 참고할 것. 이지호,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 집문당, 2006, 15~24쪽; 「옛이야기와 서사 장르 체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6, 2010, 103-109쪽.
13) 『조선전래동화집』(박영만, 1940)
14) 『조선동화집』(조선총독부, 1924), 『조선동화대집』(심의린, 1926) 등

'옛이야기'는 명백히 근대문화의 산물이자 상업적 출판물이다. 해방 이후 한국의 옛이야기는 각종 출판사에서 수백 종이 넘는 책이 출판된 인기 있는 어린이문학이자, 상업적으로도 검증된 출판 레파토리다.

옛이야기는 근대의 어린이 및 외부인[외국인]들에게 한 집단의 공동체문화 및 가치관을 효과적으로 전승·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는 텍스트이다. 이런 까닭에 옛이야기는 교과서에 수록되어 어린이에게 전 근대문화의 원형과 가치관을 전달하고 교육하는 문화 텍스트로 기능해 왔다. 이에 따라 고전문학, 아동문학교육 등의 분야에서 옛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옛이야기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서사 및 교훈성 있는 주제를 갖춘 작품이 많기에 당당히 아동문학의 한 자리를 차지한다. 어린이들은 옛이야기의 단순한 서사와 직선적 성격을 지닌 주인공에 감응한다. 이런 점에서 옛이야기는 아동문학 → 동화의 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작가가 원작 민담의 화소 및 서사를 변형시키면서까지 이야기에 변화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옛이야기는 창작동화와 구분된다.

한국의 전설, 민담은 18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서양인들이 한국의 설화를 소개하는 목적과 함께, 일본인들이 조선의 풍속과 민심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하였다.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에서는 이중에서 25편의 작품을 다듬어 1924년 『조선동화집』을 출판하였고, 일부 작품은 소학교 교과서에 실어 조선아동의 윤리교육에 활용하였다. 심의린, 손진태, 박영만 등의 한국인 연구자들은 한국의 민담을 보존하고, 아동들의 계몽을 위해 설화를 수집하거나 옛이야기로 개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망각되었다가 2000년 이후에 발굴·번역되고, 이에 대한 연구 또한 2000년 이후에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옛이야기는 전대에 조사·출판된 목록을 바탕으로 주로 '전래동화'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까지는 단권 위주로 출판되었다. 1980년대에 한국전래동화전집(창작과비평사 등)이 나오고 각 지역에서 조사한 민담이 옛이야기집 목록으로 들어오면서 옛이야기 작품의 총량이 대폭 늘었다. 1990년대에는 프뢰벨, 창비, 웅진 등에서 전래동화전집과 그림책 시리즈를 대량으로 발매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영어전래동화, 전래동화를 통한 외국인들의 한국어교육 활용, 다문화동화 출판, 개성 있는 전래동화 그림책, 옛이야기 전자책의 발간 등 다양한 스타일의 옛이야기 출판이 돋보인다.

근·현대 130년 동안, 민담을 저본으로 한 옛이야기 쓰기 및 그림책 출판, 미디어 스토리텔링 작업, 옛이야기의 교과서 수록 및 학교교육 등의 방식으로 옛이야기는 어린이들의 정서와 상상력 발달, 교양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의 옛이야기 작가 및 설화연구자들은 각 시대의 요구 및 연구역량에 맞춰 민담을 비롯해 전 근대 서사문학 작품을 발굴·선택하고 해석 및 글쓰기 작업을 하며 아동문학계, 교육계, 문화산업 분야에 텍스트를 공급해오고 있다. 이 연구주제는 고전문학, 국어교육학, 아동문학, 아동문학교육학, 문화콘텐츠학 등 어느 학문 분과에 해당되는 것일까?

옛이야기의 문학적 성격이나 비교연구, 문화·교육적 기능, 활용 등에 대한 연구는 학문 분야 및 연구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연구주제가 발견된다. 2000년 이후로 민담, 아동문학, 유·초등교육 등의 개별 학문분야에서 이에 관한 학술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는 옛이야기의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옛이야기는 문학적 정체성, 활용 및 기능, 전승사 및 연구시각 면에서 논쟁적 주제가 적지 않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주요 선행연구 성과를 검토한 뒤, 한국옛이야기의 장르적 정체성, 옛이야기의 전승·편찬사와 편찬시각, 한국옛이야기의 문화담론과 세계화시대 연구전망 등의

항목으로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선행연구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

한국옛이야기[전래동화]에 관한 주요 연구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목록이 파악된다.

①손동인, 『한국전래동화연구』, 정음문화사, 1984.
②최인학,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 출판부, 1994; 『한국민속의 세계 7:설화·민속언어』, 「동화」,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③최운식,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1988; 최운식·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④권혁래, 『조선동화집』의 번역·연구, 집문당, 2003; 『일제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⑤大竹聖美, 『근대 한·일 아동문화와 문학관계사, 1895-1945』, 청운, 2005.
⑥이지호,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온 집문당, 2006.
⑦김환희,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2007.
⑧신헌재, 『아동문학과 교육』, 박이정, 2007.
⑨노제운, 『한국전래동화의 새로운 해석: 정신분석적 접근』, 집문당, 2009.
⑩김영순, 『한일아동문학 수용사 연구』, 채륜, 2013.
⑪김광식,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이시준 공저), 제이앤씨, 2014;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일본인의 구비문학 조사와 조선인의 대응』, 민속원, 2015;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2』(이시준 공저), 제이앤씨, 2016; 『근대 일본의 조선 구비문학 연구』, 보고사, 2018.

이상의 주요 선행연구를 연구자,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 중심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970-80년대에 손동인①, 최인학②은 '전래동화'란 이름으로 작품집을 발간하였고, 전래동화에 대한 전반적 연구는 손동인이 시작하였다. 1980-90년대에는 최운식·김기창③이 설화와 초등국어과 교육과 연관하여 전래동화 연구를 하였다. 2000년대 들어 김환희⑦, 오타케 키요미⑤, 권혁래④, 이지호⑥, 신헌재⑧, 노제운⑨, 김영순⑩, 김광식⑪ 등이 그 뒤를 이어 새로운 경향의 옛이야기 연구성과를 내놓았다. 개별 논문은 고전문학, 구비문학, 아동문학, 유아교육, 일본문학 등의 전공자들에 의해 2000년대 초부터 발표되고 있다.

김환희, 이지호, 신헌재 등은 어린이문학교육과의 관계에서 옛이야기를 연구하였다. 오타케는 한일아동문학사의 관계에서 일본인 연구자들에 의한 조선동화집 편찬에 관해 연구의 선편을 잡았다. 오타케의 연구는 일제시대에 출판된 옛이야기집의 실체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옛이야기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관점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영향받아 권혁래는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이야기집(朝鮮物語集)』,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을 번역·소개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 등을 발굴하여 근대 옛이야기의 형성과정을 살폈다. 김광식은 식민지시기 일본어로 된 한국설화·동화자료에 관해 심도 있는 연구를 하였다. 노제운은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옛이야기의 서사와 인물 성격을 분석하였다. 김영순은 일본아동문학 연구자로서 일본동화가 한국의 근대동화에 끼친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였다. 이중,

손동인, 최운식·김기창, 최인학, 이지호, 권혁래. 김광식의 연구성과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손동인(1984)의 ①『한국전래동화연구』는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한국전래동화에 관해 종합적으로 고찰한 최초의 본격 연구서이다. 그는 전래동화의 족보를 민간설화에서 구하고, 민간설화의 속성을 따라 전래동화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전래동화의 주제와 구성에 대해서는 고대소설의 속성을 공유한다고 하였다. 민담이나 전래동화의 서사의 특징을 양적 연구방법-통계적 분석-을 통해 강자와 약자의 대결에서 강자는 패망하거나 실패하고, 약자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견강부약의 법칙'이라고 하였다. 또한 위트, 유머, 풍자, 판타지의 미학을 상세히 논하였다. 저자는 전래동화 연구의 이론적 바탕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담, 고대소설 등 인접 장르에서 논리를 구하고 '견강부약의 법칙'을 중심으로 전래동화 고유의 미학을 파악했다. 손동인은 옛이야기의 실체를 드러내었는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관적인 면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나오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최운식·김기창(1998)은 ③『전래동화교육의 이론과 실제』에서 전래동화의 장르적 속성에 대해 구비문학상의 위치[전래동화와 설화], 아동문학상의 위치[아동문학 갈래와 전래동화, 창작동화와 전래동화]를 논하며 전래동화의 이론적 바탕을 기술하고, 유·초등교육에서 전래동화 교육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전래동화 개별 작품론과 비교문학적 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제6장 '우리 나라 전래동화와 외국 전래동화의 비교'에서, 전래동화의 변화 요인과 법칙을 다루며 「나무꾼과 선녀」, 「콩쥐팥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세계 각지에 전승되는 외국의 작품과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이다.[15] 한국의 전래동화를 일국주의적 관점이 아닌, 국제비교 관점에서 연구한 방법론은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무꾼과 선녀」 연구에서는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몽골, 독일, 메소포타미아 등에서 전승되는 「백조처녀」를 소개하며, 구성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콩쥐팥쥐」 연구에서는 「콩쥐팥쥐」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고, 독일, 중국, 베트남, 포르투갈에 전승되는 「신데렐라」 텍스트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연구에서는 작품의 전승, 구조와 의미를 파악하고, 일본, 중국, 몽골, 독일 등에 전승되는 「늑대와 새끼양들」의 텍스트를 소개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부록에 붙인 전래동화 발간목록, 전래동화 100화의 전래동화집 수록현황, 전래동화집 발행현황과 개선점 등은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쓰였다.

최인학(2001)은 1980년대부터 한국민담의 유형연구, 한일민담의 비교연구, 옛이야기집 발간 등의 작업을 했는데, 옛이야기에 관한 독립적 저술은 2001년 ①『한국민속의 세계 7: 설화·민속언어』, 「동화」편이 처음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옛이야기를 설화의 한 갈래로서 '동화'라 호칭하고, 동화에 대해, 옛날이야기가 기록된 이상, 이미 과거의 민담의 기능은 상실된 것이며. 다만 민중의 문예적 측면을 연구하는 자료로서만이 그 가치는 존재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화를 해도 좋고, 민담을 자료로 해서 안데르센처럼 창작을 해도 좋지만, 민담으로서 전승시키려면 재화나 개작을 할 때, 고쳐도 좋을 부분[자유부분]과 고쳐서는 안 되는 부분[모티프=화소]이 있으며. 모티프를 바꿔버리면 재화가 아니라, 창작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1924년부터 1980년까지 발간된 동화집에서 우리나라의 아동을 위한 동화 화형을 267개 추출하였다. 이 동화 화형에 대해 스티스 톰슨의 민담유형분류법을 한국옛이야기에 적용하여 동물동화, 인간동화, 웃음·재간·바보동화, 형식·신화·보유적 동화, 총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옛이야기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 유형분류안인데, 이를 보완하거나 발전시키는 후속 연구는 나오지 않고 있다.[16] 2009년에는 자신이 소장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을 역주하여

15) 최운식·김기창(1998), 285-348쪽.

출판하였는데[17], 이 전까지 이 작품이 한 번도 학계에 공개되지 않았던 점을 생각하면 그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인학보다 몇 개월 앞서 신원기는 일본 교토의 어느 대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을 발굴해 출판하였다.[18]

이지호(2006)는 ⑥『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에서 옛이야기의 개념과 본질을 집중적으로 논한 뒤,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과의 상관성을 논하였다. 그는 옛이야기의 개념에 대해, "어린이를 위하여 설화를 가다듬어 쓴 글'을 설화나 전래동화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동문학의 범주에서 '옛이야기'라는 장르 용어를 '전래동화'의 대체어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또한 옛이야기의 본질을 '욕망의 미학'으로 규정하고, 환상성, 옛이야기 속의 어린이 형상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해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옛이야기의 욕망의 미학을 창조적으로 계승해 동화의 지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 책은 옛이야기의 개념과 장르 본질, 속성을 어린이문학과 연관하여 합리적으로 논증한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민담에서 탄생한 옛이야기의 형성과정, 식민지시기의 옛이야기 등 옛이야기의 역사성과 개별 작품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권혁래(2013)는 『일제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에서 다카하시 도루(高橋亨)의 『조선이야기집』(1910), 조선총독부의 『조선동화집』(1924) 등 일본인이 출판한 작품과,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 손진태의 『조선민담집』(1930),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1940) 등 한국인이 출판한 작품을 포함해 주요 옛이야기에 대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인들의 조선설화·동화에 대한 연구가 제국주의적 의도에 이뤄진 점을 비판하고, 심의린, 박영만 등의 저작이 이룬 성과를 민족주의 및 아동문학의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김광식(2014, 2015, 2016, 2018)은 한일비교문화사의 관점에서 식민지시기에 간행된 조선동화집(일본어, 한국어) 및 각종 구비문학 자료를 발굴·번역하고, 이에 바탕한 서지·실증적 연구와 함께 일련의 심화연구를 진행하였다.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2014)에서는 식민지 시기 일본어로 된 조선설화집에 관한 기초자료 60건 목록을 제시하고, 옛이야기에 관해서는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이야기집(朝鮮の物語集)』, 1910년대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가 실시한 조선 민간전승 조사, 다카기 도시오(高木敏雄)의 조선민간전승 <조선동화집>, 다나카 우메키치(田中梅吉)와 조선총독부편 『조선동화집(朝鮮童話集)』,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의 『조선동화집(朝鮮童話集)』 등에 관해 소개하였다. 『근대 일본의 조선 구비문학 연구』(2018)에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 '전설 동화 조사' 보고서(1913)와 『조선동화집』 1924), 1920년대 일본어 조선동화집의 개작, 재조일본인의 구연동화 활용과 전개 등 식민지기 조선동화집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하였고, 미와 다마키의 『전설의 조선』, 나카무라 료헤이(中村亮平) 조선전설집의 개작 양상, 재조일본인과 조선 구비문학의 전개 등 식민지기 일본인들이 수행한 구비문학 연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한국의 옛이야기 연구주제 및 방법에 대해, 아동문학적 관점(손동인, 이지호, 김환희), 정신분석학적 해석(노제운), 구비문학·아동문학교육학적 관점(최운식·김기창, 신헌재), 한일비교문학적 관점(최인학, 김영순), 국제비교문학적 관점(최운식), 탈식민주의적 관점(오타케 기요미, 권혁래, 김광식)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 위에서, 필

16) 그는 한국동화 267개 작품의 유형을 동물동화(animal tales; 1~146. 총67화), 인간동화(ordinary folktales; 200~483. 총102화), 웃음·재간·바보동화(jokes and anecdotes; 500~693.4. 총78화), 형식·신화·보유적 동화(formula, mythologocal and unclassified tales; 700~766. 총20화)로 분류하였다.

17) 심의린 지음, 최인학 옮김, 『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년 8월.

18) 심의린 저, 신원기 역해, 『조선동화대집: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보고사, 2009년 3월.

자는 옛이야기의 연구의 주제 및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기한다.

첫째, 옛이야기[전래동화]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용어, 개념을 비롯해, 장르적 정체성에 대한 재정리작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전래동화/옛이야기'용어에 관한 논쟁을 새롭게 고찰, 정리해야 한다. 아동문학이나 초등교육학계에서는 '옛이야기' 용어가 합리적이라고 하나, 출판계에서는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집』(1940)이래 대부분 '전래동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술논문의 경우에도 전래동화 사용빈도가 더 높다. 아울러, 일본의 식민통치와 연관된 옛이야기의 발생·형성에 대한 고찰, 자료의 실상, 유형분류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 옛이야기 연구가 인접 장르인 민담과 어떤 차별점을 갖고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1890년대부터 1945년까지 영어·프랑스어·일본어 등으로 편찬된 책, 한국어로 편찬된 책 등 옛이야기집 자료, 수록작품들의 성격 등 해방 이전에 출판된 자료에 대해 전반적 검토와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해방 이후 21세기 현재까지 옛이야기집이 단권의 전래동화집, 그림책 시리즈, 옛이야기전집, 외국어번역본, 오디오북, 점자책 등의 다양한 형태로 200여 종 넘게 발간·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리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해방 이후 옛이야기의 전승사 및 활용에 대한 학문적 정리·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1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주체와 개인 작가들이 옛이야기집을 편찬하고 활용하면서, 각각의 시대와 간행주체마다 옛이야기에 담긴 한국의 문화·정서, 서사·주제·캐릭터 등 옛이야기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 논의가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학문적 검토가 단절적으로 이뤄져 왔는데, 옛이야기에 관한 문화담론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방법론

3.1. 한국옛이야기의 형성과정과 장르적 정체성

근대 초기 한국옛이야기의 채록과 출판

옛이야기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은 한국옛이야기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하는 일이다. 옛이야기는 민담의 채록·출판 작업에서 비롯되며, 민담을 선택하여 근대적 용도에 맞춰 글쓰기[다시쓰기]하면서 탄생한 장르이다. 정의의 방식으로 다시 기술한다면, 옛이야기는 '당대 독자[주로 어린이]'의 취향에 맞춰 '민담'을 '다시쓰기'한 근대서사 장르이다. 민담의 채록·출판 작업은 근대문화적 현상이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등의 유럽국가와 일본의 경우, 옛이야기는 19세기~20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근대문화적 수요에 의해 민담을 조사·출판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문학으로 만들어졌다. 근대의 새로운 출판·미디어 환경과 교육·독서 환경 속에서 어린이들이 읽을 문학 텍스트와 교육용 교재가 필요했다.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민족공동체의 삶과 전 근대문화를 담은 민담이 저본으로 채택되고, 민담의 문장을 고쳐쓰고, 일부 화소를 개작하는 방식으로 옛이야기가 탄생했다.

독일의 그림(Grimm) 형제가 1812년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Kinder und Hausmärchen)』를 출간한 이래, 이탈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 등의 유럽국가, 그리고 동양의 일본까지 세계 곳곳에서 민담은 민속학, 또는 어린이문학[어린이를 위한 문학]의 관심에 기초해 수집·정리되었다.

이에 비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국가의 옛이야기는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외부 사람들의 손에 의해 조사·채록·출판·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과 대만을 비롯해, 네덜란드, 스페인·미국, 영국 등으로부터 300년 이상 식민 지배를 받은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인도 등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구비문학 및 민속은 20세기 초 제국주의 국가의 민속학적 관심이 있는 학자나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채록되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한국의 옛이야기는 18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20세기 초에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외국인 연구자, 그중에서도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주로 채록·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서양어>

Allen, Horace Newton, *Korean Tales*, New York, 1889.

Garin, N.G., *Koreanische Märchen,* 1898.

Griffis, William Eliot,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New York, 1911; *Fairy Tales of old Korea*, London, 1912; 1923; 1925.

Gale, James Scarth, *Korean Folk Tales*, London, 1914.

Garine A., *Contes Coréens*, Paris, 1925.

Homer B. Hulbert, *Omjee the Wizard*, 1925.

Eckardt, Andeas,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rungen zwichen Halla und Pältusan*, Oberbayern, 1928.

<일본어>

高橋亨 저,『조선이야기집과 속담(朝鮮の物語集附俚諺)』, 경성: 日韓書房, 1910.

『傳説童話調査事項』,『朝鮮傳説及童話』(朝鮮總督府學務局 調査報告書), 1913.[19] 필사본

高木敏雄 저,『신일본교육옛이야기(新日本教育昔噺)』, 東京: 敬文館, 1917.

朝鮮總督府(田中梅吉) 저,『朝鮮童話集』, 경성: 朝鮮總督府, 1924.

松村武雄 저,『日本童話集』(世界童話大系 16 日本篇-朝鮮·台湾·アイヌ童話集), 東京: 世界童話大系刊行會, 1924.

中村亮平 편,『朝鮮童話集』, 東京: 冨山房, 1926.

渋沢青花,『朝鮮民話集』, 1927(미발매)[20] ; 東京: 社會思想社, 1980,

田中梅吉 외 편,『日本昔話集 下 朝鮮篇』, アルス, 1929年4月, 東京, <朝鮮篇について>.

孫晉泰,『朝鮮民譚集』, 東京: 鄉土研究社, 1930

金海相德(金相德) 편,『半島名作童話集』, 경성: 盛文堂書店, 1943.

---

19)『전설동화 조사사항(傳説童話調査事項)』은 1913년에 조선총독부 학무국 편집과(조선총독부 편찬 교과서를 만들던 주무부서)가 조선의 각 도·군에 <朝鮮傳説·童話>를 보고하도록 해, 당시 편집과의 편집서기였던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가 담당했다고 판단되는 보고서 철이다. 함경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경기도의 일부 자료가 현재 남아 있다. 이 자료는 부산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가 현재는 행방을 알 수 없는데, 강재철 교수가 자신이 소장한 복사본을 번역·영인해 출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고할 것. 강재철,『조선전설동화』상·하,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김광식,「일본 문부성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구비문학 조사와 그 활용 -1910년대, 1920년대 편집과 관계자의 경력을 중심으로」,『연민학지』20, 연민학회, 2013.

20) 이 책은 東京第一出版協會에서 1927년에 출판할 예정이었는데, 출판사가 망하면서 간행되지 못했다. 그 자료가 1980년에 출판되었다.

<한국어>
심의린, 『조선동화대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한충, 『조선동화 우리동무』, 예향서옥, 1927.
심의린, 『실연동화집』, 이문당, 1928.
박영만, 『조선전래동화집』, 학예사, 1940.

서양인들이 기록한 옛이야기는 미국 선교사 알렌이 1889년 조선에 체류하면서 기록한 『한국 이야기』와 러시아인 N. G. 가린 미하일로프스키가 1898년 여순항을 통해 조선에 들어와 조선인 안내인을 통해 듣고 기록한 『한국옛이야기』 등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된 작품집이 7-8종 남아 있다. 이 작품들은 서양인들이 한국의 풍습과 문화를 관찰하고 보고하기 위해 민담을 듣고 기록한 것이다.

1910~20년대인 조선총독부 관료와 일본인 연구자 및 작가들은 식민지 조선의 풍속·민정을 파악하고 식민지 아동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써, 또는 제국일본의 확장된 민담을 과시하기 위해 조선의 민담·전설·속담 등을 조사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민담을 선별·개작하여 일본어로 된 『조선동화집』을 출판하고, 몇몇 작품은 소학교 교과서에 수록해 식민지아동교육에 활용하였다. 일본어로 번역한 조선의 민담·전설은 일본의 성인·아동들에게 일본동화의 하나로 제공되어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을 고무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국인이 직접 자국의 민담을 채록해 옛이야기로 출판한 것은 1926년 한글 연구자이자 사범학교 교사인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이 처음이다. 일본 와세다대학에서 민속학을 공부한 손진태는 자신이 직접 한국의 민담을 조사·채록해 『조선민담집』(日本語, 1930)을 발간하였다. 작가이자 와세다대학 영문과에서 수학한 박영만은 자신이 직접 조사한 조선 전역의 민담을 비롯해 동화로 재화하여 『조선전래동화집』(1940)을 출판하였다. 이들 소수의 한국인 작가 및 연구자들은 한국의 아동들에게 민족문화와 한글을 교육하기 위해 민담을 채록하고 동화로 개작하여 출판하였다.

식민지시기 한국옛이야기는 민담의 채록·출판과정에서 형성·파생되었는데,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처음부터 민담을 명확히 아동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선집·다시쓰기 작업을 한 작품집이 있는가 하면(조선동화집, 조선동화대집, 조선전래동화대집 등), 어른들과 외국인들을 독자로 삼아 민담·문헌설화 등을 번역한 작품집(알렌, 가린, 高橋亨 등), 민담을 창작[개작]하거나 그대로 수용한 경우가 혼재된 작품집(한충의 『우리동무』[21]), 채록한 민담의 원 형태(출처 포함)를 유지하려 한 작품집(손진태 등)이 있다. 근대 초기에 출판된 서양어/일본어/한국어 옛이야기 작품집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 없다. 위 목록의 작품들을 읽고 목록 및 내용을 살피며 옛이야기 장르의 개념 및 글쓰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옛이야기의 문학적 성격과 용어

옛이야기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옛이야기를 민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 곧 **'설화'로 보는 관점**이다. 이는 구비문학이나 민속학계의 '민속학(folklore)'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이다. 설화는 다시 신화, 전설, 민담으로 분류되는데, 옛

21) 김경희, 「1920년대 동화집에서 『조선동화 우리동무』(1927)의 위상」, 『아동청소년문학』 19,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15-21쪽.

이야기는 주로 '민담'을 중심으로 한다. 최운식·김기창은 전래동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설화 중 동심을 바탕으로 한 것을 전래동화라고 하고, "전래동화는 **설화의 일부**임이 틀림없다."고 하였다.[22]

둘째, 옛이야기를 **아동문학의 하위범주로 보는 관점**이다. 이지호는 '어린이를 위하여 설화를 가다듬어 쓴 글'을 설화나 전래동화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아동문학의 범주에서 '옛이야기'라는 장르 용어를 '전래동화'의 대체어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23] 또한, 옛이야기의 개념에 대해 "구전설화에 바탕을 두되, 어린이를 독자로 상정하여, 개인 작가가, 글로 쓴 서사물", "옛어른이 즐겼던 이야기를 오늘날의 어린이가 즐길 수 있게 재구조화한 이야기" 등으로 규정하였다.[24] 동화는 구전설화의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 또는 이야기 구조의 관여 요소를 활용하여 작가 자신의 작품으로 창작한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옛이야기는 표현의 목적을 저본 설화의 재미와 교훈을 어린이 독자한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둔다는 것이다.[25] 구광본은 '옛이야기'를 "전 근대의 구전 민담(oral folk tale)과 근대의 전래동화(literary fairy tale)를 아우를 수 있는 장르로 개념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26]

전래동화는 일상적으로 흔하게 사용되어 온 용어인데, 어린이용 옛이야기책에는 전래동화라는 부제가 흔히 발견된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전래동화라는 용어보다 '옛이야기'로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지호, 한명숙, 권혁준, 최원오 등 초등문학교육 관련 연구자들은 '옛이야기'라는 용어를 설화나 '전래동화'와의 개념적 차별성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제안하였다. 신동흔은 여러 저술에서 '민담'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면서도, 현대인들에게 '옛이야기'가 원형적 사고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였다.[27]

현실적으로 1970년대 이래 손동인, 최운식 등을 비롯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전래동화' 용어를 써 오고 있다. 2000년 이후 발표된 학술논문의 제목을 보면, '전래동화'가 여전히 '옛이야기'보다 두 배 이상 많이 쓰이고 있다.

옛이야기의 유형과 분류

옛이야기 및 민담의 분류는 스티스 톰슨, 최인학, 조희웅, 조동일, 최운식, 신동흔, 이지호 등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각각의 분류안을 검토한 결과, 민담에 관한 톰슨의 3분류법, 최인학의 민담 및 동화 4분류법, 조희웅의 설화 5분류법, 신동흔의 민담 3분류법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옛이야기의 유형을 독자적으로 분류한 경우는 최인학의 동화 4분류법이 있다. 최인학은 동물동화, 인간동화, 웃음·재간·바보동화, 형식·신화·보유적 동화로 분류하였다.

옛이야기 작품들을 민담 분류법에 준해서 분류하고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 민담과는 구분되는 독자적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좋을지 고려해야 한다. 필자는 민담 분류법에 의거해 옛이야기를 분류한다면, 조희웅의 설화 5분류법이 옛이야기에 유용하다고 생각한다.[28]

---

22) 최운식·김기창, 앞의 책, 22-23쪽.
23) 이지호(2010), 93쪽.
24) 위의 글, 103쪽, 113-114쪽.
25) 같은 글, 103-109쪽.
26) 구광본, 「문학 장르로서의 옛이야기」, 『대중서사연구』 25, 2011, 157쪽.
27) 신동흔,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샘터, 2014; 『옛이야기의 힘 : 대담하고 자유로운 스토리의 원형을 찾아서』, 나무의철학, 2020.
28) 조희웅은 설화의 범주에 신화, 전설, 민담을 모두 포함하여, 대분류 항목으로 동(식)물담, 신이담, 일반담, 소담, 형식담의 5개 항목을 두고, 이것을 다시 26개의 소항목으로 하위분류하였다.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21-23쪽.

민담과 달리 옛이야기를 독자적으로 분류한다면, 필자는 환상적 옛이야기, 희극적 옛이야기, 사실적 옛이야기, 동물 옛이야기로 4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해 환상성, 해학성, 현실성, 우의성의 미학에 대해 고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민담 분류법으로 분류한 일반담의 항목은 옛이야기의 성격을 따라 환상적 이야기는 환상적 옛이야기로, 사실적 이야기는 사실적 옛이야기로 귀속시킨다. 민담 분류법에서의 소담은 희극적 옛이야기로 귀속시킨다. 형식담은 작품의 형식 및 표현방식의 특징을 강조해 분류한 것인데, 대체로 희극적 효과(웃음, 풍자)를 유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희극적 옛이야기로 분류해도 좋다고 판단된다. 동물담은 제재와 우언적 성격이 독립적으로 인식되므로 동물 옛이야기로 따로 설정한다. 이렇게 옛이야기를 크게 4분류법으로 분류한 뒤, 각 유형마다 화형이나 주제 중심으로 하위분류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발굴·출판된 옛이야기 작품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주요 작품을 각 유형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다. 작품 수가 대략 1,000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본화형 및 변이 작품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3.2. 한국옛이야기집의 편찬사와 편찬시각

필자는 옛이야기집의 편찬사를 대략적으로, 1)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 2)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3) 198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4) 2000년 이후의 시기, 네 단계로 나눠 편찬의 양상과 편찬시각을 고찰해도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1단계는 옛이야기가 처음 기록·출판되던 근대시기이며, 해방 이후의 시기는 3단계로 나눠 각 시기별로 옛이야기 출판의 편찬의도과 연구시각, 출판물의 내용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RISS 및 온라인 서점 목록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해방 이후 출판된 옛이야기집은 1946년부터 1969년까지 30여종, 1970년대 20여종, 1980년대 약 50종, 1990년대 60여종, 2000년대 약30종, 2010년대 50여종, 총240여 종의 주요 목록이 확인된다.[29]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간행된 옛이야기집은 50여 종이 파악된다. 이 작품집을 중심으로 간행양상을 기술하고, 옛이야기 작품목록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 옛이야기집 간행을 통해 드러난 민족문화 인식의 시각에 대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작품목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소운, *The Story Bag*, Tokyo, 1955.
김상덕, 『한국동화집』, 숭문사, 1959.
이상로, 『한국전래동화독본』, 을유문화사, 1962.
이원수, 『전래동화집』, 현대사, 1963.
최인학 외 4명, 『한국전래동화집』(전5권), 장원사, 1970.
임석재, 『옛날이야기선집』(전5권), 교학사, 1971.
최인학, 『풍자와 우화』, 금성출판사, 1979.

29) 필자가 조사한 발간목록은 전집이나 시리즈는 한 건으로 계산한 것이다. 최운식이 1995년까지 조사한 전래동화집 발간 목록에는 1924년부터 1987년 8월까지 166건, 1987년 9월부터 1995년까지 188건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전집이나 시리즈의 각권의 총량이 포함되어 있다(최운식·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404-415쪽). 이는 필자의 계산법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 목록을 참고하여 다시 발간현황을 파악할 것이다.

1980년~1990년대는 옛이야기가 가장 왕성하게 출판되며 민족주의를 넘어, 탈근대적 문화인식, 상업적 출판의식이 강하게 발견되는 시기이다. 130여 종 작품집을 중심으로 옛이야기집 간행현황을 살피고, 전집·그림책의 대량출판 양상과 탈근대적 문화인식의 시각에 대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다양한 이야기책이 출판되는데, 세계전래동화(프뢰벨), 창비, 웅진, 한국헤밍웨이 등의 출판사에서 활발하게 전래동화전집을 출판하였다. 일부 작품목록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원수·손동인 엮음, 『한국전래동화집』 1-5, 창작과비평사, 1980; 손동인 엮음, 『한국전래동화집』 6-7, 1982; 최내옥 엮음, 『한국전래동화집』 8-10, 1983.
이슬기, 『천년 묵은 지네』 등, 한국전래동화 전20권, 아동문학사, 1984~1986.
이영호 외, 한국의 전래동화 시리즈, 서문당, 1984
김창완 외, 한국전래동화 (1-20), 웅진출판 1985.

2000년대 이후 2020년까지는 약 80종의 옛이야기집이 간행되었는데, 한편으로 옛이야기 기획·편집이 다양화되고 문화인식이 다각화되는 양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초에 나온 몇몇 옛이야기 그림책전집은 50권, 70권으로 구성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2010년대 초부터는 다문화옛이야기 그림책이 출판되면서 아시아옛이야기가 소개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세계 각지의 옛이야기가 새롭게 출판되는 양상이 흥미롭다. 필자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특이한 점들을 메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4-2005년, 한국헤밍웨이, 『마음으로 읽어 주는 한국 대표전래동화』 전70권 구성.
2007년, 랜덤하우스, 한국차일드아카데미 등의 책들이 주로 간행됨
2008년, 한국 삐아제의 영어전래동화, 꼬네상스의 책이 주로 출판되었음.
2009년, 한국 삐아제의 '삐아제 지구별 전래 동화', 고려원북스의 '한국전래동화'가 흥미로움.
2011-2012년, 전래동화를 통한 외국인들의 한국어교육 활용, 다문화동화 출판, 외국의 전래동화 소개, 전자책 발행 양상이 두드러짐.
2011-2013년, 정인출판사의 '색동다리 다문화동화'를 비롯해 보림출판사 등의 다문화동화집 출간이 돋보임.
2013년, 북이십일 을파소에서 출판한 전래동화 그림책이 돋보임.
2014년, 이수미디어, 여원 미디어가 출판한 새로운 옛이야기책 시리즈가 돋보이며, 새로운 작품 목록도 많이 보임.
2015년, 미디어 창비에서 영어한글 옛이야기를 시리즈로 편찬함. 다문화동화를 출간하는 아시안 허브 출판사가 주목됨.
2016년, 한국동화의 영어, 프랑스어 번역서 출간. 삼성출판사에서 다수의 그림책 새로 출판
2017년, 옛이야기 전자책 발간
2018년, 세계의 전래동화를 번역·소개하는 책 출판됨. 한국톨스토이에서 한국고전문학 연구자를 통해 외국의 전래동화를 소개함. 블루래빗도 새로운 책을 출판함.

2000년대 이후 옛이야기집은 대량으로 출판·공급되고, 예전 전집을 재판·중판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이는 한편으로 옛이야기의 선정과 작품구성이 시의성과 개성을 잃고 낡은 용도의 상품으로만 여겨진 현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있다. 『서정오의 우리옛이야기 백 가지』(현암사, 1996)가 2014년 개정판 57쇄, 2020년 개정2판 6쇄까지 출판된 것은 작품구성이 비교적 새롭고, 이야기체 문장으로 바뀐 것에 독자들이 호응한 이유가 크다.

2010년을 전후해 보이는 영어전래동화, 지구별 전래동화·세계전래동화의 번역·편찬, 다문화동화 출판, 영어한글 옛이야기 출판, 한국동화의 영어, 프랑스어 번역·출판, 새로운 작품으로 구성된 옛이야기 출판 등의 사례는 옛이야기 작가와 출판업자들의 옛이야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새로운 수요를 예측해 부응하면서 일어난 일로 파악된다.

3.3. 한국옛이야기의 문화담론과 세계화시대의 연구전망

옛이야기는 각 나라의 기층문화, 정서, 가치관, 생활사, 민속 등을 보여주는 문화자료이다. 옛이야기는 그 자체로 재미있는 읽을거리이자, 각 나라와 민족의 가장 소박한 문화와 중요한 정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매개이다.

한국 옛이야기는 출판 주체, 시대적 분위기, 문화환경 등에 따라 출판의 의도와 옛이야기를 대하는 태도, 해석과 활용 방향이 달라지곤 하였다. 옛이야기 출판과 연구를 둘러싼 문화담론의 주제는 **옛이야기교육론, 비교문학론, 탈식민주의론, 민족주의론, 다문화주의론, 옛이야기 쓰기론** 등이 있다.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세계화시대 옛이야기 연구전망에 대해 필자의 제안을 말하는 것으로 논의를 맺고자 한다.

옛이야기교육론

일제시기부터 현재까지, 옛이야기의 주 활용은 학교교육을 통해 이뤄졌다.[30] 그간 교과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현장, 대학에서의 한국문화교육에서의 활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필자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옛이야기의 문학교육적 기능은 학교교육과 개인의 독서체험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상상력과 문화수용력을 확장시켜 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본다면, 첫째, 어린이 독자들은 옛이야기의 환상적 서사와 시공간을 경험하면서 욕망 충족의 경험을 할 수 있다.[31] 또한 옛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인간상을 인식하고 자기내면의 욕망을 긍정하며, 타인과 공감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어린이 독자들은 옛이야기 감상을 통해 전 근대문화를 수용하고 공동체 감수성을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쓴 다문화옛이야기를 감상하며 다문화를 체험하고, 다문화 수용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어린이 독자들은 한국과 세계 각지의 옛이야기를 읽으며 이문화권과 문화소통을 하고, 상상력의 확장을 꾀할 수 있다. 문학적 경험의 세계가 한국에만 갇혀 있지 않고 이웃나라로 확장되면, 낯선 지역이 친근하게 여겨지며, 처음 보는 사람들과 우호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지구적 상상력(global imagination)이 커진다. 지구적 상상력의 본질은 '관계의 재설정'에

30) 최운식,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1998); 김현희, 『유아문학교육』(1999); 고문숙, 『유아를 위한 문학교육』(1999) ; 박선희, 『유아문학』(2006)

31) 이지호는 옛이야기의 본질적 특성으로 초인적 존재와 보물, 환상의 시공간, 환상과 욕망 충족의 서사를 표현되는 '환상성'을 꼽았다(이지호, 앞의 책, 3장 "옛이야기와 환상성", 157-223쪽). 신동흔은 옛이야기의 '길 떠남'의 서사가 주인공의 여정을 따라가 보며 진정한 독립과 성장, 자아성찰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다(신동흔, 앞의 책, 2014).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인 땅-지구에 바탕하여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다.[32]

비교문학론과 탈식민주의론

1980-90년대 옛이야기의 비교문학은 한국과 일본의 민담을 비교하면서 한일 민담의 유형 및 화형의 동이(同異)를 논하고, 20세기 전반기 아동문학의 영향·수용 관계를 주로 논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식민지시기 일본어로 출판된 高橋亨의 『朝鮮物語集』(1910), 朝鮮總督府의 『朝鮮童話集』(1924) 등을 번역·고찰하면서 이러한 작품들이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고취하고 식민지아동교육에 활용되었다는 점을 적시하고 비판하는 경향이 나타난다.[33] 이러한 연구들은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일본이 수행해온 식민지 조선의 민담·옛이야기 연구 및 교육을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동경학예대 이시이 마사미 교수는 『제국일본이 간행한 설화집과 교과서』(2019)에서, 20세기 초부터 1945년 아시아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하기까지 일본 제국의 관료와 군부는 학자·교사·작가들로 하여금, 한국, 대만과 만주,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남양군도, 인도 등 일본이 식민지배하거나 점령한 지역의 설화를 폭넓게 조사·연구하고 일본민담과 비교연구하도록 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로 수많은 자료가 간행되었고, 교과서와 동화집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옛이야기 출판, 교육 정책을 통해 일본이 천황숭배, 일본정신 교육, 대동아공영 이데올로기를 전파했다고 비판하였다.[34]

탈식민주의는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특수한 경험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역사적이며 국가적인 맥락과 얽혀 있다. 이시이의 연구는 옛이야기에서 식민주의 담론이 한일 양국 관계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옛이야기 연구에서 탈식민주의 관점을 아시아로, 또는 그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 비교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민족주의에서 다문화주의·문화소통으로

일제시기에 한국어로 출판된 심의린의 『조선동화대집』(1926), 박영만의 『조선전래동화출집』(1940) 등을 연구할 때는 한국인 작가라는 이유로 그 작품들을 무조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대로 일본인 작가들이 출판한 작품집은 작가의 의도, 작품구성, 다시쓰기한 양상 등을 모두 불온하게 평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1960-70년대에 한국 옛이야기집 발간이 활발하게 이뤄진 것도 정부가 주도하는 민족문화 건설 열풍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1세기 한국의 안팎을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180만여 명의 외국인 주민들과 살고 있으며, 아시아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외국인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며 살고 있다. 현재의 교류를 매개로 하여 민담·옛이야기의 비교연구의 범위도 일본이나 동아시아에 국한하지 말고, 다문화동화를 비롯해 아시아 전체로 넓혀도 좋을 것이다. 한국은 201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아시아 각국의 일부 옛이야기가 '다문화동화'의 이름으로 번역, 소개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민담 및 옛이야기가 한국의 연구자들과 대학 연구소를 통해 새롭게 연구·번역되며 한국에 소개되고 있다.[35] 민담이나 옛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민족이주와 여행자를 통해 아시아 각국을 유전하며

32) 이문재, 「환대와 지구적 상상력: 2000년대 다문화주의 시를 중심으로」, 『인문언어』 12-2, 2010, 219-253쪽.

33) 大竹聖美, 『한일 아동문학 관계사 서설』(2006), 『植民地朝鮮と児童文化: 近代日韓児童文化·文学関係史研究』(2008); 권혁래, 『일제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2013);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2015)

34) 이시이 마사미(石井正己) 저, 김광식 역, 『제국일본이 간행한 설화집과 교과서』, 민속원, 2019.

이른바, 광포설화를 낳았다. <나무꾼과 선녀>·<백조처녀> 유형, <흥부놀부>·<황금수박> 유형의 선악형제담, 신데렐라 유형, 지하국대적퇴치 설화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아시아 광포설화에 대해 한국의 작품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단편적일 수 있다.

옛이야기 연구에서 한일 비교 및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 한국이 교류하고 있는 아시아국가 및 우리 사회의 외국인주민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아시아의 이해와 문화소통'에 맞추고 옛이야기 연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의 민화를 번역한 민담·옛이야기 자료들(창작과비평), 다문화동화로 소개된 아시아옛이야기 자료(정인, 보림, 아시아 허브 등), 세계민담전집(황금가지) 등을 살피거나, 새롭게 번역된 아프리카 민담집(경희대 아프리카연구센터)[36] 등을 활용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비교연구하며, 각 나라마다 문화상징, 문화코드를 파악하며 세계시민의식을 논하고 문화소통을 할 수 있다면 흥미로울 것이다.

이시이 마사미 교수는 옛이야기 연구에서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가 한일 양국 관계에서만이 아닌, 아시아 식민지 전역에서 작동했음을 고백하였다. 저자가 제시한 논점과 문제의식을 일본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의 연구자들이 받아 제국주의의 논리를 넘어, 자국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21세기 아시아의 평화와 소통, 생태공존을 생각하며 옛이야기 연구를 심화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옛이야기 쓰기론 : 옛이야기 선본 선정과 글쓰기·스토리텔링

옛이야기집 출간은 작품의 총량을 보여주는 전집작업도 중요하지만, 대표성과 예술성을 담보한 작품을 선집해내는 작업이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 선집 작업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좋은 작품을 발굴해 구성할 것인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선본(善本)이란 높은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의미한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평가해 선본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는 논쟁적이다. 그동안 발간된 옛이야기집에서 각편의 누적치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상위 작품의 문학성과 문화적 의미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위에서, 작품의 문학적 가치, 담보된 문화·정서, 재미와 교훈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목록을 작성하고 새롭게 선본을 선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옛이야기 대량공급시대에 오히려 옛이야기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옛이야기 쓰기란, 작가가 저본 설화의 전범이 될 만한 각편을 써서 문학정신을 구현하는 행위이다.[37] 옛이야기 작가와 연구자들은 옛이야기 쓰기 소재와 상상력의 고갈에 대해 고찰하고, 어떠한 옛이야기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어떻게 옛이야기를 쓸 것인가에 대해 고심해야 한다. 옛이야기집, 또는 전집[시리즈] 편찬을 위한 작품의 선정, 저본 설화를 아동을 위한 옛이야기로 쓰는 문제, 표현의 방식에 대해 사례를 선택해 연구해야 한다.

---

35) 연구논저로는 다음과 논문과 책을 참고할 것. 오정미,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의 옛이야기와 문화교육』, 한국문화사, 2015; 신동흔,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다문화 문식성의 질적 심화와 확장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권혁래, 「아시아 동화집 출판과 콘텐츠활용 연구- 아시아인의 상호이해와 교감을 위한 성찰」 -, 『동아시아고대학』 5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서은아, 『(다문화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이해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19. 엘핀스톤 데이렐 지음, 홍명희 역, 『나이지리아 남부 민담들』, 다사랑 2016.

36) 경희대 아프리카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아프리카민담을 번역한 총서를 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품들도 한국에 새로운 민담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다. 이경래·오정숙·윤재학·유재명, 『아프리카의 민담 : 서부 아프리카편』(경희대학교 아프리카연구센터 총서 11), 아딘크라, 2018; 홍명희, 『아프리카의 민담: 중부 아프리카 편』, 아딘크라, 2018; 오정숙·김기국·홍명희, 『아프리카 하우사와 요루바 민족의 전설과 민담』, 아딘크라, 2021.

37) 이지호(2010), 111쪽.

나아가, 민담의 다시쓰기를 넘어, 민담·옛이야기의 개작, 민담·옛이야기를 저본으로 한 창작, 스토리텔링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민담의 화소를 변형하거나 재배치하는 개작방식, 민담 캐릭터[인물, 동물, 신격]를 분석·활용한 새로운 서사 창작방식,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방식[38] 등에 대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이 21세기 세계화, 디지털시대에 민담과 옛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 맺음말

옛이야기는 오랫동안 구전되어온 민담 및 문헌설화 중에서 개인 작가가 일부 작품을 선택하여 당대 독자의 취향과 수준에 맞게 가공・재화(再話)하여 출판한 근대서사 장르다. 옛이야기는 문학적 정체성, 활용 및 기능, 전승사 및 연구시각 면에서 논쟁적 주제가 적지 않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주요 선행연구 성과를 검토한 뒤,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방법론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옛이야기 연구주제 및 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는데, 아동문학적 관점(손동인, 이지호, 김환희), 정신분석학적 해석(노제운), 구비문학·아동문학교육학적 관점(최운식·김기창, 신헌재), 한일비교문학적 관점(최인학, 김영순), 국제비교문학적 관점(최운식), 탈식민주의적 관점(오타케 기요미, 권혁래, 김광식) 등으로 분류하였다.

3장에서는 1) 한국옛이야기의 장르적 정체성, 2) 옛이야기의 전승·편찬사와 편찬시각, 3) 한국옛이야기의 문화담론과 세계화시대의 연구전망, 세 항목으로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옛이야기의 장르적 정체성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옛이야기는 189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20세기 초에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등의 외국인 연구자, 그 중에서도 일본인들의 손에 의해 주로 채록·출판되기 시작하였다. 서양인들은 한국의 풍습과 문화를 관찰하고 보고하기 위해 민담을 듣고 기록하였고, 1910~20년대인 조선총독부 관료와 일본인 연구자 및 작가들은 식민지 조선의 풍속·민정을 파악하고 식민지 아동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로써 조선의 민담·전설·속담 등을 조사했다. 심의린(1926), 박영만(1940) 등은 한국의 아동들에게 민족문화와 한글을 교육하기 위해 민담을 채록하고 동화로 개작하여 출판하였다.

옛이야기의 문학적 성격에 대해서는, 옛이야기를 민간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 곧 '설화'로 보는 관점, 아동문학의 하위 장르로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다. 용어로는 학문적으로는 '옛이야기'를 쓰는 쪽으로 논의가 모아졌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전래동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다. 옛이야기의 유형분류 방안에 대해 필자는 환상적 옛이야기, 희극적 옛이야기, 사실적 옛이야기, 동물 옛이야기, 4분류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제는 지금까지 발굴·출판된 옛이야기 작품목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파악해 주요 작품을 각 유형에 맞춰 분류

38)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trans-media storytelling)이란 헨리 젠킨스(H. Jenkins)가 『융합 문화(Convergence Culture)』(2006)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달하고, 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다수의 스토리들이 매체를 넘나들며 종횡무진 교차될 수 있도록 단일한 스토리 세계를 구축하는데, 민담의 캐릭터와 스토리를 다양한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활용하는 방법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1-48쪽.

하는 것이다. 작품 수가 대략 1,000종이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기본화형 및 변이 작품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이다.

둘째, 한국옛이야기집의 편찬사와 편찬시각에 대해 서술한 내용은 같다. 필자는 옛이야기집의 편찬사를 대략적으로, 1) 19세기 말부터 1945년까지, 2)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 말까지, 3) 1980년부터 1990년대 말까지, 4) 2000년 이후의 시기, 네 단계로 나눠 편찬의 양상과 편찬시각을 고찰하였다. 해방 이후 70년대 말까지는 정부 주도의 민족의식 고양 열풍과 더불어 이원수, 임석재, 최인학 등의 작가·연구자들이 옛이야기 텍스트를 보급하였다. 1980년~1990년대는 옛이야기가 가장 왕성하게 출판되며 민족주의를 넘어, 탈근대적 문화인식, 상업적 출판의식이 강하게 발견되는 시기이다. 전집·그림책의 대량출판 양상과 탈근대적 문화인식의 시각에 대해 기술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90년대에는 다양한 이야기책이 출판되는데, 창비, 웅진, 한국헤밍웨이 등의 출판사에서 활발하게 전래동화전집을 출판하였다. 2000년대 이후 2020년까지는 옛이야기집은 대량으로 출판·공급되는 한편, 옛이야기 기획·편집이 다양화되고 문화인식이 다각화되는 양상이 부각된다.

셋째, 한국옛이야기의 문화담론과 세계화시대의 연구전망에서 기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 옛이야기는 출판 주체, 시대적 분위기, 문화환경 등에 따라 출판의 의도와 옛이야기를 대하는 태도, 해석과 활용 방향이 달라지곤 하였다. 옛이야기 출판과 연구를 둘러싼 문화담론의 주제는 옛이야기교육론, 비교문학론, 탈식민주의론, 민족주의론, 다문화주의론, 옛이야기 쓰기론 등이 있다.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 간력히 설명하고, 세계화시대 옛이야기 연구전망에 대해 필자의 제안을 덧붙였다.

1) '옛이야기 교육론'에 대해,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옛이야기의 문학교육적 기능은 학교교육과 개인의 독서체험을 통해 어린이 독자들에게 상상력과 문화수용력을 확장시켜 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2) 비교문학론과 탈식민주의론에 대해 정리하자면, 1980-90년대 옛이야기의 비교문학은 한일 민담의 유형 및 화형을 비교론에서 탈식민주의의 시각에서 분석·비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탈식민주의 관점을 아시아로 범위를 넓혀 비교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3) 민족주의론과 다문화주의론에 대해서는, 한일 비교 및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 한국이 교류하고 있는 아시아국가 및 우리 사회의 외국인주민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아시아의 이해와 문화소통'에 맞추고 옛이야기 연구의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4) 옛이야기 쓰기론에서는 옛이야기 선본의 선정과 글쓰기 방식이 중요하며, 나아가, 민담의 다시쓰기를 넘어, 민담·옛이야기의 개작, 민담·옛이야기를 저본으로 한 창작, 스토리텔링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해 논하다 보니, 형성과정과 편찬사, 문학적 정체성과 유형 및 용어를 정리하고, 옛이야기에 관한 문화담론 및 연구전망까지 기술하게 되었다. 한 편의 논문에 너무 많은 논점을 담았고, 내용은 소략하며 필자의 생각이나 제안은 거칠게 기술된 곳이 많음을 송구하게 생각한다. 옛이야기집, 연구저서 및 논문 내용을 오독하거나 놓친 부분이 많을 텐데, 보완할 것을 기약한다.

<참고문헌>

1. 기본문헌

강재철,『조선전설동화』상·하,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2.
박영만,『조선전래동화집』, 학예사, 1940; 권혁래 옮김,『조선전래동화집』, 국학진흥원, 2006.
심의린,『조선동화대집』, 한성도서주식회사, 1926; 신원기 역해,『조선동화대집: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보고사, 2009.; 최인학 옮김,『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
심의린,『실연동화집』, 이문당, 1928.
조선총독부 편,『조선동화집』, 조선총독부, 1924; 권혁래 역,『조선동화집』, 집문당, 2003.
한충,『조선동화 우리동무』, 예향서옥, 1927.
高橋亨,『朝鮮の物語集附俚諺』, 경성: 日韓書房, 1910.
『傳説童話調査事項』,『朝鮮傳説及童話』(朝鮮總督府學務局 調査報告書), 1913. 필사본
高木敏雄,『新日本教育昔噺』, 東京: 敬文館, 1917.
朝鮮總督府(田中梅吉) 저,『朝鮮童話集』, 경성: 朝鮮總督府, 1924.
松村武雄,『日本童話集』(世界童話大系 16 日本篇-朝鮮·台湾·アイヌ童話集), 東京: 世界童話大系刊行會, 1924.
中村亮平 편,『朝鮮童話集』, 東京: 冨山房, 1926.
渋沢青花,『朝鮮民話集』, 1927(미발매)[39] ; 東京: 社會思想社, 1980,
田中梅吉 외 편,『日本昔話集 下 朝鮮篇』, アルス, 1929年4月, 東京, <朝鮮篇について>.
孫晉泰,『朝鮮民譚集』, 東京: 鄕土硏究社, 1930
金海相德(金相德) 편,『半島名作童話集』, 경성: 盛文堂書店, 1943.
Allen, Horace Newton, *Korean Tales*, New York, 1889.
Garin, N.G., *Koreanische Märchen,* 1898.
Griffis, William Eliot,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New York, 1911; *Fairy Tales of old Korea*, London, 1912; 1923; 1925.
Gale, James Scarth, *Korean Folk Tales*, London, 1914.
Garine A., *Contes Coréens*, Paris, 1925.
Homer B. Hulbert, *Omjee the Wizard*, 1925.
Eckardt, Andeas, *Koreanische Märchen und Erzärungen zwichen Halla und Pältusan*, Oberbayern, 1928.

2. 연구논저

고문숙,『유아를 위한 문학교육』, 정민사, 1999.
구광본,「문학 장르로서의 옛이야기」,『대중서사연구』25, 대중서사학회, 2011.
권혁래,「아시아동화집 출판과 콘텐츠활용 연구- 아시아인의 상호이해와 교감을 위한 성찰」-,『동아시아고대학』52, 동아시아고대학회, 2018.
권혁래,『일제강점기 설화·동화집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
김경희,「1920년대 동화집에서『조선동화 우리동무』(1927)의 위상」,『아동청소년문학』19, 한

39) 이 책은 東京第一出版協會에서 1927년에 출판할 예정이었는데, 출판사가 망하면서 간행되지 못했다. 그 자료가 1980년에 출판되었다.

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6.
김광식, 「일본 문부성과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구비문학 조사와 그 활용 -1910년대, 1920년대 편집과 관계자의 경력을 중심으로」, 『연민학지』20, 연민학회, 2013.
김광식, 『근대 일본의 조선 구비문학 연구』, 보고사, 2018.
김광식, 『식민지 조선과 근대설화: 일본인의 구비문학 조사와 조선인의 대응』, 민속원, 2015.
김광식·이시준,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제이앤씨, 2014.
김영순, 『한일아동문학 수용사 연구』, 채륜, 2013.
김현희, 『유아문학교육』, 학지사, 1999.
김환희,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2007.
노제운, 『한국전래동화의 새로운 해석: 정신분석적 접근』, 집문당, 2009.
박선희, 『유아문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서성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서은아, 『(다문화 전래동화를 활용한) 다문화이해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2019.
大竹聖美, 『植民地朝鮮と児童文化: 近代日韓児童文化·文学関係史研究』, 2008.
서정오, 『서정오의 옛이야기 백 가지』, 현암사, 1996.
손동인, 『한국전래동화연구』, 정음문화사, 1984.
신동흔, 「새로운 한국어문학으로서 이주민 설화 구술의 성격과 의의-다문화 문식성의 질적 심화와 확장을 위하여-」,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신동흔, 「왜 주인공은 모두 길을 떠날까?」, 샘터, 2014.
신동흔, 『옛이야기의 힘 : 대담하고 자유로운 스토리의 원형을 찾아서』, 나무의철학, 2020.
신헌재, 『아동문학과 교육』, 박이정, 2007.
오정미, 『(다문화사회에서의) 한국의 옛이야기와 문화교육』, 한국문화사, 2015.
오정숙·김기국·홍명희, 『아프리카 하우사와 요루바 민족의 전설과 민담』, 아딘크라, 2021.
오타케 기요미(大竹聖美), 『근대 한·일 아동문화와 문학관계사』, 1895-1945』, 청운, 2005.
오타케 기요미(大竹聖美), 『한일 아동문학 관계사 서설』, 청운, 2006.
이경래·오정숙·윤재학·유재명, 『아프리카의 민담 : 서부 아프리카편』, 아딘크라, 2018.
이문재, 「환대와 지구적 상상력: 2000년대 다문화주의 시를 중심으로」, 『인문언어』 12-2, 2010.
이시이 마사미(石井正己) 저, 김광식 역, 『제국일본이 간행한 설화집과 교과서』, 민속원, 2019.
이시준·김광식, 『식민지 시기 일본어 조선설화집 기초적 연구 2』, 제이앤씨, 2016.
이지호, 「옛이야기와 서사 장르 체계」, 『아동청소년문학연구』 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0.
이지호, 『옛이야기와 어린이문학』, 집문당, 2006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적 연구』, 한국연구원. 1983.
최운식, 『전래동화 교육론』, 집문당, 1988.
최운식·김기창, 『전래동화 교육의 이론과 실제』, 집문당, 1998.
최인학, 「동화」, 김열규 외, 『한국민속의 세계 7:설화·민속언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최인학, 『한국민담의 유형 연구』, 인하대 출판부, 1994.
홍명희, 『아프리카의 민담: 중부 아프리카 편』, 아딘크라, 2018.

"세계화시대 한국옛이야기의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토론문

유정월(홍익대)

이 발표문은 '옛이야기'의 문학적 정체성, 전승사, 연구주제 및 방법론 등 다양한 논점들에 대한 폭넓은 정리와 함께 세계화시대 '옛이야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래동화 출판 현장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과, 근대 설화집에 대한 오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발표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을 질의하는 것으로 토론자의 임무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용어에 대해

'전래동화' 대신 '옛이야기'라는 용어를 쓰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발표문에서 '옛이야기'를 "당대 독자의 취향에 맞춰 '민담'을 '다시쓰기'한 근대서사 장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옛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설화나 민담을 지칭하던 '이야기'라는 단어에 '옛'이라는 관형사가 붙은 것으로, 과거의 이야기라는 뜻만을 가질 뿐, 여기에는 다시쓰기, 재화, 스토리텔링의 개념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발표문에서 보면 다시쓰기의 원천이 되는 설화나 민담을 '옛이야기'라고 지칭한 부분도 있어서(가령 "민담·옛이야기의 개작, 민담·옛이야기를 저본으로 한 창작" 등의 표현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원형, 원천, 저본이 되는 텍스트는 옛이야기로, 그것을 재화하여 출판한 근대적 서사 장르는 '전래동화'로 지칭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이미 발표문에서 전래동화라는 용어가 옛이야기보다 두 배 이상 쓰이고 있다고도 지적하시도 하셨습니다.)

2. 편찬사와 편찬의식에 대해

3.2. 한국옛이야기집의 편찬사와 편찬시각에서 편찬사를 대략 네 개의 단계로 나누고 네 번째 단계(2000년 이후)에서는 외국의 전래동화집이 출판되는 상황을 정리하셨습니다. 세계의 전래동화를 우리나라 독자들이 향유하는 것과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를 세계의 독자들이 향유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발표문은 "세계화시대 한국옛이야기"가 어떤 연구주제와 연구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데 초점이 있는데, 편찬사에서 외국 전래동화의 출간 리스트나 출간 경향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서술하고 있어 좀 의아합니다. 아마도 출판업자들이 외국전래동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출판시각을 논하고자 하신 것인지요? 그렇다면 외국전래동화에 대한 출간을 통해 한국전래동화에 대한 어떤 변화된 관점을 알 수 있는 것인지요? 아울러 이 해방이후 (1)70년대까지 민족주의적 (2)80-90년대: 탈근대적, 상업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너무 소략해서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3. 전래동화집정리와 제언에 대해

이 발표문은 전래동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3.3. 한국옛이야기의 문화담론과 세계화시대의 연구전망에서는 (1) 옛이야기교육론 (2) 비교문학론과 탈식민주의론 (3) 민족주의에서 다문화주의·문화소통으로 (4) 옛이야기 쓰기론: 옛이야기 선본 선정과 글쓰기·스토리텔링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연구전망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 가운데 이미 연구된 사안들이 포함된 듯합니다. 가령 "민담의 다시쓰기를 넘어, 민담·옛이야기의 개작, 민담·옛이야기를 저본으로 한 창작, 스토리텔링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민담의 화소를 변형하거나 재배치하는 개작방식, 민담 캐릭터[인물, 동물, 신격]를 분석·활용한 새로운 서사창작방식,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방식" 등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민담의 다시쓰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화 스토리텔링에 대한 학위논문만 백 여편이 됩니다) 말씀하신 주제들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들을 아우르고 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금 더 예각화된 지점들을 성찰해주셨으면 합니다.

4. "세계화시대" 한국전래동화의 연구에 대해

한국전래동화 연구의 전망은 세계화시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설화 가운데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통 전승된 것도 다수 있어서 한국적 모티프/세계적 모티프 등을 나누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시대 한국전래동화를 논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세계전래동화를 통해 각 나라마다 다른 문화상징, 문화코드를 파악해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문화상징, 문화코드를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국전래동화가 연구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세계화를 염두에 둘 때 전래동화의 교육, 출간, 스토리텔링 등에는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국어 음운론 연구와 언어 유형론

이진호(서울대)

1. 머리말

(1) 국어 음운론 연구의 분위기 쇄신

- 연구의 침체기: 연구자 수의 감소, 주도적 연구 담론 부족 등
- 분위기를 극복할 방법론상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

(2) 언어 연구 방법론적 이점

- formal approach ↔ functional approach
- 유형론은 이론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functional approach에 해당
- 이론에 따른 부침이 적고 실체에 가까운 논의가 가능

2. 음운론과 언어 유형론

(1) 언어 유형론이란 무엇인가?

- 여러 언어의 비교/대조를 통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확인
- 궁극적으로 인간의 언어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분야
- 언어학의 하위 분야는 모두 유형론적 연구가 가능

(2) 음운론적 유형론

- 음운론적 단위와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 모든 음운론적 주제에 대한 유형론적 탐구가 가능하므로 연구 범위는 매우 넓음
- 유형론 연구의 초창기에는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주변으로 밀려난 상황

3. 유형론 도입의 의의

(1) 한국어 음운론의 상대적 특징 파악에 도움

- 대조 언어학의 일환.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의 특징 이해
-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
- 특수성에 초점. 어느 정도 수준이 특수한지를 규정하기 쉽지 않음
- 보편성에 대한 관심도 필요. 이를 위해서는 전체 언어의 경향성이 구체화되어야 함

(2) 이전 시기 한국어의 재구에 참고

- 재구의 결과가 상이할 경우 보편성에 부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가능함
- 현대적 편견의 극복에 기여
- [사례 1] 고대 한국어의 종성에 'ㅎ'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후음은 음절 종성으로 선호되는 유형 중 하나임. 후음을 가진 604개 언어 중 346개 언어가 종성에서 후음이 실현. 종성 실현 비율이 'ʔ'는 73.5%, 'h'는 32.2%. 모두 20위 이내에 속함

- [사례 2] 후기 중세 한국어의 후음 체계는 최대 4개(ㅎ, ㆆ, ㅇ, ㅎ)까지 설정이 가능. 이러한 체계가 유형론적으로 어느 정도 보편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후기 중세 국어의 후음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됨

(3) 계통론 연구에 기여

- 국어와 관련된 언어들의 음운론적 구조를 검토하여 비교하고 이를 전체 언어의 경향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계통론 연구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현대에 이르면서 나타난 변화를 계통론적 시각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

(4) 국어 교육 및 한국어 교육으로의 활용이 가능

4. 유형론 연구의 현황(1): 국외의 경우

(1) 연구의 흐름

- 유형론 연구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30년대부터 언급되기 시작
- 1960년대 이후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료의 축적(UPSID)과 더불어 논의가 진행
- 그 이후에 심화, 발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연구의 한계

- Plank(2018)에 따르면 주요 유형론 학술지에서 음운론 분야는 상대적으로 적음
- 이 분야의 개론서로 인정할 수 있는 저서가 불과 몇 년 전 간행: Gordon(2016)
- Gordon(2016)의 내용도 풍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연구자 수의 부족: 다양한 주제의 연구에 제한
- 언어 자료 수집의 어려움: 광범위한 자료에 기반한 연구의 부재

5. 유형론 연구의 현황(2): 국내의 경우

(1) 국외 상황보다 더 열악

-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이나 저서를 모두 합쳐도 소수에 불과
- 해외 유학파이면서 중견 이상 학자들에 집중

(2) 연구 자료 및 방법론의 한계

- 적극적인 자료 수집과 정리가 부족
- 기존 외국 논의에 한국어가 추가되는 성격의 논의에 국한

(3) 한국어의 특수성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

- [사례 1] 다른 언어에 비해 마찰음이 많지 않다: 전체 언어의 약 50%는 3개 이하의 마찰음을 가진다는 보고에 따르면 현대 국어의 마찰음 수(3개)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님. 오히려 중세 국어의 마찰음(ㅅ, ㅆ, ㅎ, ㅿ, ㅸ, ㅇ, ㆆ)이 매우 많다는 것이 유형론적 특징으로 제시되는 것이 더 타당할지 모름
- [사례 2] 초성에 자음군이 오지 않는다: 다른 언어의 경향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일방적 서술. 실제 조사 결과 698개 언어 중 393개 언어는 자음군을 불허함. 이를 보면 초성에 자음군이 오지 않는 편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군이 온다고 해서 매우 특수한 구조라고 하기도

어려움

6. 음운론적 유형론 연구의 방법

(1) 유용한 웹 사이트: 언어 명칭, 어족 분류, 연구사에 대한 통일된 정보가 필요. 세 가지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대표적 웹 사이트로 두 가지가 있음.

- WALS: https://wals.info/. 몇몇 음운론적 주제에 대한 서술까지 포함. 언어 구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언어의 수(약 2,600여 개)가 상대적으로 적음.
- Glottologue: https://glottolog.org/glottolog/language. 적극적인 업데이트가 지속. 언어를 세분화해서 언어의 숫자(8,400여 개)가 상대적으로 많음.

(2) 중요 참고 도서

- Greenberg, J. ed.(1978), *Universals of Human Language(Ⅱ): Phonolog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논문집. UPSID 기반. 일부 주제
- Maddieson, I.(1984), *Patterns of Sound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개인 저작. UPSID. 전체 포괄
- Gordon, M.(2016), *Phonological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개인 저작. 인용 풍부. 전체 포괄하나 소략
- Hyman, L. & F. Plank eds.(2018), *Phonological Typology*, Berlin: De Gruyter Mouton. 논문집. 가장 최근. 일부 주제.

(3) 자료의 수집

- 지속적이고 꾸준한 자료 수집의 과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대규모 언어 자료에 기반한 연구는 국외에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료 수집 여하에 따라 영향력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음
- 대규모 자료에 근거한 연구는 언어의 실체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보여 주며, 소규모 샘플에 기반한 연구가 빠지기 쉬운 편중(bias)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자료 구축과 연구 결과 도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에 발표할 다른 연구 주제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임

(4) 연구의 결과

- 한 주제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세 가지 유형의 결과물이 도출
- 자료집, 전체 언어의 경향성에 대한 연구 결과,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징에 대한 연구 결과

7. 유형론 연구 사례

(1) 한국어 파열음의 언어 유형론적 특징

- 이진호(2020): 4,356개 언어의 파열음 목록에 기반한 연구
- 기존에 많이 언급되어 왔지만 대규모 언어의 파열음 양상에 기반한 논의는 별로 없었음.
- 파열음은 평균 8개 정도가 존재하며, 이는 전체 자음 평균 개수의 약 40%에 해당. 이에 비추어 보면 한국어의 파열음은 개수(9개)나 비율(47.4%)이 평균을 상회하지만 보편적 경향성

을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기존 논의에서는 한국어의 삼항 대립이라는 양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음.
- 하나의 조음 위치에서 셋 이상의 대립항이 존재하는 언어의 수가 수백 개에 달함

조음 위치 수 / 대립항 수	2	3	4	5	6	계
2	5	890	347	85	7	1,334
3	-	203	116	25	-	344
4	1	59	74	18	1	153
5	-	5	1	-	-	6
계	6	1,157	538	128	8	1,837

- 질적 측면에서의 특수성이 두드러짐: 무성음(그중 하나는 경음)으로만 이루어진 세 개의 대립쌍이 세 개의 조음 위치에서 비례적으로 대립하는 언어는 극소수에 불과

(2) 한국어 종성 체계의 언어 유형론

- 이진호(근간): 795개 언어의 종성 목록에 기반한 연구. 이에 기반하여 한국어 종성 체계를 유형론적으로 고찰하는 저술 집필 중
- 기존에 관심을 가지지 못한 주제임. 국외에서도 종성 체계를 유형론적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음. 어말 자음에 국한한 논의는 국내외에 있으나 이것도 20개 미만의 언어를 대상
- 795개 언어를 종성의 개수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음

종성 개수	언어 빈도	비율(%)	종성 개수	언어 빈도	비율(%)
1	48	6.0	11	48	6.0
2	50	6.3	12	38	4.8
3	41	5.2	13	34	4.3
4	42	5.3	14	34	4.3
5	43	5.4	15	21	2.6
6	78	9.8	16	17	2.1
7	91	11.4	17	5	0.6
8	63	7.9	18	7	0.9
9	51	6.4	19	5	0.6
10	45	5.7	20~36	34	4.3

- 평균적으로 종성에는 8.5개 정도의 자음이 실현되며, 이것은 전체 자음의 약 44%에 해당. 현대 국어의 경우 7개의 자음이 종성에서 실현되며 이것은 전체 자음의 36.8%에 해당. 이를 통해 현대 국어의 종성 체계는 전체 경향성에 비추어 다소 그 규모가 적은 편에 속함. 그러나 7개의 종성을 가진 언어가 수적으로는 제일 많음.
- 종성이 7개인 언어(91개)에서 선호되는 목록은 다음과 같음

종성 목록	언어 수
p, m, t, n, k, ŋ, ʔ	25
p, m, t, n, k, ŋ, ɾ	8
p, m, t, n, ɲ, k, ʔ	6
p, m, t̪, n̪, k, ŋ, ʔ	5

- 7개 종성의 구성을 자음 부류에 따라 구분해 보면 '파열음-비음-후음'의 구성이 39개 언어, '파열음-비음-유음'의 구성이 25개 언어에서 발견되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함.
- 비록 논의를 단순화시킨 것이지만, 이상의 검토를 통해 한국어의 종성 체계는 대체로 언어 보편적인 경향성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8. 맺음말

- 국어 음운론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접근도 필요
- 유형론에 기반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거의 개척 분야라서 연구자들에게 유리한 점도 있지만, 연구 방법 등에 있어서 확립된 것이 없어 애로 사항도 존재
-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움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분야임

9. 주요 참고 문헌

권경근(2006), 국어의 음운론적 유형에 대한 연구, 『우리말글』37, 우리말글학회, 83~108.

김선정(2020), 한국어 어말 종성 발음의 유형적 특성, 『한국학논집』78,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57~186.

이진호(2018), 국어 음운론의 유형론적 연구를 위한 제언, 『한국학연구』51,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429~454.

이진호(2020), 한국어 파열음 체계의 언어 유형론적 고찰, 『어문연구』48-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29.

이진호(근간), 자음의 종성 실현 양상에 대한 언어 유형론적 고찰.

허 용(2011), 한국어 자음 체계의 유형적 보편성 연구, 『이중언어학』45, 이중언어학회, 331~351.

허 용(2013), 한국어 모음체계의 유형적 특성 연구, 『언어와 언어학』61, 한국외대 언어연구소, 175~200.

Gordon, M.(2016), *Phonological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yman, L.(2014), What is Phonological Typology?, *UC Berkeley Phonology Lab Annual Report 2014*, Department of Linguistics UC Berkeley, pp. 101~118.

Plank, F.(2018), An implicational universal to defy: typology⊃¬phonology≡phonology⊃¬typology≡¬(typology∧phonology)≡¬typology∨¬phonology, in L. Hyman & F. Plank eds., *Phonological Typology*, Berlin: De Gruyter Mouton, pp. 21~53.

"국어 음운론 연구와 언어 유형론"에 대한 토론문

이상신(아주대)

본 발표에서는 국어 음운론의 발전을 위한 한 방안으로 언어 유형론을 제안하고 이 국어 음운론의 측면에서 유형론의 현황과 전망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진호 선생님은 이미 여러 논저를 통해 국어학과 국어 음운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제안을 해오셨습니다만, 이번 발표도 국어 음운론 분야의 "연구자 수의 감소, 주도적 연구 담론 부족"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제안이 아닌가 합니다. 본 토론자도 이 발표문을 읽으면서 음운론적 측면에서의 유형론 전반에 대해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본 토론문에서는 질문을 드린다기보다는 몇 가지 몰랐던 점을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 2장에서 음운론적 유형론은 "음운론적 단위와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가 그 대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목하고 계신 분야가 자음 쪽이라 한다면 앞으로의 연구는 모음과 음운 현상이 되지 않을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모음과 음운 현상에서는 특히 어떤 점이 관심사이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존의 대조 언어학 논저들에서는 음운 현상의 비교가 다소 소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 3장 (3)에서는 "현대에 이르면서 나타난 변화를 계통론적 시각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계통론에서 과거의 사실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일반론에 비추어 보면 어떤 예가 위의 언급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같은 3장의 (4)에서 유형론이 한국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언급은 쉽게 이해가 되나 국어 교육에서는 어떤 점이 활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질문은 아닙니다만, 6장의 (3)에서 "자료 구축과 연구 결과 도출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기간에 발표할 다른 연구 주제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적임"이라는 언급은 이 유형론적 연구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연구자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이 비단 유형론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 여러 분야의 연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나 방법 등에 대해 고견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 마지막으로, 잘 몰라서 여쭙는 것이 확실한데, 음운론적 유형론은 주로 음소(음운)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음성적 문제도 함께 고려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음소적 측면이 중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음성의 음소 표시와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또 음성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고려할 점이 너무 많아서 대규모 언어 자료의 정리와 비교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국문법 새로 보기: 정신역학론과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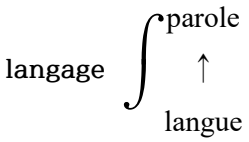
목정수(서울시립대 국문과)

1. 서론
2. 한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통사론과 담화·화용론
3. 통사론 논의에서의 주제어 설정 문제
4.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
5. 결론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형태론과 통사론의 경계를 나누는 단어(=통사 단위)의 지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어 문법의 기본 틀을 재조정/재구성해 보는 데 있다. 또한 통사론과 담화·화용론의 접면/계면(interface)에서 발생하는 담화구조나 정보구조와 관련된 현상에서 통사론이라는 문법의 영역이 담당해야 할 부분과 그 너머, 그야말로 담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주로 소위 '이중/다중 주어 구문'이라고 불리는 구문을 중심으로 '주부(=주어)-술부(=서술어)' 분절과 '토픽-코멘트' 분절의 겹침(공통점)과 어긋남(차이점) 문제, 주어와 주제어/화제어의 구분 문제 등을 논의해 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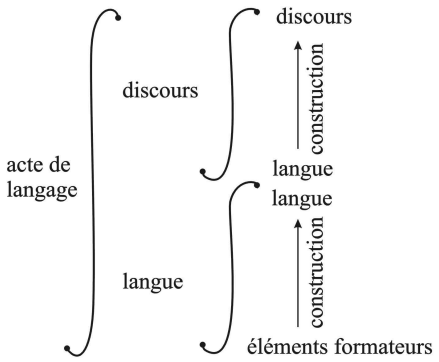
그리고 문장의 생성과 산출에 관여하는 형태론, 통사론, 담화·화용론 차원의 동적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기욤(Guillaume)의 정신역학론적 모델(modèle psychomécanique)을 원용한다. 기욤은 언어활동을 화자의 동적 심리/인지 과정(dynamic psychic/cognitive process)으로 파악하려고 시도한 프랑스의 독창적 언어학자로서, 소쉬르(Saussure)의 '랑가주 = 랑그 + 빠롤'이라는 정적인 공식을 심리작용 시간(temps opératif)이라는 요인을 개입시켜 '랑가주 = 랑그에서 빠롤[1]로의 적분'이라는 동적인 공식으로 전환시켰다. 기욤은 이 공식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Guillaume 1973: 64-72).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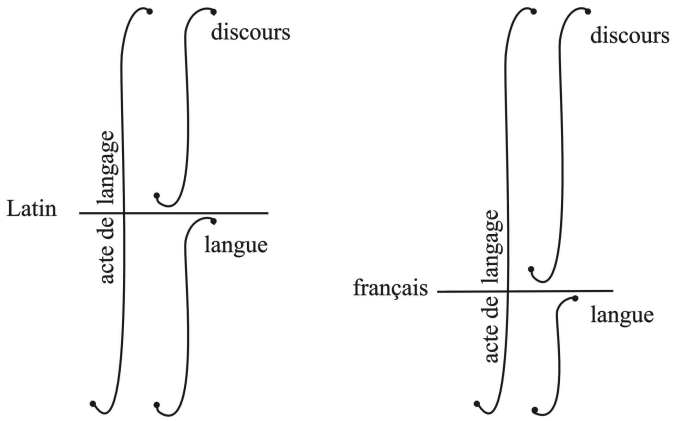
이 모델에 의하면 랑그의 영역이 형태론의 영역이 되고 디스쿠르의 영역이 통사론의 영역이 되는데, 이를 세분해 그리면 다음과 같다(Guillaume 1971: 25).

1) 기욤은 소쉬르의 빠롤(parole)이 음성적인 것에만 한정되므로 문자적인 차원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디스꾸르(discours)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후 기욤의 모델에서는 '랑그-빠롤'의 짝이 '랑그-디스꾸르'의 짝으로 바뀌어 사용된다.



<그림 2>

기욤은 이 모델을 이용하여 굴절적 성격이 강한 라틴어와 교착적 성격인 강한 프랑스어의 유형론적 차이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상했다(Guillaume 1971: 21). 라틴어의 곡용어미(declension)가 없어지면서 프랑스어에서는 전치사와 관사라는 접어적(clitic) 통사 단위가 발달했고, 활용어미(conjugation)가 없어지면서 약세형 대명사라는 접어적 통사 단위가 발달된 점을 상기하면, 라틴어의 랑그의 영역이 상대적으로 프랑스어의 랑그의 영역보다 넓음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

본고에서는 이러한 랑그에서 디스꾸르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국어의 문법요소들, 즉 조사와 어미가 관여되는 영역과 지점을 정확히 위치지음으로써 한국어 형태론과 통사론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드러내고 그 각각의 영역의 소이연(所以然)과 담당해야 할 일들을 정확히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본고의 또 다른 목적은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사실들 하나하나에 대하여 꼼꼼하게 살펴본 후,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해 볼 것이다.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들을 문법요소의 그물망처럼 전체적인 시각에서 엮어보려는 것이다.

2. 한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통사론과 담화·화용론

한국어 문법에서 주어의 문제는 특히 이른바 이중 주어 구문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교착되어 있어 아직도 상당 부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격조사와 통사적 기능의 대응성 문제라든가[2], 통사론적 분석과 담화·화용론적 분석의 접면/계면(interface) 현상과 관련된 층위의 문제라든가, 주어와 주제어의 구분 문제라든가 매우 까다로운 논란거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문장 분석의 기본 단위는 주어(subject), 목적어(object), 서술어(predicate)라는 이른바 필수 성분들이었다. 이러한 성분들의 결합을 일차적으로는 '주부-술부' 관계로 IC(직접성분)분석을 하고, 이차적으로 술부는 '목적어-서술어' 관계나 '보어-서술어' 관계로 IC분석을 했다. 그러나 담화구조나 정보구조 차원에서 나온 '화제(topic)-평언(comment)' 분절 구조, '테마(thema)-레마(rhema)' 분절 구조, '초점(focus)-전제(presupposition)' 분절 구조가 제안되면서[3] 주어와 주제어/화제어가 서로 때론 겹치기도 하고 때론 구분/분리되기도 하면서 서로 착종되거나 혼동되는 등 다양한 양상의 논의/논란들이 전개되고 있다.

본고는 한국어의 기본 문장은 일단 '주술 구조'와 '목술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위에 차원을 달리하여 정보구조의 틀이 덧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문장은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차적으로 서술어의 논항구조(=자릿수=항가=결합가 valency), 기본 어순, 비논항(=부가어adjunct)의 실현을 돕는 후치사(=부사격조사)를 중심으로 한 명제(proposition) 구성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차원이 그 하나이다. 이어 이차적으로 서술어를 완성시켜 주는 종결어미의 실현—화청자 관계와 문장 유형, 서법이 동시에 표현됨—과 더불어 정보구조의 차원에서 주어, 목적어, 부가어 등의 성분들을 주제화시키는 기제나 이와 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분들의 초점화 기제, 그리고 이에 따른 성분들의 순서 조정, 즉 어순의 기제에 의해 최종적으로 문장이 완성되는 차원이 다른 하나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문장 구조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화청자인칭) (행위자인칭) (목적어) **동사-행위자인칭어미-화청자인칭어미**
주어 {시}
[*명제*]
[**문장**]

<그림 4> 한국어의 문장 구조 (목정수 2014c: 50)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즉 디스꾸르의 차

2) 주어에 해당하는 주격조사 '-가'와 보어에 해당하는 보격조사 '-가'의 설정처럼 통사적 기능과 격조사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문법을 세우는 학교문법/표준문법의 시각을 말한다. 뒤에 가서 논의가 되겠지만, 만약에 주제어를 문장 성분으로 설정하는 입장에서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주제격조사 '-가'를 따로 또 구분해야 할 것이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성분에 나타난 '-가'가 있다면 목적격조사 '-가'로 또 구분해야 할 것이라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문다. 또한 비논항이나 부사어, 또는 부사어에 해당하는 활용형(=부사형연결어미)에 붙는 '-가'를 보조사로 떼어낸다면, 최대 5개의 '-가'가 분할배열(dégroupement)되는 셈이다. 본고는 '-가'를 이렇게 보지 않고 '-는'과 더불어 하나의 계열체를 형성하는 한정사류로 봄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벗어난다. '-가'는 서술어와 논항의 관계를 맺어주는 후치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다음 <그림 5>의 한국어 조사 체계를 참고할 것.

3) 'topic-comment'의 분절 구조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는 박철우(2021)을 참조할 수 있다.

원에서 정보구조와 관련이 있는 논항과 부가어의 현동화(actualisation) 작용, 즉 주제화나 초점화 과정를 실현시켜 주는 요소들은 한정사[4] {-가, -를, -도, -는, -이나, -이라도}로 제한된다는 것이다(목정수 2018b). 왜 그런가? 우리는 한국어 조사의 체계 속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우선 한국어 조사의 전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입체적이라 함은 랑그에서 디스꾸르로 전이되면서 문장을 완성해 나갈 때 각각의 부류의 조사ㅡ후치사 부류와 한정사 부류ㅡ가 작동되는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랑그격 (덩어리격)	디스꾸르격(분석격)과 문법관계표지(=후치사)		디스꾸르 차원의 한정사
《학교》	학교 (내부적으로 열려 분화된 격)	**-ø$_1$**	**-ø$_2$**
	학교 (내부적으로 닫히는 격)	**-에/-에게/-한테/-께** **-께서** **-에서** **-에다(가)** **-(으)로** **-(으)로서** **-(으)로써** **-와/과; -하고;** **-(이)랑**	**-이/가** **-을/를** **-도** **-은/는** **-의** **-(이)나** **-(이)라도** **-(이)나마**
		-처럼; -같이 **-만큼; -만치** **-대로** **-보다** **-부터** **-까지** **-치고**	
		-에 대해/관해(서) **-에 의해(서)** **-(을) 위해(서)** **-(을) 따라(서)** **-(을) 타고(서)**	
		양화·질화사(-만/뿐, -조차, -마저)	

<그림 5> 한국어 조사 체계의 기본 골격

이러한 분류 체계에 의해서만이 다음과 같은 두 문장의 의미 차이뿐만 아니라, 정보구조의 차이를 설명하기 수월해 진다.

(1) 가. 옛날에 어느 마을에 (한) 호랑이-**가**/*는/*?ø 살고 있었어요.
<제시/신정보 기능의 ‘-가’>

4) ‘-가, -를, -도, -는’ 등의 “한정사(determiner/delimiter)”는 기본적으로 ‘후치 관사’를 의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조사’라는 용어를 살리기 위해 “한정조사”라고 칭하기도 할 것이다.

나. (그) 호랑이-**는**/*가/*?ø 마음씨가 고약했대요.
<전방조응/구정보 기능의 '-는'>

(2) 가. 이게 나라냐? (수사의문문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음)
나. 이건 어떤 나라야? (일반의문문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음)

본고는 이상과 같은 조사 체계의 인식을 바탕으로, 그동안 기본문형으로 설정되어 온 형식에 약간의 수정을 가해야 하며, 기본문형 설정에서 빠진 [누구/무엇-(은) 누구/무엇-(이) 어떠하다], [X-(는) Y-(가) V] 문형을 추가해야 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5] 여기서 문제가 되는 구문은 그 동안 '이중 주어 구문' 또는 '주격 중출 구문'이란 이름으로 제시되어 왔던 다양한 유형 가운데,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를 가리킨다. 본고는 이들 유형만이 주술 관계와 목술 관계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는 두 자리 서술어 구문으로서 기본문형의 하나로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다음 2장에서는 먼저 한국어의 '이중 주어 구문'이라는 특수해 보이는 현상을 문장 성분으로서의 주제어를 설정하여 이해하고 설명하고자 시도한 지금까지의 주요 논의들(임홍빈 1972, 2007, 박철우 1998, 2002, 2021, 이호승 2018, 2019, 이선웅·박형진 2019, 유현경 2021)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이중 주어 구문' 가운데서 문법의 영역에서 수용해야 할 기본문형은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에 국한된다는 것을 논증한다. 그밖에 주제어를 설정하여 설명하고자 했던 유형의 이중 주어 구문은 실상 단문 구조로 볼 수 없고 이들 구문의 주제어라 하는 것은 사실 복문의 구조에서 주절의 주어로 나타난다는 것을 실제 코퍼스를 통해 입증해 볼 것이다. 이 외에 부가어 성분이 주제화되어 문두에 나타난 구문이라든가 말하는 과정에서 고쳐말하기(repair)를[6] 통해 재구성된 구조 등은 기본문형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2.1. 소소한 통계치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 주어는 주격조사 또는 주어 표지인 '-가'에 의해 표시된다고 하는 것이 국문법의 일반론인데, 과연 그러한가를 따져보자. 주어(subject)와 주제어/화제어(topic)의 구분 문제와 관련하여 사소한 통계치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 보기로 한다. 일본어 문법의 기본 구조와 일본어의 특성을 영어로 잘 소개하고 있는 Makino & Tsutsui(1986)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grammatical terms'와 'characteristics of Japanese grammar'에 제시된 예문들을 대상으로 주어로 분석된 성분에 실제로 어떤 조사가 쓰였는지 조사해 보았다. 조사 대상은 이 자리에 제시된 문장들로서 비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문장까지 포함하여 총 225개였다. 이중에서 주어는 조사 'は'가 쓰인 것이 대부분이었으며('も'가 쓰인 것은 2개였음), 조사 'が'가 쓰인 것은 십여 개로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7]

---

5) 이러한 시각은 먼저 조사 '-가'와 '-를'의 본질을 격조사로 보지 않고 정보구조의 흐름을 조정하는 '-도'와 '-는' 같은 담화 기능의 요소로 파악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본고에서 정신역학론의 동적 모델을 빌려온 것은 바로 한국어의 격 실현 양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 기제를 설명하는 데 정신역학론의 모델이 아주 적합하기 때문이다. 정신역학론은 문법요소의 분포(distribution)를 중시하고 그들의 실현 과정을 대립(opposition)을 넘어서서 위치(position)로 설명한다. 그래서 정신역학론은 '위치 언어학(linguistique de position)'이라고도 불린다.

6) 이기갑(2014) 참조.

먼저,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들고 있는 예문에서 대부분의 목적어는 'を'로 표시되고 있지만 주어는 'が'가 아닌 'は'로 표시되고 있다. 능동문과 피동문의 관계를 보여주는 예문에서도 어김없이 주어는 'は'로 표시되고 있다. 주어 성분에 밑줄을 그었다.

(3) 가. 先生はジョンをしかった。(선생은 존을 혼냈다.)
나. ジョンは先生にしかられた。(존은 선생한테 혼났다.)
다. この辞書は使いやすい。(이 사전은 사용하기 쉽다.)

타동사의 경우 주어에 'が'가 나타난 예는 주로 다음과 같이 내포절/관형절－일본어 문법의 용어로는 연체형－ 구성으로 한정된다.

(4) 가. 私が読む新聞 (내가 읽는 신문)
나. 私はメアリーがトムに会った事実を知っている。
(나는 메리가 톰을 만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소수로 제시된 주어와 결합한 조사 'が'는 주어 표지(subject marker)를 설명하는 자리에 주로 몰려서 나타났지 목적어나 직접 피동문, 간접 피동문, 화제, 종조사 등 다른 문법용어를 설명하는 곳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주어 표지로서의 'が'의 기능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8)]
그밖에 주어에 'が'가 붙어 나타난 경우는 처소 구문에서 신정보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도입 존재 구문에서였다. 반면에 주어가 [+한정성], [+지시성] 자질을 가지고 문두에 나타날 때는 'は'로 실현된다.

(5) 가. この町には大学が二つあります。(이 마을에는 대학이 두 개 있습니다.)
나. 大学はこの町に二つあります。(대학은 이 마을에 두 개 있습니다.)

---

7) 이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을 사전 방식으로 소개하는 국립국어원(2005)와 양명희 외(2018)의 주어 편에 제시된 문장과 비교해 보면, 주어 성분에 조사 '-가'가 나타난 것이 월등히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국어학 논의에서 일본어의 '象は鼻が長い', '私はりんごがすきです' 등의 구문이 '코끼리가 코가 길다', '철수가 사과가 좋다'라는 형식으로 논의되는 것과 유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8) 주어 표지를 설명하는 자리(Makino & Tsutsui 1986: 11)에서 제시된 6개 예문 가운데 5개가 'が'로 나타났고 나머지 1개만 'は'로 나타났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1나)의 피동문에서는 'が'가 쓰였지만 본문의 (3)에서는 'は'가 쓰였다는 것이다.

(1) 가. ジョンがりんごを食べた。(존이 사과를 먹었다.)
나. メアリーが先生にほめられた。(메리가 선생에게 칭찬받았다.)
다. ドアが開いた。(문이 열려 있다.)
라. 机が一つある。(테이블이 하나 있다.)
마. 空が青い。(하늘이 푸르다.)
바. ナンシーはきれいだ。(낸시는 예쁘다.)

주어를 설명하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든 타동문의 예에서 주어가 'が'로 나타난 것으로는 다음이 더 있었다.

(2) 가. 私がそのお荷物をお待ちします。(내가 당신의 짐을 나를게요.)
나. 母がお連れいたします。(우리 엄마가 모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が'가 나타난 다음과 같은 예는 'が형 성분'이 주어의 성격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들이다. 하나는 탈타동(detransitive) 구문에서의 'が형 성분'인데, 주어가 'が'로 실현되어 있지만 이도 사실은 비대격성(unaccusativity)을 갖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타동사 '開ける(akeru)'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窓(mado)'가 탈타동화/자동사화 요소인 'ある(aru)'의 영향으로 'が'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엄격한 의미에서 '窓'가 '開ける'의 주어로 보기는 어렵다.

(6) 窓が開けてある。

다른 하나는 다음과 같은 자동사 구문에서 주어가 'が'로 실현된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의 '雨(ame)'도 엄밀한 의미의 주어로 상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 보인다. 'ame(ga) huru'는 동사구나 합성동사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구문은 비인칭(impersonal) 구문으로 분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목정수 2014c, 2016a).

(7) あっ！ 雨が降ってきた。

또한 자동사를 소개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성분이 두 개 나타나는 구문의 예시를 보일 때는 'subject'라고 분석하는 NP2 자리의 성분에는 'が'가 나타나 있지만, 'topic(subject)'이라고 애매하게 분석하는 문두 성분 NP1 자리에는 여지없이 'は'가 실현되어 있다.

(8) 가. 私は車がある。(나는 차가 있다.)
나. 僕はお金がいる。(나는 돈이 필요하다.)
다. スミスさんは中国語が分かる。(스미스 씨는 중국어가 잘 통한다. = 중국어를 잘 안다.)
라. 私(に)はベルが聞こえなかった。
(나는 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 벨소리를 듣지 못했다.)
마. 本田さんはテニスが上手です。(혼다 씨는 테니스가 고수이다.)
바. 象は鼻が長い。(코끼리는 코가 길다.)
사. 私はすしが食べたい。(나는 스시가 먹고 싶다.)

2.2. 한국어의 기본문형

그렇다면 위에서 제시한 일본어의 간단하고 시시한 통계는 무엇을 암시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통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한국어 문법에서 '철수가 영희를 사랑한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 '철수가 호랑이가 무섭다' 유형의 문장을 중심으로 기본문형을 설정해 온 관행에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목정수(2018a)에서 비판한 바 있듯이, 고영근·구본관(2018) 식의 기본문형에 대한 논의 틀은 유표성 이론(markedness theory)에 다소 어긋나 있다는 것이다. 유표성 이론에 따르면, 무표항(unmarked term)은 유표항(marked term)에 비해 소극적인/부정적인(negative) 성격을 띤다. 이와 연관하여, 빈도(frequency) 면에서도 특수한 환경에서만 출현하는 유표항보다 디폴트 값을 갖는 무표항이 고빈도가 된다. 따라서 한국어의 기본문형의 하나인 타동사 구문의 실제 실현된 형식은 [X-가 Y-를 V]와 [X-는 Y-를 V] 둘 중에서 고르라면[9] 후자가 될 가능성

이 훨씬 높다.[10] 이렇게 정해지면, 전자의 유표항은 특수한 환경에서 출현하는 제약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강성 타동 구문이란 일반적으로는 [X-는 Y-를 V] 형식으로[11] 실현되는 것이 디폴트이다. 왜냐하면 문장의 구성은 어순의 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화자가 알고 있는 대상(구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신정보)을 서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절차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주술 분절 구조에서 나온 주어(subject)의 원의였다.[12]

그러나 사건을 구성하는 주부와 술부 전체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이라든가 하는 양태 관련 어미가 문장 전체를 지배할 때나 주부를 신정보로 떼어내서 제시하고 이전 담화에서 이미 언급된 나머지 술부를 반복하는 특별한 구성이 필요할 때는 문장 구성 방식이 전체적으로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유표적인 상황에서는 주어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이 달라지므로 'X-는' 형식 대신에 'X-가' 형식이 요구된다. 그밖에 'X-는' 형식이 제약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계절/관형절이나 내포절, 종속절을 이끄는 부사절 환경에서이다. 'X-가' 형식은 관형절처럼 내포문에 쓰여서 머리어 속에 감추어져서 관형절을 뚫고 나와 모문(matrix)의 서술어와 주술

---

9) 전형적인 타동사 '죽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실현 가능한 구문의 유형은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 종결어미는 현재로서는 논외이다.

(1) 너 누구 죽인 거야? [Xø Yø 죽이-]
(2) 너는 누구 죽일 거야? [X는 Yø 죽이-]
(3) 너 누구를 죽인다고? [Xø Y를 죽이-]
(4) 너 그놈은 죽였니? [Xø Y는 죽이-]
(5) 네가 그놈을 죽일 수 있다고? [X가 Y를 죽이-]
(6) 너는 마지막으로 누구를 죽일 거니? [X는 Y를 죽이-] 등등

10)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는 최수영(1993)을 참조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나 동화를 중심으로 'NP1-은/는/이/가 NP2-은/는/이/가 V' 구성의 조사 실현 양상을 분석한 결과, 'NP1-은/는 NP2-이/가 V' 유형이 89%를 차지하며 'NP1-이/가 NP2-이/가 V'는 3%, 'NP1-이/가 NP2-은/는 V'는 1%에 그치고 있다. 또한 신서인(2014: 38)에 따르면, 말뭉치에 실현된 문형 중 'NP1-은/는 NP2-이/가 V' 유형은 727회 출현하여 빈도수 상위 10위에 오른 반면, 'NP1-이/가 NP2-이/가 V' 유형은 300회도 채 나타나지 않아서 빈도수 상위 30위 안에도 들지 못했다.

11) 여기서 '강성(strong) 타동 구문'이라 한 것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를 '약성(weak) 타동 구문'으로 보려는 우리의 시각과 무관치 않다. 그리고 주어나 목적어 성분이 조사 없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는 점, 그리고 필수적인 종결어미에 따라 조사가 제약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이를 일반화하면 다음과 표상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1) 가. [X-(는) Y-(를) V-종결어미]
나. [X-(는) Y-(가) V-종결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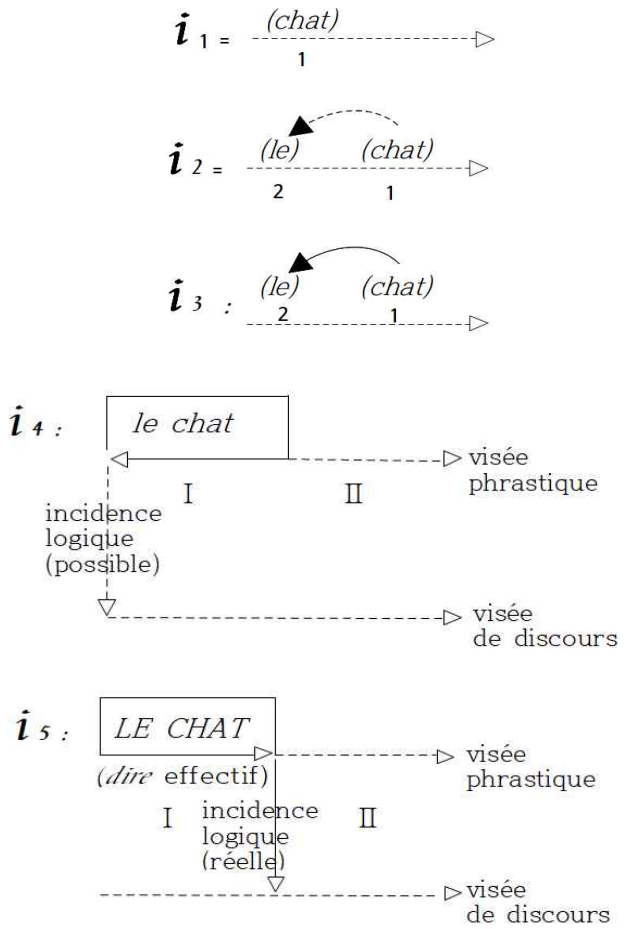
12) 목정수(2020a: 264-265)에서의 'subject'와 'topic'의 개념적 겹치기에 대한 설명을 재인용한다. "주어(subject)는 원래 희랍어 '휘포케이메논ηυποκειμενον'을 라틴어 'subjectum'으로 옮기면서 정착된 문법 용어이다. 희랍인들은 사물이란 그 주위에 성질들이 모여드는 어떤 것이고, 그 주변에 항상 다양한 성질들을 끌어안고 있는 핵이며, 자기 이외의 다른 것을 자기 위에 갖고 있는 밑바탕이라고 보았다. 바로 이 밑바탕을 '휘포케이메논'이라고 부른 데서 결국 주어(subjectum)라는 개념이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희랍인들은 '휘포케이메논'을 영원불변의 어떤 실체인 '휘포스타시스ηυποστασις'로 불렀고, 이 핵 주변에 있는, 토대 위에 놓여진 가변적인 성질들을 '심베베코스συμβεβεκος'라 불렀다. 따라서 문법에서의 주어(subject)란 원래 '밑에 놓여 있는'이라는 뜻으로, 서술의 밑바탕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결과적으로 프라하학파(Prague school)에서 얘기하는 'topic + comment' 구조의 '주 topic'과 상응하는 개념이었다. 동사(verb)란 용어도 마찬가지로 '평언'이나 '서술어'에 해당하는 용어였다. 현대언어학에서 '동사verb'를 '동작'이나 '움직임' 등의 의미와 연관된 품사로 보는 것은 차후에 발생된 일이다. 원래 'subject'와 'nominative'는 전혀 별개의 용어/개념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을 '주어'와 '주격'으로 번역하면서 두 개념을 혼동하는 논의가 생겨난 데 비해, '주제'와 '주어'는 같은 개념/용어이었는데, '이/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주어'로, '은/는'이 붙어 있다고 해서 '주제'로 서로 별개로 나뉘게 되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구조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단문에서의 주어 성분이 'X-가'형보다 'X-는'형으로 많이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고 '-는'과 '-가'의 차이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X-가 Y-를 V] 형식은 주절이 아닌 유표적인 관형절이나 부사절과 관계가 깊다고 하는 기술(description)이 유표성 이론에 더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여기까지는 주어 성분에 나타난 표지 '-가'와 '-는'의 대립이 문제였다.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유표적인 표지들이 나타나지 않은 영형(zero) 주어 성분과의 관계 정립이다.

(9) 가. 너 뭐 먹을래?
나. 너는 스파게티 먹을 거야?
다. 네가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개가 다 웃겠다 야.

이렇게 주어 성분에 '-는'과 '-가'를 붙여 화자의 의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문장 외에 아무런 한정조사 없이 맨 명사(bare noun)로 실현되는 문장도 매우 많다. 이러한 문장은 주로 구어체 환경에서 많이 나타난다. 반면에, 발화 현장을 떠나 화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논리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문어체 환경에서는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 화자의 시각이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중의성을 최대한 줄여야 하므로 '-가'나 '-는' 같은 한정조사가 최대한 실현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다만 구어체에서 한정조사의 유무로 대립하고 있는 위 (9)에서는 한정조사가 없는 성분이 무표항이 되고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한정조사가 실현된 성분이 유표항이 된다. 문장 생성의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서술어와의 상대적 관계를 통해서 문법 관계가 정해지는 주어나 목적어라는 통사적 기능은 한정조사 없이 실현 가능하다. 이후 완전한 문장의 실현을 위해 종결어미가 선택되는 과정과 더불어 구정보나 신정보의 관계, 주제나 초점의 관계 등 정보구조와 담화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정사들 가운데, 해당 담화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여 성분들을 현동화(actualisation)하는 과정이 뒤따른다.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는 성분에 '-가'를 선택할 것이냐, '-는'을 선택할 것이냐 또한 목적어 성분을 '-를'을 선택하여 실현시킬 것이냐, '-도'를 선택하여 실현시킬 것이냐, 더 나아가 그 한정조사가 실현된 성분의 위치를 문두로 옮길 것이냐 등의 문제가 통사론의 영역에서 펼쳐지는 것이다. 이는 비유컨대, 프랑스어의 명사가 문장으로 실현될 때, 영형관사(article zéro)로 그냥 실현될 것이냐, 부정관사(article indéfini) 'un/une'를 선택하여 실현될 것이냐 정관사(article défini) 'le/la'를 통하여 실현될 것이냐 하는 통사적 절차와 유비관계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목정수 1989). 정신역학론적 관점에서 통사론의 실제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 Valin(1981: 47-50)에서는 'Le chat a attrapé un oiseau. (고양이는 새를 잡았다.)'라는 문장에서 'le chat (고양이(는))', 'un gros chat (살찐 고양이(가))', 'un chat gris (회색 고양이(가))' 등의 명사구가 결합되는 심리역학적/인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다만 디스꾸르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심리역학적/인지 과정이 한국어의 '**고양이-는** (영리하다)', '**검은 고양이-가** (내 방에 들어왔다)' 등의 통사적 결합 과정에서도 유사하게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데 만족하기로 한다.



<그림 6>

2.3. 기본문형의 형태론과 통사론적 과정

한국어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영역 설정과 더불어 통사 단위 설정의 문제의 핵심은 '명사(구)'와 '조사'라고 불리는 문법소들의 결합을 형태론적 구성(morphological construction)으로 볼 것인가 통사론적 구성(syntactic construction)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원에서는'의 '공원', '-에서', '-는'의 결합을 명사와 조사 사이에 수식어 등의 제3의 요소가 개입할 수 없고 이들의 결합 구성 전체가 블룸필드(Bloomfield) 식의 최소자립형식(minimum free form)을 이룬다고 하여 '공원에서는'을 단어, 즉 형태론적 구성으로 보는 종합적 관점—최근의 박철우(2018)가 대표적—이 있다.[13] 이와 대척점에 '공원'과 '-에서'의 결합이나 '-에서'와 '-는'의 결합은 그 어느 것도 랑그의 기본 단위로 심성어휘부에 등재 단위가 될 수 없다고 보

13) '-가'와 '-를'이 형태론적 구성 단위인 격어미/격조사가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학교문법에 반영되어 거의 고착화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은 인구어의 격 패러다임과 곡용어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곡용 패러다임의 틀에 한국어의 '-가'와 '-를'을 위시해서 차원이 다른 '-에서', '-에게', '-로' 등을 살짝 끼워맞춰서 그 지위를 규정했던 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국어의 '-가'와 '-를'의 위상을 설정하기 위해 우리가 방법론적 절차로서 당연히 따져봤어야 할 '분포 분석' 없이 굴절어의 문법 틀을 막연히 원용/활용/오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 있다.

고 각각이 개별적인 통사 단위(=통사원자, 접어)로[14] 기능하는 문법소이므로 '공원에서는'은 통사적 구성이 된다고 하는 분석적 입장－최근의 목정수(2019, 2020)이 대표적－이 있다.

기욤의 단어 생성 과정과 문장 생성 과정의 도식에 따르면, 종합주의적 입장은 다음 <그림 7>의 2)처럼 상대적으로 넓은 랑그의 영역과 좁은 디스꾸르의 영역을 설정하는 셈이고, 본고와 같은 분석주의적 입장은 1)처럼 좁은 랑그의 영역과 넓은 디스꾸르의 영역을 설정하는 셈이 된다. <그림 3>에서 제시한 라틴어와 프랑스어의 차이에 비견될 수 있다.

1) acte de langage { construction de langue (au minimum) + construction de discours (au maximum)

et

2) acte de langage { construction de langue (au maximum) + construction de discours (au minimum)

<그림 7>

본고에서는 분석주의적 입장에 따라 조사와 어미를 기본 통사 단위로 보기 때문에 문장의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서술어의 논항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명제 차원에서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이를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i) 명제 차원 (형태·통사론) : 랑그의 문턱을 살짝 넘어 디스꾸르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

(10) **[철수-ø (공원-에서) 김밥-ø 먹-]** 'eat (x, y, (at z))', x=철수, y=김밥, z=공원

형태론, 즉 랑그의 영역에서는 디스꾸르의 문턱을 넘기 전에 '철수', '공원', '김밥' 같은 어휘들의 생성과 저장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에서', '-가', '-는' 같은 문법요소들이 사용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가어 성분 '공원에서'의 '공원'은 동사 '먹-'과 관련해서 직접 문법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므로 디스꾸르로 넘어가면서 후치사 '-에서'에 의해 '먹-'과의 문법관계를 맺게 된다. 반면에 '먹-'의 논항인 '철수'와 '김밥'은 어순과 그들의 어휘의미 자질 [+행위자/유정성], [+피행위자/무정성]에 의해 조사 없이도 문법적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철수'는 주어로, '김밥'은 목적어로 해석된다. 따라서 '공원'과 '-에서'의 결합, '철수'와 '-ø'의 결합, '김밥'과 '-ø'의 결합은 통사적 구성으로 랑그의 영역에서 디스꾸르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15]

14) '통사원자'에 대해서는 박진호(1994)를, '접어'에 대해서는 Chae(2020)을 참조할 것.

15) 복합어(합성어와 파생어)는 랑그에서 디스꾸르로의 이행 이전에 랑그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론적 절차인데, 그 복합어의 구성도 그 긴밀도나 생산력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단어형성 과정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파생어 '지붕' 같은 단어는 '집-웅'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웅' 같은 접사는 생산력이 매우 축소되어 있고 공시적으로 분석 대상이 되기도 어려울 정도이므로 랑그 영역의

'공원에서'의 결합은 분명 이들이 라틴어의 명사 곡용형처럼 랑그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없으므로, 다시 말해서 '공원' 외부의 요소인 후치사(=부사격조사)라는 문법요소와의 결합이므로 이들의 결합과정은 형태론의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랑그의 끝점을 넘어 디스꾸르의 영역으로 진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소위 격조사와 명사의 결합을 인구어의 문법에서 설정된 곡용 패러다임(declension)을 빌려 '준굴곡'으로 보거나(허웅 1983), 조사의 위상 정립 또는 분류 작업 없이 그들의 결합 단위를 한 단어로 보고자 한 소위 종합적 관점은 '공원이, 공원을, 공원으로, 공원과, 공원에서, 공원에서는, 공원에서만이 ...' 등을 디스꾸르의 문턱을 넘기 전의 현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국어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에서'와 명사(구)의 결합도 랑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 즉 형태론적 구성으로 볼 수 없거니와 '-에서'와 달리 한 차원 높아진 담화구조나 정보구조 차원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가'나 '-는'과 명사(구)의 결합 단계는 더더욱 형태론적 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가'나 '-는'과의 결합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형태론의 영역인 랑그의 영역을 훨씬 뛰어넘은 디스꾸르의 차원의 나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인 것이다.[16)]

따라서, 앞서 (10)에서 제시한 우리의 명제 구조 [철수-ø (공원-에서) 김밥-ø 먹-]은 종결어미가 붙고 주어 논항과 목적어 논항, 그리고 부가어 성분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이 한정조사에 의해 반영되면서 디스꾸르의 영역의 끝점에 도달해서야 (11)과 같은 문장의 형태로 완성된다. 우리는 이 차원을 앞의 (i)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ii) 문장 차원 (통사·담화·화용론) : 디스꾸르의 영역에서 시작하여 끝점까지 실행됨: 정보구조 전달 욕구에 의해 통제됨.

(11) 가. **[철수는 공원에서 김밥을 먹는다.]**;
'eat (x=철수는, y=김밥을, z=공원에서)']
나. **[철수가 공원에서 김밥을 먹는 이유는 뭘까?]**;
'eat (x=철수가, y=김밥을, z=공원에서)']
다. **[철수도 공원에서 김밥은 먹고 싶지 않대.]**;
'~want to eat (x=철수도, y=김밥은, z=공원에서)']
라. **[철수, 공원에서는 절대 김밥 먹지 않지.]**;
'~eat (x=철수ø, y=김밥ø, z=공원에서는)']
...

앞서 언급했듯이, 논항 '철수'와 '김밥'과 결합하는 한정조사 구성, '철수가'나 '철수는'이나

가장 깊은 곳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생산력이 매우 활발한 '-질' 같은 접사는 랑그 영역의 표면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마치 통사적 구성에 버금가는 것처럼 비쳐지는 단어형성법을 보여준다. {용두질, 분탕질, 걸레질, 망치질, 도둑질, 사랑질, 전화질, ...} 이처럼 언어를 기본적으로 움직임(에네르게이아)로 보는 기욤의 정신역학론적 입장에서는 단어 형성법을 이미 과정이 끝난 결과로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의 심연시간에서도 깊이를 구분하여 그 단어형성 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시간의 선후로 표상할 수 있게 된다.

16) 전통문법이나 학교문법, 그리고 논항구조에 입각하여 문장을 분석하고자 하는 임홍빈(2007)류의 문법관에서는 '-가'를 주격조사로서 마치 형태론적 구성 단위인 것처럼 보고 있는 반면에, '-는'은 화제표지로서 마치 담화론적 구성 단위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이후 우리는 이러한 입장에 비판을 전개할 것이다.

'철수도' 등과 '김밥을', '김밥도', '김밥은' 등의 결합은 분명히 랑그의 영역을 벗어난 디스꾸르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통사론적 구성으로 봐야 한다. 또한 구어체 문장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11다, 라)에서 보듯이, 조사 없이도 '철수ø', '김밥ø'의 형태로 문장에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랑그 단계의 '철수'나 '김밥'과 그 형태가 표면상 동일하지만, 이는 디스꾸르 차원에서 성분으로 실현된 형식 '철수ø', '김밥ø'이므로 층위가 다른 구성으로 봐야 한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종합적 관점을 채택한 진영의 학자들의 말대로, 이들이 원래 랑그의 단위로서 '철수가, 철수를, 철수도, 철수는, 김밥을, 김밥은, 김밥도' 등이 라틴어의 명사 곡용형처럼 선재(先在)하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디스꾸르 차원의 문장으로 실현되면서 탈락되어 '철수ø', '김밥ø' 같은 맨명사(bare noun)의 꼴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정의 선후를 뒤바꿔 기술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무표항에 표지가 붙어 유표항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다. 랑그의 영역과 디스꾸르의 영역은 먼저(avant)와 나중(après)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통사 단위의 결합이 이루어지며 문장을 구성해 나가는데, 이때 결합되는 단위는 정보구조에 민감한 '-가'와 '-는'의 선택의 문제, 그리고 화자의 우주시(temps d'univers)에 대한 기본 서법(mode) 체계, 그리고 문장 유형과 관련된 요소(종결어미)의 실현과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표시하는 요소의 실현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므로(목정수 2015, 2016c), 한국어를 중심으로 보면 문법의 영역(형태·**통사론**)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영어 같은 언어와 비교해 보면 영어의 담화·화용론 영역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현상이 포함되므로 **통사·담화·화용론**의 접면/계면(interface)으로 층위를 정리할 수 있다(목정수 2014c, 목정수·문경진 2020).

3. 통사론 논의에서의 주제어 설정 문제

3.1. 주제어와 주어

목정수(2014a, 2018a)에서는 '서술절' 개념에 대한 비판을 통하여 한국어에서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주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현상은 표면상 그런 것일 뿐이고 대개 첫 번째 자리의 명사구가 주어의 기능을, 두 번째 자리의 명사구가 '비주어=가형목적어=보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여기서의 주장은 엄청나게 빈번히 쓰이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나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의 이중 주어 구문은 당당히 기본문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해서 국어학계에는 크게 세 가지의 분석 방법이 제시되어 왔다. 첫째로, 하나의 절에는 하나의 주어가 있다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문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술절설'이 있다. 대주어/총주어와 소주어를 다 인정하기 위해서 서술절을 안은 포유문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강성 서술절 옹호론자'로서 임동훈(1997)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임동훈(1997)에서 제시한 서술절을 포함한 이중 주어 구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17]

(14) 가. 철수가 키가 크다.
나. 토끼가 꾀가 많다.
다.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

17) 임동훈(1997)에서는 이 가운데 (14가, 나, 다, 라)는 이중 주어 구문으로, (14마, 바, 사)는 이중 주어 구문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

라. 학생이 셋이 왔다.
마. 라면은 농심이 유명하다.
마. 내일 날씨는 비가 온다.
사. 국어학은 취직이 어렵다.

둘째로, 여기에 대해서 '서술절'을 전면 부인하는 '강성 서술절 반대론자 = 강성 서술구 옹호론자'로 목정수(2014a, 2018a)를 들 수 있다. 목정수(2014a, 2018a)에서는 '서술절'은 조사 '-가'를 무조건 주어 표지로 보는 강한 입장에서 비롯된 오개념에 가까운 것으로서 조사 '-가'를 정보구조의 흐름을 조정하는 데 관여하는 담화적 기능 요소로 그 본질을 파악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중 주어 구문에서 '서술절'이라 한 것은 대개 '서술구'에 대응한다고 보았다.[18] 따라서 서술절 내의 주어라고 여겨졌던 성분의 기능은 서술구, 즉 동사구 내에서의 동사와 논항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주술 관계'가 아닌 일종의 '목술 관계'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중 주어 구문은 서술절을 안은 포유문이 아니라, '주어 + 가형목적어 + 서술어'의 단문으로 포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단문 분석을 위한 논거로 첫 번째 명사구의 '-시-'와의 호응, 첫 번째 명사구의 재귀대명사 '자기'와의 호응 또는 공지시적 관계(coreferentiality), 첫 번째 명사구의 관계화 위계성, 첫 번째 명사구의 복수 표지 '-들'과의 호응 등을 들고 있다(목정수·이상희 2016). 또한 목정수(2014a, 2018a), 문창학·목정수(2015)에서는 '대용언을 통한 진단법', '동일 주어 제약을 통한 진단법', '결합가 이론에 입각한 진단법'을 동원해 서술절을 부정하고자 하였다.
'있2-/있으시-'의 소유동사 구문과 '싫-'의 심리동사 구문은 첫 번째 명사구가 위의 검증 기준을 무난히 통과하는 것으로 보아 단문으로 분석하는 데 비교적 이론(異論)이 적은 편이다.[19]

(15) 가. 철수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
나. 할아버지가 지금 돈이 많으신 것은 근면성실함과 절약정신 때문이다.

(16) 가. 나는 뱀이 너무 싫어.
나. 할아버지도 뱀이 무서우신가 봐.

목정수(2014a, 2018a)는 비교적 명백한 소유동사 구문과 심리동사 구문, 그리고 NP2가 분명히 주어가 아닌 '철수는 대통령이 될 거야'의 '되-' 구문에서의 성분들이 보여주는 통사적 행태를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 구문에 적용함으로써 서술절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던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도 서술절이 부정될 수 있고 따라서 단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다음 문장에서 [코(가) 길-]이나 [머리(가) 나쁘-]는 독립적으로 온전한 절을 구성하지 못하고 개념의미적으로 보면 하나의 사태를 표상할 수 있을 뿐이다.[20]

---

18) 서술절과 서술구의 대립을 두고 너무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기 위해 중립적인 용어 '서술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보자고 제안할 수 있겠다. '주부', '술부'의 구분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서술절로 보는 입장이든 서술구로 보는 입장이든 '서술부'의 역할과 위계성에 대해서는 모두 같은 직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 존재동사 '있1-'과 소유동사 '있2-'의 구분, 주관동사 '무섭1-'과 기술동사 '무섭2-'의 구분 문제, 그 문형의 차이,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목정수(2020: 564-598)을 참조할 것.
20) 따라서 두 논항을 거느리는 두 자리 서술어 '길-'은 '긴 NP2-가 있-'이나 '긴 NP2-를 가지고 있-'

(17)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나. 할아버지가 머리가 나쁘신 것 같다.

이러한 구성이 더 긴밀히 결합되면 합성동사, 연어 구성, 숙어를 형성하게 된다.[21] '키크-' = '(be)tall'; '머리좋-' = '(be)smart'; '돈많-' = '(be)rich'; '손크-' = '(be)lavish;generous'.

셋째로, 이러한 양극단의 입장의 절충적 입장이 유현경(2021)로 보인다.[22] 여기서 그녀는 본고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소유동사 '있-, 많-' 구문과 심리형용사 '좋-, 싫-' 구문은 서술어가 두 개의 논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명사구를 주어로, 두 번째 명사구를 비주어ㅡ그녀는 '보어'로, 본고는 '가형목적어'로 분석한다는 차이가 있음ㅡ로 처리한다. 전통적으로 두 번째 명사구를 보어로 분석한 '되다, 아니다' 구문과 평행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 외에 '보어'를 취하는 구문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유현경 2018, 2019). 그러나 그녀는 성상형용사나 정태적 사태를 표현하는 서술어가 사용된 구문, 즉 '코끼리가 코가 길다'나 '철수가 손이 크다' 같은 이중 주어 구문에서는 '-가'로 실현된 두 번째 명사구가 문장의 주어라고 분석한다.[23] 그러면서도 유현경(2021)은 서술절설에는 동의하지 않으므로 '-는'으로 실현된 첫 번째 명사구를 대주어/총주어로 분석하지 않는다. NP1은 서술어의 논항구조 밖에 있는 소위 잉여 성분이지만 주어로 분석되는 NP2와 의미적 관계를 맺는 성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주제어'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잉여 성분이지만 역설적으로 주어 NP2의 지

으로 환언(paraphrase)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개념 구조로 표상할 수 있다. '(NP2-가) **길-**' = '**have_long** (NP2)'

(1) 철수는 눈이 예쁘다. = 철수는 예쁜 눈을 가지고 있다. = 철수는 예쁜 눈이 있다.

21)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두 개의 성분이 나타난 구조에서 NP2와 서술어가 결합한 구성은 합성동사가 될 가능성이 늘 있기 마련이지만, NP1과 서술어의 결합은 그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1) 아이들이 밥을 먹었다. '밥 먹-'(o) vs. '아이들 먹-'(x)
(2) 코끼리는 코가 길다. '코 길-'(o) vs. '코끼리 길-'(x)

22)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의 통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문장 성분으로서의 주제어를 설정하고자 하는 논의는 임홍빈(1997, 2007)이 원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유사하지만 다양한 변주가 펼쳐지고 있다. 이호승(2018, 2019), 이선웅·박형진(2019) 등이 있고 최근의 유현경(2021)도 통사적 층위와 정보구조의 층위를 접목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문장 성분으로서의 '주제어' 설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박철우(2021)도 결국 임홍빈(2007)에 대한 비판적 독서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23) 성상형용사가 한 자리 서술어라고 주장하는 진영에서는 당연히 두 번째 명사구를 주어라고 한다. 대개 그들 주장의 논거는 다음과 같이 재구성된다. '철수가 눈이 크다'에서 큰 것은 '철수'가 아니라 '눈'이기 때문에 '눈'이 주어라는 것이다. 최근 이홍식(2020)도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눈'을 주어로, '철수'를 부가어로 분석한다. 그리고 부가어에도 의미역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동원하여 '철수'에 '소유자역'을, '눈'에 '대상역'을 부여한다. 흥미롭게도 이홍식(2020)은 문장 구조 분석에서는 본고와 차이가 나나, 논항의 의미역 부여에서는 결과적으로 본고와 동일한 노선을 취하고 있다.

어찌됐든 어떤 주어진 용언의 의미는 그것이 실현된 문장 내의 다른 모든 성분과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듯이, 서술어의 자릿수는 딱 하나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용법을 다 갖고 있는 동사도 많다. 일례로, 영어의 'His book sells well.'이란 문장에서 'sell'이란 동사는 원래 두 자리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은 파는 게 아니고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his book'은 목적어라고 보는 논리라면 어떨까? 유현경(2021)이나 이홍식(2020)의 논리와 흡사해 보인다. '할아버지 눈은 내 눈보다 더 크다'는 한 자리 서술어로서의 용법이고, '할아버지는 나보다 눈이 더 크시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서의 용법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할 이유는 없다. '무섭-'이라는 서술어도 '철수의 무서운 눈매'에서는 한 자리 기술동사(=성상형용사)의 용법으로, '호랑이는 눈매가 무섭다'에서는 두 자리 기술동사(=성상형용사)의 용법으로, '나는 뱀이 무섭다'는 두 자리 주관동사(=심리형용사)의 용법으로 보는 것이 구문의 구조 분석이나 서술어의 의미 해석에 더 유리한 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시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문장 성분으로서의 '주제어'!?. 이러한 예로 그가 제시하고 있는 이중 주어 구문은 다음과 같다.

(18) 가. 토끼는 앞발이 짧다.
나. 철수는 동생이 더 크다.

(19) 가. 꽃은 장미가 예쁘다.
나. 학생은 두 명이 왔다.

(20) 가. 국어학은 취직이 어렵다.
나. 김선생님은 자기가 직접 차를 운전한다.

유현경(2021)에서는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같이 '길-' 같은 한 자리 서술어가 쓰인 경우를 비롯하여, '정태적 사태'가 평언부(comment)를 이루는 경우에 주어 성분과 분리불가능한(inalienable) 관계를 맺는 잉여 성분을 주제 표지(topic marker)가 붙는 '주제어'로 설정해서 통사 분석을 완성하고자 한다. 그 논의의 핵심을 다시 정리해 보자.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주제어(topic)는 '-는'으로 실현되고 문두에 위치하는 특성이 있고 '정태적 사태'가 평언부를 이룰 때 성립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하여성(aboutness)'을 가지는 주제어는 모두 '-가'로도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전에 한 말에 대해 반문을 제기하거나 놀라움을 표현할 때는 '-가'로 실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24)]

(21) 뭐, 코끼리가 코가 길다고? cf. ??코끼리가 코가 길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해 보자. '코끼리는 코가 길다' 말고 '코끼리가 코가 길다고?'에 대해서 '코끼리가' 성분은 주제어인가? 여기서 입장이 몇 가지로 갈린다. 임홍빈(2007)은 서술어의 논항구조에 의해 요구되는 '코가' 성분만이 주어이므로 나머지 성분은 '-가'와 '-는'에 무관하게 다 주제어 자리에 놓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임홍빈(2007)의 논리를 따르면, '는 주제어'뿐만 아니라 '가 주제어', '도 주제어', '만 주제어', 심지어 '를 주제어'가 다 가능하다. 이에 비해, '-는'은 주제 표지(topic marker)이므로 '는 주제화'는 가능하지만 '-가'는 주격조사이므

24) 앞으로 살펴볼 주제화된 부가어 구문도 마찬가지로 '가형 성분'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1) 커피는 잠이 잘 안 오신대.
=> 뭐? <u>커피가</u> 잠이 잘 안 오신다구? 나는 잠 잘만 오던데.

위 문장에서 '커피는'의 형태로든 '커피가'의 형태로든 서술어에 붙는 '-시-'와 호응하는 성분은 될 수 없다. '잠이'라는 성분도 그것과 호응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시-'와 호응하는 성분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존대 대상의 3인칭 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

(2) 가. 커피는 잠이 잘 안 오신대 할아버지/할아버지가/할아버지께서/할아버지께서는.
나. 할아버지/할아버지가/할아버지께서/할아버지께서는 커피가 잠이 잘 안 오신답니다.

목정수(2018b)에서 논의했던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제가 쪄요'도 동일한 논리로 설명된다.

(3) 치킨은 살 안 쪄. => 무슨 소리야? 치킨이 살이 얼마나 찌는데... 나를 보면 알 거 아냐?

로 '가 주제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이 박철우(2021)에서 보이고 있다. '코끼리가'는 주격조사(=주어 표지) '-가'가 붙은 것이니 주어로 봐야 하므로 '코가 길다'가 서술절을 이루어 상위 주어인 '코끼리가'와 결합하는 서술절 내포절로 본다는 것이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나 '코끼리가 코가 길다고?'나 서술어 '길-', 논항 '코끼리', '코'의 관계가 평행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사 '-는'과 '-가'에 따라서 주제어가 되기도 하고 주어가 되기도 한다는 상반된 주장에 대해 필자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은 어떻게 분석이 될까?

(22) 코끼리가 코는 길지 아마?

임홍빈(2007)의 논리라면 '코는'은 '코가'라는 주어 성분이 성분 주제화된 것으로 보고 '길-'의 논항구조 밖에 있는 '코끼리가'는 원래 기저-생성된 주제어 자리를 채우고 있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주제어로 분석될 것이다. 주제어가 두 개 있는 구문이 된다. 반면, 박철우(2021)의 논리를 따른다면, '코끼리가'는 서술절 '코가 길다'의 주어로 분석될 것이고 '코는' 성분은 '코끼리가 코는 (코끼리의 코가) 길다'에서 소유 관계에 있는 '코끼리'가 동일 명사구 삭제(equi-NP deletion) 규칙에 의해 생략되고 성분 주제화된 것으로 보거나 그냥 '코가'라는 서술절의 주어 성분이 '코는'으로 보조사가 바뀌어 대조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될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다음 문장은?

(23) 코는 코끼리가 길다니까.

(23)의 문장도 임홍빈(2007)의 논리에 따르면, '코는'은 주어 성분 '코가'가 주제화되어 문두의 주제어 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될 것이고 '코끼리가' 성분은 원래의 주제어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될 것이다. '코는'은 주제화된 주어이고 '코끼리가'는 원래 주제어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제어가 두 개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코는'을 주제화된 목적어 성분으로 보고 '코끼리가'는 초점화된 주어 성분으로 본다. 그래야 (23)을 자연스럽게 성분의 도치가 일어난 유표적인 문장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구조의 흐름상 '구정보 -> 신정보'의 순서로 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무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조사 '---는 ---가 V' 패턴이 나타나지만,[25] 그 성분의 통사적 기능은 무표적인 기본문형의 통사적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형적인 타동사 문장에서도 목적어 성분이 문두로 주제화되어 나가더라도 목적어란 통사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평행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서술어 바로 앞에 나타나는 '가형 성분'은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보구조상 초점 성분으로 파악되더라도 주어의 기능이 부정되지 않는다.

(24) 내가 어제 사다놓은 햄버거는 할아버지가 버리셨대.

그러면 이것의 무표적인 어순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25) 할아버지는 내가 어제 사다놓은 햄버거를 버리셨대.

25) 전형적인 타동 구문의 무표형을 [---는 ---를 V] 패턴으로 설정한 것과 평행하다.

이러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에 속하는 '할아버지는 귀가 기시다'와 '할아버지는 머리가 나쁘시다'를 함께 생각해 보자.

(26) 가. 우리 할아버지는 귀가 기시다.
나. 귀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시지.

(27) 가. 우리 할아버지는 머리가 나쁘시다.
나. 머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쁘시지.

'우리 할아버지는 귀가 기시다'는 '??우리 할아버지의 귀가 기시다'에서 '우리 할아버지는'을 성분 주제화해해서 유도된 것으로 보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논의를 전개해 보자. 그렇다면 (26 나)에서 '우리 할아버지가'로 주격조사가 붙은 '할아버지가' 성분은 서술어와 결합하고 또 '-시-'의 호응을 유지하는 걸로 봐서 '주술관계'를 맺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귀는'은 잉여 성분인 '주제어'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길-'의 한 자리 논항, 즉 주어가 주제화된 것으로 봐서 주어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 좋다. '귀는'을 주제화된 주어라고 하는 주장을 받아들여 보자. 그러면 주제화된 성분 뒤에 초점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가' 성분은 주격조사 '-가'를 달고 서술어 바로 앞에 놓여 있는데, 이는 어떤 기능의 성분으로 봐야 하는가? 초점화된 주제어 성분으로? 그냥 주격조사가 있으니까 주어 성분으로? 주어라면 '할아버지가 기시다'도 서술절인가? 필자는 어느 답을 선택해야 할지 길을 잃고 만다.

결국 필자는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다. 기본문형 [X-(는) Y-(를) 먹-]의 유표적 구성인 '햄버거는 누가 먹었지?'에서 '햄버거는' 성분은 주제화된 목적어 성분으로, '누가'는 초점화된 주어 성분으로 볼 수 있듯이, 기본문형 [X-(는) Y-(가) 길/나쁘-]의 유표적 구성인 '귀는 우리 할아버지가 기시지'나 '머리는 우리 할아버지가 나쁘시지'에서 '귀는'이나 '머리는'은 주제화된 비주어(≒보어≒목적어) 성분으로, '할아버지가'는 초점화된 주어 성분으로 보자는 것이다. 정보구조 차원에서 주제화는 어순과 한정조사 '-는'에 의해 결정되고, 초점화도 마찬가지로 어순과 한정조사 '-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기본 절차라는 근거도 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선어말어미 '-시-'와의 호응에 민감한 성분을 주제화된 것이든 초점화된 것이든 관계없이 주어로 볼 수 있는 직관이 분명하게 살아 꿈틀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댈 수 있을 것이다(목정수 2013, 2017, 2020).

3.2. 기본문형으로서의 이중 주어 구문

앞절에서 보았듯이, 목정수(2018a, 2020)과 유현경(2019, 2021)의 대립각은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를 중심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가 성공하려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가 '주제어 + 주어 + 서술어' 분절보다는 '주어 + 가형목적어 + 서술어' 분절로 분석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한국어 문법 전반과 더 정합적으로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 '주제어' 도입의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선행된다.

먼저 두 자리 논항을 요구하는 서술어의 전형으로 '죽이-'라는 타동사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보자. '죽이-'는 Hopper & Thompson(1980)의 타동성 기준으로 보더라도 아주 전형적인 타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죽이-'의 의미 구조나 논항구조에 따라 논항의 정보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았을 때는 주어진 문장에 대해 '빈 논항 확인 질문하기'가 자연스럽게 유도된다.

(28) 가. 강아지를 죽였대. -> 누가? => 철수(가)
나. 철수는 죽였대. => 누구를?/뭐를? => 강아지(를)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 다음과 같은 발화에 대해 똑같은 '빈 논항 확인 질문하기'가 유도된다는 것은 해당 문장에 두 개의 논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29) 가. 책이 많으시대. -> 누구?/누가? => 우리 선생님(이)
나. 선생님은 많으시대/많이 있으시대. -> 뭐?/뭐가? => 돈(이)

(30) 가. 뱀이 무서우시대. -> 누구?/누가? => 우리 할아버지(가)
나. 우리 할아버지는 무서우시대. -> 뭐가? => 뱀(이)

(29), (30)의 서술어는 '많-'과 '무섭-'으로서 이들은 소유동사 구문과 심리동사 구문을 형성하므로 두 자리 논항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논의가 많다는 것은 이미 앞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목정수 2018a, 유현경 2018, 2021). 이를 감안하면, '많-'이나 '무섭-' 구문에서 논항이 두 개라는 것이 '빈 논항 확인 질문하기'를 통해 바로 입증된다는 것은 그리 놀란 만한 사실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의 구문도 똑같은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31) 가. 눈이 높대. -> 누구?/누가? => 철수(가)
나. 철수는 높대. -> 뭐가?/?어디가? => 눈(이)

(32) 가. 코가 길대. -> 누가? => 코끼리(가)
나. 코끼리는 길대. -> 뭐가? => 코(가)

많은 대다수의 학자들은 '눈이 높대'에서 '철수는'이나 '철수가' 혹은 '철수ø' 같은 논항이 복원되는 것은 서술어 때문이 아니라 '눈'이라는 [+분리불가성] 자질을 갖는 명사 때문으로 본다(임홍빈 2007, 이선웅·박형진 2019, 이호승 2018, 2019, 유현경 2021, 박철우 2002, 2021). 신체명사 '눈'은 그것의 소유 관계를 찾아야만 그 지시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철우(2002: 82)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명사들의 목록까지 제시하고 있다.[26]

(33) 가. 사람/학교/호랑이/모래/위원회/군대 ...
나. 아버지/누나/친구/이웃/선생님/친척 ...
다. 얼굴/눈/팔/발/머리/옆구리/가슴 ...
라. 키/몸무게/혈액형/성격/마음씨/체격/체질/성질 ...
마. 안/밖/뒤/앞/위/아래 ...

26) 박철우(2002)는 세종전자사전의 용언 사전에서 격틀 구조를 'X의 Y가' 구조가 'X-가 Y가' 구조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분석한 문형을 토대로 한 것이다. [철수의 코가 높다. => 철수가 코가 높다.], [철수의 이웃이 착하다. => 철수가 이웃이 착하다.]

바. 성실/깨끗/조용/용감/불안/위태 ...
사. 감동/취침/산행/귀국/도망/체포/구타/거부/약속/요구 ...

그래서 이 잉여 성분은 서술어의 논항구조에 의해 요구되지 않지만,[27] 주어 논항의 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문장 성분이고 topic marker '-는'이 붙는 것으로 보아 '주제어'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의 유형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28]

(34) 가. 철수는 아들이 회사에 다닌다.
나. 철수는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
다. 철수는 친구가 죽었다.
라. 철수는 동생이 또래 아이들보다 크다.
마.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철수'와 '아들, 마누라, 친구, 동생, 아버지'의 관계가 소유 관계로 맺어지므로, '코끼리의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가 성분 주제화되어 문두로 나간 '주제어 + 주어 + 서술어' 구문으로 변형되듯이, '철수의 아들/마누라/친구/동생/아버지'의 소유자 '철수'가 성분 주제화되어 '철수는'이란 주제어가 통사적으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한다. 혹 이러한 변형을 인정하지 않는 진영의 학자들은 그러한 주제어가 있는 자리를 기저-생성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31)과 (32)에서 보았듯이, '철수는 눈이 높다'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에 대해서 '빈 논항 확인 질문하기'를 적용하여 얻은 결과는 (34) 유형의 주제어 구문에서는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 그 구조적 차이가 드러난다. (31, 32) 유형에서는 '눈이 높다'와 '코가 길다'가 완전한 문장을 이룰 수 없고 뭔가가 비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반해, (34) 유형에서는 '동생이/은 회사에 다닌다'라는 문장은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 '동생'의 의미 속성상 그 소유관계를 맺는 성분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그것의 실현 양상은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는 판

27) 첫 번째 명사구를 잉여 성분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한 자리 서술어 용법만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의 용언이 하나의 항가(=결합가=자릿수)만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나의 용언이 다의적 용법을 갖듯이 여러 항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맛있-'은 그것의 문장 구조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원래 '맛있-'은 '맛(이) 있다'라는 소유 구문의 '가형 목적어' '맛'과 소유동사 '있2-'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동사이다. 따라서, '짜장면은 정말 맛이 있다'는 기본적으로 '주어 + 서술구(가형목적어+서술어)'로 분석되고 '이 짜장면은 맛있다'처럼 어휘화된 '맛있-'이 나타난 구문은 '주어(짜장면) + 서술어(맛있-)'로 분석된다. 의미 구조는 <X (be)delicious>로 표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중국집은 짜장면이 맛있다'/'우리 할아버지는 짜장면이 맛있으시다'는 다시 '주어 + 가형목적어 + 서술어(=기술동사)'로 분석되고 그 의미 구조는 <X serve/have_delicious Y>로 표상할 수 있다. '이 중국집은 다른 음식보다 짜장면을 맛있게 만들어 제공한다'라는 의미 해석이 되는 것은 이에 기반한다. 더 나아가 '맛있-'이 주관동사처럼 확장되어 쓰인 '나는 이집 짜장면이 제일 맛있다', '사람들은 이집 짜장면을 제일 맛있어한다' 같은 구문에서의 의미 구조는 <X like Y>로 표상할 수 있다. '내가 이집 짜장면을 제일 맛있어한다'는 것은 '내가 이집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다/마음에 들어한다/즐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28) 보통은 평언부에 정태적 사태의 서술어가 온다는 제약이 제시되어 있지만, 동적 사태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와도 이중 주어 구문이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논의가 있다. 송창선(2017)은 5가지의 기본 문형을 가지고 하나씩 모든 문형이 이중 주어 구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 다만, 거기서는 '이중 주어 구문' 자체도 또 이중 주어 구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이하다. 다음 두 쌍의 문법성 판단을 비교해 보자.

(35) 가. 철수는 눈이 높다.
나. ??철수(의) 눈이 높다.

(36) 가. 철수(의) 동생이 회사에 다닌다.
나. ??철수는 동생이 회사에 다닌다.

그렇다면 '길-'의 두 자리 서술어로서의 용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첫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의 논항 관계를 따져 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전형적인 타동사가 실현된 기본문형의 성격을 먼저 살펴봤던 것이다. 이에 준거할 때, 비로소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가 왜 두 자리 서술어의 실현으로 분석되어야 하며 기본문형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하는가를 논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타동사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예비적으로 첫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 두 번째 명사구와 서술어의 관계를 짚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먼저, 위계적으로 [코끼리는 [코가 길]다]로 분석되는 것은 [코끼리는 [과자를 먹]는다] 구조와 평행하다.[29] 둘째, [코는 [코끼리가 길지]], [과자는 [코끼리가 먹지]]에서와 같이 똑같이 어순(=성분 순서)이 바뀌면서 NP2 자리의 성분이 문두로 나가는 현상이 평행하다.[30] 이처럼, '길-'과 관계를 맺는 두 개의 논항은 그 위계에 있어 차이가 난다. '코끼리는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는' 논항은 '길-'에 대해서 바깥에 놓여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외재 논항)이고, '코가' 논항은 '길-'에 대해서 내부에 놓인 것이므로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내재 논항)이다. 따라서 외부적이냐 내부적이냐,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지, 다 같이 독립적인 논항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서술어 '길-'이 두 자리 서술어로서 두 논항을 요구하여 구성된 것이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문장인 것이다.

3.3. 기본문형이 아닌 이중 주어 구문

계속해서 '빈 논항 확인 질문하기'를 통하여 (34)의 주제어 성분의 논항성을 알아보는 테스트를 해 보자. (34)는 기본문형으로 설정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31]

---

29) 다음 (1)과 같이 '똑똑하다', '재주(가) 많다', '연기(를) 잘하다'가 대등하게 주어 '윤여정이'를 서술하는 구조를 봐도, 이들의 서술어 또는 서술구로서의 위상이 평행함을 알 수 있다. (2)에서도 '머리(가) 좋다', '돈(이) 많다', '테니스(를) 치다', '미남이다'가 대등한 서술어로 쓰이고 있다.

(1) 윤여정이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연기도 잘합니다.
(2) 정수는 머리도 좋고 돈도 많고 테니스도 잘 치고 게다가 미남이기까지 하다.

30) 이에 덧붙여 두 성분의 논항성을 알아보기 위해 Jacobsen(2018)에서 제시한 일명 '知らない(siranai)-test(몰라-테스트)'를 활용해 보자. '知らない-test'를 우리의 논의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할아버지께서는 (쥐가) 무서우신가 봐'라고 발화한 사람에게 '뭐가/누가?'라고 물었을 때, '#몰라'라고 대답하면 그 대답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또 '(할아버지께서는) 쥐가 무서우신가 봐'라는 발화에 대해 '누가?'라고 물었을 때 '#몰라'라고 대답하면 부적절하듯이,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높으시대'라는 발화를 한 사람에게 '뭐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나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높으시대'라는 발화를 한 사람에게 '누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몰라'라고 대답이 나오면 부적절하게 된다. 이는 서술어 '무섭-'에 대해 '할아버지께서는'과 '쥐가'가 독자적인 논항이 된다는 것이고, 서술어 '무섭-'은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는 것을 뜻하듯이, 서술어 '높-'도 '할아버지께서는'과 '눈이'를 독자적인 논항으로 가질 수 있는 두 자리 서술어임을 의미한다.

(37) 가. 동생이 회사에 다닌대. -> 누구(의) 동생?/*?누가? => 철수 동생, *철수가
나. 철수는 회사에 다닌대. -> *누가? => *동생이

(38) 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 누구 아버지 말하는 거야? 누구 아버지가?
*?누가? => 철수 아버지(가), *철수가
나. *?철수는 돌아가셨습니다. -> *누가? *철수(의) 누가? => *아버지(가)

이렇듯, '빈 논항 확인 질문하기'의 결과를 보면, '내 동생은 회사에 다닌다'라는 문장은 기본문형의 한 실현으로 볼 수 있지만, '나는 동생이 회사에 다닌다'라는 문장은 기본문형의 하나인 단문 구조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그들의 동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

(39) 내 동생은 회사에 다닌다. =/= 나는 동생은 회사에 다닌다.
내가 동생이 회사에 다닌다.
나는 동생이 회사에 다닌다.
내가 동생은 회사에 다닌다.

변형론자들은 '코끼리는 코가 길다' 구문을 '코끼리(의) 코가 길다'의 한 자리 서술어의 구성에서 도출된/주제화된 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 편, '주제어 + 주어 + 서술어'의 구조를 상정하는 진영에서는 [주어 서술어] 구성과 독립적으로 주제어가 기저 설정된 것으로 본다. Li & Thompson(1976: 471-469)에서도 화제부각형 언어에서는 '토픽-코멘트' 구조를 보이는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이 기본문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구조는 더 기본이 되는 구조에서 변형에 의해 도출되는(derived)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32] 우리도 이 점에는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이중 주어 구문'의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본문형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차별점이다. 우리는 기본문형으로서의 '이중 주어 구문'은 NP1에 대한 서술절(predicate clause/sentential predicate)—우리의 시각으로는 서술구(VP)에 해당함—의 결합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코끼리는 과자를 잘 먹는다' - '과자는 코끼리가 잘 먹지'를 비교해 보면, 전자의 무표형 문장과 후자의 유표형 문장이 대응되는데, 이러한 대응 관계가 유지되는 구성만이 기본문형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31) 송창선(2017)은 모든 문형에 소위 이중 주어 구문 식의 확장이 성립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서술절의 무용설을 주장하고 있다. 본문의 (34) 유형의 이중 주어 구문은 평언부가 '정태적 사태'를 이루는 경우로 제한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문형이 다 가능하다고 보여진다.

(1) 가. 철수는 친구가 돈을 많이 번다.
나. 철수는 친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떠들었다.
다. 철수는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
라. 철수는 친구가 연예인이다.
마. 철수는 친구가 지금 잔다.
바. 철수는 친구가 동생이 얼굴이 예쁘다.

32) "On the Basicness of Topic-Comment Sentences in Tp languages. Our aim in this section will be to show that topic-comment structures in Tp languages cannot be viewed as being derived from any other sentence type." (Li & Thompson 1976: 471)

(40)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 코는 코끼리가 길지.
나. 철수는 머리가 나쁘다. - 머리는 철수가 나쁘지.

(41) 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33] - 호랑이는 내가 무섭다니까.
나. 철수는 호랑이가 무섭대. -호랑이는 철수가 무섭다나 봐.

따라서 우리는 유현경(2021)에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의 이중 주어 구문에서 주제어 성분으로 분석하고 있는 첫 번째 명사구는 서술절(?), 즉 <NP2 + 서술어>와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다음의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한 자리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은 독립된 온전한 문장을 성립시키지 못한다.

(42) 가. *?손이 크다. cf. 철수는 손이 크다.
나. *?할아버지(의) 귀가 철수보다 기시다. cf. 할아버지는 귀가 철수보다 기시다.

다시 말해서, '너 머리가 나쁘니/아프니?' 구성에서 한정조사 없이 주어진 두 논항 '너'와 '머리'가 한 성분으로 실현된 구성은 성립되기 어렵다. 이처럼 조사 없이 주어진 두 명사 논항은 그 둘의 단위가 먼저 결합된 한 성분으로 해석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은 별개의 논항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가. 너 머리 나쁘니/아프니? = [[너 [머리 나쁘/아프]니] vs. *[[너 머리] 나쁘/아프]니]
나. 너는 머리가 나쁘니/아프니?
다. 너는 머리 나쁘니/아프니?
라. 네가 머리가 나쁘니/아프니?
마. *?네 머리 나쁘니/아프니?
바. *?니 머리는 나쁘니/아프니?
cf. 머리는 니가 나쁘지/아프지?

그밖에 이선웅·박형진(2019)에서 제시한 '커피는 잠이 안 온다'류의 문장도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나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와 같은 기본문형으로 볼 수 없다. 목정수(2018b)에서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제가 쪄요'라는 광고문을 분석했듯이, '커피는 잠이 안 온다'에서의 '커피는'은 '잠(이) 오-'라는 서술명사와 기능동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서술어(complex predicate)의 논항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잉여 성분이다. 이것은 부가어 성분이라고 할 만하다. 따라서 '커피는 잠이 안 온다'류는 주제화된 부가어 구문으로 보고자 한다. 이렇듯,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커피는 잠이 안 온다'류를 동일한 차원에서 분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주

33) '이해(가) 가-'나 '이해(가) 되-' 같은 복합서술어(complex predicate) 구문도 넓게 보면 심리용언 구문과 평행하게 파악할 수 있다. '나'와 '그 말'을 논항으로 요구한다.

(1) 가. 나는 그 말이 이해가 간다. - 그 말은 내가 이해가 가지.
나. 철수는 그 말이 이해가 간대. - 그 말은 철수가 이해가 안 간대.

(2) 가. 나는 그 말이 이해된다. - 그 말은 내가 이해되지.
나. 철수는 그 말이 이해된대. - 그 말은 철수가 이해된대.

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는 기본문형으로 설정할 만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34)]

(44) 커피는 잠이 안 온다.

이러한 구문은 '잠(이) 오-'같은 자동사성 기능동사 구성뿐만 아니라 '잠(을) 자-'같은 타동사성 기능동사 구성에서도 똑같이 허용된다.

(45) 커피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위 두 문장에서 '잠(이) 오-'나 '잠(을) 자-'라는 복합서술어는 주어 자리에 유정물 명사를 요구한다. 일반적인 진술로서 'generic referent'를[35)] 주어로 요구하기 때문에 영형 주어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1인칭 주어나 3인칭 주어를 상정할 수도 있다.

(46) 가. 커피는 보통 (ø) 잠이 안 오기 마련이다.
나. 커피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잠을 잘 수가 없답니다.

(47) 가. 커피는 너 잠 안 오니? <= 커피 마시면, 너 잠 안 오니?
나. 커피는 너 잠 못 자니? <= 커피 마시면, 너 잠 못 자니?

(48) 가. 근데 이 커피는 저 잠 잘 와요. <= 이 커피 마시면, 저 잠 잘 와요.
나. 근데 이 커피는 저 잠 잘 자요. <= 이 커피 마시면, 저 잠 잘 자요.

(49) 가. 그 커피는 철수도 잠 안 온대요. <= 그 커피 마시면, 철수도 잠 안 온대요.
나. 그 커피는 철수도 잠 못 자나 봐요. <= 그 커피 마시면, 철수도 잠 못 자나 봐요.

인칭 제약이 분명히 드러나는 '-더라' 구성을 보더라도, '잠(이) 오-'라는 복합서술어는 주관동사(=심리용언)의 성격이 있고, '잠(을) 자-'라는 복합서술어는 객관행위동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 행위자나 경험자로 각각 1인칭 주어와 3인칭 주어와만 어울린다. 즉, 전자는 3인칭 주어를 상정하면 비문이 되고, 후자는 1인칭 주어를 상정하면 비문이 된다(목정수 2014c, 목정수·문경진 2020).

---

34)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다양한 장르의 문어 코퍼스나 구어 코퍼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언어학자/국어학자가 만들어낸 문장도 한국어의 심연에 깔려 있는 한국어 질서의 단면을 들춰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어의 정수(精髓)를 보여줬던/보여주고 있는 문인들의 글이나 한국어 재능이 남다른 만담꾼의 입에서 나온 한국어 자료에 어떤 문형이 어떤 빈도로 쓰이고 있는지를 정밀 조사함으로써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후학들의 검증을 기대한다.

35) 일반 공고문 등에서 주어를 명시적으로 쓰지 않은 문장의 주어는 'generic referent'로 해석된다. 기용은 이를 '일반 인칭', '우주 인칭'으로 표현한 바 있다(목정수 2014c).

(1)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출입을 금합니다.
(2) 공원에서는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50) 가. 나는 잠이 안 오더라. cf. 나는 외롭더라구.
나. *철수는 잠이 안 오더라. cf. *철수는 외롭더라구. 철수는 외로워하더라구.

(51) 가. 철수는 잠을 잘 못 자더라구. cf. 철수는 키가 크더라구.
나. *?나는 잠을 잘 못 자더라구. cf. *?나는 키가 크더라구.

이런 인칭 제약 현상을 보면, '-더라' 구문에서 '커피는'이란 성분은 주어 성분 자리에 올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주어도 목적어도 아닌 주제화된 부가어 성분이다.

(52) 가. 커피는 (너) 잠이 안 오더냐? <= 커피를 마시면 (너) 잠이 안 오더냐?
나. 커피는 (나) 잠이 잘 안 오더라. <= 커피를 마시면 (나) 잠이 잘 안 오더라.

(53) 가. 커피는 (철수) 잠을 못 자더냐? <= 커피를 마시면 (철수) 잠을 못 자더냐?
나. 커피는 (철수) 잠만 잘 자더라. <= 커피를 마셔도 (철수) 잠만 잘 자더라.

이로써 '커피는' 성분은 '잠이 오-'라는 복합서술어의 주어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면/마셔도'라는 부사절이나 '커피로(는)'이라는 부사어가 주제화된 비주어(=부가어)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은 '빈 논항 확인 질문하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4) 잠이 안 온대. -> 누구?[36] 누가? => 철수(가), *커피(가/는)

(55) 커피는 잠이 안 온대. -> 누구? 누가? => 철수(가), *커피(가/는)

목정수(2018b)에서 분석한 '치킨은 살 안 쪄요' 구문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준다.

(56) 치킨은 살 안 찐대. -> 누가? 나? => 아니 철수(가), *아니 삼겹살(이)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정리해 보자. 우리는 소위 이중 주어 구문 가운데,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만이 기본문형으로 설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구문의 두 논항은 서술어의 논항구조와 관련을 지을 수 있고, 선어말어미 '-시-'와 호응하는 논항이 독립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NP1과 NP2의 관계가 'type-token' 관계

36) '잠(이) 오-'에서 '잠'은 서술명사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물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철수는 안 온대'에 대해서 '뭐가?'라는 질문을 할 수 없다. 복합서술어 '연구(를) 하-', '이해(가) 가-'도 마찬가지이다.

(1) 가. 철수는 영어를 연구를 한다.
-> *철수는 영어를 뭘 하니? => 연구(를)
나. 철수는 그의 설명이 이해가 갔다.
-> *수는 그의 설명이 뭐가 갔니? => 이해(가)

(2) 가. 철수는 이해가 간대. -> 뭐가? => 그의 설명(이)
나. 그의 설명이 이해가 간대. -> 누가? => 철수(가)

이면, NP1은 독립적인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단위 'NP2-는 V'와는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그야말로 독립된 잉여 성분으로서의 주제어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구문은 성분 도치를 통하여 유표적인 대응문을 형성할 수가 없다. 기본문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위 '시계는 엘긴이 비싸다'류의 이중 주어 구문은 기본문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37)]

(57) 가. 생선은 도미가 맛있다. - *도미는 생선이 맛있지.
= 도미라는 생선은 맛있다. = 생선 중에는 도미가 제일 맛있다.
나. 꽃은 장미가 예쁘다. - *장미는 꽃이 예쁘다.
= 장미라는 꽃은 예쁘다. = 꽃 중에는 장미가 제일 예쁘다.
다. 비행기는 747이 크다. - *747은 비행기가 크다.
= 747이라는 비행기는 크다. = 비행기 중에는 747이 제일 크다.

앞에서 보았듯이, NP1과 NP2의 관계가 '소유 관계'이더라도, [NP2+V]가 독자적인 문장으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어순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본문형이 아니라는 말이다.

(58) 가. 철수는 동생이 회사에 다닌다. - *동생은 철수가 회사에 다니지.
cf. 철수 동생은 회사에 다닌다.
나.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 *?아버지는 철수가 돌아가셨지.
cf. 철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선웅·박형진(2019)에서 들고 있는 특수한 예도 기본문형으로서의 이중 주어 구문이 아님은 분명하다. '나는 아기가 잔다'라는 문장 자체도 이상할 뿐만 아니라, 두 성분의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59) 가. ?*나는 아기가 잔다. - *아기는 내가 자지.
cf.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아기가 잘 자서 다행이야.
나. ??나는 동생이 이긴다. - *동생은 내가 이긴다.
cf. 나는 동생이 꼭 이길 거라고 확신해.

끝으로 '커피는 잠이 안 온다'류처럼 부사절이나 부사어가 주제화된 구문도 기본문형에서 제외된다. 임동훈(1997)에서 제시한 '국어학은 취직이 어렵다'도 그 한 예가 된다. 그밖에 시간 부사어, 장소 부사어가 문두로 주제화된 이동한 문장은 기본문형으로서의 이중 주어 구문이 아니다.

(60) 가. 국어학은 취직이 어렵다. - *?취직은 국어학이 어렵다.

---

37) 이러한 구문은 이기갑(2014)에서 언급한 고쳐말하기(repair)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시계 말이야, 저기, 맞아 엘긴 시계 정말 비싸더라구.'라는 발화처럼.
또한 '라면은 농심(라면)이 유명하다' 구문을 '사과는 홍옥이 맛있다'처럼 'type - token' 유형으로 분석하는 입장이 있는데(임동훈 1997), 이 경우는 성분 도치가 안 된다. '*농심(라면)은 라면이 유명하다'처럼. 반면에 목정수(2020: 581-583)에서는 '라면은 농심이 유명하지'를 '농심(회사)는 라면이 유명하다'에서 성분 도치가 이루어진 유표형으로 분석한다. 왜냐하면,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에서 그 유표형 '코는 코끼리가 길지'처럼 그 대응 관계가 평행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 국어학으로는/국어학을 해서는 (사람들) 취직하기 어렵다.
나. 12시는 직원들이 밥을 먹는다. - *?직원들은 12시가 밥을 먹는다.
= 직원들이 12시에 밥을 먹는다.
다. 학교 운동장은 주민들이 운동을 한다. -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이 운동을 한다.
=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한다.

3.4. 단문 내의 이중 주어 구문 vs. 복문 속의 이중 주어 구문

지금까지 우리는 이중 주어 구문으로 기술되었던 다양한 유형의 구문 가운데,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만 기본문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따라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에서 주어 화제인 NP1 성분은 잉여 성분으로서의 주제어가 아니라 당당한 주어 논항으로 포착되어야 하고, 비주어, 즉 부가어 화제를 포함한 이중 주어 구문은 기본문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나머지 유형들은 대부분 기본문형, 즉 단문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다른 주어(DS)의[38] 종속절을 거느리는 복문의 구조로 실현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구문들은 DS 복문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61) 가. 나i는 아버지j가 일찍 돌아가셔j서 대학 들어갈i 때까지 고생을 많이 했i다.
나. 나i는 마누라j가 회사에 다니j기 때문에 돈 걱정을 안 하i고 산다.

앞에서 (34)에 예로 든 문장을 다시 여기에 가져와 보자.

(62) 가. 철수는 아들이 회사에 다닌다.
나. 철수는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
다. 철수는 친구가 죽었다.
라. 철수는 동생이 또래아이들보다 크다.
마.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러한 문장은 한국인들이 글을 쓸 때나 말을 할 때나 잘 쓰이지 않는 구조이다. 이러한 구문들이 문어코퍼스든 구어코퍼스든 어딘가에서 발견된다면,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복문 구조 속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63) 가. 철수는 아들이 회사에 다녀서 걱정이 하나도 없다.
나. 마누라가 집을 나가서 철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다. 철수는 친구가 죽자마자 바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라. 철수는 동생이 또래아이들보다 크니까 흐뭇한 거였지.
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철수는 혼자 가족들을 책임져야만 했다.

소유동사 '있-'이나 '많-' 구문의 첫 번째 성분은 주어로 분석되는데, 그것과 소유관계를 맺는 상위의 주제어는 결국 주절의 주어로 해석되는 복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38) DS는 Different Subject를 가리킨다. SS는 Same Subject를 가리킨다.

(64) 가. 나i는 [동생j이 돈이 많j아서] 유학 자금을 걱정하i지 않았다.
나. [동생j이 돈이 많j아서] 나i는 유학 자금을 걱정하i지 않았다.

(65) 가. 내i가 [동생j이 돈이 많j아서] 유학을 편하게 했i다는 말은 다 헛소리야.
나. [동생j이 돈이 많j아서] 내i가 유학을 편하게 했i다는 말은 다 헛소리야.

다음과 같은 문장은 논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장일 것이다. (66)의 소위 이중 주어 구문과 (67)의 타동사 구문이 평행한 모습을 보여준다.

(66) 가. ?내가 동생이 돈이 많아서 유학을 편하게 했다.
나. ??동생이 돈이 많아서 (ø=내가) 유학을 편하게 했다.
다. *?동생은 돈이 많아서 내가 유학을 편하게 했다.
cf. 나는 동생이 돈이 많아서 유학을 편하게 했다.
동생이 돈이 많아서 나는 유학을 편하게 했다.

(67) 가. ?고호가 동생이 돈을 많이 보내줘서 유학을 무사히 마쳤다.
나. ??동생이 돈을 많이 보내줘서 (ø=고호가) 유학을 무사히 마쳤다.
다. *?동생은 돈을 많이 보내줘서 고호가 유학을 무사히 마쳤다.
cf. 고호는 동생이 돈을 많이 보내줘서 유학을 무사히 마쳤다.
동생이 돈을 많이 보내줘서 고호는 유학을 무사히 마쳤다.

(66), (67)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명사구 삭제 규칙이나 SS/DS 유도 연결어미에 따라 주절의 주어 성분이 결정될 수 있다. 주절의 주어 성분이 한정조사 '-는'으로 실현되느냐 '-가'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전체 복문의 해석이 달라진다.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8) 한정조사 '-는'과 '가'의 쓰임과 동일주어(SS)/다른주어(DS)의 상관성

S(i) [øi … ,] Yi-는 … . SS
S(ii) Yi-는 [øi … ,] … . SS
S(iii) [Xi-가 … ,] øj … . DS > (SS)
S(iv) [øi … ,] Yj-가 … . DS > (SS)
S(v) [ø … ,] ø … . SS > DS
S(vi) [X-가 … ,] Y-가/는 … . DS

(i) 밥을 많이 먹고 나서 철수는 운동을 했다.
(ii) 철수는 밥을 많이 먹고 나서 운동을 했다.
(iii) 동생이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러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었다.
(iv) 밥을 많이 먹어서 동생이 뚱뚱해졌다.
(v) 밥을 많이 먹어서 뚱뚱해졌다.
(vi) 동생이 밥을 많이 먹어서 철수가/는 걱정을 한다.

(68)에서는 편의상 종속절의 주어 생략의 문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주로 '를형 목적어'를 요구하는 강한 타동사를 중심으로 예를 제시했다. 따라서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가 위와 같은 틀에 잘 적용된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나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를 약한 타동성(weak transitivity)으로 분석하여 NP2 성분을 '가형 목적어'로 분석하려는 우리의 의도는 성공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8)의 '밥(을) 많이 먹-'과 (69)의 '머리(가) 나쁘-', '몸(이) 아프-'를 대조하며 하나씩 검토해 보기로 하자.

(69)
(i) 머리가 나빠서 철수는 남들보다 공부를 두 배로 한다.
(ii) 철수는 머리가 나빠서 남들보다 공부를 두 배로 한다.
(iii) 동생이 머리가 나빠서 걱정이다.
(iv) 머리가 나빠서 동생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v) 몸이 아파서 일을 쉬었다.
(vi) 동생이 몸이 아파서 철수가/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따라서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는 (69)의 복문 구조에서 주절의 주어 찾기 원리에 그대로 부합되는 것으로 보아서, (68)의 '주제화된 주어 + 초점화된 를형목적어 + 서술어'의 구조와 평행하게 '주제화된 주어 + 초점화된 가형목적어 + 서술어'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잉여 성분으로서의 주제어로 분석된 NP1 성분은 '주제화된 **주어**'로 재분석되고, 주어로 분석되었던 NP2 성분은 '초점화된 **가형목적어**'로 재분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문에서의 주어 찾기 원리를 적용하면, 앞 3.3절에서 다룬 이중 주어 구문 유형들은 이에서 벗어난다. 잉여 성분의 주제어를 주절의 주어로 하여 복문을 만드는 것이 자유롭지 않다. 주절의 주어는 따로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들이 기본문형으로 설정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39]

(70)
(i) *잠이 안 와서 커피는 맛없다.
cf. 커피는 잠이 안 와서 나는 거실에 나가 책을 읽었다.
커피가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오후 시간 이후로는 절대 마시지 않아요.
(ii) *치킨은 살이 안 쪄서 맛있다.

---

39) 이중 주어 구문의 한 유형으로 제시되었던 다음과 같은 구문은 양화 구문으로 주어가 하나인 자동사 구문으로 취급한다. '학생이' 성분이 주어이고 '세 명이' 성분은 분류사구로서 일종의 부사어구라고 볼 수 있다.

(1) 학생이 셋이/세 명이 왔다. - *셋은/세 명은 학생이 왔다.
= 세 명의 학생이 왔다.

주어와 목적어의 통사적 기능에 관계없이 이러한 양화 구성은 가능하다.

(2) 가. 학생 세 명이 모여 집 두 채를 부수었다.
나. 학생이 세 명 모였다. = 세 명의 학생이 모였다.
다. 집을 두 채 부수었다. = 두 채의 집을 부수었다.

cf. 치킨이 살이 안 쪄서 나는 맘놓고 실컷 먹었다.
치킨은 살이 안 찐다는데 왜 나만 그렇지?
(iii) *?시계가 엘긴이 비싸서 걱정이다.
cf. 시계는 엘긴이 비싸서 엘긴만 잘 안 팔린다.
(iv) *?도미가 맛있어서 생선이 잘 팔린다.
cf. 생선은 도미가 맛있어서 그런지 도미만 비싸게 팔리더라구.
(v) *?직원들이 일을 해서 12시가 빨리 온다.
cf. 12시는 직원들이 일을 해서 나는 저녁에 공부한다.
(vi) *국어학이 취직이 어려워서 영어학이 재미있다.
cf. 국어학은 취직이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전공으로 바꾸려고 한다.

4.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기로 한다.

4.1. 교착어로서의 한국어

국문법서에는 한국어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진술이 많이 나와 있다. "문법요소인 조사(곡용어미=> 체언 교착소)와 어미(활용어미 => 용언 교착소)가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동사에 붙는 어미는 주어와의 인칭, 성, 수 일치와 무관하다."

한국어 조사의 분류 체계는 대개 인구어 고전어의 곡용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교착어의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는 단위들을 형태론적 구성으로 파악하게 된다. 이는 한국어 표준문법 고영근·구본관(2008/2018),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등의 목차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형태론 부문에서 조사와 어미의 분류나 조사와 체언, 어미와 체언의 결합이 다루어지고 있고 통사론 부문에서는 문장 성분의 분류나 성분과 성분의 결합 과정을 통한 단문의 구성, 단문과 단문의 복문 구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는 어미가 문장 구성의 필수적 통사 단위로서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가 통사론의 영역에서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형태론의 영역에 더부살이하듯 빌붙어서 기술되고 있다. 이와 연계되어 일반언어학적 개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어절'이라는 개념이 한국어 문법에서 어정쩡하게 쓰이고 있는 현실도 감안해 볼 수 있다. 조사와 어미의 언어학적 지위가 분명하게 분석되지 못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부분 유형론(partial typology)'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포합어라는 유형에 딱 떨어지는 언어는 있을 수 없다(Rivas 2004, Dixon 1997, 2010). 주어진 언어는 각 언어 유형의 성격을 상대적으로 많이 또는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를 무조건 '교착어'로 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본다(임홍빈 1997, 최형용 2013). 조사가 보여주는 문법적 성격은 분명 교착어로서의 성격을 잘 보여주지만, 종결어미가 보여주는 문장유형, 서법, 대우법의 다기능적인 모습은 굴절어의 성격 또한 일부 공유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목정수 2015, 2016c, 2020).

4.2. 자유 어순

흔히들 "한국어는 어순이 자유롭다."라고 한다. 어순의 자유성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분 순서'의 자유성를 의미한다고 해야겠지만, 서양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순이란 용어가 그냥 대강의 의미로 유통되고 있다.

(71)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 읽어 주었다.

'읽어 주었다'를 서술어 성분으로 보면 '철수가', '영희에게', '책을'이 주어 성분, 간접목적어 성분, 목적어 성분이 되는데, 이들의 순서가 자유롭게 뒤섞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술어의 위치가 문말에 고정되어 있다고 치면 세 성분의 뒤섞기이므로 3!(3*2*1)=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그러나 성분이 서술어 뒤까지 이동하는 소위 후보충(afterthought) 구문도 허용되므로 그 경우의 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변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어의 기본 어순은 'SOV'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사실, 자유 어순이 허용되지만, 기본 어순의 기제에 의해 주어나 목적어 성분이 조사 없이 실현되었을 때도 주어와 목적어란 기능이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주어가 주제어 자리에 쓰이는 것은 매우 흔한 데 비해 목적어 등 비주어 성분이 주제어 자리로 옮겨 가는 현상은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자유로운 성분 뒤섞기(scrambling)도 표지에 의해 분명히 인식될 수 있고, 정보구조의 흐름에 부합하는 선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 아무런 원리 없이 자유로움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4.3. 프로드롭 언어로서의 한국어

한국어의 대명사는 인구어의 약세형 대명사(pronom atone)와 성격이 다르다. 한국어에는 1인칭과 2인칭을 나타내는 대명사가 여럿 있을 뿐만 아니라 3인칭 대명사 '그'나 '그녀'도 서양문학의 번역체에 영향을 받은 소설류에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72), (73)에서 보듯이 그러한 대명사가 전방조응이나 후방조응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략되어야 한다. 또한 (74)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어 대명사는 후치사류든 한정사류든 어떤 조사와의 결합도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국어의 대명사는 명사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72) 가. *그i가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i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단다.
나. *우리 아버지i는 그i가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셨단다.

(73) 가. (øi) 젊었을 때, 우리 아버지i는 여행을 많이 다니셨단다.
나. 우리 아버지i는 (øi) 젊었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셨단다.

(74) 가. 공원에서, 공원으로, 공원과, 공원은, 공원이, 공원에서도, 공원을 위하여
나. 나에게, 나로, 나와, 나는, 내가, 나에게도, 나를 위하여

이처럼 주어 성분은 대명사뿐만 아니라 명사구로 외현적으로 실현되지만, 그것이 명시적으로 실현되지 않아도 서술어 성분만으로도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앞뒤의 문맥이나 발화상황을 고려하면, 주어나 더 나아가 목적어 성분의 복원도 가능하다. 그것의 단서는 바로 서

술어에 실현된 각종의 어미구성체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러한 동사에 붙어 문장 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문법요소들이 주어 논항 확인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75) 가. BTS가 너무 좋아요.
나. BTS가 너무 좋대요.
다. BTS가 너무 좋으시대요.

목정수(2014c)에서는 한국어 문법에서 생략된 논항의 복원을 종결어미를 중심으로 해서 보조용언 구성에 이르기까지 문법소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을 강하게 한 바 있다. 그리하여 목정수(2019)에서는 한국어 문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항구조 중심의 분석법에 더해 인칭구조 중심의 분석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일본어 문법계에서도 Nariyama(2000)이 생략된 논항의 복원 기제를 서술어의 의미 특성인 'argument structure', 'topic continuity principle', 'wa/ga distinction', 'honorifics', 'epistemic morpheme'을 이용하여 지시체 추적(referent tracking)의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어-영어 기계번역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국어에서도 서양어의 주어와 동사의 인칭, 성, 수의 일치(agreement) 현상이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프롭드롭이 허용되는 현상은 그냥 이상하거나 특이한 현상으로서 치부되어서도 안 되고 맥락 의존적인 언어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봐서도 안 될 것이다. 서술어에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문법요소와의 상관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우 체계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76) 가. (øi) 갔대i? (비존대형의 3인칭 주어)
나. (øi) 갔대들i? (비존대형의 3인칭 복수 주어)
다. (øi) 가셨대i? (존대형의 3인칭 주어)
라. (øi) 가셨대들i? (존대형의 3인칭 복수 주어)

따라서 한국어의 주어 성분이 생략되어도 복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주어를 표시하는 요소가 교차지시(cross-reference)된다고 적극 해석해도 무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한국어의 주어의 문법적 지시는 어미가 일정 부분 담당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보면 이탈리아어의 동사 인칭어미가 주어를 나타내듯이, 이를 주어 확인 장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목정수 2014c 참조). 다음과 같은 종결어미도 주어의 인칭 제약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된다.

(77) 가. 금방 갈게. ('-을게': 1인칭 주어 표지)
나. 라면 먹고 갈래? ('-을래?': 2인칭 주어 표지)
다. 금방 간다네! ('-는다네↗': 3인칭 주어 표지)
라. 알겠네, 금방 가겠네. ('-겠네↘': 상대 하대 1인칭 주어 표지)

4.4. 핵후행 언어로서의 한국어

한국어는 'A N', 'Rel N', 'Adv V' 등 어휘적 수식-피수식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명사구와 체언토인 조사의 관계나 동사구와 용언토인 어미와의 관계나 문법소는 어휘소에 항상 후행하

는 '핵후행 언어(head-final language)'이다. 문법소와 문법소가 결합할 때는 더 문법적인 성격일수록[40] 더 뒤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있다.

(78) 가. '공원-에서-는' vs. '*공원-은-에서'
나. '먹-고 싶-겠-다' vs. '*먹-겠-고 싶-다'

이처럼 한국어의 문법소가 발달해 있다는 것이 함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면을 통사론 연구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문법소의 어휘적 반영으로서 성분 대칭적으로 중심축(pivot) 왼쪽에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한국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head-marking 언어'와 'dependent-marking 언어'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79) 가. (한) 남자-**가**
나. (그) 여자-**는**

(80) 가. (만약에) 이 국수가 라면이-**라면**
나. (비록) 비가 오-**ㄹ지라도**

(81) 가. (그 사람) 음악 싫-**대**.
나. (김 사장님) 이쪽으로 앉-**으실게요**.
다. (너i) (할아버지께j) 책 읽**어 드려j라i**.
라. (선생님i이) (절j 위해) (이쪽k으로) 뛰**어와k 주j실래요i?**

4.5. 고맥락 언어로서의 한국어 (cf. 고맥락 사회)

한국어는 주어나 목적어 성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동사에 주어 일치 요소도 없는데, 문장에서 무엇이 주어로 문제가 되는가를 맥락에 의존해서 알 수 있다고 하여, 맥락에 민감한(context-sensitive) 언어, 화용론적 언어, 더 나아가 비논리적인 언어로 규정되곤 한다. Li & Thompson(1976)에서는 주제 부각형 언어(topic-prominent L.) 언어로 중국어를, 주어 부각형 언어(subject-prominent L.)로 영어를 들고 있고, 한국어와 일본어는 주제·주어 부각형 언어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어처럼 기본적인 어순이 'SOV'인 언어에서는 주어가 주제어로 나타나는 것이 무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주제·주어 부각형 언어로 분류된 듯하다. 필자는 한국어가 주제·주어 부각형 언어라고 하는 것의 참뜻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철수는 김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의 무표적 어순 [주어S + 를형목적어O + 서술어V]의 어순에서 문두에 놓이는 주어 '철수'는 술부 '김밥을 먹-'과 나뉘는데, 이 문장을 [topic + comment]로 분절했을 때 topic의 자리에 놓이는 주제어 '철수는'과 일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목적어O + 주어S + 서술어V]가 [토픽 + 코멘트] 구조로 나뉘면 주제어 자리에 목적어 성분이 오는 유표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한국어에서 주제화된 주어는 그것이 속한 문장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문장에서도 계속 영향력이 미쳐서, 후행 문장에

40) 뒤로 갈수록 더 문법적(more grammatical)이라는 것은 뒤로 갈수록 '더 주관적'이라는 뜻도 되고 '더 담화·화용적'이라는 뜻도 된다. '먹어 치워 버리고 싶지 않았잖겠니?'

영형 주어가 나타나더라도 해당 문장의 주어로 분석되는 'topic continuity'의 원리가 유지된다는 것이다(Givón 1983). 주어 이외의 성분이 주제화된 경우가 후행 문장의 주어로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다.

(82) 나i는 오늘 일찍 일어났다. øi 학교에 가서 공부도 했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도 만났다. 친구들j은 모두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øj 소중한 녀석들이라고 새삼 생각되었다.

(83) 옛날에 어느 마을에 선비가 살고 있었다. 선비는/*øi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øi 악몽에 시달렸다]. [øi 전에 과거 시험에 떨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84) 할아버지i께서는 지갑에 돈j이 많이 있으셨다. 그러나 øi 남에게 절대 돈을 빌려주거나 적선하는 법이 없었다.

(85) *할아버지i께서는 돈j이 많이 있으셨다. 그러나 øj 남의 주머니로 흘러가는 법은 없었다.

(86) 할아버지께서는 책i을 많이 쓰신다. 책은/*øi 다 잘 팔린다. øi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다.

(87) 금고 속에는 돈i이 많이 남아 있었다. 그 돈i은 고액이었다. øi 철수가 유학하고도 남을 액수였다.

5. 결론

지금까지 국어학 전통에서 기본 공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의 분류 체계나 연결어미, 선어말어미, 어말어미들의 분류 체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분류의 기준이 분포(distribution)에 기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포에 입각하여 조사를 새로 분류하면, 기존의 격조사로 분류되어 왔던 '-가'와 '-를'이 보조사 중에서 '-도, -는'과 더불어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 성원임이 밝혀진다. 이는 조사 '-가'와 '-를'의 본질이 문법 관계를 표시하는 후치사 기능에 있지 않고 '-도, -는'과 더불어 정보구조와 텍스트의 흐름을 조정하는 담화적 기능의 '한정사(=후치관사)'라는 점을 직설적으로 알려준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정보구조 논의에서 끊임없이 격조사의 초점(focus) 기능을 논의할 때조차도 그 격조사란 결국 '-가'와 '-를'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구정보-신정보, 화제-초점 등의 대비 또한 결국 보조사 '-는'과 격조사 '-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통해 이미 소리 없이 증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에, -로, -와, -처럼, -만큼' 등의 부사격조사나 후치사뿐만 아니라 '-만, -조차, -까지' 등의 보조사는 정보구조와 텍스트의 흐름에 직접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한정사 부류 '-가, -를, -도, -는, -이나, -이라도'만이 정보구조에 관여적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조사 '-가, -를'을 격조사 차원에 가두어 둠으로써 발생하게 된 논리적 얽힘 현상이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정사 부류가 정보구조에 지배를 받아 명사 논항이나 부가어에 붙는 통사 현상이 담화·화용론과의 유기적인 관계 하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에 의해 기본문형에서 유표적인 문형이 구분될 수 있다는 것, 즉 정보구조가 구문의 형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구

조와 통사구조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목정수 2018b).

이러한 기본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한국어의 소위 '이중 주어 구문'이라고 분류되었던 구문 가운데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와 '나는 호랑이가 무섭다'류는 기본문형의 하나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었다. 전자의 서술어 '길-'은 <X have_long Y>의 논항구조를 갖는 두 자리 서술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주어 논항 '코끼리'는 '소유주(possessor)'의 의미역을 할당받고 비주어 논항[41] '코'는 '대상(theme)'의 의미역을 할당받는다. 후자의 서술어 '무섭-'은 <X is scared/afraid of Y>의 논항구조를 갖는 두 자리 서술어로 보아, 주어 논항 '나'에는 '경험주(experiencer)'의 의미역이, 비주어 논항[42] '호랑이'에는 '대상(theme)'의 의미역이 배당된다. 따라서 양 구문에서 X와 Y라는 논항이 보여주는 통사적 행태의 평행성이 도출된다.

(88) 관계화 제약
가. 코가 긴 코끼리 vs *코끼리가 긴 코
나. 호랑이가 무서운 나 vs. *내가 무서운 호랑이

(89) 선어말어미 '-시-'의 호응
가. 할아버지께서는 코가 크신 편이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호랑이가 무서우신가 보다.

(90) 동일 주어 제약
가. 할아버지i는 코가 크시면서도 øi 늘 코를 더 키우고 싶어 하신다.
나. 나i는 호랑이가 무섭지만 øi 호랑이를 잡으러 굴에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유형의 이중 주어 구문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이중/다중 주어 구문은 기본문형으로 설정될 수 없는 복문의 구조에 나타나는 구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91가, 나, 다, 라). 그 밖에 부가어가 주제화된 특수 구문이거나(91마, 바) 고쳐말하기(repair) 구문의 일종이거나(91사, 아) 하여 단문을 중심으로 한 통사론의 영역 밖에서 별도로 특수하게 다루어야 할 유표적 구문으로 파악하였다.

(91) 가. 철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학업을 포기하고 집안을 책임져야만 했다.
나. 철수는 동생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손을 벌린 적이 없다.
다. 나는 동생이 이번 시합에서 꼭 이길 거라고 봐.
라. 나는 내 동생이 철수 동생보다 더 커서 다행이야.
마. 커피는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잠을 잘 잘 수 있는 거야?
바. A: 국어학은 취직이 잘 안 된다며? B: 무슨 소리야? 철수는 대학교수 금방 되던데.

41) 이 비주어 논항(NP2)을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절설을 바탕으로 '소주어'로, 유현경(2021), 유현경 외(2019)의 표준문법에서는 '주어'로, 본고에서는 '가형목적어'로 분석한다.
42) 이 비주어 논항(NP2)을 학교문법에서는 서술절설을 바탕으로 '소주어'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별도로 보어로 처리하기도 한다. 후자의 태도는 서술절로 보지 않고 NP1 성분을 주어로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현경(2021), 유현경 외(2019)의 표준문법에서는 NP2 성분을 '보어'로 보고 NP1 성분을 주어로 본다. 본고에서는 일관되게 NP2 성분을 '가형목적어'로, NP1 성분을 주어로 분석한다.

사. 생선은 말이야, 저 그거 있잖아... 맞아 도미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해.
아. 내일 날씨는 저기 뭐냐... 비 올 것 같대.

이처럼, 한국어는 'SOV'의 기본 어순을 갖는 언어, 조사(후치사류와 한정사류)와 어미(태, 시제, 상, 양태, 서법, 인칭)라는 문법소가 발달한 언어, 부분적으로 고립어적·굴절적 성격을 갖지만 교착적 성격이 강한 언어로서,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들, 즉 '핵 후행 언어', '프로드롭 허용의 언어', '자유 어순의 언어', '주제·주어 부각형 언어', '맥락에 민감한 고맥락 언어', '존대법이 발달한 언어', '담화·화용론적 언어', '비논리적 언어' 등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장도 생략된 성분을 복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제가 문법 전반에 중층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누구에 관한 서술인지 무엇에 관한 서술인지,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체계적인/논리적인(?) 언어인 것이다. 그런 언어가 바로 한국어이다.

참고문헌

고영근(2018a), 『한국어와 언어 유형론』, 월인.

고영근(2018b), 『우리말 문법: 그 총체적 모습』, 집문당.

고영근·구본관(2018), 『(개정판)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체계 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민국(2016), 『한국어 주어의 격표지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김건희(2017), 서술절에 대한 재고찰: 내포절 체계 내의 다른 절과의 변별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43, 한말연구학회, 29-63.

김건희(2018), 주격중출 구문에 대한 일고찰: 정보구조와 문장 확대 구성 관점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76, 우리말글학회, 1-33.

김건희(2020), 서술절 설정과 정체성 다시 보기: 역대 문법 교과서의 '서술절' 관련 단위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38, 한국문법교육학회, 99-135.

김용하(2005), 문법과 화용론의 관계를 생각한다: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2000)을 중심으로, 『형태론』 7-2, 형태론편집위원회, 455-468.

김일규(2016), 한국어에 서술절이 존재하는가?, 『언어와 정보』 20-3, 한국언어정보학회, 27-40.

남기심(1986), '서술절'의 설정은 타당한가?, 『국어학신연구 1』(유목상 편), 탑출판사, 191-198.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남기심·고영근·유현경·최형용(2019), 『새로 쓴 표준 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목정수(1989), 『불어의 영형관사 연구: 심리역학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서울대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목정수(2003), 『한국어 문법론』, 월인.

목정수(2005), 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새로운 해석, 『언어학』 41, (사)한국언어학회, 75-99.

목정수(2013), 선어말어미 '-시-'의 기능과 주어 존대, 『국어학』 61, 국어학회, 63-105.

목정수(2014a), 한국어 서술절 비판: 통사단위 설정을 중심으로,『현대문법연구』76, 현대문법연구학회, 101-126.
목정수(2014b), 허웅 선생의 일반언어학 이론: 그 성과와 한계, 그리고 계승을 위한 제언,『허웅 선생 학문 새롭게 읽기』(권재일 엮음), 박이정, 33-82.
목정수(2014c),『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목정수(2015), 한국어 통사론에서의 융합의 길: 조사와 어미의 신질서를 찾아서,『국어국문학』170, 국어국문학회, 71-115.
목정수(2016a), 한국어 비인칭 구문의 유형론, (사)한국언어학회 여름학술대회 발표문, 193-215.
목정수(2016b), 한국어의 진성 주어를 찾아서,『어문연구』17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7-46.
목정수(2016c), 유형론과 정신역학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 서법과 양태,『한국어학』171, 한국어학회, 55-108.
목정수(2017), 높임말을 다시 생각한다: 이른바 '사물 존대' 현상에 대한 상념,『새국어생활』27-1, 국립국어원, 31-50.
목정수(2018a), 서술절 설정에 대한 재론: '서술절' 개념 비판에서 '쪼개진 목적어' 유형 정립까지,『국어학』87, 국어학회, 39-83.
목정수(2018b), 한국어 정보구조와 통사구조,『언어학』81, (사)한국언어학회, 127-163.
목정수(2019), 한국어 통사론의 나아갈 방향: 논항 구조에서 인칭 구조로의 전환,『한글』80(4), 한글학회, 891-940.
목정수(2020),『언어유형론, 정신역학론 그리고 한국어 문법』, 한국문화사.
목정수·이상희(2016), 문두여격어 구문의 정체: 여격주어 설정은 타당한가?,『형태론』18-2, 형태론편집위원회, 217-241.
목정수·문경진(2020), 한국어 인칭 구조 보론: 이선웅(2019)의 비판에 대한 반박,『형태론』22-2, 형태론편집위원회, 149-184.
문창학·목정수(2015), 일한 '이중 주어 구문'에 대한 대조 연구,『日本学研究』45, 단국대 일본어연구소, 349-368.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관계와 논항구조,『국어연구』123,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철우(1996), 국어의 문장 화제: 이중 주어문과 관련하여,『언어연구』14,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35-51.
박철우(1998),『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철우(1999), 한국어의 화제: 정보구조의 관점에서,『언어연구』19, 서울대학교 언어연구회, 75-97.
박철우(2002),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언어학』34, (사)한국언어학회, 75-111.
박철우(2007), 국어 분리 구성의 형식과 기능,『언어학』49, (사)한국언어학회, 203-225.
박철우(2014a), 한국어에는 주어가 없는가,『현대문법연구』76, 현대문법연구학회, 149-172.
박철우(2014b), '대조' 의미의 언어학적 성격: 정보구조와 관련하여,『한국어의미학』45, 한국어의미학회, 129-157.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국어학』73, 국어학회, 269-307.
박철우(2017),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정보 단위 획정 문제,『언어학』78, (사)한국언어학회, 131-163.

박철우(2018), 종합적 단어관의 전개 가능성 검토, 『한글』 320, 한글학회, 327-368.
박철우(2019), 구문과 정보: 국어 문법에서의 정보구조의 위상 검토, 『국어학』 89, 국어학회, 337-383.
박철우(2021), 한국어와 정보 구조: 적용상의 쟁점을 중심으로, 제80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121-148.
송창선(2017), 국어 문법의 서술절 설정에 대한 비판, 『국어교육연구』 65, 국어교육학회, 93-112.
신서인(2006), 『구문 분석 말뭉치를 이용한 한국어 문형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서인(2014), '이/가, 을/를'의 비전형적인 분포와 기능, 『국어학』 69, 국어학회, 69-103.
양명희 외(2018),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과 표현 (초급)』, 집문당.
연재훈(1996), 국어 여격주어 구문에 대한 범언어적 관점의 연구, 『국어학』 28, 국어학회, 241-275.
연재훈(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1(1), 한국언어학회, 107-132.
연재훈(2011),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우형식(1998), 『국어 동사 구문의 분석』, 태학사.
유현경(2018),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의 범위와 유형: 표준국어대사전 용언 목록을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31, 한국사전학회, 117-146.
유현경(2019), 보어의 문장성분론, 『형태론』 21-1, 형태론편집위원회, 108-134.
유현경(2021), 통사론의 연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주제어의 통사론적 해석을 중심으로, 통사론연구회 특강 자료.
유현경 외(2019),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이기갑(2014), 한국어의 고쳐 말하기(Repair)와 격 중출 구문, 『국어학』 72, 국어학회, 3-45.
이남순(1998), 『격과 격표지』, 월인.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이선웅(2014), 통사 단위 '절'에 대하여, 『배달말』 56, 배달말학회, 77-104.
이선웅(2019), 한국어 보어의 개념과 범위, 『형태론』 21-1, 형태론편집위원회, 135-159.
이선웅·박형진(2019), 문장성분으로서의 주제어, 『언어』 44-3, 한국언어학회, 633-655.
이호승(2018), 국어 성상형용사 구문의 주제어와 주어성 검증 기제, 『언어와 정보 사회』 35,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73-301.
이호승(2019), 문장의 잉여 성분과 제시어, 『언어와 정보 사회』 38,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121-144.
이홍식(1996),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홍식(2020), 이중주어 구문의 의미역에 관하여, 『비교문화연구』 59,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293-326.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한국문화』 19,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31-66.
임동훈(2000), 『한국어 어미 '-시-'의 문법』, 태학사.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회(국어연구 28).
임홍빈(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문법연구회, 111-148.
임홍빈(1985), {-시-}와 경험주 상정의 시점(視点), 『국어학』 14, 국어학회, 287-336.
임홍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관악어문연구』 22, 서울대 국어국문학

과, 93-163.
임홍빈(2007),『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주제 개념의 새로운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부.
최수영(1993), 한국어 주제/주어 조사 '는', '가'의 패러다임: 수학적 모형과 교재분석을 중심으로,『어학연구』29-1, 서울대 어학연구소, 49-73.
최윤지(2019),『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태학사.
최현배(1937),『우리말본』, 정음사.
최형용(2013),『한국어 형태론의 유형론』, 박이정.
한정한(2013), 명사 논항의 자릿수와 이중주어 구문의 주어,『한국어학』61, 한국어학회, 369-402.
함병호(2018a),『한국어 정보구조의 화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함병호(2018b), 이중 주어 구문의 정보구조,『한국어학』81, 한국어학회, 325-360.
함병호(2021), 한국어의 주제, 제80차 한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183-209.
허웅(1981),『언어학, 그 대상과 방법』, 샘문화사.
허웅(1983),『국어학, 우리말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허웅(1995),『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허웅(1999),『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 샘문화사.
홍기선(2014), 한국어의 격중출구문과 담화구조,『언어』39-3, 한국언어학회, 677-699.
홍사만(2009), 한·일어 이중주격론의 대조 분석: 三上 章설을 중심으로,『어문론총』50(0), 한국문학언어학회, 33-71.
홍재성(1987),『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의 연구』, 탑출판사.

三上 章(1960),『象は鼻が長い』, くろしお出版.
角田 太作(2009),『世界の言語と日本語 (改訂版): 言語類型論から見た日本語』, くろしお出版.

Chae, H. R. (2020), *Korean Morphosyntax: Focusing on Clitics and Their Roles in Syntax.* London: Routledge.
Chafe, W. (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Charles Li. (ed.), *Subject and Topic*, pp.25-56, New York: Academic Press.
Croft, William. (1990),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xon, R. M. W. (1997), *The rise and fall of languag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xon, R. M. W. (2010a), *Basic Linguistic Theory Vol. 1: Method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Dixon, R. M. W. (2010b), *Basic Linguistic Theory Vol. 2: Grammatical Topics*, Oxford University Press.
Dixon, R. M. W. and A. Y. Aikhenvald (eds.) (2000), *Changing valency: Case studies in transitiv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uay, C. and D. Roulland (1990), *Vocabulaire technique de la psychomécanique du langage*,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 et Laboratoire du CERLICO.
Dryer, Matthew S. and Haspelmath, Martin (eds.) (2013),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Givón, Talmy (1983) (ed.), *Topic continuity in discourse: a quantitative cross-language study*, Typological Studies in Languages. No. 3. Amsterdam: John Benjamins.

Guillaume, G. (1971), *Leçons de Linguistique 1948-1949, Série B, Psychosystématique du Langage: Principes, Méthodes et Applications (I)*,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Lille; Paris, Klincksieck.

Guillaume, G. (1973), *Principes de linguistique théorique de Gustave Guillaume*, Les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et Librairie C. Klincksieck.

Hewson, J. & V. Bubenik (2006), *From Case to Adposition: The Development of Configurational Syntax in Indo-European Language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opper, P. & S.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2, 251-299.

Jacobsen, Wesley M. (2018), Argument Structure in a Pro-drop Language: the Case of Japanese,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7월 월례발표회 발표자료. [2018년 7월 9일(월) 오후 3시~4시,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602호(J602호)]

Keenan, E. L. (1976), Towards a Universal Definition of "subject", in Charles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303-333.

Kittila, Seppo (2002a), *Transitivity: Towards a comprehensive typology*, Turku: Abo Akademis Tryckeri.

Kittila, Seppo (2002b), Remarks on the basic transitive sentence, *Language Sciences* 24(2): 107-130.

Koizumi, M. (2008), Nominative Object, *The Oxford Handbook of Japanese Linguistics*, Miyagawa & Saito (eds.), Oxford University Press, 141-164.

Lambrecht, Knud (2000), When Subjects behave like Objects: An analysis of the merging of S and O in sentence-focus constructions across languages, *Studies in Language* 24:3, 611-682.

Levin, B. & Rappaport, H. (2005), *Argument Re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 C. N., & Thompson, S. A.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harles Li. (ed), *Subject and Topic*, New York: Academic Press, 457-489.

Makino, Seiichi & Tsutsui, Michio (1986), *A Dictionary of Basic Japanese Grammar*, The Japan Times.

Makino, Seiichi & Tsutsui, Michio (1995), *A Dictionary of Intermediate Japanese Grammar*, The Japan Times.

Nariyama, Shigeko (2000), *Referent identification for ellipted arguments in Japanese*, doctoral dissertation in the University of Melbourne.

Næss, Åshild (2007), *Prototypical Transitivity*,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Rivas, J. (2004), *Clause Structure Typology: Grammatical Relations in cross-linguistic perspective*, TrisTram.

Shibatani, Masayoshi. (1982), Japanese grammar and universal grammar, *Lingua* 57(2-4): 103-123.

Shibatani, M. (2001), Non-canonical constructions in Japanese, Aikhenvald, Dixon and Onishi (eds.), *Non-canonical Marking of Subjects and Object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307-354.

Sugamoto, Nobuko (1982), Transitivity and Objecthood in Japanese, in Hopper and Thompso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15, Studies in Transitivity*, Academic Press, 423-447.

Tsunoda, Tasaku (1985), Remarks on transitivity, *Journal of Linguistics* 21(2): 385-396.

Valin, Roch (1981), *Perspective Psychomécanique sur la Syntaxe*, Cahiers de Psychomécanique du langage, Québec: Presses de l'Université Laval.

Yoon, James H. (2004), Non-nominative (major) subjects and case stacking in Korean, Bhaskararao & Subbarao (eds.), *Non-nominative Subjects* vol. 2,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65-314.

"국문법 새로 보기: 정신역학론과 언어유형론의 관점에서"에 대한 토론문

이정훈(서강대)

목정수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어가 보이는 몇몇 특징적인 현상에 대해 숙고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보듯이 논의 내용이나 범위가 자못 넓은데, 발표 내용을 보다 충실히 이해하고 토론을 구체화하기 위해 군데군데 짚으며 질문 몇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서론
2. 한국어 이중 주어 구문의 통사론과 담화·화용론
  2.1. 소소한 통계치
  2.2. 한국어의 기본문형
  2.3. 기본문형의 형태론과 통사론적 과정
3. 통사론 논의에서의 주제어 설정 문제
  3.1. 주제어와 주어
  3.2. 기본문형으로서의 이중 주어 구문
  3.3. 기본문형이 아닌 이중 주어 구문
  3.4. 단문 내의 이중 주어 구문 vs. 복문 속의 이중 주어 구문
4. 한국어의 유형론적 특성
  4.1. 교착어로서의 한국어
  4.2. 자유 어순
  4.3. 프로 드롭 언어로서의 한국어
  4.4. 핵 후행 언어로서의 한국어
  4.5. 고맥락 언어로서의 한국어 (cf. 고맥락 사회)
5. 결론

1. 정신 역학론

- 언어는 부분이 모여 전체가 형성되며 그 과정에서 부분과 구조로 환원되지 않는 속성, 즉 소위 창발성이 나타나기도 함. 이와 관련하여 <그림 1>~<그림 3>으로 도식화된 정신 역학론에서 창발성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또한 act of language, discourse의 개념은? 이와 관련하여 의미론과 화용론/담화론의 구분은?

2. 한국어 문장 파악의 층위

- "본고는 한국어의 기본 문장은 일단 '주술 구조'와 '목술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위에 차원을 달리하여 정보구조의 틀이 덧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 이러한 주장은 '겹주어론'(김영희, 1978) 등과 통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토론자도 동감하는 바임. 그런데 단선이 아니고 복선을 택하게 되면 몇 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두 층위? 세 층위? 네 층위? 등. 또 n 층위로 결정되면 하필이면 왜 n개의 층위가 성립하는지도 논의해야 함. 이 과정에서 층위에 대한 언어차도 고려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몇 개의 층위를 상정하는지?

3. 한국어의 기본문형

- 앞서 제시한 차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본 문형'의 자격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가진 것으로 이해됨(3.2와 3.3의 제목 참고). 발표를 통해 어렴풋이 그 기준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는 있는데, 보다 명시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듯함. 기본문형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왜 그러한 기준이 설정되는지?

4. 어순과 구정보/신정보

- "문장의 구성은 어순의 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미 화자가 알고 있는 대상(구정보)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신정보)을 서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절차이기 때문이다."(8면)
- 위와 같은 판단은 많은 것을 단순화한 언급으로 사료됨. 이에 어순과 기능에 대한 발표자의 보다 자세한 견해를 청함.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문답 '철수가 누구를 만났니? 영이를 만났어요 철수가."의 답에서 보듯이 신정보가 앞서는 경우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cf. 'An empirical study of postposing constructions in Korean'(Kim, Tae-Ho. 2011)]

5. 중주어 혹은 격 중출 구문

- (17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를 '주어, '-가'형 목적어, 서술어'로 분석하는 경우, '토끼가 귀가 왼쪽의 끝이 하얗다'와 같은 사례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cf. '주격 보어에 관한 소고'(강명윤. 1995)] (cf. "목정수(2014a, 2018a)는 … 서술절의 전형으로 여겨져 왔던 '코끼리는 코가 길다'류도 서술절이 부정될 수 있고 따라서 단문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다." 14면)

- (17가)에 대한 설명은 '길-'을 두 자리 술어로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됨. 그런데 16면 (20) 아래에서는 "'길-' 같은 한 자리 서술어가 쓰인 경우"와 같은 언급이 보임. '길-'은 몇 자리 술어?

- '코는 코끼리가 길고, 귀는 토끼가 길다' ⇨ (23) '코는 코끼리가 길다니까'를 '코끼리가 코가 길다'에서 '코가'가 문두로 초점화된 것으로 파악함. 그런데 '코는 코끼리가 길다'에서 '코'는 '코끼리의 코'로 해석되지 않는 듯함. 이에 '코는 코끼리의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의 코'가 '코끼리'로만 표현된 것으로 보면 어떨지? (cf. 어휘적/의미적 자질에

의해 강요되는/보장되는 해석. generative lexicon. '라면은 {농심라면이, 농심이} 맛있다, 다음 시간엔 {목정수 교수 논문을, 목정수를} 읽기로 했다, 언제까지 촘스키만 읽을래?, 촘스키를 읽기나 하고 말하는 거니?)

6. 어미와 인칭

- (76, 77)과 관련하여, 아래 예에서 처럼 어미와 인칭의 호응/일치가 나타나지 않는, 아니면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갑이 을에게 올 것을 요청함. 을은 바빠서 안 되고 대신에 병이 갈 수 있으므로 병이 가면 된다고 판단함)
  갑: 빨리 와.
  을: 바빠서 곤란해. 대신에 병이 갈게.
  cf. '지나갑시다, 내립시다' 등

- '라면 먹고 갈래?' 대신에 '라면?'만으로도 가능. 즉, 어미가 없어도 프로 드롭은 가능한 듯. 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논지 파악이 미비하거나 논지를 곡해한 점이 있으면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끝.

국어 형태론 연구와 심리언어학적 실험

송원용(인천대 국어국문학과)

1. 국어 형태론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1990년대까지 한국어 형태론은 구조주의적 관점에 기반한 기술언어학적 연구와 생성이론에 바탕을 둔 인지주의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전자가 구조주의 언어학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한국어 단어의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데 집중한 반면, 후자는 생성 문법의 이론적 바탕 위에서 우리말 복합어의 형성이라는 인지적 과정을 '단어 형성 규칙'으로 표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에 제안된 바 있는 '어휘부-유추 기반 형태론'은 구조주의의 현상학적 접근법과 생성 이론의 인지주의적 접근법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론의 자료에 기반한 접근법을 생성 이론에서 제안된 심리적 어휘부의 구조와 기능 안으로 통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흥수 외(2007)은 언어 학습을 설명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로 나누어 소개하면서 해당 접근법이 기술언어학, 생성이론, 기능주의라는 언어학 연구 방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다.[1] 그에 따르면 기술언어학의 방법론은 관찰 가능한 현상만 연구할 수 있다는 행동주의적 강령을 언어학으로 가져와서, 관찰 가능한 언어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자 한 결과이며, 생성이론의 방법론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보편적 인지 과정을 구명해야 한다는 인지주의적 관점을 받아들여, 관찰 가능한 언어 현상의 심층에 존재하는 인간의 보편적 인지 과정을 '규칙'으로 표상하고자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능주의의 방법론은 언어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이 수행하는 의사소통적 기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관찰 가능한 현상과 그런 현상을 설명하는 보편적 인지 과정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상황과 맥락까지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구성주의적 관점과 같은 맥락 위에 서 있다.

'어휘부-유추 기반 형태론'은 구성주의적 관점의 형태론 연구이며, 기능주의적 형태론의 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부-유추 기반 형태론'은 모든 우리말 단어를 관찰 가능한 언어 현상으로 이해함으로써 '심리적 어휘부의 내용과 조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보편적 인지 과정으로서의 단어 형성을 '유추'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자 하였을 뿐 아니라, 심리적 어휘부에 저장된 단어가 발화 과정에서 사용되는 상황과 맥락을 '어휘 접근과 어휘 정보 인출'이라는 어휘부의 기능에 포함시켜 포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어휘부-유추 기반 형태론'을 실증적 방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출발한 심리언어학적 실험을 활용한 형태론 연구

1) Brown(2007)은 제1언어 습득과 제2언어 학습을 아우르는 설명 방식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행동주의자는 '백지이론'을, 인지주의자는 '생득론'을, 구성주의자는 '상호작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백지이론'은 조건화와 강화라는 심리적 기제에 근거한 모방과 반복 연습을 통해서 언어를 습득한다고 설명하고자 한 반면, '생득론'은 인간이 유전적으로 모종의 '언어 습득 장치'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극만 주어지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상호작용론'은 인간이 보편적 언어 습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보편적 능력의 발달의 조건은 생득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최소한의 자극만 주어지면'이 아니라 '적절한 사회적 상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의 방법과 현재의 상황을 소개함과 동시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심리언어학적 방법을 활용한 현재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어휘판단과제라는 심리학적 실험과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형태론 연구의 다양한 층위에 존재하는 문법 단위의 심리적 실재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는데, 본고는 그러한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연구 방법론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2. 왜 심리학적 실험인가?

안소진(2021)에서는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 심리적 실재성을 강조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국어 형태론에서 심리적 실재성은 규칙 중심의 단어 형성론을 비판하는 과정, 흔히 '유추론'이라 불리는 연구들이 '규칙론'에 대응해 이론적 체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중반부터 규칙에 기반한 단어 형성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이 나타났는데, 이 연구들의 주된 문제의식이 '단어 형성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정도의 규칙성을 통사 규칙에서와 같은 '규칙'으로 포착하려는 이론은 화자의 단어 형성 능력을 적절하게 모형화한 이론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유추론은 적절한 모형화 여부를 판단할 때 '단어 형성 기제의 결과물이 언어 사실과 부합하는가?'와 함께 '이론이 머릿속 조어 기제와 일치하는 내용과 함의를 갖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규칙으로는 적절한 출력물을 만들어내기 어려울뿐더러, 규칙 중심 형태론 이론의 내용과 함의가 화자가 단어와 관련해 지니고 있는 지식 능력의 성격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설령 규칙에 이론적 장치를 부가해 언어 사실과 부합하는 출력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머릿속 조어 기제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인지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안소진(2021)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박진호(1994: 17-18)는 규칙 중심의 형태론을 '심리적 실재성'의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심리학적 실험 결과의 뒷받침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 "규칙 중심 형태론의 주창자들은 흔히 어휘항목들을 '단순히 등재(simply list)'하는 것은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중요한 일반성을 놓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lexical relatednes 모형은 어휘항목들을 'simply list'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등재하되 그들 사이의 관련성을 포착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고 있다. 오히려 심리적 실재성에서 규칙 중심의 이론은 문제가 많다. 규칙 중심의 이론은 derived word가 인식론적으로 사후적(posterior)이며 따라서 처리 시간도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측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측은 실험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중략) lexical relatednes 모형이 주장하는 대로 어휘항목들은 고도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통사원자가 등재된다고 해도 기억의 부담은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맹목적인 경제성의 추구보다는 심리적 실재성이 있는 저장 모형이 나은 것이다. 적어도 어휘부에서는 이것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박진호(1994)의 그러한 문제 의식은 형태론의 연구 영역 획정에 초점을 맞춘 박진호(1999)에서 형태론의 본령이 기존의 형태론 연구에서와 같이 '활용론'이나 '조어론'이 아니라 어휘부 자체에 대한 연구인 '어휘부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전하게 된다. 본고는 형태론의 본

령이 어휘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인 어휘부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자연언어 처리라는 인지적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서 형태론이 수행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 언어학은 일반적으로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주된 관심을 두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과 의미·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의미론, 화용론으로 대별된다.[2] 언어의 형식적 측면에 내재하는 규칙 또는 원리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세 분야를 다시 둘로 나눌 때, 언어학자들에게 익숙한 방식은 "음운론 대 형태론/통사론" 방식일 것이다. 각 분야의 논의에서 기본이 되는 단위가 유의적 단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한 분류 방식이다. 그런데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언어 사용을 잘 관찰해 보면, 음운 과정과 통사 과정의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인지 과정으로서의 음운 과정과 통사 과정은 모두 모종의 기초 단위가 결합하여 더 큰 단위를 구성하는 과정이라는 점, 그러한 결합은 대체로 규칙 지배적인 현상이라는 사실, 두 과정 모두 자동화된 실시간 처리의 속성을 가진다는 점, 더 나아가 두 과정을 관장하는 능력은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되면 언어습득의 초기 단계에 완성되는 선천적 능력이라는 점에서도 서로 매우 닮아 있다. "음운론/통사론 대 형태론" 방식의 분류도 불가능한 것이 아닌 것이다.

언어학의 하위 분류를 본고의 관점에 따라 진행하면, 기존의 언어학적 관점에서는 조어론이 형태론의 유일한 연구 영역인 것처럼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언어 사용에서 어휘부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휘부는 언어 이해 및 발화에 필요한 다양한 문법 단위가 저장되는 심리적 영역이므로, 언어의 입력과 출력이 복합되어 있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휘 접근과 어휘 정보 인출'이라는 실시간 처리가 매우 빈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공유 영역임과 동시에 '자기조직화'라는 사후적, 보상적, 독자적 과정을 통해 스스로 끊임없이 내용과 조직이 변화하는 자율적 영역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다. 흥미로운 사실은 '어휘 접근과 어휘 정보 인출'이라는 실시간 처리 능력은 음운론과 통사론을 관장하는 능력과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어습득의 가장 이른 시기에 완성되는 선천적 능력에 가까운는 반면, '자기조직화'라는 사후적, 보상적 처리 과정은 어휘부에 저장된 항목들의 관계망이 고도화된 이후에 발현되는 후천적 능력에 해당하므로, 어떤 시기에 완성된다기보다는 끊임없이 진행되는 일종의 진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박진호(1999)에서 제안된 형태론의 본령으로서의 '어휘부학'이 '어휘 접근과 어휘 정보 인출'이라는 실시간 처리 과정과 '자기조직화'라는 보상적 처리 과정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구현될 수 있으며, 심리학적 실험이 그러한 두 가지 처리 과정, 더 나아가 한국어 화자의 어휘부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3. 심리학적 실험의 유형과 방법들

심리언어학은 심리적 어휘부의 조직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는 어휘 처리의 여러 국면(局面)을 연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험 방법을 사용한다.

---

2) 좀더 세분하면 이음론, 형태음소론, 활용론, 곡용론, 조어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 등으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음론과 형태음소론은 모두 음운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음운론으로 묶이고, 활용론과 곡용론이 본질적으로는 통사 과정을 다루므로 통사론 안으로 포섭되며, 의미론과 화용론은 의사소통의 내용적 측면을 다룬다는 점에서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 가. 어휘 판단 과제(lexical decision task)
나. 감시 과제(monitoring task)
다. 뒤따라하기 기법(shadowing technic)

(1가)의 어휘 판단 과제는 피험자에게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자극을 주고 그것이 단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실험 방법이다.[3] 피험자는 제시된 자극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 버튼을 가능한 빨리 누르거나 단어인 경우에 한해서 그 단어를 읽거나 따라하도록 요구받으며 실험자는 피험자의 반응 시간을 기록한다. (1나)의 감시 과제는 피험자에게 특정 자극을 식별하도록 요구한 후에 그 자극이 포함된 발화를 들려주거나 읽어주면서 피험자가 식별이 요구된 자극을 발견했을 때, 반응을 하도록 하는 실험 방법으로 이 경우도 실험자는 피험자의 반응 시간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1다)의 뒤따라하기 기법은 피험자에게 일정한 길이의 발화를 그대로 따라하도록 하는 실험 방법이다. 이 경우 실험자는 실험 자료에 일탈적 단어를 삽입하고 화자가 어떻게 따라하는지를 관찰하여 기록한다. 위와 같은 실험 방법에 이용되는 자극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2) 가. 실재 단어
- 규칙적 단어(cat, dog, sale/sail)
- 예외적 단어(sew)
나. 비단어
- 규칙적 비단어(*bix, *mav, *brane/brane)
- 예외적 비단어(*scough)
- 부적격한 비단어(*scgix, *bnate)

(2가)의 실재 단어에는 어휘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인정되는 단어가 포함된다. 규칙적인 표기법이 적용된 단어들은 규칙적 단어로, 불규칙한 표기법을 따르는 단어들은 예외적 단어로 분류된다. (2나)의 비단어에는 규칙적 표기법이 적용된 규칙적 비단어와 불규칙한 표기법이 반영된 예외적 비단어, 자소론적 차원의 오류가 포함된 부적격한 비단어가 포함된다.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단어/비단어를 자극으로 활용한 실험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심리적 어휘부 및 어휘 처리 기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미 있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3) 가. 빈도 효과
나. 어휘성 효과
다. 동음어 효과
라. 점화 효과

(3가)의 '빈도 효과'란 고빈도 단어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이 저빈도 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짧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은 심리적 어휘부가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에 대한 어휘 접근과 어휘 정보 인출에 용이하도록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3나)의 '어휘성

3) 어휘 판단 과제에는 실험 자극의 단어성에 대한 판단 뿐 아니라 실험 자극이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하는 실험도 포함될 수 있다.

효과'란 다양한 유형의 자극에 대한 실험에서 반응 시간의 길이가 실험 자극이 지닌 어휘성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반응시간은 '부적격한 비단어<예외적 비단어<실재 단어<규칙적 비단어' 순서로 길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칙적 비단어의 식별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이것은 규칙적 비단어의 경우 어휘부의 전체 목록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에야 '비단어 판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실재 단어에 대한 반응과 규칙적 비단어에 대한 반응의 차이는 둘 사이의 표기상의 유사성과 관련이 깊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 유사성이 클수록 반응 시간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휘부가 자소론적(graphemic) 차원에서도 일정한 관계망을 이루고 있음을 암시한다. (3다)의 '동음어 효과'란 다른 비단어보다 의사동음어 관계에 있는 비단어에 대해 '비단어 판단'을 내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현상이다. 자소적 자극으로 주어진 비단어의 판별 과정에 음운론적 유사성이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효과는 심리적 어휘부에 음운론적 정보가 표상되어 있으며 그 정보의 유사성에 따라 모종의 관계망이 갖추어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라)의 '점화 효과'란 아무런 선행 자극이 없을 때 특정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에 걸리는 시간보다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 다양한 층위에서 관련을 맺고 있는 단어에 대한 어휘 판단 뒤에 자극으로 제시될 때 이루어지는 어휘 판단에 걸리는 시간이 현저하게 짧아지는 현상이다. 위와 같은 실험적 결과들은 모두 단어들이 어휘부 안에서 서로 다양한 연결망을 이루고 있다는 어휘부-유추 모형의 어휘적 관련성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며, 심리학적 실험을 활용한 형태론 연구, 즉 형태론 연구의 다양한 쟁점을 심리적 실재성이라는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의 설계 및 실험 결과의 해석을 위한 연구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를 집중하고자 하는 심리학적 실험은 (1가)의 어휘 판단 과제이다. 이 실험 방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우리말 형태론 연구에서 이미 사용된 바 있다. '파생어와 접사', '합성어와 어근', '용언 활용형과 어간, 선어말어미' 등과 같이 복합 구성과 그것을 구성하는 구성 성분을 자극으로 하는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각각의 문법 단위가 심리적 실재성의 차원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해당 실험을 사용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접사 또는 어근과 같은 단어 내부의 성분에 대한 어휘성 판단은 관련 복합어에 대한 어휘 판단과는 달리 관련 파생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 대한 어휘성 판단은 활용형에 대한 어휘성을 판단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실재성 검증이라는 목적을 가진 기존의 형태론 연구와 심리학적 실험을 활용한 연구의 내용, 결과, 성과와 한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안소진(2021: 8-14)에서 논의된 바 있으므로, 본고는 어휘 판단 과제라는 심리학적 실험을 활용한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방법론을 실험의 설계와 수행,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과 그것에 대한 형태론적 해석이라는 연구 수행의 단계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피고, 각 단계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4. 어휘 판단 과제 활용법

형태론 연구에 어휘 판단 과제를 활용하려면 심리학적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정밀하게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본고는 SuperLab Pro라는 심리학 실험 소프트웨어의 활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4] 실험 소프트웨어는 어휘 판단 과제를 활용한 형태

론 연구의 핵심 과정인 실험 설계와 실험 결과 분석을 매개해 주는 단순한 도구이다. 실험 설계를 정밀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실험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작업은 매우 간단하고 쉽기 때문에 사용자 메뉴얼만 있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실험을 위한 파일(*.xpt)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설계도에 따라 실험을 구현하는 작업은 어휘 판단 과제를 활용한 형태론 연구에서 그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본고는 실험 설계와 실험 결과 분석 방법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실험 구현 방법에 대한 논의는 간단한 시연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본고는 '어휘 판단 과제를 활용한 혼성어 연구'라는 사례를 바탕으로 실험의 설계와 구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어휘 판단 과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에 대한 정밀한 언어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서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가 먼저 명확하게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리학적 실험을 활용한 우리말 형태론 연구는 기존의 형태론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에서 확인되는 쟁점들을 심리적 실재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 "신어는 형성과 동시에 심리적 어휘부에 등재되는가? 형성과 분리된 별도의 과정을 거쳐 등재되는가?", "형태론은 형태소를 기반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단어를 기반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휘부의 구조는 단일한가? 다중적인가?"등과 같은 이론적 쟁점뿐 아니라, "용언 활용형이 가지는 이중적 성격에 대한 이해", "불규칙적 고유어 어근에 대한 기술 방식", "한자계 어근을 분류하는 방식" 등과 같이 연구 대상인 언어 자료를 정밀하게 기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론적 정합성의 차원이 아니라 심리적 실재성 차원에서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말 혼성(blending)에 대한 기존의 형태론 연구에서 심리적 실재성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4) 가. 연구 대상의 적절성 문제
나. 자료 분석 및 분류 방식
다. 혼성을 기술하는 방식

(4가)는 연구 대상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우리말 혼성어 연구만큼 연구 대상 한정과 관련한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분야는 없는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송원용(2020: 247)에서는 기존의 혼성어 연구에는 전형적인 우리말 혼성어의 경우와 달리 음절 분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형성 과정을 거친 것으로 분석되는 사례들뿐 아니라 전형적인 혼성어의 구조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이한 구조를 가진 사례들이 최소한의 비판적 검토도 없이 연구 대상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기존의 혼성어 연구가 채택한 연구 방법론에 있다고 논의된 바 있다. 우리말 혼성이 최근에서야 활성화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인 단어 형성의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신어 조사 보고서가 자료 수집의 주요한 출처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해당 보고서의 목적이 새로운 사례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4) 본고가 사용하기로 한 "SuperLab Pro"는 해당 소프트웨어의 상당히 오래전 버전이라는 사실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SuperLab"의 개발사인 Cedrus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판매중인 버전은 SuperLab 6와 SuperLab X6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원격 실험도 가능하도록 발전했지만, 실험 설계 및 수행과 관련된 사용자 환경은 "SuperLab Pro"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OpenSesame"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콘 중심으로 디자인된 사용자 환경이 "SuperLab"보다 직관적이라서 초보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링크에서 프로그램 내려받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동영상 자료 등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https://osdoc.cogsci.nl/3.3/)

수집된 자료의 심리적 또는 사회적 실재성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형태론 연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포함시킨 결과라고 논의하면서 특정인의 개인적 취향에 따라 급조된 '휘발성 개인어'까지도 단어형성론 연구의 대상 자료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이른바 AY형 혼성어로 분류되어 온 "팸투어, 컨슈미디어, 워런치(족), 디공포, 컨부두, 토페인; 닥버로우, 태코리언"이 우리말 혼성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합성어적 속성을 드러내는 상당수의 "-테크" 계열의 단어들을 모두 혼성의 범주 안에서 다루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이들도 연구 대상 혼성어의 한정과 관련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나)에는 우리말 혼성어를 외래 혼성어와 고유 혼성어로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성과 관련한 문제,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혼성어 "네티즌, 네티켓; 네스토리안, 네카시즘; 넷맹, 넷포터, 넷파이"의 선행 성분 "넷-"과 "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쟁점, "-테크" 계열 단어인 "어테크, 혼테크, 환테크, 몰캉스"의 선행 성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쟁점 등이 포함되며, (4다)에는 "혼성이 규칙 지배적 현상인가? 유추적 현상인가?", "규칙 지배적 현상이라면, 결합 후 삭감의 과정을 거치는가? 삭감 후 결합의 과정을 거치는가?" 등과 같은 쟁점이 포함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다양한 쟁점 가운데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심리적 실재성을 검증할 수 있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를 가려내는 작업이 연구 설계의 첫 단계이자 핵심적 과정이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어휘 판단 과제는 어휘 처리의 여러 국면을 관찰하기 위한 심리학적 실험이며, 해당 실험 결과에서 확인된 네 가지 효과를 바탕으로 어휘 접근과 어휘 정보 인출이라는 인지적 과정에서 어휘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어휘 판단 과제를 활용한 형태론 연구를 위한 설계도 그러한 어휘 처리 국면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언어 연구의 어떤 영역이든 쟁점에 대한 구체적 분석 작업은 연구 대상의 동일성을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나다)가 '어떻게'의 영역에 속하는 반면 (4가)는 '무엇을'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4가)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4나다)로 진행하는 것은 자칫 논의 자체가 공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혼성어 연구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4가)의 연구 대상의 확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문제를 어휘 판단 과제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해당 문제와 관련된 핵심 쟁점을 "이른바 '휘발성 개인어'의 속성을 가지는 단어들을 우리말 혼성어 연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정리하고 해당 쟁점을 심리적 실재성의 차원에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휘발성 개인어'의 속성을 가지는 단어들은 어휘 판단 과정에서 많은 피험자로부터 '비단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칙적 단어(전형적 혼성어), 예외적 단어(비전형적 혼성어)가 자극으로 포함된 어휘 판단 과제 실험을 수행하면, 실험 결과에서 '어휘성 효과'가 확인될 것이라는 실험 가설이 도출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휘성 효과란 다양한 유형의 자극에 대한 실험 결과, 반응 시간의 길이가 '부적격한 비단어<예외적 단어<실재 단어<규칙적 비단어' 순서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본고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규칙적 비단어의 식별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휘발성 개인어'가 규칙적 비단어와 유사한 속성을 가진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설계된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면, '휘발성 개인어' 부류의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 평균값이 규칙적 단어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전형적인 혼성어' 부류의 자극에 대한 반응시간 평균값보다 큰 실험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실험 가설을 바탕으로 실험을 설계할 때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실

험 자극 목록을 추출하는 것이다. 어떤 자극에 대해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할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실험 자극은 크게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실험군과 대조군에 포함된 자극에 대한 세부 분류 작업도 사전에 함께 진행되어야 균형 잡힌 표본이 추출될 수 있다. 그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추출된 본고의 실험 자극 목록은 다음과 같다.

(5) 가. 실험군
넌치, 보라바이트, 뽀트로닉, 콜리건, 퍼놀로지, 퍼뮤니케이션, 퍼블리즌, 퍼피즌, 포카락, 세티켓, 웨비소드, 아티언스, 펀듀랑스; 레전설, 사이처, 와이프로거, 자이타민, 이티즌, 밸런치킨데이, 캐티즌 (이상 20항목)
나. 대조군
웃프다, 기레기, 넥카프, 뮤페라, 호캉스, 네티즌, 채티켓, 뽀통령, 모피아; 닭둘기, 꿀벅지, 지옥철, 군대렐라, 슛터링, 먹스타그램, 댄스컬, 헬스로빅, 워크테인먼트, 닥터테이너, 예능돌 (이상 20항목)
다. 참조군
잘생쁘다, 폴리티켓, 하우피스, 베지플레이션, 컴퓨토피아, 짜파구리, 인포우미, 울벌라이제이션, 소텐, 비트, 마던트, 스티콘, 에듀시터, 탤런서; 마눌느님, 감성케팅, 올림피테이너, 콜라텍, 리턴트족, 토크자키 (이상 20개)
라. 기타군
팸투어, 컨슈미디어, 워런치, 디공포, 컨부두, 토페인, 닥버로우, 태코리언; 따티즌, 줌마로거, 줌마렐라, 줌마테이너, 저씨테이터, 넷맹, 넷파이, 넷포터, 어테크, 혼테크, 환테크, 몰캉스 (이상 20항목)

(5가)의 실험군에는 본고가 '휘발성 개인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5나)의 대조군에는 내적 구조상 혼성어의 전형적 유형인 'AD형' 또는 'XD형'에 속하는 사례들 가운데 음절수 유지의 경향성을 보이는 20개의 추출된 표본이 제시되어 있다. (5다)의 경우는 모두 음절수 유지의 경향성을 보이지 않는 비전형적 혼성어의 사례들이며, (5라)에는 내적 구조가 전형적 혼성어와 구별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5)]

실험 구현은 다음과 같은 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6) 가. event 목록 작성
나. trial 목록 작성(*점화 효과)
다. 실험 생성(차폐 기법/표준화)
- 실험 조건 설정(입력 도구 선택/반응 선정/코드 설정)
- event 생성(차폐 자극 포함)
- trial 생성
- trial-event 연결 및 코드 부여
- block 생성 및 trial 연결
라. 실험 저장 후 시연

5) 기존 연구에서 'AY형' 또는 'BD'형으로 분류된 바 있는 사례들이다. 송원용(2020)에서는 'AY형'에 대해서는 우리말 혼성어 연구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음을 논의하였고, 'BD형'에 대해서는 논의에는 포함시키되 해당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6가나)는 자극별 코드값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고, (6다라)는 실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5)의 자료를 활용하여 event 목록을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은 동일 부류의 자극에 인접한 event 번호를 부여하되, 실험 구현 과정에서 해당 자극의 event 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event 목록은 단순한 자극 목록이므로 실험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자극 제시 순서인 trial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trial 목록 작성은 피험자가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는 순서, 즉 자극이 제시되는 순서를 결정하는 작업이므로, 점화 효과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자극의 제시 순서가 후행 자극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을 단축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trial 목록 작성까지 마무리되면, 실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험을 생성할 수 있다. (6다)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험 생성은 “실험 조건 설정, event 생성, trial 생성 및 코드 부여, trial-event 연결, block 생성 및 trial 연결”이라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 어휘 판단 과제의 수행 과정에 피험자의 단기 시각 기억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의 자극에 대한 어휘 판단이 끝나고 다음 자극이 제시되기 전에 기존 자극의 시각 기억을 차폐(masking)하는 자극이 제공될 수 있도록 event 항목을 생성할 때, 차폐 자극도 생성해야 하고, 각각의 trial-event 연결 과정에 해당 차폐 자극이 뒤따를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음은 각 과정이 완료된 상태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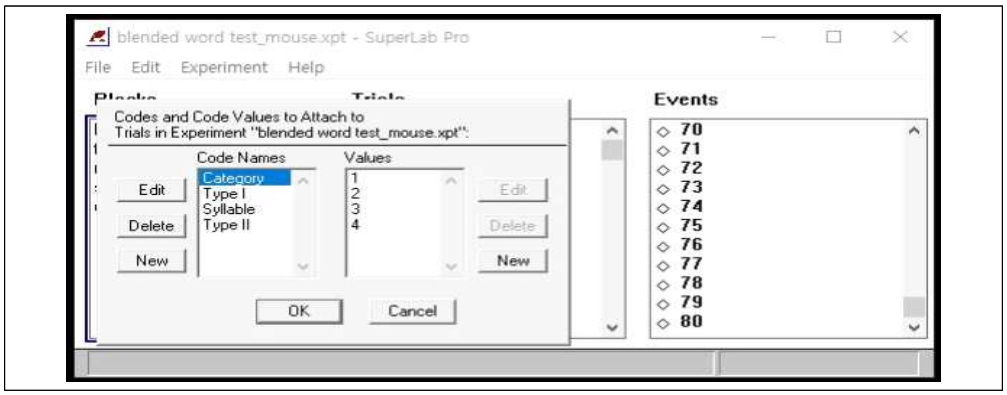


그림 1. 실험 조건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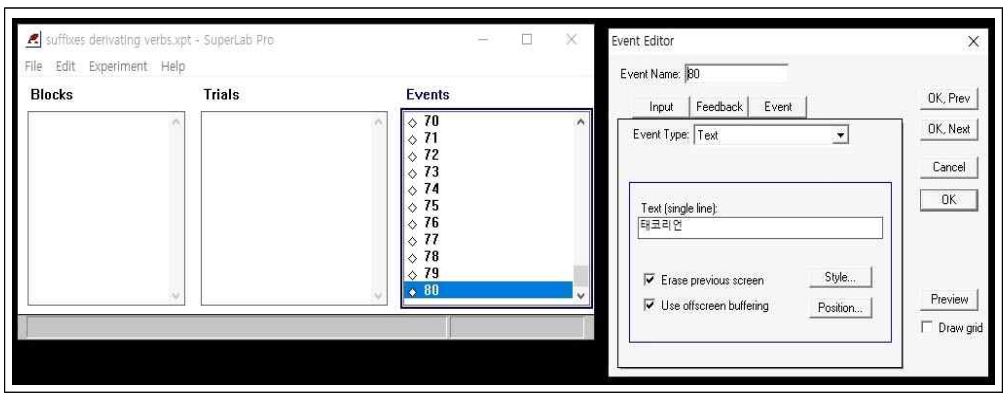


그림 2. event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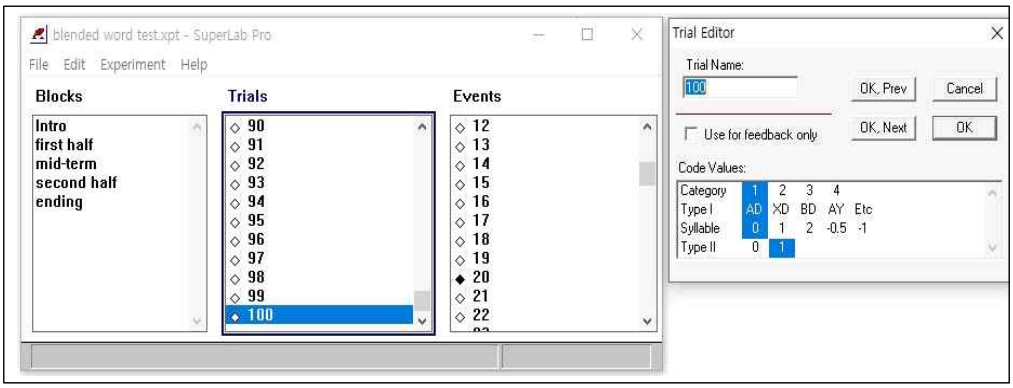


그림 3. trial 생성, trial-event 연결, 코드값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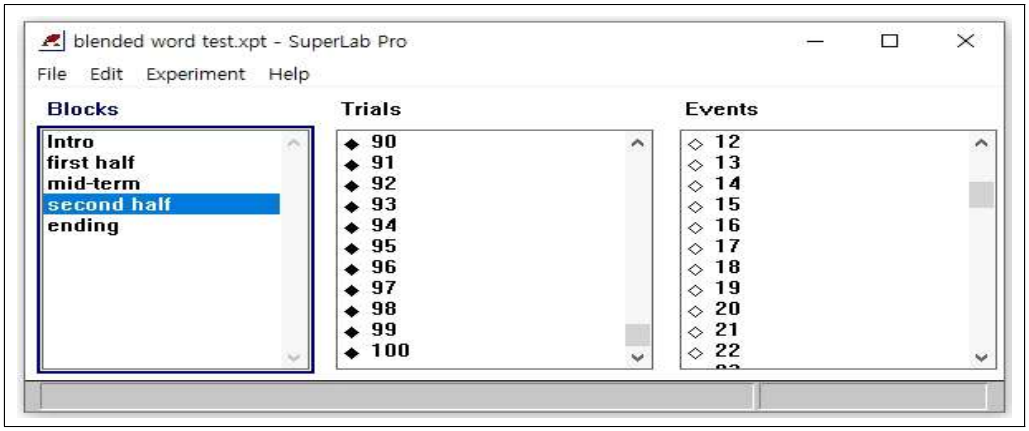


그림 4. block 생성 및 trial 연결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실험 파일(blended word test.xpt)은 실험실 컴퓨터의 실험 수행 폴더에 저장하고 오프라인 상태에서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도, 온라인 심리학 실험을 지원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올려두고, 해당 실험의 링크에 피험자가 접속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실험을 수행할 수도 있다.[6] 실험 수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7) 가. 피험자 확보 : 50명 이상 표본 추출
나. 실험실 운영 : 피험자 방문 및 과제 수행
* 유의사항
1. 실험 환경 및 조건 표준화
2. 개인 정보 보호
3. 실험 결과 저장 방식 표준화

모든 피험자가 가능하면 동일한 환경과 조건에서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피험자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동일한 컴퓨터 환경에서 실험에 참여할

6) OpenSesame를 활용한 심리학 실험의 경우에는 JATOS라는 웹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링크(https://osdoc.cogsci.nl/3.3/manual/osweb/workflow/)에 연결된 유튜브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 있도록 실험 환경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실험 수행 전에 피험자 명단은 작성하지만, 실험 결과 파일에는 피험자의 실명을 포함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피험자명 대신 일련번호로 입력해서 실험 결과를 관리한다.

5.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과 형태론적 해석

SuperLab Pro를 통해 수집된 실험 결과 자료는 피험자별로 text 파일 포맷(*.dat)으로 저장되므로, 통계적 검정을 위해서 모든 피험자의 실험 결과를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통합하는 것이 좋다. 모든 실험 결과가 통합되었으면, 통계 처리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일괄 삭제하거나, 통계 처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 예를 들면 실험 자극 정보 등을 부가할 수 있다. 정보의 삭제와 부가가 끝난 파일은 최초의 통합 파일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 후에 해당 파일을 통계 처리 패키지로 불러들이면 통계적 검정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다.[7)]

SPSS를 활용한 본격적인 통계적 검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전 작업을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엑셀에서 읽어 들인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살피면서 변수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해당 작업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기본 기능이다.

(8) 가. 데이터 보기/변수 보기
나. 데이터>케이스 정렬

기초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면, 반응시간 측정값 가운데 상하위 5%에 해당하는 반응시간을 결측값으로 변환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해당 작업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기능들이다.

(9) 가. 분석>기술통계량>빈도분석/기술통계/데이터탐색
나. 변환>다른 변수로 코딩변경

상하위 5% 반응시간을 결측값으로 변환하면 본격적인 통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어휘 판단 과제의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은 주로 SPSS의 평균 비교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특정 유형의 자극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 시간이 다른 유형의 자극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시간보다 길거나 짧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해당 작업을 위해 알아두어야 하는 기능들이다.

(10) 가. 일표본 t검정
나. 독립표본 t검정
다. 대응표본 t검정

7) 언어학 연구자들은 무료 통계 처리 프로그램으로 R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고는 통계 처리 패키지 SPSS를 사용법을 중심으로 통계 처리 방법을 소개한다. 통계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까운 R의 사용법과 syntax에 익숙하다면, 별도의 데이터의 가공 작업이 필요 없는 R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통계 초보자의 경우는 다양한 통계적 검정 툴이 모듈화되어 포함되어 있는 SPSS가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이다.

라. 일원배치 분산분석
마. 이원배치 분산분석
(*"데이터>파일 분할/케이스 선택"의 활용)

(10가)의 일표본 t검정은 한 표본의 평균값을 확정할 수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주당 사교육 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값을 x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와 같은 평균값 검정에 사용된다. 이 경우 검정 변수는 "주당 사교육 시간"이 되고, 검정값은 "9"를 입력한다. (10나)의 독립표본 t검정은 독립적인 두 표본의 평균값의 동일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연간 사교육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라 연간 사교육비가 같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때 사용된다. 이 경우 검정 변수는 "연간 사교육비"가 되고, 집단 변수는 성별(남, 여)로 입력한다. (10다)의 대응 표본 t검정은 동일 모집단의 두 표본의 평균 동일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어떤 식이요법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변수[1]에는 요법 전 체중을, 변수[2]에는 요법 후 체중을 입력해서 분석한다. (10라)의 일원배치 분산분석은 특정 요인에 따른 종속 변수의 평균값이 동일한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의 연간 사교육비 자료를 학생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평균값을 구하고, 해당 평균값이 같다고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종속 변수를 연간 사교육비를 선택하고, 요인을 지역을 선택하면 된다. (10마)의 이원배치 분산분석(일반선형모델>일변량)은 2개 이상의 독립 변수를 이용하여 구분된 집단별 평균값의 동일성을 검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교육 수준과 성별이라는 독립적 변수를 기준으로 월급의 평균값을 구하고, 각각의 평균값이 동일한지를 판단할 때 사용된다. 이 경우에는 종속 변수를 평균 월급으로, 모수 요인은 교육 수준과 성별을 선택하면 된다.

이상과 같은 평균 비교 분석 방법 가운데 본고의 혼성어에 대한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정에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은 (10나) 또는 (10마)이다. '휘발성 개인어'일 것으로 판단되는 기존의 혼성어 연구 대상 자료가 전형적인 혼성어와 달리 심리적 실재성이 낮을 것이라는 이론적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 가설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한 낮은 심리적 실재성은 두 가지 방향으로 어휘 판단 과제의 결과에 드러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해당 부류의 자극에 대해서 보다 많은 피험자들이 부정적 어휘 판단(우리말 어휘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는 방향으로 드러날 것이고, 둘째는 해당 유형의 자극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시간이 전형적인 혼성어 유형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길어지는 방향으로 드러날 것이므로, 두 방향 모두 독립 표본 t검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험 결과 통합 파일에서 직접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후자의 경우와 달리, 전자의 경우는 실험 결과 통합 파일을 활용하여 개별 자극별로 비단어 판단을 내린 피험자수를 계산하는 사전 단계를 통해서 자극별 비단어 판정 횟수표가 만들어진 후에 독립 표본 t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

이론적 연구와 달리 심리학 실험을 활용한 형태론 연구는 통제 불가능한 다양한 변수의 개입으로 인해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럴 때 통계적 진실을 둘러싼 형태론적 함의 찾기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실험 가설에 대한 검정은 채택 또는 기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만 그 마저도 확률에 근거한 판단이므로 절대적 참 또는 거짓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때로는 자극 유형별 분석이 아니라 자극별 반응시간 평균을 바탕으로 한 미시적 분석이 필요하기도 하고, 거시적 분석 결과는 유의미하지만 미시적 분석 결과는 혼돈 그 자체로 보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통계적 검정 결과가 예리한 칼로 베어낸 것 같은 매끈한 경계를 찾기 어려워 보일 때, 그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할 수 있으려면 다시 이론적 통찰력이 요구된다. 본고

는 그것을 실험 결과에 대한 형태론적 해석 과정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론과 현실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 둘이 원만하게 조화되는 지점에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심리적 어휘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 마무리

본고는 '어휘부-유추 모형'을 바탕으로 진행된 우리말 형태론 연구의 실증적 뒷받침을 위해 시작한 심리언어학적 실험을 활용한 형태론 연구의 방법과 현재의 상황을 소개함으로써 구성주의/기능주의 형태론 연구라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개척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리학적 실험이 형태론 연구에 필요한 이유를 어휘부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밝히고, 어휘 처리의 다양한 국면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심리학 실험과 그 성과를 개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어휘 판단 과제가 우리말 형태론 연구를 위한 유효한 실험 방법임을 논의함과 동시에 해당 실험 방법을 활용하는 구체적 방안과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방법을 심리학적 실험을 활용한 우리말 혼성어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 사례로 삼아 소개하고, 통계적 분석 결과를 적절하게 해석하기 위해 연구자가 갖추어야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참고 논저

고영근(1989), "파생접사의 분석 한계", 어학연구 25-1, 서울대 어학연구소.

고영근(1989),『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구본관(1992), "생성 문법과 국어 조어법 연구 방법론", 주시경학보 9, 탑출판사.

김영석(1990),「어휘부의 조직」,『어학연구』26-1: 239-246.

박진호(1994),「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국어연구』12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진호(1999),「형태론의 제자리 찾기」,『형태론』1.2: 319-340.

송원용(2005가),「다중 어휘부 구조 가설의 실험심리학적 검증」,『형태론』7.2: 257-276.

송원용(2005나),「신어의 어휘부 등재 시점 연구-어휘 지식 유무 검사를 통한 검증-」,『국어학』46: 97-123.

송원용(2005다),『국어 어휘부와 단어 형성』, 태학사.

송원용(2009), 「국어 선어말어미의 심리적 실재성 검증」, 『어문학』 104(한국어문학회): 83-102.

송원용(2011가),「불규칙적 고유어 어근의 심리적 실재성」,『국어국문학』159: 5-30.

송원용(2011나),「한자계 어근 분류 방식의 심리적 실재성」,『형태론』13.2: 225-244.

송원용(2014),「어휘판단과제를 활용한 형태론 연구의 전제 조건-실험 중 해이 및 반응 오류 통제를 중심으로-」,『형태론』16.2: 156-184.

송원용(2015가),「복합어의 심리적 실재성 검증」,『형태론』17.1: 1-21.

송원용(2015나), 「어휘판단과제를 활용한 활용형의 심리적 실재성 검증」, 『형태론』 17.2: 201-232.

송원용(2016),「활용형의 적형성과 심리적 실재성」,『형태론』18.2: 163-182.

송원용(2019),「문법적 기능과 활용형의 심리적 실재성」,『인문학연구』45: 111-111.

송원용(2020),「혼성이라는 형태론적 과정의 재구성」,『형태론』22.2: 236-284.

시정곤(2001), 「국어의 어휘부 사전에 대한 연구」, 『언어연구』 17-1(한국현대언어학회):

163-184.
안소진(2012),「어휘부 등재 논의의 경향과 쟁점」,『형태론』14-1, 1-23.
안소진(2014),『심리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국어학총서 69), 태학사.
안소진(2019가),「관용표현의 연상 표현에 대한 연구-'그림의 떡'의 경우, 단어·구와의 비교를 통한 고찰-」,『국어학』89, 131-176.
안소진(2019나),「단어 정보의 기억에 대한 은유 연구-은유로서의 어휘부에 대하여-」,
안소진(2021 예정),「어휘부 연구와 심리적 실재성」,『형태론』23.1.
이흥수, 박주경, 이병민, 이소영, 최연희, 차경환, 이성희 공역(2007), 외국어 학습 · 교수의 원리 -제5판-(H. Douglas Brown (2007),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 fifth edition), (주)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채현식(1994),「국어 어휘부 등재소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122.
채현식(1999),「조어론의 규칙과 표시」,『형태론』1.1: 25-42.
채현식(2002),『유추에 의한 복합명사 형성 연구』, 태학사.
채현식(2003),「대치에 의한 단어 형성」,『형태론』5.1: 1-21.
채현식(2007),「어휘부의 자기조직화」,『한국언어문학』63: 137-155.
채현식(2009),「용례 기반 이론에서의 어휘 지식 표상」,『형태론』11.2: 269-286.
채현식(2013),「어휘부란 무엇인가」,『국어학』66: 307-333.

Aichison, J. (2003), "Whose Morphology? Clashes between Linguists and Psycholigists, Speakers and Hearers", *Whither Morphology in the New Millenuum?*: 53-73.
Aitchison, J. (1983-4),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prefixes", *Osmania Papers in Linguistics* 9-10 (Nirmala Memorial Volume): 61-72.
Aitchison, J. (1994), *Words in the Mind: an introduction to the mental lexicon*, Cambridge: Blackwell.
Bybee, J. L. (1988), "Morphology as lexical organization", in M. Hammond and M. Noonan(eds.), *Theoretical Morphology: approaches in modern linguistics*, San Diego: Academic Press: 119-141.
Bybee, J. L. (1995), "Regular morphology and the lexicon",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0.5: 425-455.
Bybee, J. L. (1996), "Productivity, regularity and fusion: how language use affects the lexicon", in R. Singh and R. Desrochers, *Trubetzkoy's Orpha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47-269.
Derwing, B. (1990), "Morphology and the mental lexicon: psycholinguistic evidence", in W. Dressler, H. Luschützky, O. Pfeiffer and J. Rennison(eds.), *Contemporary Morphology*, Berlin: Mouton de Gruyter: 249-265.
Derwing, B. and R. Skousen)(1989), "Morphology in the mental lexcon: a new look at analogy", in G. Booij and J. van Marle(eds.), *Yearbook of Morphology*, Dordrecht: Foris: 55-71.
Handke, J. (1995), The Structure of the Lexicon: human versus machine, Berlin: Mouton de Gruyter.
McQueen, J. M. and A. Cutler (1998), "Morphology in word recognition", in A. Spencer and A. M. Zwicky(eds.), *The Handbook of Morphology*, Oxford: Blackwell: 406-427.

"국어 형태론 연구와 심리언어학적 실험"에 대한 토론문

오규환(동덕여대 국어국문학과)

송원용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읽으면서 한국어 형태론의 연구 영역이 어떠한 쪽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또 그 확장이 어떠한 방법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과문한지라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들, 또한 발표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간 발표자 선생님의 일련의 업적들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크게 세 가지 정도 여쭙는 것으로 지정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1. 피험 대상과 피험자 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

그간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일련의 업적들을 읽으면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바로 실험 설계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본 발표문의 참고 문헌란에 있는 선생님의 업적에 대한 피험 대상과 피험자 수는 아래의 표처럼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구분	업적	피험 대상	피험자 수
①	송원용(2005가)	21세에서 49세의 성인 남녀	32명
	송원용(2005나)		32명
②	송원용(2009)	정상 시력을 갖춘 20세에서 40세까지의 국어국문학과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들	65명
	송원용(2011가)		65명
	송원용(2011나)		65명
③	송원용(2014)	정상 시력을 갖춘 20세에서 40세까지의 성인	99명
	송원용(2015가)	송원용(2014)와 동일한 듯함. 정상 시력을 갖춘 20세에서 40세까지의 성인	99명
	송원용(2015나)		99명
	송원용(2016)		99명
	송원용(2019)		99명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①~③의 피험 대상은 크게 성인 남녀군(①, ③)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②)로 나뉩니다. 다만 ①~③의 피험 대상은 50세를 넘지 않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여 보입니다. 혹시 50세를 넘지 않는 사람들로만 피험자 집단을 꾸린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또한 ①의 연구들을 진행할 때에는 피험 대상을 성인 남녀로 구성하였다가 ②의 연구들을 진행할 때에는 국어국문학과 전공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 진행한 것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③의 연구들을 진행할 때에는 다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 여기에도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편 위의 표에서는 피험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 어떠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5명이라는 작은 규모의 피험자군의 대표성 문제와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피험자 표본이 추출되었다는 사실은 실험 결과에 대한 적절한 통계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연구 결과의 신뢰도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는 독립표본

t검사라는 통계 처리 방법을 논의에 도입하였다. 본고가 채택한 추론 통계 기법은 표본 추출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 및 표본 규모에 따는 신뢰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는 송원용(2009)의 각주 8번을 감안하면 ②의 연구들을 진행할 때 설정하였던 피험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데 ③의 연구들을 진행하시면서 피험자 수가 99명으로 늘어난 것은 어떠한 의도가 있어서였는지요. 마지막으로 우문입니다만, 발표자께서는 심리언어학적 실험을 설계할 때에 최소한 어느 정도 규모의 피험자 수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발표문에서는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혼성어 관련 실험을 진행하는 절차를 보여 주셨는데, 50명 정도면 연구의 가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요.

2. 활용형의 기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

한국어의 활용형에 대한 연구는 음운론과 형태론에서 두루 진행된 바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형태론자의 입장에서, 일부의 활용형이 심리 어휘부 내에 독자적인 표상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심리언어학적인 실험 결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생성 음운론(NGP)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음운론자라면 발표자의 이러한 연구 결과에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듯합니다. 물론 발표자께서도 한국어의 모든 활용형이 심리 어휘부 내의 독자적인 표상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송원용(2015나), 송원용(2016), 송원용(2019)의 연구 결과가 자연 생성 음운론에 기반을 둔 연구자들의 주장과 양립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이른바 '휘발성 개인어'에 대하여 궁금한 점

발표자께서는 혼성어와 관련된 설명을 하시면서 '휘발성 개인어'가 형태론의 연구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저도 발표자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어디까지를 '휘발성 개인어'로 판정하느냐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는 듯합니다. 특정 화자에게는 휘발성 개인어로 인식되는 단어일지라도 다른 화자에게는 등재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발표문의 (5가)에 제시되어 있는 '레전설'은 특정 언어 공동체의 화자들에게는 등재어 수준으로 인식되는 단어일 수 있지만 또 다른 특정 언어 공동체의 화자들에게는 '휘발성 개인어' 수준의 단어일 수 있을 듯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심리언어학적 실험 설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여 주실 수 있을는지요.

제가 궁금한 점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정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에 발표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 현상으로서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재고와 전망

강남욱(경인교대)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틀린 표현일 수 있다. 틀린 표현이 입말로 굳어진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한국인의 대다수가 틀린 표현을 쓴다고 해서 미주까지 틀린 표현을 가르칠 수는 없다. (…) "한국 사람들은 '거에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더 잘해요."라는 식의 농담을 하고는 했다. '-았/었어서'도 그러한가? 미주는 확신하고 싶었다. 학생들에게 "한국 사람이 틀렸어요. 여러분이 맞아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더 잘해요."라고 말하고 싶었다. 미주는 뉴스를 클릭해 보았다.

(서수진, *『코리안 티처』* 中, 2020: 113)

1. 들어가며

이 연구(발표)는 발표자가 '한국어교육(학) 전공 연구자'라는 개인의 정체성에 대해 가져 온 해묵은 고민들 중 하나에 대한 것이다. 발표자는 전공 세부영역의 연구와는 별개로, '한국어교육'이 과거든 현재든 우리 사회(한국 내, 한반도 주변의 국가들, 세계 전역을 포함해서)에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이 학문은 도대체 무엇을 밝히고 연구(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아 왔다.

이 발표는 그간의 다단(多端)한 성찰 중 직접적으로 강남욱(2018), 강남욱(2019ㄱ, ㄴ)[1]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으로서 한국 사회의 소위 '한국어교육 현상'을 살펴보고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학문으로서 이 사회 현상 속에 '한국어교육(학)'이 어떤 난점에 봉착해 있는지를 짚어본 다음, 본 학술대회의 주제로 설정된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모색"에 합당한 한국어교육(학) 연구의 방향성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한국어교육의 비약(飛躍)과 괄목(刮目)의 과정과 그 '양적 성과'에 대해서는 구태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다룰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한국어교육의 현황을 개괄하는 대부분의 논의에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TOPIK 지원자(응시자) 현황과 같은 통계들이다. 대체로 이러한 '자랑스러운'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시행 첫 해(1997년) 응시자가 2,700명 대비, 2019년에는 그 숫자가 83개국 약 37만 6천명 수준으로(국립국어원 국어정책자료실에 공개된 가장 근래의 응시자 통계) 139배 증가하였으며, 2017년과 비교하여도(70개국 약 29만 명) 2년 사이 29.4%가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각종 매체들과 YouTube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는 'K-팝/K-드라마와 한국어에 빠진' 이들을 취재한 콘텐츠가 넘친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일종의 '한국

1) 강남욱(2018). "소통과 통합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책무", <교육논총> 38-1.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pp.241-266.

강남욱(2019ㄱ). "지역 '외국어학습센터'의 필요성과 국가평생교육으로서의 한국어교육 - '문법적 경험'의 사회복지적 지평과 혜택에 대하여", 한국문법교육학회 제31차 전국학술대회(생애주기 교육과 문법 교육) 자료집. 한국문법교육학회. pp.139-147.

강남욱(2019ㄴ). "지석영본 <아학편(兒學編)>(1908)으로 살펴본 트랜스링구얼리즘(translingualism)과 교육적 의미", <語文硏究> 47-3(1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457-491.

어교육 현상(좀더 과장하자면 '환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냈는데, 정작 그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이나 그와 관련한 담론은 몹시도 부족해 보인다. TOPIK 시험의 2020년 응시자 통계는 COVID-19와 관련한 영향으로 순식간에 약 21만 9천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연간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국가의 편중이 대단히 심하고 응시자들의 응시 목적이나 분포에 있어서도 미지의 분석 지점이 많다는 점, 그리고 진학·취업·이주자의 정착(영주와 귀화) 등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고부담 고비용 평가'의 극단적인 예인 이 시험이 내포하고 있는 응시자(학습자)들의 질적 대응과 반응, 현실적인 효용성, 실제 삶 속의 한국어 숙달도와의 관련성에 대한 학술적 조명은 그다지 없다. 한국어 교사의 양성을 위해 전국의 259개의 학위과정과 251개의 비학위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나(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정보), 이렇게 양성된 교사의 삶의 궤적이나 현장 안에서의 목소리는 쉽게 드러나지 않고, 한류와 한국어의 개념에 비상식적 수준의 자민족중심주의와 차별적 의식, 비학술적(비과학적) 오류들이 엉켜들어간 일부 사례에 대한 지적과 비판 역시 이 '시장'의 규모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부족하다.

'한국어교육 현상'을 학문 탐구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한국어교육학이 물론 이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학이라는 공간 안에서 한국어교육학 전공의 성립 내지는 존립의 내력(來歷)은 대단히 복잡하고, 대개 긴장과 갈등이 내재된 현실 속에 있으며, 뒤에서 더 다루겠지만 국제교류/유학생 유치와 교육/한국어교육원을 포함한 기관 운영/학부-대학원 운영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어 이율배반(二律背反)의 고충 속에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한국 사회에 드리워진 '대학의 위기', 이미 오랜 시간 화두가 된 '인문학의 위기' 안에서 이 전공을 향한 '팀 킬'로 읽힐 만한 성찰적(비판적) 연구의 배태(胚胎)로서 기능하도록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발표자가 이 현상을 깊이 있게 살펴볼 만한 식견이 부족하기도 하거니와, 발표에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한 대상을 도출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것이라 구체적인 대안 없는 사변적이고 선언적인 논의가 될 듯하다. 또한 두루 살펴보고자 해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사례로 국한될 수 있어 현실적인 입장 차이는 필연적이기에 어떤 면에서는 이 발표는 여러 모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모로 제한이 많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인식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며, 이번 학술대회의 취지 안에서 시론(試論)의 차원에서 본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한국어교육 현상'의 형성

발표자는 강의나 연수 강연 중에 한국어교육학 연구자로서 '1.5세대 연구자'라고 자신을 표현하곤 한다. 대개 발표자와 비슷한 연배의 한국어교육 전공자들이 그러할 텐데, '한국어교육학 전공'이 아닌 학부 전공을 선택하고, 다른 인생의 진로를 계획하다가 우연적(혹은 운명적) 계기를 통해 국내외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보는 등의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접하고 알게 되어 2000년대 전후반 대학원 전공으로서 신설되거나 빠르게 성장하던 '한국어교육 전공'을 택하여 석·박사 학위기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을 첫 시기에 받은 연구자 그룹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1세대 연구자들은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 외국어(교육)학, 응용언어학 등의 전공 안에서 연구 활동을 하다가 한국어교육 기틀을 놓은 연구자들이 되고, 2세대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한국어교육 전공을 알고 학부를 포함하여 그 전공을 통해 가르치거나 연구할 것을 목적으로 말 그대로 <한국어교육학 개론>과 같은 개론서를 제대

로 접하면서 공부를 시작한 그룹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1.5세대는 여하한 사정에서 '모학문'의 기반과 그와 관련한 진로 지향이 있던 중에 한국어교육을 경험하고 학문으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많다.

일례로 개인적인 사례이지만, 발표자 역시 국어교육과를 전공하고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단원(KOV)[2]으로 몽골 국립외국어대학 동양어학부 한국어과(현 몽골인문대학교 한국어통번역ㆍ교육전공)의 한국어교육 분야 단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첫 출발점이자 계기였다. 1998년 당시 KOICA 한국어교육 분야 단원은 대략 1년 1회 30여 명 수준을 모집하였는데, 대학 전공 단위 강사급을 포함한 주요 기관에 파견이 되었다. 한국어교원과 관련한 자격이나 인증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비전공자들도 선발이 되었고, 발표자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교육 경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전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KOICA에서도 자격 신임과 함께 역할 부여를 주었고 수원국에서도 별도의 요청을 받는 형편이었다. 당시 파견 기간 계속되었던 책임감과 부담감, 동시에 생소한 교육 업무이지만 외국 학생들과 나누는 교육적 교감과 소통은 열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여기에서 느낀 흥미와 경력이 대학원 진학의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은 위에서 언급한 국내 1세대 한국어교육학자들의 적극적인 연구 행보와 함께 유학생의 유입, 국가 주도의 한국어교육 사업(교육과정, 교재, 평가, 기초연구, 웹기반 학습 사이트 개발 등)의 관련된 성장 기회가 충만한 시기였다. 문화콘텐츠 관련 학계에서 대체로 합의하는바, 1997년을 전후하여 시작되어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중국, 대만, 일본을 중심으로 한 1차 한류(韓流)[3]와도 이 시기가 결합되며, 2000년을 전후해서 한국 사회에 빠르게 늘어난 이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의 현상과도 관련이 된다.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현재의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는 2010년을 전후해서야 비로소 굳어지게 된 용어이며, 이 시기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 등의 명칭이 더 일반적이었다. 2004년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의 설과(設科)는 이러한 명칭이 가장 공론화될 시기의 가장 상징적인 결과이기도 했으며, 1955년 "국어교육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어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국어교육학계 학회 중 하나인 "한국어교육학회"가 2004년 현재의 학회명으로 변경하게 된 배경 역시, '한국어교육'이 '국어교육'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두루 가리키는 상위의 명칭임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했다.

이 시기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과 관련하여 발산적(發散的)으로 사회적인 반응은 '긍정', '신기함', '들뜸', '자긍심', '선제적 대응', '베풂/배려', '진보적 시각의 호소'와 같은 것들이었다. 물론 그 이전까지도 다양한 경로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은 많았지만 이 시기를 전후하여 한국어를 배워 한국인과 한국어로 접촉/소통하는 외국인들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신기하고 새롭게 받아들이고,[4] 또 '해외 외국인도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들으며,

---

2) Korea Overseas Volunteer. KOV는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이 인적 원조 사업으로서 시작한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에 참여한 봉사단을 지칭하는 명칭이었고, 2009년부터 대한민국 정부 파견 봉사단원의 브랜드 통합에 따라 정부 각 부처의 해외봉사단을 통합하여 WFK(World Friends Korea)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3) 장규수(2011).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pp.166-173.

4) 강남욱(2019ㄴ: 466-477, 483)에서는 한반도의 역사, 또 근대사 안에서 오히려 접경지를 사이에 둔 한국어 습득, 교차 언어(트랜스링구얼리즘), 다중언어 사용은 빈번하고 자연스러우며 익숙한 것이었으며, 오히려 19세기 이후 '국어'라는 사상과 관념이 강화되고 민족 교육의 핵심으로 자리잡으면서 '없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식의 다분히 타자지향적인 의타적 자긍심이 여러 방식의 미디어와 SNS를 통해 반복되고 재생산되었다. 1999년~2000년에 방영된 <남희석, 이휘재의 한국이 보인다 - 브루노와 보쳉의 팔도유람기>라든지, 2006년~2010년에 방영된 <미녀들의 수다>와 같은 프로그램은 이러한 신기함을 '구경거리'로 전환한 당대의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라고 할 수 있을 텐데, 2021년의 시점에서 보면 이들 콘텐츠에서는 한국의 음식이나 생활양식을 가학적일 정도로 강요하면서 '한국 사람 다 됐네' 식의 의도된 반응과 웃음을 유도하거나, 질의나 대화의 여러 면에서 젠더의식의 부재한 차별적 설정과 발언이 횡행(橫行)하고 있어 10여 년의 시간 안에도 우리가 외국인,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에 대해 의식이 얼마나 크게 변화하였는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재외동포들에게 있어 위상이 높아지고 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한국의 언어를 익히는 것 또한 이전에 비해 단순히 '민족정체성을 지키고 계승한다'는 취지를 넘어서 확실히 실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언어 자본으로 학습(습득/가정 내 사용)에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이에 따라 재외 한글학교와 관련된 연수, 교육자료/교재 개발 등의 사업도 다각화되고 규모도 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 내의 외국인 이주자 인구 증가는 때로는 격렬한 논쟁, 이해 충돌을 겪으며 차차 소위 기존의 다문화 국가가 경험한(혹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들을 보이고 있다. 단적으로, 한국 사회가 여러 면에서 교육, 정책, 사회 운동을 통해 다문화 민감성과 수용성이 증가한 것과 동시에 '다문화'라는 어휘가 여러 공간에서 차별어(를 넘어 때로 혐오 표현)에 준하는 수준의 의미 격하(格下)로 통용된다는 점은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고 하겠다.

이러한 2000년대 중반의 사회적 현상에 맞물려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어 교원 양성'이라는 주제에는 '한류/한류문화의 확산', '전세계의 뜨거운 관심', '세계를 무대로 하는', '국제적 활동', '자랑스러운 우리말 우리글을 가르치는', '민족문화 전파의 첨병'과 같은 모순적이면서도 다분히 위태로움마저 주는 관련어(소위 해시태그)가 무분별하게 따라붙기 시작했다. 교원양성관련 학점은행제 지면 광고에는 으레 세종대왕의 캐리커처가 붙었고, 방 가득 한국 아이돌을 붙여 놓고 커버 댄스를 연습하며 한국 여행을 꿈꾸며,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의 판타지가 연동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한 한국어 교사 파견 사업의 지원서에 작성된 지원 동기는, 조롱을 목적으로 두고 의도적으로 과장을 섞어 조작한 사례로 판단되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한국어교육 현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일단(一端)을 자조적인 뉘앙스로 보여준다.

> 영어보다 훨씬 뛰어나고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우수한 한글을 모든 나라에 널리 알려서 한글이 세계 공통어가 되는 그 날을 위해 이 한 몸 다 바쳐 한국어를 가리키려 합니다. (2018 검색, 현재 출처 불분명)

2015년을 전후해서 한국어교육 현상은 다시 흥미로운 양상을 보인다. 소위 'K-○○○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으로 압축되는 외국인 크리에이터들의 콘텐츠들이다. 이러한 콘텐츠는 YouTube와 같은 플랫폼을 통해 급속도로 성장하였는데, 일부 콘텐츠들은 1,000만 조회수 이상의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5] 이들 중에는 '한국어'와 관련한 콘텐츠들도 존재하는데 '한국어+

어진 경험', 혹은 '없었던 것으로 치부해버린 경험'으로 전환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5) 외국인들의 한국 문화(언어)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채널로 <영국 남자 Korean Englishman(2013년 개설, 현재 구독자 384만)〉, 〈어썸코리아 Awesome KOREA(2013년 개설, 현재

외국인' 등의 조합으로 조회수가 많은 영상들 순에서 다음과 같은 타이틀과 썸네일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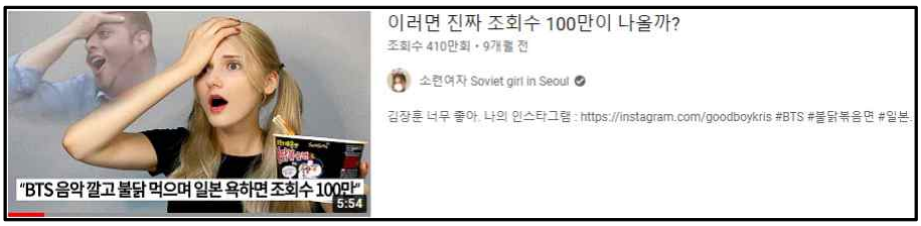
- (한국어는 왜 이렇게 만능이에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어에서만 가능한 말들?! [외국인 반응]
- 한국어로만 가능한 신박한 표현에 충격 받은 외국인들 반응? (feat. 한국인들 창의성 실화...?)
- "한국인들은 말로 절대 못 이겨!" 외국인이 한국에서 감수성이 늘어난 이유 [해외반응]
- 한국어를 배우던 외국인이 한 단어에 소름 돋은 이유 "한국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 [해외반응]
- 한글패치된 외국인 미녀들이 세계 공용어가 되고 있는 한국말들을 보고 충격받은 이유
- (한국어 배우려고 난리!)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난리난 한국어 표현
- "다시 태어나도 난 한국어를 택하겠다"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놀라운 이유 // "한국어를 감히 일본어 중국어와 비교하지 마" [외국인 반응]

공중파 방송의 콘텐츠나 주요 언론의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접근은 이전에 비해 훨씬 성숙해지고 비교적 문화다양성을 다루는 데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려는 것과는 달리, YouTube와 같은 플랫폼에서는 2005년을 전후로 형성된 양가적(兩價的) 태도, 즉 매우 민족주의적인 태도와 개방적인 태도가 뒤섞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언하자면 우리 사회가 보이는 언어적 다양성에는 매우 경직되고 배타성을 보이는 반면, 국제적으로 한국어가 언어 다양성의 측면에서, 외국어의 측면에서 인정받는 것은 긍정적이고 당연하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이다.

COVID-19의 여파는 지속되고, 이로 인한 문화 교류의 변화는 상당히 장기적일 것으로 여겨지지만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확산세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학술적으로 뒷받침하는 한국어교육학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3. 한국어교육 현상과 '한국어교육학'의 조응(照應) 문제

구독자 39.5만)〉, 〈올리버쌤(2015년 개설, 현재 구독자 192만. *채널 성격상 외국인의 반응만을 다루지 않음), 〈딩글 Dingle(2015년 개설, 현재 구독자 42.8만)〉, 〈씨랩 C LAB(2016년 개설, 현재 구독자 32만)〉, 〈코리안 브로스 Korean Bros(2016년 개설, 현재 구독자 48.3만)〉, 〈션 파블로 Sean Pablo(2016년 개설, 현재 구독자 29.8만)〉 등이 있다. 이들 채널의 콘텐츠들의 제작 의도를 모두 왜곡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한국 문화를 다루고 있으며, 댓글 소통을 통해 활발하면서도 적절한 토의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다만 일부 콘텐츠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소위 '국뽕적 해석'에 대한 비판들이 존재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외국인 '국뽕' 콘텐츠에 열광하는 것이 외국인 유튜버들이 서구 사회에 인정받고 싶은 한국인들의 콤플렉스를 잘 이용해 높은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들에 대해 외국인 유튜버가 블랙 유머와 풍자를 섞어 패러디한 영상("이러면 진짜 조회수 100만이 나올까")와 같은 피드백 콘텐츠도 적지 않은 반응을 일으키는 등 흥미로운 전개를 보이기도 한다.



(1) 학술 분야의 팽창과 독립

한국어교육학은 축자(逐字)대로 보자면 '한국어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 될 것이며, 교육을 다루고 있는 학문 영역의 특성상 응용 학문이며 실천 학문이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원론적인 합의 이후부터는 한국어교육학의 학문 분야를 이해하는 접근은 적지 않게 차이가 있는 듯 보인다. 이 학문을 보는 입장은 ① 국어학의 하위 분야, ② 외국어교육학의 하위 분야, ③ 언어교육학(국어교육학)의 하위(또는 등위) 분야, ④ 한국학의 하위 분야, ⑤ 인접 학문의 통합적 학문 분야 정도로 나뉜다. 그리고 이 학문 계열을 보는 입장은 시기에 따라서도 적지 않게 변화를 겪어 왔다.

한국어교육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2002년 1월에 한국연구재단(당시 한국학술재단)은 한국어교육학을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에 사회과학 분야 중 독립 학문 영역으로 설정한다. 한국어교육학계에서는 이 시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이후로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자등록정보, 학술 활동, 논문과 연구저술 등의 학문 영역에 '한국어교육학'으로 전산 기입할 수 있는 정식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한국연구재단은 '한국어교육학'을 [사회과학] ➜ [교육학] ➜ [교과교육학] ➜ [한국어교육학]으로 분류하였으며, 이 분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시기 이전 국립국어원의 <국어학 연감>에서는 한국어교육학을 국어교육학에 속해 있는 학문 분야로 분류하였다. 2002년까지 국어학 연감에서는 연구물들을 분류하면서 [국어학] ➜ [국어교육] ➜ [한국어교육]의 체계를 사용하였고, 2004년 이후부터는 [국어학]의 하위로 [국어정책], [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음성학ㆍ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ㆍ의미론ㆍ사전편찬학], [국어사ㆍ국어학사], [문자ㆍ표기], [방언ㆍ사회언어학]을 분야별로 모두 분류함으로써 한국어교육학을 독립된 분야로 기술하였다. 물론 이 세부 전공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거나 두세 개 이상 중첩되는 연구는 존재하기 마련이고 여전히 보기에 따라 견해는 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발간된 한국어교육학 개론서로 널리 사용된 박영순(2002)[6]의 경우 [국어학]의 하위 분야 중 [응용국어학]이 있고, 이 안에 [국어교육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사회국어학], [전산언어학], [국어화용론] 분야를 요소로서 포함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이미 다수의 전공 학과가 있고, 한국어교육학을 다루고 있는 학회도 여럿이거니와 학술지의 발간도 매우 활발한 상황이며, 한국의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수의 학위 논문과 학위자 배출이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이 학문이 어떤 갈래이냐를 논의하는 것이 새삼스러울 수도 있으나, 어떤 면에서는 앞서 언급한 기본적 정의(한국어교육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영역)이라는 것 밖의 논의를 덮은 채 대학 전공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역할이 된다면(충원율/재학률/중도탈락률 등의 지표 유지, 유학생 유치와 한국어교육기관 운영, 대학원 운영 등) 모든 것을 유보하거나 불분명하게 한 채 두루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두어도 된다는 인식은 없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 학문 분야 사전에서도 정의되지 못한 학술 분야

강남욱(2005: 457-458)[7]에서는 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비교ㆍ대조의 대상으로 삼아

---

6) 박영순(200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도서출판 월인.

7) 강남욱(2015).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개념과 관계에 대한 학술사적 고찰". 한국국어교육학회 제126차 전국학술대회(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이론적 동향과 연구 영역의 확장) 자료집. 한국국어교육학회, pp.455-468.

두고 한국어교육학의 주된 사전적(辭典的·事典的) 정의를 살펴보면서, 의외로 관련 사전에서도 이 학문 영역이 제대로 정의된 바가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표> 한국어교육 관련 항목의 사전 정의 기술 내용(강남욱, 2005: 457-458)

표제어 / 주요 사전	한국어교육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	국어교육
표준국어 대사전 (국립국어원)	없음	없음	없음	국민에게 국어의 사용, 이해, 표현 따위를 습득시키는 교육.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없음	없음	없음	국민에게 국어에 대한 언어 기능과 가치, 이해, 표현, 태도 등을 습득시키는 교육.
국어교육학 사전(199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없음	국어교육학은 국어 교육을 이론적·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 국어과 교육학은 ‘국어과 교육’에 대한 연구를 가리킨다. (…) 국어 교육학을 학교 현장에서 각 교과별로 실천되고 있는 교육 현상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의 국어 교과에서 ‘왜—무엇을’, ‘언제—얼마나—어떻게’ 다룰 것이며 ‘누가’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핵심으로 하면서, 국어 교육을 위한 전체적인 사항을 다루는 학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pp.113~119)	한국어 교육은 넓은 의미로 ‘국어 교육’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좁은 의미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가리킨다. 국어라는 일반적인 지칭 대신에 ‘한국어’라고 지칭함으로서 그 교육의 대상이 구체성을 띠게 하는 것이다. (…) 국어 교육은 종래의 협의의 개념에서 확장되어 ‘한국어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pp.781~783)	국어 교육은 한국인에게 그의 모어(母語)인 한국어를 교육하는 일이다. (…) 이와 같이 국어 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어과 교육을 포함하여, 가정·사회 등에서 얻어지는 언어 경험, 언어 활동, 언어 문화 등의 범사회성을 띤 국어 생활에서 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하여 국어과 교육은 학교에서 주로 실시되는 국어 교육을 의미한다.
한국어교육학 사전(201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위 (1)에서도 한 차례 언급한 사항이기는 하나, 국어사전뿐만 아니라 이 학문을 다루는 사전(事典)에서마저 자체 정의가 없다는 것은 의아하면서도 놀라운 일이다. 앞의 발표문(2015: 456-457)에서는 위 <표>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어교육학은 어떤 까닭으로 그 학문의 가장 대표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육학사전』에 의한 정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것인가? 그 이유는 추론하기에 따라 다양하겠지만, 대략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거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이거나, '정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의 정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시에 제시한 사전의 항목 분류의 체계와 구조, 표제어에 대한 기술 방식의 텍스트 맥락 등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3) 국어와 한국어,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마찬가지로 익숙하고 해묵은 논제이기는 하나, '국어'와 '한국어'의 지점, '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의 영역 구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발표문에서 장황하게 그 유래와 사상사적 배경을 논의할 필요는 없으리라 여겨지지만, '국어(國語; National language)'라는 용어의 함의나 영향에 대해서는 그 수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다.[8] 요약하기에는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나 간추리자면, 한국의 언어를 가리키는 '국어'라는 명칭에는 '민족-국가-언어'를 강력하게 묶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18~19세기 낭만주의와 계몽주의 사상에 근거하여 독일과 프랑스의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언어-장소-공동체'를 떼어낼 수 없는 하나의 견고한 묶음으로 생각하는 관념(소위 '헤르더적(的) 삼위일체(Herderian triad)'에서 촉발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국어'라는 메시지로 전환해 강력한 민족 단결의 방향성으로 가져간 것은 19세기 후반 우에다 카즈토시(上田万年) 이래 일본의 철학자와 언어학자의 사상에 맥이 닿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여러 이견과 반론들도 있고, 논의가 무르익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국립국어원, 국어기본법, 교과로서 '국어과'와 같은 법률에 근거한 공식 명칭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이 용어가 갖는 의미가 그 자체로 있으므로 융통성 있는 사고가 필요하기도 하다.

논의가 나오기도 하였으므로 '국어기본법'에 대한 언급도 짧게 해 볼 수 있을 듯하다. 2005년 국어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이 법의 명칭을 '한국어기본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여론 수렴과 공청(公聽)의 절차를 거쳤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종국적으로 한국과 한국 밖에서 한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인 'KOREAN (Language)'을 가리키는 언어는 '국어'로 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었다. 또 이 법의 시행령이 나오면서 '한국어 교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해외 한국어 보급 기관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의가 되었다. 한편 국어기본법 제정 이후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어교육과정'이 2012년 7월에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교과서인 <표준한국어>가 나오면서 결정적으로 '한국어교육학'은 통상적으로 외국어로서, 혹은 제2언어로서 교수·학습되는 한국어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다루는 것으로 거의 굳어지게 되었다. 이는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상당히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인 '다문화'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용어는 2005년 전후만 해도 단

---

8) 관련한 여러 연구서와 논문들이 있으나 같은 연구자가 발표한 아래 두 편의 논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태린(2006). "'국어'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학> 48, 국어학회. pp.363-394.
조태린(2014).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따른 국어관의 변화와 국어 연구의 변화 가능성", <우리말글> 60. 우리말글학회, pp.75-92.

순히 차 문화를 가리키는 '茶文化'의 용례가 일반적이었으나, 2004년 민간단체인 '건강가정시민연대', 그리고 관련 학계에서 'multiculture'의 번역어로서 사용이 되던 중 2006년 교육부의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이라는 문건이 나오고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된 이후 완전히 굳어지게 된다. '한국어교육'이라는 용어도 국가의 정책명이나 법령은 학술 개념 용어로부터 결정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국사'와 '한국사'의 논쟁에서처럼[9]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학'이 현재의 상황으로 굳어진 것이 일종의 '종결'로서 말하기는 어렵다. 아래에서 좀더 살펴보겠지만 교육과 연구의 대상이 '모국어 화자 대 외국어 화자'로 확연히 나눌 수 없는 지점은 애초부터 나타났었고, 어느 소관이라고 말할 수 없는 영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 변화, 통일 이후의 한국어,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구성층과 저변 확대 등을 보아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것이라 여겨지며, 두 학문의 정체성, 내용 영역, 인접 분야, 학술사와 미래 연구의 방향을 예의 주시하며 거듭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본다(이상의 두 단락은 강남욱(2018: 251)에서 수정 인용함).

(4) 다중언어사회의 도래와 한국어교육학의 사각(死角) 지대

내국인과 국가 교육용 교과목에는 '국어교육', 외국인과 한국 내 이주자(학령기 학생 교과목 포함)에게는 '한국어교육'의 이분법적 방식은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에는 판단 근거가 되므로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갈수록 이 문제는 더 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대상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이분법적으로만 설정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은 한국어 공동체가 그만큼 그 구성원의 배경이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즉 조명을 받는 영역이 뚜렷해지고 명징해질수록 오히려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조명을 받지 못하는 모호한 사각(死角)의 영역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두 개의 <표>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준다.

<표> 한국어의 (대상자ㆍ구사자별) 유형과 이에 따른 한국어 교육 방향(권순희, 2014: 95, 98[10], 일부 수정)

국내외 구분	한국어 유형	비고
국내 다중언어 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다문화 배경 학습자의 한국어
	방언으로서의 한국어	분단 문제와 연결된 한국어, 통일을 염두에 둔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국어
국외 다중언어 사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이 배우는 한국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유학생, 이민1세대, 1.5세대 한국어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고려어, 조선어, 교민 한국어 등

9) 참고로 '국사(國史)'가 '한국사(韓國史)'라는 명칭의 교과목으로 결정된 것은 '국(國)'이나 '한국(韓國)'이냐의 논쟁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한국 현대사와 세계사 등과 교과 식별(識別)을 위한 지점에서 출발한 특성도 있다. 학계와 민간에서 과목명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10) 권순희(2014). "다중언어 사회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위상",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대회 및 국어 정책 포럼 발표 논문집(다문화 사회에서의 다중언어 정책과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 우리말학회. pp.66-75 [국립국어원(2014)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 연구보고서> 수록 페이지 기준]

한국어 유형	대상 학습자	한국어 교육 방향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
	국제결혼 이민자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필요에 따라), 문화 한국어, 정체성
	비보호 청소년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연령에 따라 학습 한국어), 문화 한국어, 정체성
	단기 체류 외국인 학습자 (유학생, 어학연수생, 관광객 등)	생활 한국어, 학문 목적 한국어(필요에 따라)
	(한국어를 거의 못하는) 역이민 교민 2세대, 3세대	(필요에 따라)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	외국인 근로자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 다문화 배경 학습자, 일부 국제결혼가정 자녀, 역이민 교민 2세대, 3세대 등	생활 한국어, 직업 한국어, 문화 한국어, 정체성
방언으로서의 한국어	북한이탈주민, 탈북학생	대응 생활 한국어, 대응 학습 한국어, 대응 문화 한국어, 정체성 (‘대응’ = 같은 뜻이나 서로 다른 어휘 또는 표현)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일부 국제결혼가정 자녀, 역이민 교민 1.5세대	국어교육, 정체성

위 <표>에는 ‘모국어’인 경우에만 ‘국어’로 한정이 되어 있어 ‘방언’이라는 부분이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대상 학습자가 세분화되어 있기는 하나 중첩되거나 혹은 이 범주를 벗어나는 예외적 사례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보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 <표>가 위 (3)에서 언급한 국어와 한국어를 ‘Korean language’라는 관점에서 통합하고, 언어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전세계의 언어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의 관점을 돌리고 위상을 재배치하였다는 점에서 생각할 거리를 준다. 즉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어가 모어인 화자들이 쓰는 한국어도, 외국인이 배우고 익히는 한국어도, 동포들이 환경에 따라 미숙, 또는 능숙하게 구사하는 한국어도, 북한에서 쓰이는 한국어도 모두 ‘한국어’라는 전제 하에 국경과 관계없이 다중언어라는 사회 환경 내에서 모국어로서, 계승어로서, 방언으로서, 외국어와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교수-학습하는 장면을 가리켜 ‘한국어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다루어 보고 있다. 무엇보다 ‘다중언어’라는 차원에서, 또 한국어를 (부분적이든 숙달되지 못한 상태이든) 구사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를 위한 언어 교육의 견지에서 본다면 그간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모국어로서의 국어교육’의 이분적 관점으로는 편입시킬 수 없는 영역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한국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학 전공의 현실

(1) 교사 자격 부여 교육과정 운영의 두 얼굴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교원의 양성은 국어기본법과 관련 시행령, 시행 규칙을 통해 법률로 관리되고 있으며, 그 자격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령에 의해, 한국어교육학을 전공으로 둔 학부나 대학원의 경우 모든 교과목이 교원 양성의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립국어원의 심사와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 교육의 교육과정이 일정한 기준과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고, 또 이로 인해 얻게 되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렇게 '꽉 짜여진' 교육과정을 운영해온 시간이 누적되면서, 이것이 반드시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일으키게 한다. 세세한 것까지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어교육학이라는 넓은 관점에서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난점(難點)이 감지된다.

첫째, 교과목명의 벽으로 연구의 융통성이 막히는 측면이 있다. 현재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제시된 교과목명은 내용론(1영역 한국어학, 2영역 일반응용학 및 응용언어학, 4영역 한국문화)과 교과지도론(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5영역 한국어교육 실습)에 걸쳐 거의 전분야에 걸친 예시 과목을 들고 있지만, 승인을 받는 과목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학과에 따라 학년별 전공필수와 선택 과목을 배치, 나열하다 보면 정작 학생들이 듣는 수업은 거의 그 종류와 개수가 고정이 되는 형편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새로운 과목을 승인을 받는 것에도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승인받은 교과목 밖의 교과목을 운영할 만큼 졸업이수학점이 넉넉한 편이 아니어서 고정된 교과목은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 대학원의 경우는 필수이수학점이 적기 때문에 그 폭은 더 줄어든다. 이렇게 고정된 교과목은 발산적 연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자에게도 그러하고, 또 해당 교과 강좌를 통해 학습하거나 다루는 논저, 논문 등 연구물도 그 교과목의 경통(鏡筒; scope)와 시야(視野)를 벗어나기 어렵고 해당 교과목과 관련된 주제를 위주로 한 연구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교원자격취득 학점수'라는 학업의 틀이 견고하여 예비 교사와 예비 연구자들이 교과 밖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능동적으로 접해보거나 학습하기 어려워진다. 발표자가 재직하는 대학을 예로 들자면, 초등교원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정해진 학점이 있다 보니 '다중언어가 통용되는 학급', 즉 다문화학생이 있는 학급의 지도를 맡을 경우 교사말(Teacher talk)이나 외국인말(Foreigner talk)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지, 동료 협업이나 활동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사례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는 비단 국어과 교육 관련 수업만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음악과 체육, 사회과를 포함한 전 교과에서 해당하는 문제이다. 임용 직후 발령받는 지역에 따라 이 문제가 교원 생활의 위기가 될 정도로 절대적인 사안이 된 사례도 적지 않게 보았고, 미래 한국 사회의 교실 구성원의 다양성을 생각해 본다면 초등교원 또는 중등교원 양성에는 다중언어 환경의 의사소통과 한국어를 통한 지도법이 필요하고 한국어교원 양성에는 한국 학교에서 다중언어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아동, 청소년의 언어교육과 관련한 내용, 또 한국 교과교육의 어휘나 지식 지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셋째, 위 2장의 (4)에서 지적한 문제의 연장선상이자 앞에서 언급한 것과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내국인을 위한 국어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이분법적 교사 양성 교과의 체계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사각(死角)'을 다루는 연구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를 지니고 있다. 더욱 본질적으로 짚어보자면, 한국 정부가 부여하는 교원 자격을 위해 짠 틀이 전 세계 한국어 공동체의 다양성 높은 한국어교육의 양상을 꿰어내기 어렵다. 물론 이론적 토대는 기본적으로 같을 수 있으나 같은 강좌를 듣는 학생들이라도 이 이론적 토대를 적용하고자 하는 지향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 강의를 통해 더 깊게 제공해 주고 싶은 현장 경험 연계에 난점을 준다. 모두(冒頭)의 인용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모국어 직관이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입력을 주어 언어 사용을 경험하고 습득하도록 하는 작업은 한국어에 대해 '덜 가르치면 될 것'이 아니라 '더 알고 난 다음 근거와 논리를 가진 섬세한 판단하에 가려 가르쳐야 될 것'이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언어교육학은 그러한 점에서 전문성과 학문적 독자성을 확보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 현재의 체계는 연구자의 연구는 별도이고, 전공 교육은 깊이 있는 지점을 다루기에는 틀과 조건에서 제약이 적지 않다.

넷째,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교과목이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예시 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영역(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의 다수 교육 교과는 1, 2, 4 영역을 강의의 내용론으로 다시 강의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전공 교수자(교강사)의 자원이 불균형하게 배치되기 쉬우며, 또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기 어려운 구조가 되기 쉽다. 예컨대 [한국어어휘(의미)론 – 한국어어휘교육론]과 같은 대응쌍이 있는 강좌가 다수 있는데, 어느 정도 양 교과목의 설치 목적이나 교수 목표에 대한 이해가 있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와 평가는 내용론을 반복하거나 순환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문학을 비롯한 문화를 다루는 4영역의 경우, '한국어교육학' 전공자로 학위를 받을 때까지 한국 문학과 관련하여 <문학 개론> 한 과목만을 수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교수자의 입장에서도 '전공자'에게 요구해야 할 지식적 깊이에 대해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고 교육의 내용은 생략될 수밖에 없거나 압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공이수학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는 영역에 대한 전공 교수는 대개 1~2명 수준이고, 나머지 영역에 전공 영역들이 배분된 상황이 많아 한국어문학/국어국문학을 전신(前身)으로 한 한국어교육전공의 경우 담당 책임시수에 해당하는 강의 과목에 대한 내부 논의가 많고, 인적 구성의 방식·영역·주기가 보수적이고 장기적일 수밖에 없는 대학의 특성상, 구성원의 전공 연구 영역의 불균형과 관련한 과도기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교원 자격과 교과는 표준적인 것이나, 다중언어 사회의 도래는 기존의 여러 나라의 사례가 그러하듯 대단히 다양하여 연구와 전공의 특수성을 살리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표준적인 것은 범용적 역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기 위한 별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언어학과 다문화 관련된 여러 선행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이주자의 정착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과 언어경관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한국의 한국어교육학 전공의 교육과 연구가 동일한 영역과 주제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표준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특정 다중언어 환경의 이주자와 이주 배경의 다문화학생의 구성원의 배경, 모국어, 인구 특성, 경제적 상황에 따른 연구 조사와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시점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 한국어 교원 진출의 난맥상과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문제

앞서 (1)에서 지적한 내용과 상통하는 것일 텐데, 교원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교원 자격을 받은 전공자들이 취업을 포함한 전공 관련 사회적 진출이 난맥에 처해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국제를 무대로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외국인들에게 가르치는 직업'이라는 말은 미디어와 콘텐츠 플랫폼에서 부풀려진 환상이자 홍보 문구일 뿐, 현실에서 '더 높은 학위를 갖지 않으면 경제적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자원봉사 형태 외에는 쉽게 진입할 수 없는 직업'이고, '석박사 이상의 더 높은 학위를 결국 갖춘다 하더라도 결국 신분이 불안정한 직업'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며, 한국어교육학을 연구하고 예비 교원들을 교육하는 입장에서도 모순적이고 괴로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지만[11], 이를 학술적으로 다루고 대안과 대책을 촉구하는 연구자의 실천적인 성과는 요원하다. 학문이 현실을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국어 교원의 현실을 질적·양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논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이를 누적시키는 것은 한국어교육학 연구자의 몫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대학원 이후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있어서도 외화내빈(外華內貧)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학위 수여자 수로는 인문계열, 교육계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12] 실제 이 학위 소지자의 다수는 학술 분야가 아니라 교육 분야로 이동하고자 학위 과정을 선택한 경우가 많고, 서울경기권 소재의 일부 대학원, 지역의 일부 대학원을 제외하고는 승자독식의 양상에 가까운 까닭에 대부분 기본적인 대학원생 수를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유학생들 다수와 소수의 한국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학위과정자들의 교육과 논문 지도의 균형점을 찾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후속연구의 체계를 갖추기에는 (1)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수학점의 교과목 틀이 고정되어 있어 현재 한국어교육학 전공 134개 대학원(사이버(원격)형 대학원 포함)[13]의 기능은, 자체적으로 학술연구의 깊이와 수준을 제고하고자 노력을 적지 않게 기울이고는 있으나 과정생의 학위 입학의 목적 자체가 교원자격취득이나 현장 교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연수재교육에 더 큰 비중이 있는 실정이다.

(3) 국제학을 표방하나 다양성을 포용하기 어려운 전공 형태

위 1장과 2장에서 조금씩 언급하였으나, 한국어교육학은 국제교육의 교류협력, 유학생 유치와 어학 연수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 내 대학들의 국제화에 역할을 담당하고 국외에서의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대학 안팎으로 국제적인 연결고리가 많을 것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으나 결국은 극히 닫힌 체계에서 행정과 관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표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압박 속에서 인문학 전공으로서 타개책으로 '학과(전공)를 살려야겠다는 취지'에서 소위 '국제 한국어학'로서의 위상 재정립을 선택하고 진행한 사례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위기에 봉착하는 일도 잦다. 분리하기도 어렵고 경계가 불분명한 국제교류 업무를 분담 받는 가운데 교육도 행정도 학생 관리도 아닌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연구력으로 돌려야 할 능력을 소진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14]

(4)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정책과 교육의 왜곡

한국어교육과 관련한 연구과제는 국정의 여러 기조와 관련하여, 또 '한류'와 '한국어의 인

---

11) 다음의 칼럼과 소설을 참고할 수 있다.

백승주(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기고 칼럼(언어의 서식지). "한국어, 착취의 언어", 2020. 10. 29.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910480000812).

서수진(2020). 마르리안 티처온(제52회 한겨레문학상 수상작). 한겨레출판.

12) 세부 전공으로 '한국어교육전공'을 취득한 비율은 한국학술정보(RISS) 등을 통해 세부전공 학위자 비율을 민원 요청한 상태에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를 통해 대학원 학과계열별 졸업자수로 살펴본 결과, 인문계열 언어·문학 분류에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국어국문학계열, 교육계열에서 한국어교육을 포함한 언어교육계열은 각 1,306명(중계열 중 48%), 1,869명으로(중계열 중 1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13)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학위과정 운영기관' 목록 참고. (https://kteacher.korean.go.kr)

14) 지역 대학에 국문학과를 전신으로 하다가 한국어교육전공으로 전환한 전공에 소속된 익명의 한 연구자는 대학 안에서 이 전공 운영이 어떤 면에서 '전화위화(轉禍爲禍)', '고진고래(苦盡苦來)'의 곤란함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을 나눈적이 있다.

기'라는 시의성과 관련하여 2000년대부터 그 과제의 개수와 범위, 사업비가 크게 늘었다. 조사나 연구의 토대가 되는 연구물과 함께 개발비용이 상당한 교재 및 평가, 교육과정의 개발도 목적, 대상, 매체를 달리하며 여러 건이 발주되었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학술계에 여러 재원으로 연구를 촉발하는 연구 사업은 일견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책 사업의 주도하에 학술 연구가 매몰되기 쉽고, 정책적·제도적 측면이 큰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측면도 있지만 현장 기반의 상향식 연구와 큰 정책 연구 결과에 뒤따른 하향식 연구가 질과 양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연구자,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문후속세대와 한국어 교원이 적지 않은 분량의 연구과제에 투입이 되고 강도 높은 업무 끝에 많은 성과물들을 내고 있으나, 이 성과물들이 갖는 근본적인 의의를 돌아보고 현장에 주는 영향과 피드백을 분석하며 새로운 설계와 협의를 나누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각 발주 기관들의 이해관계와 방향이 교차되고 연구자들이 그 취지에 합당한 성과를 대체로 짧은 기간 내에 발주한 방향으로 맞추어 달성하고, 연구가 종료하자마자 다시 다른 과제에 투입이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연구과제 수행이 학계의 주력이 되는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TOPIK과 같은 고비용 평가가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어 교실이 진정한 의미의 한국어 의사소통 가르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흔들리는 양상 또한 감지된다. 대학에 입학해야 하고, 이수 자격을 가져야 하고, 체류와 취업을 보장받기 위해서 한국어 소통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아니라 인증 점수가 되어 가는 현실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왜곡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인들은 틀리게 말해도, 여러분은 틀리면 안 돼요.'의 당위가 평가를 통과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교육의 목적, 의사소통의 목적을 두고 진지한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5. "미래", "세계", "어문학"과 "한국어교육학"

이하의 내용은 학회일에 별도로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번 학회의 주제, 즉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한국어문학 연구의 모색'을 위에서 두루 살펴본 한국어교육학의 현실을 재음미하며 모색해 보고, 몇 가지 제언을 마련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들을 간추리기는 하였으나, 미비한 점도 있고 충분한 대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기도 하여 서면의 발표문으로 남기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학의 여러 상황들이 일반화하기에는 어렵고 꼼꼼한 확인이나 논거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른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대략 아래에서 기술되는 내용으로 요약됩니다.

① 미래의 우리 공동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들의 공존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어문학의 연구는 이를 저지하거나 지연시키는 데 이론적 역량을 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최소한 공공의 차원에서는) 언어로 인해 제한받거나 차별받거나 소외받지 않고 그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반응하며 소통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학문으로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차차 작은 단위의 공동체에서 촉발되는(이미 촉발된) 이 문제는 차차 그 범위가 넓어지면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② '표준어'라는 이상적 지향점을 넘어 한국어가 갖는 다양한 변이형들을 기록하고 관찰하고 논의의 장으로 가져와야 할 터인데, 한국어교육학은 그 가운데에서 공동체의 소통과 구성원간의 상호이해를 돕는 중요한 학술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 '교육론'은 이주민(외국인 학습자)의 교육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한국어 모어 화자)의 교육에도 등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학교교육을 넘어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이론적 체계여야 한다. 만약 국책 연구과제가 개입해야 한다면, 동시에 해외의 여러 학습자들이 갖는 특성, 환경을 상향적으로 고려하되 공통으로 참고할 수 있으며 국제적인 통용성이나 호환성을 갖는, 눈금비교(scaling)이 가능한 기준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③ 한국어교육학의 세계 어문학으로서의 가능성과 방향은 이러한 전제 위에서 더욱 넓어질 것이라 여겨진다. '한국어교육'이 '외국어교육'의 한 갈래를 분명히 차지하고 그 저변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 소통의 이론의 본류에 한국어로 소통이 일어날 경우와 교육을 둘러싼 행동과 반응을 분석하고 제시함으로써 세계 어문학으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④ 동시에, '한국어교육학'이 아닌 '한국어교육' 자체가 더욱 현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한국어교수이론'으로서 더욱 풍성한 각론들을 모아나가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비모국어 화자에게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은 이론을 토대로 수많은 교실 운영법, 지도법, 교재 활용법과 교사 대화에 대한 경험과 기법을 거듭 정제(精製)함으로써 발전을 이룬다.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 것과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밀접한 상관을 이루지만, 해외 한국학은 차차 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되 융통성 있게 포괄하며 두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나가며

이번 학술대회에 국어국문학회가 설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자가 그 동안 가져 온 문제의식들을 기술해 보고자 하였으나, 적지 않은 부분이 명확한 근거 없는 판단이나 단상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모로 많이 부족하고 부실한 지점이 많다. 또한 발표자의 무지로 제도와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지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면에서 한국어교육학에 큰 발전을 가져온 연구과제와 그 결과물, 각 전공이 기울여 온 연구력 제고와 현장 교육 연계의 노력에 대해서 그 의의를 충분히 기술하는 것을 논의 전개상 생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문제점만을 지적한 것처럼 읽히는 부분도 있어 그 노력들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싶어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구하고자 한다. 이 발표가 연구자로서 이 학술 분야의 정체성을 의심하고 고민하고 발표자 스스로를 자책하고 성찰하는 것으로서 이해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외각주 표시로 대체하며 생략함)

"사회 현상으로서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재고와 전망"에 대한 토론문

오지혜(세명대)

이 발표는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감지되는 현상들을 통해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학'의 과거, 현재를 개괄하고, 미래 세계어문학으로서의 학문과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가 "구체적인 대안 없는 사변적이고 선언적인 논의가 될 듯하다"라는 발표자 선생님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자들 간에 사석에서 이루어졌던 '숙덕공론'을 다각도로 고찰, 조명하여 한국어교육학의 과제를 담론화하였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논의로 읽힙니다. 저 또한 1.5세대 연구자로서 그간의 경험들을 겪으면서 한국어교육학의 정체성, 한국어교육의 위상에 대해 고민과 회의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발표자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의식과 논지의 대부분에 공감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대학 밖에서는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토픽(TOPIK), 한류, 그리고 대학 내에서는 대학 평가 지표로서 국제화, 충원률에 기여하는 한국어교육 현상이자 '환상'과는 달리, 한국어교육학과 한국어교육이 처한 '현실'은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형성의 측면입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학은 국가의 정책명이나 법령은 학술 개념 용어로부터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그것으로부터 학문적 개념이 정립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파생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용어 및 개념, 이와 함께 관련 학문들과의 논의,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접근 관점에 있어서 발표자 선생님의 의견이 있으신지요.

둘째, 변화의 측면입니다.

이는 국내외 한국 언어, 문화의 향유 생태계 변화와 관련됩니다. 신 한류를 비롯하여 다중언어사회로서의 점진적 변화를 고려할 때 현재 한국어교육 또는 한국어교육학의 영역, 역할에서 사각 지대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5장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미래 지향적인 한국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어교육학의 역할이 될 텐데요. 이는 결국 한국어교육의 대상의 문제, 한국어교육학의 영역의 문제로 환원되는 거 아닌지요. 현장과 연구 간의 연계적 관점, 정책, 실행이라는 또 하나의 어려운 과제가 남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발전의 측면입니다.

이는 한국어교육과 한국어교육학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학문후속세대의 양성, 한국어 교원의 사회적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어교육학 전공자와 한국어 교원 대상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과 관련됩니다. 여기에는 내국인을 위한 국어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이분법적인 관점과 함께 교육 행정 및 관리 중심의 체제의 문제 등이 얽혀 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한국어교육학'이 아닌 '한국어교육' 자체가 더욱 현장 중심으로 성장하고 '한국어교수이론'으로서 더욱 풍성한 각론들을 모아나가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는 앞서 언급하신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한국어교육이 현장 중심이라는 관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각론 중심의 또는 초점의 한국어교육 체계화는 잘 그려지지 않는데 이에 대한 선생님의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존재적 측면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의 여러 기조와 관련하여, 또 '한류'와 '한국어의 인기'라는 시의성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분야의 연구 과제는 개수와 범위, 사업비 등 양적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닌 긍정적인 효과와는 별도로 '연구과제 수행이 학계의 주력이 되는 본말전도(本末顚倒)의 상황' 속에서 한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위치 또는 정체성에 대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소위 '전시 행정'에 기꺼이 이용됨으로써 학문의 사회 기능적 가치를 호소, 입증하려는 인문/사회학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연구자로서의 역할 측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미래 사회 문학 교육 내용의 통합성과 유연성 증대를 위한 고찰
-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인접 분야' 관련 단원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

민재원(전북대 국어교육과 부교수)

1. 통합성으로서의 현재 삶과 융합 교육적 접근의 흐름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나 관점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TV가 아이들의 발달에 장애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아이들이 TV를 통해 학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논의는 미래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1] 이와 유사하게 사회학의 분야에서도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공간'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다른 관점에서 이루어진 고찰은 그 구성이나 발현의 양상이 변화하였을 뿐 여전히 '공간'이라는 개념은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2]

미래 사회가 더욱 강한 윤리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라면 문학 교육은 학습자들에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재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가 더욱 창의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사회라면 문학 교육은 창의적 사고의 결과를 담은 혹은 읽는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작품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미래 사회가 과학적 사고를 요구한다면 과학적 요소가 담긴 작품을, 다문화적 태도를 요구한다면 다문화적 요소가 담긴 작품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예단하여 선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3] 오히려 윤리성, 창의성, 과학성, 다문화성 모두가 필요한 역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적절한바 이 가운데 무엇을 제외하는 것이 더 어색해 보이기도 한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예로 제시한 네 가지 범주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현재의 과정일 것이다. 현재의 문학 교육은 과연 예측하기 어려운 다음 세대의 삶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를 살필 필요가 여기에 있다. 듀이(Dewey)가 지적한 것처럼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대학의 학문 분과들이 중등 교육의 장으로 요약되어 전달되는 것으로는 미래 사회를 살아갈 세대들이 직접 부딪칠 상황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 나가는 역량을 기르는 데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4]

---

1) D. Buckingham, 기선정·김아미 옮김, 『미디어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서울: jNBook. 2004.
2) M. Schroer, 정인모·배정희 옮김, 『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서울: 에코리브르, 2010.
3) 1인 미디어 시대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나, 이전의 교육과정을 통해 국가 수준의 영상 촬영 및 편집과 관련된 교육이 두드러지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를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능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습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인접 분야' 등의 용어들이 등장하면서 문학 활동을 다양한 분야와 연결시키려 하는 시도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분과 학문으로서의 문학이 학습자들의 실제 삶이 가지는 총체성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도가 실제 학습자들이 그들의 삶으로부터 문학 활동이 시작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점검하는 작업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인접 분야'라는 용어에 주목하려 한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인접 영역'이라는 내용이 제시된 이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교육과정 성취 기준으로 자리를 잡아 온 이 용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와서는 '예술, 인문, 사회, 문화' 분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기에 이른다.[5] 그러나 정작 교과서에 구현된 활동이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또 다른 성취기준인 "[12문학02-02]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와 분명한 변별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학과 인접 분야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의 문제와도 이어진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해설에서는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수용하고 생산하게 함으로써 문학 활동의 범주가 깊어지고 넓어지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여 '인접 분야'에 대한 관심이 결국에는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에 수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또한 문학이라는 교과가 본연의 가치를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으나 실제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통합적인 경험을 얻는 데로 나아가기에는 여전히 듀이가 언급한 분과별 전문적 파편화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교과 간 융합 수업, 주제 중심 수업 등이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그 실행의 국면에서는 교과 간의 병렬적 결합, 혹은 주제 관련 내용의 분리 담당 정도에서만 그치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이 파편화된 접근의 결과일 것이다.

그 동안 문학과 다른 교과의 융합적 교육에 대한 학술적 접근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서명희·김종철은 '외부효과'라는 경제 개념이 어떤 문제 상황과 맞물리는가를 학습자들이 별도로 마련된 서사 속에서 스스로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 언어적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6] 경제 개념을 추상적으로만 학습하기보다 실제 서사적 상황에 적용하여 이해한다는 점은 문학이 가진 구체적 형상화의 장점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습자들에게 제시한 서사적 상황은 한 편의 문학 작품이라기보다

---

4) J. Dewey,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343쪽과 385쪽 참조.

5) 각 시기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부 내용 및 성취 기준의 구체적인 진술은 다음과 같다. (ncic.go.kr 2021년 5월 12일 검색 결과)
7차: 문학 - (3) 문학과 문화 - (라) 문학의 인접 영역 - ① 문학은 인접 예술을 비롯한 사회·문화 현상과 밀접하게 관계됨을 이해한다.
2007 개정: (3) 문학의 위상 - (가) 문학과 문화 - ② 문학과 예술, 인문, 사회, 문화의 관계를 이해한다.
2009 개정(2009 고시): 문학Ⅱ - (2) 문학과 삶 - (다) 문학과 문화 - ① 문학과 예술, 인문, 사회, 문화, 매체의 관계를 이해한다.
2009 개정(2011 고시): [문학의 수용과 생산] - (4) 문학이 예술, 인문, 사회 등 인접 분야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이해한다.
2015 개정: (2) 문학의 수용과 생산 -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예술, 인문, 사회, 문화 현상)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6) 서명희·김종철, 「창의적 문제 발견 능력 함양을 위한 문학·경제 융합 교육: 언어적 창의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연구』 14(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77-99쪽.

'외부효과'에 대한 예시적 상황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학습자들이 이후의 서사를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실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인접 분야에 대한 이해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관련을 맺어야 하는가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가 인접 분야의 콘텐츠를 통해 더욱 넓어지는 사례는 '상호 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주로 나타난다. 정재찬은 이상의 「오감도」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인접 분야인 영화와 자연 과학의 분야인 동물학의 내용에서 작품 해석의 단서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인 바 있다.[7] 이와 비슷한 흐름은 미술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이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 연구로도 이어졌다. 고정희는 희곡 <햄릿>과 그림 <오필리아>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밀레이의 시각적 리터러시가 회화적인 훈련만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문학 작품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형성되고 길러질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문학교육에서도 공감 능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시각적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문학의 인접 분야로서의 미술은 단순히 문학 작품의 내용을 이미지로 풀어서 보여주는 삽화의 성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8] 이와 같은 흐름은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가 서로의 스키마로 작용할 수 있는, 혹은 언어라는 수단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지점을 직접적인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보완하거나 직접적인 이미지의 의미를 언어라는 수단으로 포착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9]

문학의 '인접 분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제시한 것처럼 '예술, 인문, 사회, 문화'에만 그치지도 않는다. 김지혜는 과학적 요소들이 과학소설 및 과학 담론이 단긴 소설 속에서 '사건'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설에 대한 이해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 과정에서 "방대한 정보가 인터넷 을 통해 검색 가능한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지식의 암기와 확장이 중요한 교육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10] 주현식·백성혜·오윤선의 연구는 과학 분야에서도 AI에 초점을 맞추어 상실적 이해의 알고리즘이 드라마 '대장금'에서 '장금'이 보이는 추상화 인식과 맞닿는다는 점을 보이기도 하였다.[11]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융합 교육적 접근이

---

7) 정재찬,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실천」, 『독서연구』 21, 한국독서학회, 2009, 111-160쪽.

8) 고정희, 「문학과 미술의 교육적 융합을 위한 제언: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 <오필리아>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39-72쪽.

9) 이후 고정희는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윤동주의 시와 프리다의 그림을 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학습자들에게 "고통의 의미와 인간 존재의 한계에 대하여 숙고하는 길을 안내"할 수 있음을 추가로 제시한 바 있다. 고정희, 「자화상을 통한 미술과 문학의 융합 교육」, 『문학치료연구』 4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119-160쪽.

미술 교과와 문학의 융합을 다룬 연구 중 이상아·안지연의 연구는 미술 작품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이해가 문학 작품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 있어 앞서 언급한 정재찬의 연구나 고정희의 연구들과는 차별된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들이 내용과 주제적인 차원에서 상호텍스트적인 이해를 도모하였다면 이상아·안지연의 연구는 두 분야의 작품 읽기 방식이 서로 공유될 수 있는 지점을 모색하였기에 '인접 분야'의 관계를 설정하는 다른 방식을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아·안지연, 「현대미술 감상 교육에서 미술과 문학의 융합」, 『미술교육연구논총』 55,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18, 165-184쪽.

10) 김지혜, 「소설과 과학, 그 융합 교육의 가능성」, 『국어교육연구』 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189-217쪽.

11) 주현식·백성혜·오윤선, 「창의융합 교육의 관점에서 본 문학 교과서의 문제와 대안 : 창의융합 교육 제재로서의 드라마 <대장금>」, 『문화와 융합』 42(6),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309-338쪽.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들이 있다. 김지혜·서명희의 연구는 기존의 다문화 교육이 가지고 있는 타자성 강조의 성격을 지적하고 도덕과와의 융합적 활동을 통해 이후 작품 읽기 활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2] 그 중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문학 작품 독서가 윤리의식의 교육으로 이어지게 이끌기 위해서는 토론이나 글쓰기 활동 시 문제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환원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향이다.[13] 이는 문학 작품의 형상화가 예술을 제외한 다른 인접 분야들에 비해 비교적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이 듀이가 언급한 통합성의 실현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태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문학, 사회, 과학의 융합 교육을 구상한 김정우의 연구 또한 문학 작품은 학습자들의 감수성과 연결되어 구체적인 문제 지점을 제기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대안적인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원천으로 제시하고 있다.[14]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이 주목한 문학 활동의 확장 및 심화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도 그것이 실제 교실에서 구체화되는 방향이 교과서를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학교육이 지향해야 할 통합성과 유연성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지를 먼저 살필 것이다.

2. 예술의 통합성과 생명체의 유연성

2.1. 통합성의 두 층위

서명희·김종철의 연구가 듀이(Dewey)의 논의 속에서 이미 주목한 것처럼 "실제 세계가 교과의 영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분절되어 있지"는 않다.[15] 듀이는 예술과 관련된 다른 저서에서도 예술 수용자의 경험이 가지는 통합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다룬 바 있다.

> 화랑을 방문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안내자를 따라 구경하며 다니면서 이것저것 대상에 유의하지만, 지각하지는 못한다. 그들은 활발하게 구현된 주제 때문에 그림을 보고자 하지만 그 흥미조차 우연에 의한 것일 뿐이다.
>
> 그 이유는 관람을 위해 관람자가 자기만의 경험을 창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예술가와 같이 지각자도, 작품의 창작자가 의식적으로 경험한 조직화 과정처럼, 형식 안에 있는 ― 비록 세부에서는 아니어도 ― 전체의 요소들에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재창조의 행위가 없다면 대상은 예술 작품으로 지각되지 않는다. 그 예술가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 선택하고, 단순화, 명료화, 단축과 응축을 행한다. 관람자도 그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이러한 작용들을 행해야 한다. 양자 모두 의미 있는 것을 추출하는 추상의 행위를 행한다. … 즉, 경험된 전체 내에서 물리적으로 산재해 있는 세부와 부분들을 모으는 일이 행해진다.[16]

인용한 마지막 문장의 의미는 해당 맥락에서 볼 때 작품이 주는 자극에 대한 경험에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듀이의 논의가 진행되는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부분은 조금

12) 김지혜·서명희, 「다문화적 성찰을 위한 문학과 도덕의 융합교육」, 『문학교육학』 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125-166쪽.
13) 위의 글, 163쪽.
14) 김정우, 「생태문학교육의 방향과 내용」, 『국어교육』 169, 한국어교육학회, 2020, 1-27쪽.
15) 서명희·김종철, 앞의 글, 78쪽.
16) J. Dewey, 이재언 옮김,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2003, 101-102쪽(생략 표기는 필자).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여지를 가지게 된다. 듀이는 위의 인용문과 같은 부분에서 미적 성질을 지니는 하나의 경험을 실천적, 정서적, 지적인 것으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실천적인 것은 "유기체가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건들과 대상들과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17] 또한 해당 논저의 도입부에서 듀이는 "생명체가 과거부터 간직해 온 것, 그리고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현재의 지침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 또한 예술이 현재를 활기 있게 해 주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됨을 주장한다. 문제는 그렇게 소환된 과거가 소위 말하는 '은행저장식' 정보로만 활용될 경우 과거만이 현재와 미래를 "물리치고 나아간다"는 데에 있다.[18]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경험된 전체'의 유기적 관계를 구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관계의 구성이 관람자의 '관점과 관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는 부분이 된다. 관점과 관심은 주체가 살아 온 통합적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관점과 관심은 주체가 살아온 삶이나 기대하는 미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분화된 교과 체계는 "이런 다양한 관심들이 여러 가지 독립된 목적과 방법을 가진 별개의 제도 속에 갈갈이 찢어진 상태로 틀어박"힌 결과로 존재하며 "풍부하고 균형잡힌 경험"을 방해한다.[19]

듀이가 문학을 특정하여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제시하는 예술의 특징은 그것이 경험을 제공한다는 데에 있을 것인데, 여기서의 경험은 "개인적인 감정과 감각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세계와의 활발하고 민첩한 교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최고의 경험은 자아와, 대상과 사건의 세계 사이의 완전한 상호 침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20] 이러한 관점에 기대어 보면 예술이 가지는 통합성은 개별적인 예술 작품들이 가지는 내적 구조의 완결성이나 유기성에만 국한된다기보다 자아와 세계의 통합까지도 확장되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교과 통합적, 교과 융합적 교육을 지칭하는 맥락에서의 통합성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인가? 듀이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는 결코 폐기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의 예술관이 교육관과 분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분과별로 전문화된 학문이 겨냥하는 세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통합된 경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음력에서 삭(朔')은 초하루를, 망(望조)은 보름을 말한다. 삭망과 관련해서는 삭망조(朔望潮)라는 말이 있다. 음력 초하루와 보름 무렵에 썰물과 밀물의 차가 커지는데, 이 조수를 그렇게 부른다. 즉 삭망조는 사리와 같은 말이다. 이와 반대로, 음력 여드레와 스무사흘을 전후해서는 간만의 차가 작아, 물이 들어도 적게 들고 써도 적게 써는데, 이 조수를 '조금'이라고 부른다.[21]

한 편의 시가 세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소재로 삼는 이미지들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통합되고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인용한 내용은 김소월의 작품에서 지루하고 단

---

17) 위의 책, 102쪽.
18) 위의 책, 41쪽.
19) J. Dewey,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385쪽.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수도 있다. "수가 공부거리인 것은 그것이 이미 수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세상의 성질과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우리의 목적 달성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 공부가 효과적인 것으로 되려면 학생이 다루는 수학적 지식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활동의 결실을 얻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위의 책, 213쪽.
20) J. Dewey, 이재언 옮김, 『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2003, 42쪽.
21) 황현산, 「「往十里」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잘 표현된 불행』, 서울: 문예중앙, 2003, 662쪽.

조로운 슬픔의 정서를 읽어내는 과정에서 활용된 이 세계에 대한 정보이다. 한 편의 시가 세계를 살아가는 주체들의 모든 정서를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읽어 가는 독자는 자신의 통합된 경험 전체를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 김소월의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필연적으로 '지구과학적' 정보와의 통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22)]

이와 같은 통합성이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인접 분야'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실제로 우리의 경험이 통합적이기에 작품의 함축적인 표현에 풍부한 생산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김영랑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에서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품의 1연에서는 전반적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움을 연출한다고 할 수 있는데,[23)] 이 과정에서 '햇발'은 돌담에 비치는 '빛'으로서 시각적인 자극을 회상하게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돌담이 햇볕을 받아 데워지는 촉각적인 자극을 회상하게 하기도 한다.[24)] 굳이 '빛'과 '열'의 관계에 대한 물리학적 정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경험은 이미 세계를 이와 같이 통합적인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25)]

앞서 언급한 '상호 침투'로서의 통합성은 김기림의 작품을 읽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비극은 부끄러운 일과 마찬가지로 영예롭게 여겨질 일까지도 자주 죄가 된다는 데 있을 것이다. … 명랑한 활기도 제 처지를 망각한 사람의 경박함으로 치부되기 십상이지만, 저와 제 주변을 황폐하게 하는 우울한 정신으로 제 사지를 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절이 불리할수록 어떤 단안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건 한 걸음 내딛는 일이 중요한데,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
> …
>
> 이 작품(「바다와 나비」)을 두고 '순진무구하고 철없는 지식인'이니 '냉혹한 현실'이니 하는 말은 사실 부질없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란 말도 따지고 보면 부질없다. 문학적 모험이건 다른 모험이건 모험가는 순진하거나 철이 없어서 모험하는 것이다. 누가 콜럼버스에게 대서양의 젊이를 일러주었는가. 모험가에게 그가 헤쳐가려는 바다의 수심은 아무도 "일러준 일이 없"는 깊이가 아니라 아무도 알지 못하는 깊이일 뿐이다. 흰나비는 바다를 "청무우밭인가" 여겼다고 한다. 그는 새로운 세계를 찾아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낯익은 세계를 찾아갔던 것이다. 비극은 거기 있다. 식민지적 자기 검열의 가장 큰 비극은 거기,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해답을 다른 어떤 사람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데에 있다. 물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가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는 말은 그가 공주는 아니라는 말도 된다. 시인은 자신의 실패를 엄살 섞어서 말하지만, 이 엄살에는 나도 할 만큼은 했다는 속뜻이 담겨 있다. 그리고 이 엄살 위에 청백이 선명하게 대조되는 그림 하나를 보여준다. 이 아름답고 처절한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자기 위에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실패를 두려워 말고 저 난바다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
> 우리가 알려고 애쓰는 것을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벌써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까지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김기림의 도움이 크다. 우리는 김기림에게 고개 숙여 절하며 그를 위로할

---

22) 이와 유사한 사례로 문태준의 「가재미」를 읽는 과정에서 가재미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눈[眼]의 위치 변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23) 민재원, 「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의 구체화 방향 고찰(3): 화자 중심의 구술성 복원과 운율 연출을 위한 호흡선 개념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0, 국어국문학회, 2017, 199-200쪽 참조.

24) 후자는 필자의 강의 시간에 학부생이 제시했던 의견임을 밝혀 둔다.

25) 이 세계에 '시각'으로만 혹은 '후각'이나 '청각'으로만 존재하는 이미지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지도 비판적으로 바라볼 지점이다.

수 있다.[26]

위의 인용문 서두에서 독자는 "한 걸음 내딛는 일"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27] 여기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 (생략하기는 했지만) 1930년대 프랑스의 지위와 문학사에 대한 정보들이 서로 연결되고 대조되면서[28] "한 걸음 내딛는 일"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한다. 이는 작품에 대한 기존의 평가가 "사실 부질없"는 것임을 주장하면서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을 자신의 관심사와 그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세계와 통합시키는 모습을 보여준다.[29]

2.2. 다중 통합성을 향한 생명체의 유연성

이와 같은 통합성이 곧 세계의 혹은 문학의 완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통합된 세계와 그로부터 얻게 되는 통합된 경험은 통합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실제로 우리의 인식이 그리고 그에 대한 표현 과정과 결과로서의 문학이 세계의 통합성만큼이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로서의 독자는 (혹은 학습자는) 저마다가 가진 관심을 통해 '인접 분야'의 도움을 받으며 부분적인 이해들을 시도하고 나름의 통합성을 이루어가려 한다.

여기에서 문학 교육이 지향할 유연성이 발생하게 된다. 하나의 작품을 읽으면서 독자가 그 작품을 자신의 삶과 통합시키기 위해 작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 하는 것은 독자의 관심에 따라 유연하게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30] '인접 분야'와 관련하여 현행 교과서에 구현된 제재 중 하나인 「납작납작 - 박수근 화법을 위하여」와 그에 대한 학습 활동을 통해 유연성이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드문드문 세상을 끊어 내어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걸어 놓고 바라본다.
흰 하늘과 쭈그린 아낙네 둘이
벽 위에 납작하게 뻗어 있다.
가끔 심심하면 여편네와 아이들도
한 며칠 눌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

26) 황현산, 「김기림에게 바치는 짧은 인사」, 『잘 표현된 불행』, 서울: 문예중앙, 2003, 253-261쪽(생략표기 및 괄호 안 작품명은 필자).

27) 이와 같은 관심은 해당 비평집의 1부가 번역, 포기, 실패 등의 주제어들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인용한 글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김기림이 스스로에게 가한 '검열'이다.

28) 이 또한 시의 함축성이 독자에게 요구하는 바이다. 기표에 의미작용을 하는 독자는 사전(辭典)이 아니라 통합된 경험으로 살아가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29)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독자의 세밀한 읽기는 시 교육이 늘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30) 관심이 인간 존재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듀이의 견해를 참고할 수도 있다. "예컨대 무사심 또는 '이기심이 없는 것'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요—그렇다면 그것은 기계와 같은 무관심의 상태일 것이다—무자아 또는 '자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그렇다면 그것은 생기와 인격이 없는 상태일 것이다." J. Dewey, 이홍우 역, 『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527쪽.

발바닥도 없이 서성서성.
입술도 없이 슬그머니.
표정도 없이 슬그머니.
그렇게 웃고 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
그리곤 드디어 납작해진
천지 만물을 한 줄에 꿰어 놓고
가이없이 한없이 펄렁 펄렁.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

학습 활동
1. 박수근의 그림을 본 느낌과 생각을 자유롭게 말해 보자.
   - 그림 속 인물 및 인물의 행동:
   - 색깔 및 질감:
   - 전체적인 느낌과 생각:
2. 박수근의 그림과 이 작품을 감상하고, 문학과 다른 예술 분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1) 이 작품에서 시인이 박수근의 화법을 표현한 시구를 써 보자.
   (2) 이 작품에 나타난 사람들의 모습을 바탕으로, 시인이 박수근의 화법에 주목한 이유와 이를 통해 전달하고자 한 의미를 말해 보자.
3. 105쪽에 제시된 박수근의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신의 감상이나 해석을 담아 3행의 시로 써 보자.[31]

같은 제재를 다루고 있는 다른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이 작품의 제목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자.
2. 이 작품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말해 보자.
3.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니 마땅합니까?"라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
4. [보기]를 참고하여 작가가 「납작납작」을 창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추측해 보고, 인접한 분야인 문학과 미술의 관계에 관하여 말해 보자.[32]

김혜순의 작품은 분명 화가인 박수근의 화법을 중심 소재로 삼고 있다. 박수근의 그림에 대한 시인의 경험은 "보시니 마땅합니까?"라는 불만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통합성을 성취한다. 박수근의 그림을 바라보는 시인의 경험 속에서 세계는 '납작해진' 것으로 인식되는데 과연 누가 그들을 납작해지도록 눌렀는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해당 교과서가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서민들의 애환과 그에 대한 연민"을 그림으로부터 읽어내고 그것을 언어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교과서는 미술과 문학의 관계를 "영감"을 '차용'하는 차원에서 설명한다.[33] 그 결과 세 개로 나누어 제시되고 있는

31)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비상교육, 2019, 104-106쪽.
32) 최원식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창비, 2019, 86쪽.
33) 한철우 외, 앞의 책, 108쪽. 현행 문학 교과서의 대부분은 현대시와 인접 분야를 다루는 단원에서 이처럼 미술 작품으로부터 소재를 차용하거나 미술 작품이 시로부터 영감을 얻는 경우를 제시한다. 고재종의 「세한도」를 김정희의 그림과 연결하면서도 사회학적 차원에서 농촌의 현실 문제를 다루거나(이숭원 외, 『고등학교 문학』, 2019), 황동규의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을 고흐의 <밤의 프로방스 시골길>과 연결하거나(정호웅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천재교육, 2019), 김광섭의 「저녁에」를

학습 활동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그림과 시를 분리시킨 채 그 내용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작품에 대한 이해와 학습자의 창작 표현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후자의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학습 활동이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는 과정을 마련하기보다는 시는 시대로 이해하면서 그 창작 동기만을 미술 작품과 연결시키는 정도에서 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활동은 해당 단원의 도입에서 제시한 "미술의 표현 기법이 시에 형상화된 과정을 이해하고,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해 보자."라는 안내와도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문학이 미술 작품을 그 소재로 삼을 수 있다는 것 외에 문학과 '인접 분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다른 내용을 제시해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박수근의 그림을 실제로 보고 그 회화 세계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납작하게'가 가리키는 바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은 '눌렀다가 벽에 붙여 놓고'나 '피도 눈물도 없이 바짝 마르기'를 통해 형성할 수 있는 이미지를 더욱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혜순의 작품이 박수근의 회화를 그대로 언어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의 핵심은 그 모티브를 제공한 작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에 있다기보다 박수근의 회화를 보고 이 작품의 화자가 느꼈을 정서를 재구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재구의 과정에서 정작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접 분야'는 미술의 분야라기보다 역사나 사회학의 분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34] 김용택의 「섬진강」을 읽기 위해 지리학이나 지역학을 '인접 분야'로 선택하거나 신동집의 「오렌지」를 이해하기 위해 생물학을 '인접 분야'로 선택하여 그 관계를 살피는 것이 독자의 입장에서 그 작품을 자신의 경험 속으로 통합시키는 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인접 분야'를 활용하는 것이 '상호 텍스트적 읽기'와 분명하게 변별되는 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는 별도로 다룬다고 하더라도 이처럼 한 편의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가 관련을 맺을 '인접 분야'는 그 작품이 소재를 차용하거나 영감을 얻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관계는 독자가 통합적인 세계의 어느 지점과 만나고 있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유연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오문석은 최근 문학비평과 문학연구가 새로운 '이론'들을 접하면서 정작 문학 작품이 그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는 논의를 제시한 바 있다. "'이론' 이후 문학비평과 문학연구에서 형성된 '탈문학'의 조짐은, 아이러니하게도 문학이 '인문학의 원형'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35] 문학비평과 문학연구가

김환기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와 연결한다(방민호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미래엔, 2019).

이와 달리 인접 분야를 예술의 영역으로 하면서도 음악을 그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도 있었다(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동아출판, 2019). 이 교과서에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과 박창학 작사·윤상 작곡의 「소월에게 묻기를」를 연결하였는데, 학습 활동의 핵심은 노래 가사가 시를 차용하면서 추가된 내용과 반복의 부각을 파악하는 데 있었다.

34) 경우에 따라서는 신학이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35) 오문석, 『시에 대한 질문 몇 가지』, 서울: 앨피, 2019, 334쪽. 오문석은 또한 현재의 학습자들은 '포스트-진정성의 주체'이며 이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은 "기존의 문학이 상정하고 있는 내포독자 및 잠재적 소비자를 드러내어 학생들과 대화적 관계를 유도하는 일"임을 보인다(위의 책, 358쪽). 탈문학의 조짐이 오히려 문학으로 하여금 문·사·철의 전통으로 표상되는 인문학성을 복원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잠재적 소비자' 간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문학활동의 '소통성'을 복원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소통성'은 끊임없는 문제의 발견과 그에 대한 후속

문학을 통해 갖게 되는 다양한 관심들이 문학의 가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문학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되는 것일 수 있다면 학습자들 또한 저마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만의 '인접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감상하려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어떤 '인접 분야'를 선택하여 사유를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화가의 그림을 읽는 시인의 입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우선 회화 분야의 전문가가 박수근의 그림을 언급하면서 활용하는 '인접 분야'는 예술사회학과 철학의 분야였고 동시에 작가의 전기적 요소와 한국 회화의 전통이라는 맥락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해당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 초개인적이고 윤리적 성격의 선함과 진실함을 박수근은 아낙과 고목을 통해 일관되기 지향한다. 그의 회화에서 선함과 진실함의 알레고리이자 선하고 진실한 세계의 품목인 아낙과 고목은 외적인 사물로 조망되지 않는다. 단순한 선과 비슷한 색의 미묘한 차이로 겨우 변별되는 이미지들은 따라서 바깥 세계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생략한다. …
>
> 박수근 회화에서 확인되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시각은 초월적이다. 이러한 시각은 선함과 진실함에 대한 믿음 그리고 선하고 진실한 세계에 대한 존재의 상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선함과 진실함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초월적 시각은 화가 뿐 아니라 그의 회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선함과 진실함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선하고 진실한 세계로 견인한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
>
> 박수근 회화의 평면성은 이미지가 경계를 허물고 지지체로 흡수되어 생성된다. 이와 같은 평면성은 … 이미지와 지지체가 일원화 상태에서 출발하는 수묵화와 정신의 유사함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의 평면성은 벽면과 종이를 이미지 서술을 위한 지지체에 머물지 않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 19세기 민화에서 전형을 찾아볼 수 있는 한국 전통의 평면 의식과도 의식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
>
> 박수근 지지체에 스며든 것은 실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세계가 작가의 눈에 가한 절망과 허무의 충격을 화가의 정신 안에서 평면으로 창출해 낸 세계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직관에 철저하게 의존한다. 이미지의 현실감이 저하되고, 의식의 내면성이 강조된다. 박수근 회화 속 아낙과 고목으로 대표되는 세계는 그가 이해해야 할 대상이자 그가 귀속해야 할 곳이고 선함과 진실함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염원의 공간으로 이상화된다.[36]

인용이 다소 길지만 이 인용문에서 바라보는 화가의 화법은 시인이 시를 통해 형상화한 바와 같은 의미를 공유하지 않는다. 화가의 그림이 포착하고 있는 당대 사회의 궁핍과 상처에 대해서는 그 평가의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인은 그 결과에 가해진 외부의 힘, 혹은 화가의 그림에는 형상화되지 않은 힘에 대해 관심을 집중한 반면 위의 인용문은 화가의 기법이 정신의 세계로 대상들을 귀속시키면서 평면적 세계 속에 스며들게 하여 '치유'를 진행하는 방식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한 폭의 그림을 자신의 삶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 또한 한 편의 시를 자신의 삶과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가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용자의 관점 혹은 관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통합의 과정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접 분야'의 다양성 또한 수용자의 다양성만큼이나 넓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논의를 주목하기 위한 용어이며 루만(N. Luhmann)의 '후속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주목을 배경 맥락으로 삼는다. 루만의 개념이 문학교육의 방향에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민재원, 「문학 교육과정의 보완 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연구: 루만의 '관찰' 개념이 가지는 의의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70,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41-69쪽을 참고할 수 있다.

36) 공주형, 「박수근 회화의 평면성과 의미」, 『예술학』 3(1), 한국예술학회, 2007, 58-64쪽(생략 표기는 필자).

3. 통합 교과로서의 문학과 남은 과제들

지금까지 진행한 논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 사회에 대한 준비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 외에 다른 방향을 특정하기 어렵다. 둘째, 현재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전문화된 분과 학문만의 단독적인 개입은 듀이가 이야기하는 경험의 통합성을 해치게 된다. 셋째, 문학 교육은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이 수용자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이때 통합적 접근은 수용자가 작품 이해의 기반으로 삼는 경험 자체가 통합적이라는 점과 작품이 수용자의 관심이나 관점과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넷째, 수용자의 관심이나 관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통합성을 이루게 되는 지점들 또한 다양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수용자가 동원할 배경지식으로서의 '인접 분야' 또한 다양한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서로 다른 성취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호 텍스트성'과 '인접 분야'는 교과서에 구현된 양상으로 볼 때 큰 변별점을 가지기 어렵다. 이는 문학 작품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요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문학 교육의 '내용'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독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품 외적 정보는 각 독자의 관점이나 관심에 따라 다양한 맥락에서 선택될 수 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독자에 따라 어떤 작품의 경우는 '인접 분야'나 '상호 텍스트'를 포함한 작품 외적 정보를 충분히 마련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이해를 도모하기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라면 '인접 분야'나 참고할 '상호 텍스트'는 교수자나 교과서가 제시하기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탐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을 제시하며 후자의 경우라면 문학 교과는 그 자체가 삶의 통합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통합 교과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그러한 탐색의 과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편의 작품을 읽는 데에 활용할 상호 텍스트가 반드시 정전급의 고급 예술에 국한될 필요는 없으며, '인접 분야' 또한 반드시 대학에서 학문 분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다. 현재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수준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작품이 있다면, 그것은 교수 주체들이 기다려 주어야 할 일이거나 현재 학습자들의 세대가 교수 주체들의 세대에 비해 얼마나 큰 삶의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아야 할 일이지 학습자에게 즉각적인 처방을 내릴 일은 아니다.

참고문헌

1. 교과서 및 교육과정 출처

김창원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동아출판, 2019.
한철우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비상교육, 2019.
최원식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창비, 2019.
이숭원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신사고, 2019.
정호웅 외, 『고등학교 문학』, 서울: 천재교육, 2019.

방민호 외,『고등학교 문학』, 서울: 미래엔, 2019.
http://ncic.go.kr/mobile.kri.org4.inventoryList.do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2021년 5월 12일 검색)

2. 논저

고정희,「문학과 미술의 교육적 융합을 위한 제언: 존 에버렛 밀레이의 그림 <오필리아>를 중심으로」,『문학치료연구』40, 한국문학치료학회, 2016, 39-72쪽.
고정희,「자화상을 통한 미술과 문학의 융합 교육」,『문학치료연구』47, 한국문학치료학회, 2018, 119-160쪽.
공주형,「박수근 회화의 평면성과 의미」,『예술학』3(1), 한국예술학회, 2007, 51-69쪽.
김정우,「생태문학교육의 방향과 내용」,『국어교육』169, 한국어교육학회, 2020, 1-27쪽.
김지혜,「소설과 과학, 그 융합 교육의 가능성」,『국어교육연구』4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7, 189-217쪽.
김지혜·서명희,「다문화적 성찰을 위한 문학과 도덕의 융합교육」,『문학교육학』59,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125-166쪽.
민재원,「현대시 교육에서 학습자의 활동 촉진을 위한 지식의 구체화 방향 고찰(3): 화자 중심의 구술성 복원과 운율 연출을 위한 호흡선 개념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국어국문학』180, 국어국문학회, 2017, 179-219쪽.
민재원,「문학 교육과정의 보완 방향에 대한 이론적 접근 연구: 루만의 '관찰' 개념이 가지는 의의를 중심으로」,『문학교육학』70, 한국문학교육학회, 2021, 41-69쪽.
서명희·김종철,「창의적 문제 발견 능력 함양을 위한 문학·경제 융합 교육: 언어적 창의성을 중심으로」,『학습자중심교과연구』14(7),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4, 77-99쪽.
오문석,『시에 대한 질문 몇 가지』, 서울: 앨피, 2019.
이상아·안지연,「현대미술 감상 교육에서 미술과 문학의 융합」,『미술교육연구논총』55,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2018, 165-184쪽.
주현식·백성혜·오윤선,「창의융합 교육의 관점에서 본 문학 교과서의 문제와 대안 : 창의융합 교육 제재로서의 드라마 <대장금>」,『문화와 융합』42(6), 한국문화융합학회, 2020, 309-338쪽.
정재찬,「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실천」,『독서연구』21, 한국독서학회, 2009, 111-160쪽.
황현산,『잘 표현된 불행』, 서울: 문예중앙, 2003.

Buckingham, D., 기선정·김아미 옮김,『미디어교육: 학습, 리터러시, 그리고 현대문화』, 서울: jNBook. 2004.
Dewey, J., 이홍우 역,『민주주의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1996.
Dewey, J., 이재언 옮김,『경험으로서의 예술』, 서울: 책세상, 2003.
Schroer, M., 정인모·배정희 옮김,『공간, 장소, 경계: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서울: 에코리브르, 2010.

"미래 사회 문학 교육 내용의 통합성과 유연성 증대를 위한 고찰"에 대한 토론문

정재림(고려대 국어교육과)

민재원 선생님의 발표문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미래 사회는 어떠할까?', '미래를 살아갈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미래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필요했던 지식, 현재에 필요한 지식이 아닌, 미래를 살아갈 역량에 교육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발표자의 지적처럼,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예단하여 선별하는 일'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어교육 연구자에게는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고, 이 역량과 국어교육, 문학교육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난제에 대해 발표자는 '통합성'과 '유연성'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져와 미래 문학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저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3장에서 다시 한번 요약해 주신 것처럼, 발표자는 기존의 전문화된 분과학문으로서의 문학(교육)이 경험의 통합성(듀이)을 해치게 되므로 수용자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학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개별 수용자에 따라 관심이나 관점이 다르므로 다양한 인접 분야를 활용하여 문학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큰 틀에서 저 또한, 통합적 경험으로서의 문학교육, 독자의 관심과 관점에 따른 주체적인 해석을 허용하는 문학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정전 중심, 정전 해석 중심의 교육에서 통합적, 자율적 문학교육으로 바뀌는 데 상호텍스트성이나 인접 분야, 매체 등의 활용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발표자의 취지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발표자의 추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1. 연구 목적

1장의 마지막에서 연구 목적이 "(인접 분야 관련 문학교육이) 실제 교실에서 구체화되는 방향이 교과서를 통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발표문이 인접 분야 단원 교과서에 대한 비판적 고찰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박수근 그림과 김혜순 시 외에는 교과서 사례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문학교과서 10종에 해당 성취기준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매체나 상호텍스트성 성취기준과 통합 단원인 경우 포함). 교과서를 살펴보셨을텐데, 다른 교과서의 구성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보이지는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인접 분야 성취기준이 단순히 흥미 유발의 소재 정도로만 교과서에 구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발표자의 판단도 궁금합니다. 교과서에서 만족스러운 사례를 찾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인접 분야> 관련 단원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중심으로'를 부제로

택하고 주목하신 이유도 궁금합니다.

2. 통합성과 유연성

발표자는 통합성과 유연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시를 외면할 수 없는 학교 교실에서는 아직도 문학텍스트를 해부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점에서 문학작품의 수용하는 것이 통합적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발표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인접 분야 성취기준이 통합적 경험을 위한 훌륭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저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좋은 예술 작품은 실제 삶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능숙한 독자는 텍스트에 포함된 통합적 경험을 제대로 음미하고 향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주신 대로, 김소월은 삭망, 조수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왕십리>를 창작한 것이고, 독자가 이 시를 제대로 감상하려면 삭망, 조수 등의 배경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발표자가 말씀하시는 '지구과학적' 정보(인접 분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절, 기후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조건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지구과학적 정보가 아니라 삶의 지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사람에게는 이것이 지구과학적 정보인 것 아닐까요? 지구과학 지식이 있어야 <왕십리>를 제대로 감상한다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것이 독자와 세계의 통합인 것일까요? 그것은 문학이론, 문학지식, 맥락 지식을 한껏 활용한 텍스트 깊이 읽기인 것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김소월의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독자는 필연적으로 '지구과학적' 정보와의 통합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는 문장의 의미, 가령, 독자 입장에서의 통합성(통합적 경험)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에 대한 비평 부분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관심사, 시각을 세계와 통합시키는 사례'라기보다는, 적절한 비평 감각, 자세히 읽기 능력, 맥락과 관련한 많은 지식과 그 활용 능력으로 인한 결과물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인접 분야의 다양화로 인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지만, 텍스트를 둘러싼 깊이 있고 다양한 지식(작가, 창작 시기, 사회문화적 맥락, 비평사, 문화사 등등)의 결과로 볼 수는 없는지요. 그렇다면 이 논의는 문학(맥락)지식이 문학텍스트 해석을 풍요롭게 한다는 기존의 주장과 어떤 차별성을 얻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논의의 두 번째 키워드인 '유연성'도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성의 강조가 자칫 획일화된 하나의 해석을 강제할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과 거리를 두기 위하여 개별 주체의 유연성을 강조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비문학 독서와 문학 독서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더 지속적인 탐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된 유연성은 개별 독자의 관심과 관점을 허용한다는 차원에 그치고 있어 발표자의 추가적인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3. 인접 분야가 해결책으로 충분한가

인접 분야를 활용한 문학교육이 충분한 효용을 갖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저 동시에 이것이 문학교육에서의 핵심적, 본질적인 문제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접 분야의 다양성이 수용자의 다양성만큼 넓다는 발표자의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마다의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인접 분야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학교실에서 학습자의 반응과 참여

가 저조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인접 분야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박수근의 그림에 대해 김혜순 시인이나 미술 평론가가 다양한 해석을 했던 것은 그들에게 인접 분야 활용 기회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인접 분야를 활용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핵심은 인접 분야의 허용이 아니라, 학습자가 인접 분야를 활용하여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이 왜 부족한가에 놓여야 하는 것은 아닐지요.

3장에서 학습자가 외적 정보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를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 발표자가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접 분야를 활용한 문학교육이 아닌,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인접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문학교육의 제재 문제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였습니다. 아마 웹툰이나 대중가요 등을 교과서 본문으로 가져온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신이 관심 있는 인접 분야를 활용한 텍스트 해석과 통합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과서 제재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문학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참신한 통찰이 들어 있는 발표문을 읽으며 함께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발표문을 읽는 과정에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동향에 비춰본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미래 과제

박성석(춘천교대 조교수)

1. 서론

최근 학문의 국제화 및 세계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학계 내·외적으로 커지고 있다. 특히, 국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대학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국가 및 각종 민간 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연구비를 수주하기 위해, 점점 줄어드는 학령 인구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각 대학은 연구자의 경쟁력 강화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어교육 분야 연구자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국어교육학 연구의 국제화에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단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도 학문 세계에서 연구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일은 학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이 국제 학계와 교류하며 국제적 담론 형성에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생각이나 발견을 다시 국내 학계에 도입하여 국내에서의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 다시 이 과정에서 얻은 생각이나 발견을 국제 학계에 소개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전체 학문 세계의 교류를 촉진하여 국제와 국내 학계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외연이 좁은 국내 학계에 비해, 보다 많은 연구자와 논문 독자들이 존재하는 국제 학계에서 목소리를 내려면, 보다 많은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보다 정밀한 연구 방법론의 적용, 보다 보편적으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의 제시 등이 필요하므로, 국제화를 목표로 한 개인 연구자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수행하는 연구 수행의 질을 높여 나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의 노력이 결국 학문의 발전으로 이어지리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하다. 따라서 국어교육학 분야에서 또한 국어교육학이라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추구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미래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논의가 연구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경도되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연구의 현상태가 어떠하고 국제화를 위해 현재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가급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모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선도한다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국제전문학술지 1종과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현시점에서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 국내전문학술지 1종을 선정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동향을 비교, 대조하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및 대조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현재 우리가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본 연구의 전제

2.1.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에 대한 정의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그 개념부터 짚고 출발하고자 한다. 우선,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라는 표현 중 '국제화'의 의미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국제화'란, "국제적인 것으로 됨. 또는 그렇게 만듦"이라고 정의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용되는 '세계화'의 경우 사전에서 "세계 여러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임.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국어교육 연구를 국제적인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으려면 '국어교육의 세계화'가 아닌 '국어교육의 국제화'가 올바른 표현이 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려면 이에 앞서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연구의 세계화'나 좀 더 범위를 좁혀 세계 여러 나라의 모국어 교육 연구 현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국어교육 연구의 세계화'가 먼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세계화보다는 국제화에 논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표현을 더 확장하여 '연구의 국제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문 세계에서 연구의 국제화를 이야기할 때 이는 거칠게 말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렇다면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연구가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논하자면 다양한 요건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나 대략적인 수준에서 논하자면 내용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대별해 볼 수 있으리라 보인다. 우선, 내용적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에 국제적으로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발견(finding)을 제시하는 일일 것이다. 다음으로 형식적 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학계에서 공인된 연구 방법을 사용해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함으로써 연구를 통해 발견한 바가 신뢰롭고 타당함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일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연구의 국제화를 주도하고 있는 국제전문학술지 즉, SCI, SSCI, SCIE, AHCI, SCOPUS 등재 학술지들은 대부분 이러한 두 가지 요건을 논문 투고 및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표현을 최대한 확장하여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논해 보자면, 이는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은 그렇다면 과연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질 만한 독자층 즉, 학계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특히, 상대적으로 지식의 보편성을 꽤 확보하고 있는 타 학문영역과 달리 여러 언어 중 하나인 한국어를 다루는 국어교육 학계가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고민해야 하는 특수한 문제와 직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유력한 후보 중 하나로 한국어를 L2로서 교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둔 한국어교육 연구자 집단을 들 수 있다. 다만 이들을 국제적 독자층으로 상정할 경우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한국어'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이끌 수 있을 것이나 L1 교육과 L2 교육의 차이로 인하여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끌기가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후보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언어를 L1으로서 교육하는 문제에 관심을 둔 모국어교육 연구자 집단을 들 수 있다. 이들을 국제적 독자층으로 상정할 경우 비록 '한국어'라는 언어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얻기 어려울 것이나 언어의 보편성의 측면에서 관심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모국어의

'교육'이라는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앞서 거론한 두 부류의 국제적 독자층 모두를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본고에서는 우선 모국어교육 연구자들을 국제적 독자층으로 상정하며 접근하는 편이 국어국문학과 다른 국어교육의 정체성에 더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어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연구는 반드시 국어교육 연구가 아니더라도 국어학과 국문학 연구에서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모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교육하는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는 국어학이나 국문학 연구에서 쉽게 수행되기 어려운, 국어교육학의 독자적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국제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노력의 방향은 공인된 연구방법을 토대로 국어교육에 관한 연구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수행함으로써 모국어교육 연구에 관심을 둔 국제적 독자층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새로운 발견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간주하며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2. (모)국어교육의 국제화와 관련된 학술지 발간 현황

국내적으로 국어교육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출발한 것은 불과 30여년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학문의 역사가 짧은 것은 해외 각국의 모국어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각국의 모국어교육 학계에서는 각자의 학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고, 학문의 국제화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미 지난 세기 말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모국어교육에 공통의 관심을 지닌 연구자 집단이 학회를 조직하고 학문적 교류를 시작하여 현재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학회는 IAIMTE라는 이름으로 1997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현재는 ARLE라는 이름으로 학회명을 변경하여 매 2년에 한 번씩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2019년까지 총 1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학술대회가 없는 해에는 구체적 연구 주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인 소규모의 SIGs(special interest groups) 세미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ARL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학회의 공식 홈페이지(http://www.arle.be)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LE에서는 학술대회 개최 이외에도 2001년부터 『L1-Educational Stude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이하, 『L1』)라는 국제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해당 학술지는 수시 투고 및 수시 발간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현재에는 제21권의 논문들이 계속 발행 중에 있다. 특히, 『L1』은 2015년에 SCOPUS에 등재되어 국제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에 힘입어 학술지 인용 점수(cite score) 또한 2017년 0.7, 2018년 0.8, 2019년 0.9로 점차 상승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2011년~2020년의 10년 간 출판된 논문은 총 186편(special issue의 편집자 서론 제외)에 달하며, 이 기간 중 논문에 이름을 올린 저자는 (소속 기관의 소재지 기준) 총 37개국 (중복 제외) 360명에 이른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저자들의 국적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의 세계 6대륙 전역에 분포하고 있어 『L1』은 현시점에서 모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표 1> 『L1』(2011~2020) 논문 저자의 대륙·국가별 분포

대륙	국가(저자 수)
유럽 (21개국, 310명)	네덜란드(67), 스웨덴(35), 노르웨이(30), 폴란드(28), 덴마크(27), 독일(25), 포르투갈(22), 벨기에(16), 핀란드(16), 스위스(9), 영국(7), 스페인(6), 슬로바키아(4), 프랑스(4), 그리스(3), 룩셈부르크(3), 에스토니아(3), 이탈리아(2), 루마니아(1), 오스트리아(1), 체코(1)
북아메리카·남아메리카 (3개국, 58명)	미국(37), 캐나다(16), 아르헨티나(5)
아시아 (10개국, 51명)	홍콩(16), 중국(5), 대한민국(2), 싱가포르(2), 대만(1), 일본(1), 파키스탄(1), 이스라엘(19), 이란(3), 이라크(1)
아프리카·오세아니아 (3개국, 5명)	남아공(2), 모로코(2), 호주(1)

한편, 국어교육 관련 국내 학회들에서 발행 중인 국내전문학술지들 가운데서도 SCOPUS 등재를 통해 국제전문학술지로 발돋움하고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도모하고자 노력 중에 있는 곳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서도 현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아마도 국어교육학회일 것이다. 해당 학회에서는 다양한 소통 경로를 통해 학회지인 『국어교육학연구』의 SCOPUS 등재를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으며, 이를 위해 2014년부터는 전문이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투고를 독려하기 시작했고, 2015년부터는 기존에 1년에 제1호~제4호로 발행되던 발행권호에 영문 논문만을 위한 제5호를 신설하여 현재까지 1년에 제1호~제5호의 발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2014년~2020년의 총 7년 간 영문판으로 출판된 논문은 총 51편에 달한다. 아직까지는 국제전문학술지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중에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언젠가 국제전문학술지로 승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미래 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어교육 연구의 현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기초 자료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미래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수행에 앞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L1 교육 연구 논문을 중점적으로 출판하고 있는 국제전문학술지인 『L1』에 수록된 논문들이 현시점에서 (모)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 수준을 표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둘째, 국내전문학술지인 『국어교육학연구』의 영문판에 수록된 논문들이 현시점에서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표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셋째, 『L1』에서는 확인되나 『국어교육학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성은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지점일 수 있고, 『L1』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국어교육학연구』에서는 확인되는 특성은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관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상과 같은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두 학술지를 대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식은 아래와 같다.

3.1. 자료 수집

비교하고자 하는 학술지 중 하나인 『L1』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부터 2020년의 10개년간 해당 학술지를 통해 출판된 논문 총 203편을 검토하였다. 기간을 2011~2020년으로 한정한 까닭은 해당 기간이 현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0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며 『L1』이 2015년부터 Scopus에 등재되었으므로 이 기간이 국제전문학술지의 수준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차 수집된 203편의 논문 가운데서 모국어교육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만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먼저, Special issue의 편집자 서론(editorial paper)에 해당하는 논문 17편을 제외시켰고, 이어서 타교과나 L2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논문 8편을 추가 제외시켰다. 그리고 내용분석 과정에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교육 중 어디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모국어교육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23편을 추가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L1』의 경우 최종 선별된 155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비교 대상이 되는 또 다른 학술지인 『국어교육학연구』와 관련하여서는 2014년부터 2020년의 7개년간 해당 학술지의 영문판을 통해 출판된 논문 총 51편을 검토하였다. 기간을 2014~2020년으로 한정한 까닭은 해당 기간이 현시점을 기준으로 최근에 해당하며, 『국어교육학연구』가 Scopus 등재를 목표로 영문판을 발간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4년부터이기 때문이므로, 해당 기간 중 출판된 논문들이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현재의 노력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차 수집된 51편 중 L2 교육에 초점을 둔 13편을 우선 제외시켰고, 내용분석 과정에서 국어교육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교육 중 어디로도 분류하기 어려운 3편을 추가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국어교육학연구』 영문판의 경우 최종 선별된 35편의 논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3.2. 자료 분석

『L1』과 『국어교육학연구』 영문판 논문들에 대한 체계적 비교를 위해 일정한 코딩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두 학술지의 논문의 내용을 연구자가 해석하는 질적 내용분석의 방법과 코딩 결과를 계량하여 요약적으로 비교하는 양적 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Tashakkori, Johnson & Teddie(2021: 131-135)에서 제안하는 변환 통합방법 설계(conversion mixed method design)의 접근 방식을 따르며,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Tashakkori, Johnson & Teddie(2021: 250-251)에서 제안하는 범주화 전략(categorizing strategy)과 비교·대조 원리(similarity and contrast principle)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코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L1』에 수록된 논문들을 살펴보며 출판년도, 논문제목, 저자 수(단독/공동), 저자명, 저자의 국적, 모국어 교육 세부 영역(화법/독서/작문/문법/문학), 교육 연구 주제(교육방향·정책/역량·발달/교수학습/교육과정/교재/측정·평가/교사교육/배경이론·연구), 학습자 수준(유치원/초등/중등/대학/불특정), 연구 방법(양적/질적/혼합/이론), 설계 방법(실험연구/조사연구/실행연구/사례연구/민속지학연구 등), 자료 수집 방법(설문지법/면담법/검사법/관찰법/글쓰기/녹음·녹화/기성자료 등), 자료 분석 방법(내용분석/빈도분석/기술통계분석/분산분석/상관분석/회귀분석/구조방정식/IRT/요인분석 등), 피조사자(교사/학생 등), 피조사자 인원, 주제어 등을 확인 가능한 대로 기록하였다. 이후 이렇게 기록한 결과를 모아 살펴보며 대부분의 논문에서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한 범주가 '모국어교육 세부 영역',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연구 방법', '주제어'의 다섯 가지라고 보았고, 이에 해당 다섯 가지 범주를 중심으로 <표 2>와 같이 코딩 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2>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한 코딩 체계

코딩 범주		판정 기준
1차 범주	2차 범주	
모국어교육 세부 영역	화법교육	주제어에 listening 혹은 speaking 혹은 oracy를 포함하고 있거나, 학습자의 듣기·말하기 활동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독서교육	주제어에 reading 혹은 literacy를 포함하고 있거나, 학습자의 읽기 활동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작문교육	주제어에 writing 혹은 literacy를 포함하고 있거나, 학습자의 쓰기 활동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문법교육	주제어에 grammar를 포함하고 있거나, 학습자의 문법 지식, 언어 지식, 메타 언어적 지식 습득이나 관련 사고 활동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문학교육	주제어에 literature나 litrary를 포함하고 있거나, 학습자의 문학 활동이나 문학 지식 습득 및 관련 사고 활동을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경우
교육 연구 주제	교육방향·정책	교육의 방향이나 개선점을 추상적 논의 수준에서 제시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
	역량·발달	학습자의 역량 실태를 실증적으로 점검하거나 학습자의 역량 발달 과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경우
	교수학습	교실 내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교수학습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
	교육과정	명확히 자국 교육과정의 내용을 다루며 그 현상태를 점검하거나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경우
	교재	교과서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그 현상태를 점검하거나 개선 방향을 논의하거나 새로운 교재를 제안하는 경우
	측정·평가	학습자의 역량을 측정·평가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안하거나 이를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경우
	교사교육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우
	배경이론·연구	교육에 초점이 있기보다는 배경학문의 관점에서 이론적 담론을 소개하거나 새로운 담론을 제안하는 경우, 혹은 이미 발표된 논문들을 검토하며 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해 논의한 경우

학습자 수준	불특정	교육 대상자 혹은 피험자가 없고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우, 혹은 여러 수준의 학습자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삼아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대학	교육 대상자 혹은 피험자를 대학생으로 선정하였거나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대학 수준으로 밝힌 경우
	중등	교육 대상자 혹은 피험자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선정하였거나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중등 수준으로 밝힌 경우
	초등	교육 대상자 혹은 피험자를 초등학생으로 선정하였거나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초등 수준으로 밝힌 경우
	유치원	교육 대상자 혹은 피험자를 유치원생 혹은 미취학 아동으로 선정하였거나 교육 내용이나 방법의 수준을 명시적으로 유치원 수준으로 밝힌 경우
연구 방법	질적	사례연구, 민속지학적 연구, 실행연구 등 질적 연구 설계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내용분석 등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의거한 방법만으로 분석한 경우
	양적	실험연구, 조사연구 등 양적 연구 설계임을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계량이나 통계기법이 동원된 객관적 방법만으로 분석한 경우
	혼합	질적 연구방법과 양적 연구방법을 모두 사용
	이론	자료 수집이 없이 문헌 내용만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문헌을 분석 대상 자료로서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한 경우는 '질적', '양적', 혹은 '혼합'으로 분류함.
주제어		논문의 초록에 제시한 keyword

이상과 같은 코딩 체계에 따라 코딩을 수행한 결과, 2차 범주가 존재하는 네 가지 1차 범주 중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연구 방법'에 대하여는 모든 논문이 하나의 2차 범주로만 배타적 코딩이 가능하였던 반면에, '모국어교육 세부 영역'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다. 이는 한 편의 논문이 독서와 작문(『L1』 14편; 『국어교육학연구』 5편), 독서와 문법(『L1』 2편), 독서와 문학(『L1』 6편), 작문과 문법(『L1』 6편), 작문과 문학(『L1』 1편), 문법과 문학(『L1』 1편)의 두 개의 세부 영역과 동시에 관련되는 경우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 논문을 두 개의 2차 범주로 중복 코딩하였으며 그 결과, 『L1』에서 총 30편, 『국어교육학연구』에서 총 5편에 대해 중복 코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모국어교육 세부 영역'의 2차 범주별 코딩 결과를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모국어교육 세부 영역별 논문 수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L1』	16편	58편 (22)	45편 (21)	28편 (9)	38편 (8)
『국어교육학연구』	2편	14편 (5)	14편 (5)	2편	8편

* ( ) 안은 다른 세부 영역과 중복 코딩된 논문 수

이렇게 내용분석에 따른 범주화 코딩이 완료된 후에는 모국어교육 세부 영역별로 각각 교차 검정과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두 학술지의 경향을 비교·대조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교차 검정을 실시하여 각 1차 범주마다 2차 범주별 분포에서 두 학술지의 경향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그리고 특히 통계적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경우를 중심으로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해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주제어'와 관련하여서는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실시하여 두 학술지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어에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차이가 나타난 원인을 해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결과

4.1. 화법교육

<표 4> 화법교육 분야 논문 동향 비교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교육방향/정책	3 (18.8%)	1 (50.0%)	불특정	0 (0.0%)	2 (100.0%)
역량/발달	3 (18.8%)	1 (50.0%)	대학	1 (6.3%)	0 (0.0%)
교수학습	5 (31.3%)	0 (0.0%)	중등	6 (37.5%)	0 (0.0%)
교육과정	1 (6.3%)	0 (0.0%)	초등	9 (56.3%)	0 (0.0%)
교재	0 (0.0%)	0 (0.0%)	유치원	0 (0.0%)	0 (0.0%)
측정/평가	4 (25.0%)	0 (0.0%)			
교사교육	0 (0.0%)	0 (0.0%)			
배경이론/연구	0 (0.0%)	0 (0.0%)			
계	16 (100.0%)	2 (100.0%)	계	16 (100.0%)	2 (100.0%)

연구 방법			주제어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질적	8 (50.0%)	0 (0.0%)		
양적	8 (50.0%)	0 (0.0%)		
혼합	0 (0.0%)	1 (50.0%)		
이론	0 (0.0%)	1 (50.0%)		
계	16 (100.0%)	2 (100.0%)		

화법교육 분야 연구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나 국내전문학술지에서 모두 출판된 논문의 절대적인 숫자가 타 영역에 비해 매우 적었다. 『L1』에서의 경우 검토 대상 논문 총 155편 중 불과 16편(10.3%)만이 화법교육과 관련된 것이었고, 『국어교육학연구』에서의 경우 총 35편 중 불과 2편(5.7%)만이 화법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시점에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화법교육 관련 연구가 미진한 실정임을 시사한다.

1차 범주로 삼은 네 가지 중 계량적으로 코딩한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연구 방법' 각각에서 2차 범주별 논문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검정을 수행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2.81$, $df=4$, $p=.59$). 그러나 비록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이는 『국어교육학연구』에서 출판된 논문의 수가 고작 두 편으로 매우 적었기 때문일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국어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화법교육과 관련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며, 특히 『L1』와 같이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거나(예: Casteleyn, 2019), 학습자의 화법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구를 개발하는(예: Behrens & Wirich, 2019; Park & Min, 2019; Zhu et al., 2017)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학습자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국어교육학연구』에서 출판된 논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18.00$, $df=3$, $p<.001$). 이는 『L1』의 경우 초등 혹은 중등으로 학습자 수준을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논문이 주를 이룬 반면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습자의 화법 능력 발달을 고려해 볼 때 초등과 중등 수준만 하더라도 그 차이가 꽤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논의를 전개하기보다는 실제 학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관행이 보다 더 정착된다면 학습자 수준을 특정하지 않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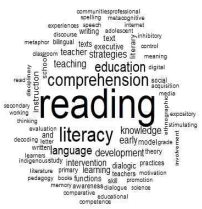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에서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18.00$, $df=3$, $p<.001$). 이는 『L1』의 경우 질적 혹은 양적 연구 방법으로 실증적 접근을 취한 연구가 주를 이룬 반면에,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두 편 중 한 편(양수연 외, 2018)은 혼합 연구 방법을 취하여 실증적 접근을 보이고 있었으나 다른 한 편이 이론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논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본 연구의 분석 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실제 경험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화법교육 분야와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 이론적 논문의 비중이 여전히 실증적 논문보다 큰 것은 사실이라고 보인다. 화법교육 분야 연구가 보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알려진 바를 토대로 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증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제공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주제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L1』이나 『국어교육학연구』 모두 화법교육이라는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자리잡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L1』의 경우 '교육(education)'과 '언어(language)'를 다룬다는 공통기반은 확고히 확보하고 있고 '화법(oracy)'을 다룬다는 인식 또한 미약하게나마 공통기반으로서 형성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이러한 공통기반이 형성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국어교육학연구』에서 '교육(education)'이 공통 키워드로 부각되지 못한 것은 검토 대상 논문이 단 두 편뿐인 까닭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화법교육 연구 분야에서 '화법'에 대해 연구할 뿐 화법의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편임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화법(oracy)'이 공통 키워드로 부각되지 못한 것은 영어 단어인 'oracy'를 화법에 대한 영어 표현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혀 있지 못한 국내 화법교육 분야의 현황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

4.2. 독서교육

<표 5> 독서교육 분야 논문 동향 비교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교육방향·정책	8 (13.8%)	2 (14.3%)	불특정	14 (24.1%)	6 (42.9%)
역량·발달	14 (24.1%)	4 (28.6%)			
교수학습	23 (39.7%)	1 (7.1%)	대학	0 (0.0%)	0 (0.0%)
교육과정	0 (0.0%)	0 (0.0%)	중등	10 (17.2%)	5 (35.7%)
교재	5 (8.6%)	0 (0.0%)			
측정·평가	2 (3.4%)	0 (0.0%)	초등	32 (55.2%)	3 (21.4%)
교사교육	3 (5.2%)	1 (7.1%)	유치원	2 (3.4%)	0 (0.0%)
배경이론·연구	3 (5.2%)	6 (42.9%)			
계	58 (100.0%)	14 (100.0%)	계	58 (100.0%)	14 (100.0%)

연구 방법			주제어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질적	18 (31.0%)	4 (28.6%)		
양적	28 (48.3%)	3 (21.4%)		
혼합	0 (0.0%)	1 (7.1%)		
이론	12 (20.7%)	6 (42.9%)		
계	58 (100.0%)	14 (100.0%)		

독서교육 분야 연구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나 국내전문학술지에서 모두 출판된 논문의 수가 다섯 개 영역 중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1』에서의 경우 검토 대상 논문 총 155편 중 58편(37.4%)이, 『국어교육학연구』에서의 경우 총 35편 중 14편(40.0%)이 독서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현시점에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독서교육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차 범주로 삼은 네 가지 중 계량적으로 코딩한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연구 방법’ 각각에서 2차 범주별 논문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검정을 수행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8.25$, $df=6$, $p<.01$). 이는 『L1』의 경우 교수학습(39.7%)을 다룬 논문(예: Kamykowska et al., 2013; Kniep & Janssen, 2014; Magnusson, 2020)의 비중이 높고, 교재(예: McMaster et al., 2019; Viriot-Goeldel & Crinon, 2013)나 측정·평가(예: Araujo, Morais, & Costa, 2013)를 다룬 논문도 보이는 반면에,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배경이론/연구(42.9%) 즉, 배경이론이나 연구 동향에 관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를 제시하는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습자 수준과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6.39$, $df=3$, $p=.09$). 그러나 비록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고 하나 『국어교육학연구』

의 경우 학습자 수준이 특정되지 않은 논문의 비중이 42.9%로 『L1』의 24.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L1』의 경우 중등(17.2%)보다 초등(55.2%)에 초점을 둔 논문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달리,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초등(21.4%)보다 중등(35.7%)에 초점을 둔 논문의 비중이 높았다.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χ^2=8.27, df=3, p<.05). 이는 『L1』의 경우 양적 연구 방법을 취한 논문의 비중이 48.3%로 가장 높았던 것과 달리,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실증적 접근이 아닌 이론적 접근을 취한 논문의 비중이 42.9%로 가장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화법교육 분야와 관련하여서도 논의하였듯이, 독서교육 연구 또한 보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알려진 바를 토대로 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증적 접근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제공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서교육 연구의 경우 양적 연구 방법이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국내에서도 양적 연구 방법에 입각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주제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학술지 모두 '읽기(reading)', '문식성(literacy)', '교육(education)'을 다룬다는 점이 공통기반으로서 확인되어 독서교육 연구 영역에서는 국제와 국내 연구 흐름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국어교육학연구』에서의 경우 『L1』과 달리 '디지털(digital)'이라는 주제어의 등장 빈도가 다소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이는 분석 대상이 된 14편의 논문 중 적지 않은 2편(방상호, 2017; 이창희, 2020)이 디지털 읽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읽기 매체 환경의 변화로 인해 디지털 문서 읽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독서교육 분야 연구들이 장차 관련 주제를 국제적으로 선도해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여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4.3. 작문교육

<표 6> 작문교육 분야 논문 동향 비교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교육방향·정책	8 (17.8%)	0 (0.0%)	불특정	13 (28.9%)	7 (50.0%)
역량·발달	7 (15.6%)	4 (28.6%)			
교수학습	18 (40.0%)	1 (7.1%)	대학	3 (6.7%)	0 (0.0%)
교육과정	2 (4.4%)	0 (0.0%)	중등	14 (31.1%)	4 (28.6%)
교재	2 (4.4%)	1 (7.1%)			
측정·평가	3 (6.7%)	2 (14.3%)	초등	13 (28.9%)	3 (21.4%)
교사교육	4 (8.9%)	0 (0.0%)	유치원	2 (4.4%)	0 (0.0%)
배경이론·연구	1 (2.2%)	6 (42.9%)			
계	45 (100.0%)	14 (100.0%)	계	45 (100.0%)	14 (100.0%)
연구 방법			주제어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질적	17 (37.8%)	3 (21.4%)		
양적	14 (31.1%)	2 (14.3%)		
혼합	3 (6.7%)	2 (14.3%)		
이론	11 (24.4%)	7 (50.0%)		
계	45 (100.0%)	14 (100.0%)		

작문교육 분야 연구의 경우 출판된 논문의 수가 국제전문학술지의 경우 독서교육 다음으로 많았고, 국내전문학술지의 경우 독서교육과 더불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1』에서의 경우 검토 대상 논문 총 155편 중 45편(29.0%)이, 『국어교육학연구』에서의 경우 총 35편 중 14편(40.0%)이 작문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현시점에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작문교육 관련 연구가 독서교육 관련 연구만큼이나 매우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차 범주로 삼은 네 가지 중 계량적으로 코딩한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연구 방법' 각각에서 2차 범주별 논문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검정을 수행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4.65$, $df=7$, $p<.001$). 이는 독서교육과 마찬가지로 작문교육 분야에서도 『L1』의 경우 교수학습(40.0%)을 다룬 논문(예: Colognesi & Niwese, 2020; Martin, Sirois, & Lavoie, 2013)의 비중이 높았던 반면에,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배경이론/연구(42.9%) 즉, 배경이론이나 연구 동향에 관한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를 제시하는 논문의 비중이 매우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어교육학연구』에서 오히려 측정·평가(14.3%)에 관한 논문(박소희, 2018; 장은주·박영민, 2014)의 비중이 『L1』(6.7%)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 수준과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3.20$, $df=4$, $p=.52$). 그러나 비록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고 하나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학습자 수준이 특정되지 않은 논문의 비중이 50.0%로 『L1』의 28.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4.97$, $df=3$, $p=.17$). 그러나 비록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고 하나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이론적 접근 방법을 취한 논문의 비중이 50.0%로 『L1』의 24.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제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학술지 모두 '쓰기(writing)', '교육(education)', '문식성(literacy)'을 다룬다는 점이 공통기반으로서 확인되어 독서교육과 마찬가지로 작문교육 연구 영역에서도 국제와 국내 연구 흐름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L1』에서의 경우 '문법(grammar)'과 '언어(language)'라는 주제어의 등장이 다소 높았는데 이는 작문과 문법교육을 연관하여 진행한 연구(예: Camps & Fontich, 2019; Myhill, 2018; Pinsonneault, Fryer, & Boivin, 2019)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보이며 국내 작문교육 연구에서도 참고할 만한 지점이라고 보인다. 반면, 『국어교육학연구』에서의 경우 '디지털(digital)', '복합양식적(multimodal)'이라는 주제어의 등장 빈도가 다소 높았는데 이는 분석 대상이 된 14편의 논문 중 적지 않은 2편(박소희, 2018; 한혜주, 2017)에서 디지털 혹은 복합양식적 글쓰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며 국내 연구가 관련 주제를 국제적으로 선도해 나갈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여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4.4. 문법교육

<표 7> 문법교육 분야 논문 동향 비교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교육방향·정책	5 (17.9%)	1 (50.0%)	불특정	14 (50.0%)	1 (50.0%)
역량·발달	6 (21.4%)	0 (0.0%)			
교수학습	9 (32.1%)	0 (0.0%)	대학	0 (0.0%)	0 (0.0%)
교육과정	1 (3.6%)	0 (0.0%)	중등	4 (14.3%)	1 (50.0%)
교재	3 (10.7%)	0 (0.0%)			
측정·평가	0 (0.0%)	0 (0.0%)	초등	9 (32.1%)	0 (0.0%)
교사교육	2 (7.1%)	0 (0.0%)	유치원	1 (3.6%)	0 (0.0%)
배경이론·연구	2 (7.1%)	1 (50.0%)			
계	28 (100.0%)	2 (100.0%)	계	28 (100.0%)	2 (100.0%)

연구 방법			주제어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질적	5 (17.9%)	0 (0.0%)		
양적	9 (32.1%)	0 (0.0%)		
혼합	2 (7.1%)	1 (50.0%)		
이론	12 (42.9%)	1 (50.0%)		
계	28 (100.0%)	2 (100.0%)		

문법교육 분야 연구의 경우 출판된 논문의 수가 국제전문학술지의 경우 화법교육 다음으로 가장 적었고, 국내전문학술지의 경우 화법교육과 더불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1』에서의 경우 검토 대상 논문 총 155편 중 28편(18.1%)이, 『국어교육학연구』에서의 경우 총 35편 중 불과 2편(5.7%)이 문법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문법교육 관련 연구가 미진한 실정임을 시사한다.

1차 범주로 삼은 네 가지 중 계량적으로 코딩한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연구 방법’ 각각에서 2차 범주별 논문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검정을 수행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5.89$, $df=6$, $p=.44$). 이처럼 통계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결과는 화법교육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어교육학연구』에서 출판된 논문이 불과 2편뿐인 데서 비롯하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화법교육 분야의 경우 연구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이 논문 수의 부족으로 이어졌으리라 짐작된다면, 문법교육 분야의 경우 연구자 수는 많지만 국문법의 용어 중 많은 수가 영문법의 용어들과 직접 대응되기 어렵고 따라서 영문으로 된 논문이 출판되는 일이 적은 탓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짐작된다. 향후 문법교육 분야에서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이 더 활발히 등장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특히, 『L1』에서와 같이 교수학습(예: Nadeau et al., 2020; van Rijt, Wijnands, & Coppen, 2019)이나 역량·발달(예: Shakouri & Nafissi, 2019) 등에 초점을 둔 연구 수행에

보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둘째, 학습자 수준과 관련하여서도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2=2.14, df=3, p=.54). 이는 『L1』에서도 『국어교육학연구』에서도 학습자 수준을 특정하지 않은 연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현시점에서 문법교육 연구의 경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실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구체적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서도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x2=4.45, df=3, p=.22). 이는 『L1』에서도 『국어교육학연구』에서도 실증적인 논문보다 이론적 접근 방식을 취한 논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 또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실증적 접근 방식을 취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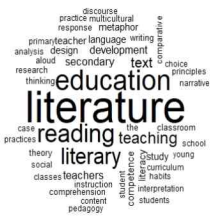
한편, 주제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L1』의 경우 '문법(grammar)', '언어(language)'를 다룬다는 공통기반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교수(teaching)'라는 주제어가 자주 보일 뿐, '학습(learning)'이나 '교육(education)'이라는 주제어를 잘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에는 그나마도 문법교육 연구 영역의 보편적인 공통기반을 일절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는 국제적으로는 문법의 교수가 아닌 학습에 초점을 둔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며, 국내적으로는 특정한 문법 현상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닌 문법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 수행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4.5. 문학교육

<표 8> 문학교육 분야 논문 동향 비교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교육방향·정책	4 (10.5%)	3 (37.5%)	불특정	11 (28.9%)	6 (75.0%)
역량·발달	10 (26.3%)	0 (0.0%)			
교수학습	14 (36.8%)	0 (0.0%)	대학	1 (2.6%)	0 (0.0%)
교육과정	2 (5.3%)	0 (0.0%)	중등	24 (63.2%)	2 (25.0%)
교재	1 (2.6%)	1 (12.5%)			
측정·평가	0 (0.0%)	0 (0.0%)	초등	2 (5.3%)	0 (0.0%)
교사교육	6 (15.8%)	1 (12.5%)	유치원	0 (0.0%)	0 (0.0%)
배경이론·연구	2 (5.3%)	3 (37.5%)			
계	38 (100.0%)	8 (100.0%)	계	38 (100.0%)	8 (100.0%)
연구 방법			주제어		
L1	국어교육학 연구		L1	국어교육학 연구	

질적	22 (57.9%)	2 (25.0%)
양적	6 (15.8%)	0 (0.0%)
혼합	5 (13.2%)	0 (0.0%)
이론	5 (13.2%)	6 (75.0%)
계	38 (100.0%)	8 (100.0%)



문학교육 분야 연구의 경우 출판된 논문의 수가 국제전문학술지와 국내전문학술지 모두에서 중간 정도로, 독서 및 작문교육에 비해 적지만 화법 및 문법교육보다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L1』에서의 경우 검토 대상 논문 총 155편 중 38편(24.5%)이, 『국어교육학연구』에서의 경우 총 35편 중 8편(22.9%)이 문학교육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문학교육 관련 연구가 적잖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1차 범주로 삼은 네 가지 중 계량적으로 코딩한 '교육 연구 주제', '학습자 수준', '연구 방법' 각각에서 2차 범주별 논문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교차 검정을 수행하여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6.76$, $df=6$, $p<.05$). 이는 『L1』의 경우 교수학습에 초점을 둔 논문(예: Schrijvers et al., 2016; Winkler, 2020)의 비중이 36.8%, 역량·발달에 초점을 둔 논문(예: Casteleyn & Vandervieren, 2018; Witte, Rijlaarsdam, & Schram, 2012)의 비중이 26.3%로 가장 높았던 반면,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교육방향·정책에 초점을 둔 논문의 비중이 37.5%, 배경이론·연구에 초점을 둔 논문의 비중이 37.5%로 가장 높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둘째, 학습자 수준과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chi2=6.13$, $df=3$, $p=.11$). 이는 기본적으로 문학 교육 연구가 초등 수준보다는 중등 수준에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이 국제나 국내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학습자 수준을 특정하지 않은 논문의 비중이 75.0%로 『L1』의 28.9%에 비해 꽤 높게 나타났다.

셋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두 학술지의 논문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14.26$, $df=3$, $p<.01$). 이는 『L1』의 경우 주로 질적 연구 방법을, 더러는 양적이거나 혼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논문의 비중이 총 86.9%로 매우 높았던 반면,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문헌 근거만으로 이론적 접근 방식을 취한 논문의 비중이 75.0%로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문학교육 연구에서도 향후 실증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 수행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제어에 대한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L1』의 경우 '문학(literature)', '교육(education)'을 다루며 이를 주로 '읽기(reading)'나 '문식성(literacy)'과 연관지어 접근한다는 공통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어교육학연구』의 경우 비록 '교육(education)'을 다루며 이를 '읽기(reading)'와 연관지어 접근한다는 공통기반이 형성되어 있는 점은 유사하지만, '젠더(gender)', '죽음(death)', '인간(human)' 등 문학작품의 심층적 내용과 연관된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문학교육 연구가 아닌 문학 연구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는 향후 국내 문학교육 연구에서도 특정 문학 작품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좀 더 문학의 보편적 속성을 중심으로 문학의 '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 수행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본 연구는 모국어교육 분야 국제전문학술지인 『L1』과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영문판을 출판하고 있는 국내전문학술지인 『국어교육학연구』의 논문 동향을 비교·대조함으로써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미래 과제가 무엇인지 그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국어교육 연구의 미래 과제에 대해 본 연구에서 최종 결론으로서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화법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연구 논문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은 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인다. 전통적으로 3Rs로서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독서 및 작문교육에 비해 화법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간 의사소통 활동에서 구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화법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L1』에서는 비록 다섯 개 세부 영역 중 화법교육과 관련된 논문 비중이 10.3%로 가장 낮기는 하였으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어교육학연구』에서는 불과 5.7%에 그치고 있어 모국어교육 연구의 국제 동향보다도 훨씬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어교육 연구에서도 화법교육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특히 실제 교실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 교수학습 방법에 초점을 둔 연구, 양적 혹은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한 실증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둘째, 독서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연구 논문의 숫자는 이미 충분히 많지만, 국제적 독자들의 관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연구 내용과 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우선, 연구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독서 현상에 관한 배경이론에 초점을 두거나, 새로운 발견 없이 단순히 독서교육 연구 분야의 동향을 확인하는 데 머무는 것보다는, 독서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교재, 측정 및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리라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문헌 자료만에 근거하여 연구자의 주장을 펼치는 이론적 접근 방식을 탈피하여 질적 혹은 양적 연구 방법을 채택하여 실제 독서교육 현상 속에서 파생되는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작문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독서교육과 마찬가지로 이미 국내에서도 연구 논문의 숫자는 충분하지만, 국제적 독자들의 관심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연구 방법은 물론 특히 연구 내용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내용의 측면에서 작문교육의 배경이론만을 천착하거나 단순히 연구 동향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작문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국어교육학연구』의 논문 중 측정·평가를 다룬 논문의 비중이 14.3%로 『L1』의 6.7%보다 오히려 높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국내 작문교육 연구에서는 측정·평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교실에 적합한 작문 교수학습 방법을 마련하여 적용한 뒤 학습자의 작문 수행 결과를 측정·평가함으로써 해당 교수학습 방법이 작문 수행의 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넷째, 문법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화법교육과 마찬가지로 연구 논문의 절대적 숫자가 적은 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인다. 다만, 화법교육의 경우 이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관심 자체가 부족한 점이 연구 논문의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면, 문법교육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적지는 않을 것이나 다만 문법교육 연구의 국제화에 관심

을 갖고 노력하는 일이 미진하기 때문이었다고 보인다. 실상 문법교육 연구의 경우 국어의 고유성이 반영된 국어학적 체계와 지식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며, 이를 다루기 위한 많은 용어들이 영어로 적절히 번역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어떻게든 논의 내용을 영어로 적절히 표현하더라도 국어의 특수성이 반영된 문법교육 연구 결과가 다른 언어의 교육을 연구하는 국제적 독자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문법교육의 국제화를 추구함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을까 짐작된다. 그러나 문법교육이 다루는 학교문법이 국어학자들이 다루는 전문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점, 또한 문법교육의 목표가 문법지식을 통해 일상의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영위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문법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방향 또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전문적인 수준에서 국어학의 특수한 지식을 다루기보다는 언어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국어지식에 대한 교육을 다루는 문법교육을 연구하고, 문법지식만을 독자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문법지식을 활용한 화법, 독서, 작문 교육 등으로 연구의 외연을 확장한다면, 국제적 독자들의 관심에도 부합할 수 있는 문법교육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섯째, 문학교육과 관련하여서는 독서교육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관심을 얻을 수 있는 연구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이론적 접근 방법보다 실증적 접근 방법에 입각한 연구를 더 활발히 수행하는 것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인다. 우선, 연구 내용의 측면에서는 특정 문학작품의 특수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는 문학 연구보다는 학습자의 문학 향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 관한 연구나 학습자의 문학 향유 역량을 진단하거나 그 발달 과정을 확인하는 역량·발달에 관한 연구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는 특히 문학 및 문학교육 연구의 성격에 적합할 수 있다고 보이는 질적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면 양적 혹은 혼합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연구 수행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모국어교육에 관한 국제전문학술지인 『L1』과 국어교육의 국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전문학술지인 『국어교육학연구』 영문판에 출판된 최근 논문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비교·대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어교육의 세부 영역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교육 각각의 연구에서 향후 국제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를 판단해 보았다. 국어교육학이라는 큰 바다의 한 귀퉁이에서 활동하는 본 연구자가 국어교육학 전반의 실태를 진단하고 그 국제화에 필요한 미래 과제를 제안하는 일이 결코 마음 편한 일은 아니었다. 어쩌면 이 발표문의 내용 중에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거나 설익은 진단 혹은 제안이 있을 수도 있다. 혹시라도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게 해 드렸다면 머리 숙여 사죄드리는 바이며, 청중의 날카로운 지적과 혜안을 통해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필요한 미래 과제에 관하여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며 발표문에 마침표를 찍고자 한다.

참고문헌

박소희. (2018). Identifying Key Domains and Criteria for the Assessment of K-12 Students' Digital Multimodal Composition: A Literature Review. 국어교육학연구, 53(5), 111-137.

방상호. (2017). A Review of Effective Digital Practices for Improving Literacy

Instruction. 국어교육학연구, 52(5), 121-138.
양수연. 정혜승. 이선영. 유상희. 민병곤. (2018). A Study of the Linguistic Culture of Korean Adolescents: Focusing on the Identity Construction and Power Relationships in Peer Groups. 국어교육학연구, 53(5), 159-196.
이창희. (2020).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Research on Digital Reading : Focusing on Studies in the Field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국어교육학연구, 55(5), 123-148.
장은주. 박영민. (2014). Comparisons of In-service and Pre-service Korean Language Teachers' Writing Assessments Using an Empathizing Task. 국어교육학연구, 49(4), 87-108.
한혜주. (2017). Exploring the Design Patterns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e to Create Multimodal Display Boards in a Classroom Project. 국어교육학연구, 52(5), 37-60.
Araujo, L., Morais, J., & Costa, A. (2013). Assessments of reading comprehension: Different measures, different explanatory variables and achievement.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3, 1-21.
Behrens, U., & Weirich, S. (2019). STIM·MIG: Assessing prosodic comprehension in primary school.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26.
Camps, A., & Fontich, X. (2019). Teachers' concepts on the teaching of grammar in relation to teaching of writing in Spain.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36.
Casteleyn, J. (2019). Improving public speaking in secondary education: Exploring the potential of an improvisation training.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18.
Casteleyn, J., & Vandervieren, E. (2018). Factors determining young adults' appreciation of reading poetry.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8, 1-24.
Colognesi, S., & Niwese, M. (2020). Do effective practices for teaching writing change students' relationship to writing?: Exploratory study with students aged 10-12 years.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20, 1-25.
Kamykowska, J., Haman, E., Latvala, J. M., Richardson, U., & Lyytinen, H. (2013). Developmental changes of early reading skills in six-year-old Polish children and GraphoGame as a computer-based intervention to support them.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3, 1-18.
Kniep, J., & Janssen, T. (2014). Effects of observational learning on students' use of and attitude towards reading and learning strategies.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4, 1-21.
Magnusson, C. G. (2020). Examining the polestar of reading comprehension: One teacher's instruction in one L1 classroom and students' metacognitive knowledge of reading.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20, 1-35.
Martin, J., Sirois, P., & Lavoie, N. (2013). Development of spelling skills in grade 4: Effects of an integrated and differentiated pedagogical approach.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3, 1-25.

McMaster, K. L., Kendeou, P., Bresina, B., Slater, S., Wagner, W. M. J., Butterfuss, R., Kim, J., & Umana, C. (2019). Developing an interactive software application to support young children's inference-making.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30.

Myhill, D. (2018). Grammar as a meaning-making resource for improving writing.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8, 1-21.

Nadeau, M., Quevillon Lacasse, C., Giguère, M. H., Arseneau, R., & Fisher, C. (2020). Teaching syntax and punctuation in French L1: How the notion of sentence was operationalized in innovative didactic devices.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20, 1-28.

Park, S., & Min, B. (2019). Devlopment of a questionnaire to measure reflective attitude toward conversation.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19.

Pinsonneault, R., Fryer, M., & Boivin, M. C. (2019). The mastery of verb agreement in French and its link to the complexity of NPs in students' writing.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18.

Shakouri, M., & Nafissi, Z. (2019). A developmental study of L1 idiom comprehension in Farsi language.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18.

Schrijvers, M., Janssen, T., Fialho, S., & Rijlaarsdam, G. (2016). The impact of literature education on students' perceptions of self and others: Exploring personal and social learning experiences in relation to teacher approach.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6, 1-37.

Tashakkori, A., Johnson, R. B., & Teddie, C. (2021). Foundations of Mixed Methods Research Second Edition: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Los Angeles: SAGE.

van Rijt, J., Wijnands, A., & Coppen, P. A. (2019). Dutch teachers' beliefs on linguistic concepts and reflective judgement in grammar teaching.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28.

Viriot-Goeldel, C., & Crinon, J. (2016). The use of complex reading materials in first grade: Influences on students' comprehension in disadvantaged suburban French schools.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6, 1-21.

Winkler, I. (2020). Cognitive activation in L1 literature classes: A content-specific framework for the description of teaching quality.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20, 1-32.

Witte, T., Rijlaarsdam, G., & Schram, D. (2012). An empirically grounded theory of literary development: Teachers'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on literary development in upper secondary education.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2, 1-33.

Zhu, X., Cai, Y., Fan, J., Chan, S. D., & Cheong, C. M. (2019). Validation of the oral interaction strategy scale for speakers of Chinese as a first language in elementary schools. L1 Educational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19, 1-25.

"국제전문학술지 논문 동향에 비춰본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한 미래 과제"에 대한 토론문

조진수(전남대)

이 발표는 국어교육 연구가 모어교육 연구라는 국제적 담론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단계에 도달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동시에 그러한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를 실증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발표의 내용에 관해 몇 가지 질의를 하여, 발표자가 제시한 미래 과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1.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 방법 차원에서 '자료 수집이 없이 문헌 내용만을 토대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 '이론'이라는 연구 방법이 분석 대상이 된 국내 논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의 논증은 연구 방식 차원에서 특정한 이름을 붙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위 '이론'으로 명명되는 논증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 논증 방식을 갖는 것인지, 이러한 논증 방식이 국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더 선호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주제는 연구, 혹은 좋은 연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 태도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한 번쯤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주제어에 대한 비교 분석도 매우 흥미롭고, 또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에서 워드클라우드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에 대한 해석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문학교육 분야의 경우 "'젠더(gender)', '죽음(death)', '인간(human)' 등 문학작품의 심층적 내용과 연관된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문학교육 연구가 아닌 문학 연구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교육'과 '읽기'라는 공통기반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문학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문학교육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 과정에서 잘 이어가야 할 부분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발표문 말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어교육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3. 코딩 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주셨는데, 코딩 체계를 수립하면서 혹은 자료를 분석하면서 코딩 체계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차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범주가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지요? 예를 들어, 국제적 독자층이 관심을 갖고 읽을 수 있는 논문을 쓴다는 것이 국어교육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글쓰기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령 영어로 썼다 할지라도 그간 국내 독자들을 대상으로 썼던 논문의 장르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현 시점에서 이런 섬세한 차이들을 분석적으로 명명하기 어려워 장르성이라고 일단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만약, 국어교육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논문의 장르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발표자의 의견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